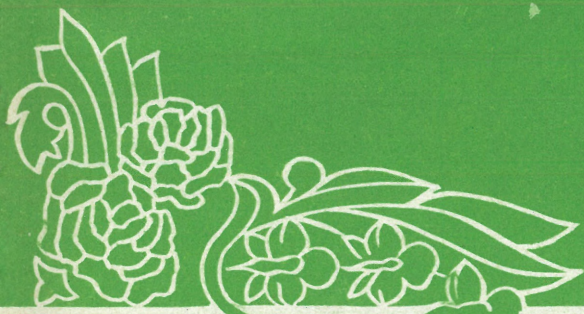
주체적문예리론연구(18)

과학환상문학창작

황 정 상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차　　례

머 리 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우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사상미학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에 있어서 과학환상문학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과학환상문학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문학의 한 형태이라고 하시면서 과학환상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0대에 벌써 잡지 《새 세대》에 실린 과학환상소설들과 《별나라로 가자》, 《속도를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빠짐없이 읽으시고 과학환상문학의 사명과 필요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창작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과학환상을 한껏 펼쳐보이며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8년 9월 6일 중편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의 창작심의에서 나타난 이러저러한 편향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그해 10월 5일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과 그 다양한 형태들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주시였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과학환상소설을 적극 써내는것과 함께 조국통일의 대사변

을 맞이한 앞날의 감격적인 모습을 환상적으로 형상한 소설을 써내며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리상사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된 앞날의 우리 조국의 모습, 자주화된 세계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그려내는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환상문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의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우리 식 과학환상문학창작리론은 작가들이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열쇠로 된다. 최근년간 과학환상문학창작가들이 여러편의 작품을 창작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문학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주체의 과학환상문학창작리론을 지침으로 삼았기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주체적문예리론에 의거하여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체계화하여 해설하면서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서술하였다.

작가들은 과학환상문학창작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과학적세계관형성과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제1장 과학환상문학의 특성과 사상미학적요구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의 인간생활을 보여주는 독특한 《얼굴》을 가진 문학의 한 형태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간들에 의하여 더욱 휘황해질 미래에 대한 동경과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창작실천에 구현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이 독특한 《얼굴》을 가진 문학이라고 하여 문학의 일반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특성만을 살리려고 해서도 안된다.

최근 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문학가들이 문학의 순수성, 고유한 의미에서의 《문학의 표본》이라고, 과학환상문학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계선을 허물고 리념을 초월한 최대의 인기문학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철두철미 주체의 인간학적 원리와 법칙에 의거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나가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과학환상문학의 특성과 사상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품위있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제1절 독특한 《얼굴》을 가진 필요한 문학

1) 독특한 《얼굴》을 가진 문학

과학환상문학은 문학의 한 형태이다. 과학환상문학은 다른 형태의 문학과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상대적인 독자성, 일련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문학의 여러 형태들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예술적수단, 형상적수법의 특성으로 하여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진다.

과학환상문학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문학은 독특한 자기의 《얼굴》을 가진 문학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그 어떤 《특수한 문학》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환상문학도 문학의 일반 원리와 법칙에서 벗어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이 문학의 일반원리에 의거하게 되는것은 과학환상문학도 인간학이라는 사정에 기인한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과 기술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 그들의 생활을 환상적으로 그려낸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앞날에 펼쳐질 형상적화폭으로 그려내며 환상적인 수법으로 일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다.

과학환상문학은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이야기 《21세기 사람과의 담화》와 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을 보아주시고 잘

된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과학환상문학의 특성을 잘 살려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소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환상의 수법을 통하여 보여주는것만큼 과학환상문학의 특성을 잘 살려나갈 때에만 미래에 대한 동경과 사랑의 정신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현재에는 실현될수 없는 최첨단기술수단들이 련이어 개발될 미래의 생활을 묘사하는 《특수한》 문학이다.

과학환상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간과 그 생활을 환상적형식으로 그려내며 환상세계를 기본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환상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체험해본 일이 없는 사물현상에 대하여 그려보는 인간의 의식활동을 말한다.

환상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람에게 고유한 사유형식의 하나이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고있는 사람은 현실에 있는 사물현상들을 인식하고 파악할뿐아니라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 사물현상에 대하여 상상해내는 능력을 지니고있다. 환상은 의식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고유한것이며 환상의 사유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은 새것을 창조해내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개조변혁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는 인간의 활동과 투쟁은 환상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

예술적환상의 사유능력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활동과 투쟁을 제대로 진행해나갈수 없다.

예술적환상은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창작에서 필수적요구로 되고있다.

예술적환상의 사유능력이 없는 사람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

환상의 도움으로 작가는 인간과 그 생활을 자기의 미학적리상에 비추어 그려내게 되며 그 화폭도 훌륭히 형상하게 된다.

이처럼 환상은 문학작품창작의 필수적요인으로, 형상창조의 수단으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환상은 형상창조의 수단으로 될뿐 아니라 환상세계를 얻어내게 한다. 이점에서 과학환상문학은 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환상이 가치있는 발명의 시초로, 단서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것처럼 문학작품창작에서 환상은 예술적형상창조의 수단으로 된다.

작가가 현실속에서 종자를 잡는 과정과 종자를 잡아쥔 다음 형상을 꽃피워나가는 과정은 끝없는 창작적사색과 열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과정에 작가는 종자를 파악하게 되며 창작적구상을 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 작가는 창조적 상상력과 환상을 끝없이 발양하게 되며 필요한 예술적허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환상의 사유형식을 빌어 예술적형식을 받아들이며 예술적형상을 창조해내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문학과 뚜렷이 구별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는 종자를 잡는 과정과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는 과정이 환상으로 추동되며 인물성격과 생활사건 등 모든 형상요소들이 환상세계에서 재구성, 재창조되여 독특한 형상체계를 이루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과 기술을 인간생활의 견지에서 그것도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을 거쳐 미래와 련결시켜 사람들의 리상과 희망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 간단히 말하여 《오늘》속에서 《래일》을 탐구하여 화폭으로 보여준다.

과학환상문학에 반영되는 과학환상적내용이 아무리 기발하고 독특한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긍정과 지지, 례찬으로 충만된 환상적화폭을 훌륭히 펼쳐나갈 때 강렬한 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은 아직 탐구되지 못한 자연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생활을 현실속에서가 아니라 앞날에 펼쳐질 환상세계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여태껏 모르고 있던 자연의 여러 분야에로 침투하는 길, 자연정복의 길로 인도할뿐 아니라 그속에서 발현되는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과학환상문학이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 변혁하는 창조적힘을 발양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근거있는 환상을 활용하여야 한다.

환상이 실재하지 않는것이라고 하여, 작가의 창조적상상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세계이라고 하여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것은 아니다.

생활을 떠난 환상은 진실하고 가식없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없게 한다.

이로부터 과학적환상이 가져야 할 요구가 나서게 된다.

과학적환상은 진실성을 생명으로 한다.

환상이 작품의 형상세계를 이룬다고 해서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제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환상세계를 꾸며내거나 펼칠수는 없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환상은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여 생활의 본질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생활에 발붙인 과학적환상이여야 한다.

근거있는 과학환상속에서 각이한 인간의 전형을 진실하게 그려낼 대신 환상을 작가가 머리속에서 아무렇게나 꾸며내게 되면 그 환상은 허황한것으로밖에 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생활속에서 탐구되고 축적된 지식, 과학적 가설과 세계 과학발전추세에 기초하여 환상을 펼치고 그속에서 생활론리에 맞게 인간의 성격과 생활화폭을 창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학환상문학이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 변혁하는 창조적힘을 발양시키는데 기여할수 있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적인 환상, 다시말하여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인 상상의 힘이 없이는 과학의 장래를 그려볼수 없으며 과학자체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사실주의적인 과학환상문학은 과학적인 환상에 의거하고있다.

사실주의문학이 의거하고있는 과학적인 환상은 허황한 망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 과학적인 환상은 현실에 발을 붙인 상상을 본질적내용으로 기본특징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환상은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이 작품에서 근거있는 과학적환상, 현실에 발붙인 상상을 펼쳐보임으로써만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과학탐구에로 적극 이끌어갈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과학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할수 있다.

우리 식의 과학환상문학은 근거있는 과학환상을 펼쳐보이는것을 기본요구로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종래의 과학환상문학이나 부르죠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과학환상문학에서 취급하고있는 막연한 과학환상, 아무런 생활적타당성도 없는 흥미본위의 《과학환상》과 구별되는 우리 식 과학환상의 본질적차이가 있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적가설에 기초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환상의 세계를 넓혀 이 세상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새것을 설계하며 이미 알려져있는 사물의 부분들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생활에 아직 없는 새로운 사물의 형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물들의 개별적인 측면들은 현존하며 그것의 외형과 사물은 다 알려져있는것이기때문에 이 새로운 환상적인 기구, 기계의 형상은 그 새로운것들중의 일부분을 알고있는탓으로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과도 같이 그것을 상상에 의하여 재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예견, 예측의 필수불가결적인 구성부분으로서의 환상은 과학환상문학의 생명이며 과학환상문학의 성격과 그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환상세계를 펼쳐보이며 환상자체를 기본형

상요소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과학환상문학은 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과학환상문학이 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특성은 다음으로 과학기술적내용을 인간문제에 해소시켜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과학기술적내용을 동반하고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활동과 생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을 그리는것을 기본형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점에서 과학환상문학은 문학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과학기술적내용과 과학자, 기술자의 생활을 취급한다는것은 그것을 인간문제로 구현하여 형상으로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은 일반 과학기술서적에서처럼 론리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실현되며 작가자신의 주견과 판단에 의하여 재가공된 작가의 환상에 기초한것이다.

과학기술적내용은 과학환상작품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기술적내용을 떠나서는 과학환상문학을 론할 여지조차 없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과학환상문학에 흥미를 가지는것은 그들이 습득한 물리, 수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천문학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리물리학, 생물공학, 극소형반도체공학분야 등의 흥미진진한 과학기술적내용이며 또한 과학기술내용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주인공의 활동과 투쟁이다.

과학환상작품들에서 과학기술생활이 전면에 취급된다고 하여 과학기술생활을 제기하고 해명한 작품들이 다 과학환상작품으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기술적문제를 다룬 작품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과 활동을 전면적으로 형상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김수경),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리규태), 장편소설 《념원》(백철수) 등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과학기술생활을 전면적으로 취급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는것은 현시기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과학기술생활을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을 과학작품, 과학소설 등으로 명명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과학기술생활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였거나 실현되여가고있는것으로 형상화되고있다. 과학환상문학에서는 과학기술생활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였거나 실현되여가고있는것으로 형상화되는것이 아니라 앞날에 실현될 과학기술생활을 상상의 힘으로 설정하고 환상적형식속에 예술적으로 그려진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과학기술세계, 현시기 인간들이 상상하고 념원하는 과학기술생활들이 제기되고 예술적으로 해명된다. 현실적으로 실현되였거나 실현되고있는 과학기술생활이 아니라 미래에 가서 실현될 과학기술생활을 그려낸다는데 과학환상문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이 점에서 과학기술생활을 취급한 다른 문학작품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의 과학기술세계를 펼쳐보이는 문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는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의 통속적인 서술, 이러저러한 기구, 기계, 자동화설비의 구조작용원리들에 대한 설명이 예술적묘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주어진다.

과학환상적인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작품에 설정된 환상적인 가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론증으로서, 직관적인 증시로서 나타나며 그 과학적가설은 객관적인 자연법칙들에 의거하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과 《탐구》에서 취급된 환상적인 과학기술적내용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에 서술된 과학환상적내용인 에네르기마당에 의한 지각운동을 일으켜 서해바다밑의 광대

한 땅이 일시에 물우에 떠오르게 하는것은 지구물리학의 법칙들에 기초하고있으며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大一촉매물질에 의한 물의 수소분리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에네르기를 개발하는 문제는 전자공학과 화학공학의 법칙들에 토대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보더라도 취급된 과학적인 가설들은 객관적인 자연법칙들에 의거하고있다.

이전 쏘련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상전의 추방》과 《북방의 방파제》들에서 수중작업의 곤난성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내용들은 빙산의 이동론에 기초하고있으며 1923년에 창작된 아. 엔. 똘스또이의 장편과학환상소설 《아엘리따》와 1940년에 발표된 아. 벨랴예브의 장편과학환상소설 《계쯔성》은 우주비행 및 항공력학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에서의 과학기술적내용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탐구욕을 높여주어 과학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무기로, 수단으로 되게 한다.

이 무기와 수단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적내용이 자기의 생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힘있고 위력한것으로 된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의거하면서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것, 다시 말하여 현실생활에 튼튼히 발붙인 과학환상적내용을 구현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발휘할수 있도록 추동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는 과학기술적내용을 결코 배제할수 없다. 만약 그것이 홀시되거나 무시된다면 그 작품은 과학환상문학작품이라고 말할수 없다.

의의있는 과학환상적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담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과학환상문학의 가치가 규정되며 그것을 풍만한 형상으로 어떻게 꽃피웠는가 하는데 따라 작품의 품위가 결정된다.

과학환상문학은 이처럼 의의있는 과학기술적가설들을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최첨단기술개발과 과학탐구에 매진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에서도 산 인간을 보여주어야 하며 과학기술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관계, 인간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일반문학과는 달리 새로운 과학기술의 령역을 개척해나가는 어려운 투쟁을 반영하며 과학탐구를 위한 피타는 노력으로 일관된 생활을 그려야 하므로 긴장한 생활정황이나 생산문제가 인입되는것은 필수적이다.

생산에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의의가 크다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기술적내용이 과학환상문학의 기본묘사대상으로 될수는 없다. 과학환상문학에서는 과학기술내용보다 사람을 그려야 하며 과학기술탐구 그자체가 아니라 과학탐구를 하는 사람을 그려야 한다.

자연의 주인은 사람이며 생산을 내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다.

과학환상문학은 바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기본묘사대상으로 하고 사람과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과학환상문학에 묘사되는 모든 대상, 현상들은 오직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 때에만 의의가 있다.

과학환상문학이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예술적형상의 형식을 통하여 반영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생활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개성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과학기술생활과 그 담당자인 인간들을 과학환상의 예술적형식으로 보여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개념과 법칙, 론리 등 추상적방법에 의하여 현실을 반영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사회적기능을 수행한다.

철학이나 력사학, 륜리학 등은 다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분야들이지만 산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이 아니라 합법칙성을 일반화된 리론의 형식으로 반영한다.

물론 철학이나 력사학 등 사회과학은 추상화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생동하고 구체적인 자료, 실례들을 가지고 합법칙성과 론리적귀결을 실증할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아무리 생동하고 구체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그자체를 보여주는데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리론적일반화에 필요한 과학적론증자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환상문학은 추상화된 리론으로써가 아니라 산 사람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생활의 진리를 보여준다. 과학환상문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인 구호로써는 아무런 인식교양적역할도 놀지 못한다.

오직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보여줄 때에만 독자들의 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바로 과학기술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개성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과학환상문학에서의 생활반영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과학환상문학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객관적현실의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적환상세계를 펼쳐보이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환상적화폭을 통하여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기때문에 과학환상문학은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생동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반영한다.

독자들은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통하여 주인공들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이 받아들이며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이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환상적인 생활을 반영한다는것은 또한 그것을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려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은 개념, 법칙, 정의, 정리, 공리 등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론리적으로 인식되지만 과학환상문학은 그와는 달리 환상적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사람들에게 감정정서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과학환상문학이 과학기술적내용과 밀접한 관계속에 있기는 하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사색하게 할뿐아니라 흥분시키고 격동시키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환상문학이 과학기술적내용을 반영한다고 하여 과학인식적문제를 해명하는것을 위주로 하고 인간문제를 차요시한다면 그것이 과학탐구일지나 인식과정사로는 될수 있어도 문학작품으로는 될수 없다.

자연현상과 과학지식에 대한 인식적기능을 떠나서는 과학환상문학의 존재에 대하여 론할 여지가 없는것만큼 과학환상문학에서 인식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연과학교과서에서처럼 론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형상의 《옷》을 입은 인식으로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의 련관속에서 통일적인 전일체로 고찰하게 된다.

때문에 과학환상문학에서는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과학기술적가설들을 인간생활, 과학기술생활속에 용해시켜 생동하고 구체적으로 그릴뿐아니라 다양하게 그려야 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반영하며 인간들의 성격을 형상하는 문제와 관련된것으로서 인간학의 기본요구를 실현하는 조건으로 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을 새로운 과학기술세계로 이끌어가며 그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오를수 있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 독특한 형태의 문학이다.

과학환상문학에는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예술영화문학,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과학환상우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환상은 주로 신화, 동화에 머물렀다.

그러나 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과학환상소설과 과학환상이야기, 과학환상동화가 창작되기 시작하였고 최신과학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따라 과학환상문학도 왕성한 발전의 일로

를 걷게 되였다.

과학환상희곡, 과학환상시, 과학환상가극문학, 과학환상무용이야기 등 새로운 예술적형식들이 탐구되고 발전하였다.

여기서 과학환상소설은 다른 형태의 과학환상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감화력을 가지고 인식교양적의의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환상소설문학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학상문제들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것은 과학환상동화와 과학환상영화문학을 창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과학환상동화는 과학적환상을 그 형상의 고리로 하며 그것을 인식문제의 추구에 리용하는 동화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작품은 무엇보다먼저 동화로 되여야 한다.

동화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동화의 기본형상수단인 동화적환상에 의거하여 과학환상도 동화적환상의 예술적높이에까지 승화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을 동화적환상의 예술적높이까지 승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환상소설에서의 과학환상문제에 토대하여 그와 구별되는 동화적환상을 위한 과학환상을 취사선택하여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이것은 과학환상영화문학인 경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영화문학과는 달리 과학환상영화문학인 경우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없고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와 그들의 행동과 생활화폭을 조형적으로 그려낸 지문만이 있으므로 과학환상을 직관적인 묘사로, 그것이 기본형태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전개되는 사건과 인물들의 성격과 작품의 사상이 스스로 전달되도록 예술적가공을 잘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독특한 《얼굴》을 가진 문학으로서의 과학환상문학이 자기의 특성을 옳게 살리며 그 예술적형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만 독자들의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과학환상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능과 사명을 다할수 있다.

2) 과학발전에도 문학발전에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최첨단기술이 적극 개발되는 오늘의 현실은 품위있는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하며 그 창작의 범위를 넓혀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적환상은 과학자나 작가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며 과학적인 환상, 탐구적인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책들도 많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과 탐험기 같은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과학적인 탐구심을 키우는데 좋은 량식으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무엇보다먼저 근로인민대중의 과학적세계관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과학지식을 넣어줌으로써 그들의 과학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수립의 기초라고 하시면서 과학지식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규제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적세계관이 의식발전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형성공고화되며 그 합법칙적단계가 과학지식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과학적세계관수립과 과학

지식습득의 호상관계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무장시키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사람들이 인류가 수천년동안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우는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문학의 기본과업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도 여기서 례외로 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과학적세계관수립에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과학적세계관확립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문학이 과학적세계관수립의 요구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이며 전일적인 견해가 이루어지게 하기때문이다.

객관세계의 전일적인 면모와 그 변화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는것은 세계관자체의 기본사명이며 이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지식의 체계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지식이 세계에 대한 전일적견해의 전제로 되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개별적인 사물현상들에 대한 과학지식에 기초하여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주는 일반적인 지식이 형성되기때문이다.

일반적인 지식은 현실세계의 개별적사물현상들과 대상들에 대한 지식을 일반화할 때 얻어진다.

현실세계에는 일반적인것이 개별적인것속에 포함되여있으며 일반적련관은 개별적인 사물현상들에 대한 개별적지식들을 비교하

고 추상화, 일반화하여 얻어진다.

일반적인 지식의 이런 특성으로부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를 주는 세계관적인 지식은 주위세계의 수많은 현상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에 기초하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화학, 생물학, 수학, 물리학, 우주공학, 항공력학, 지질학, 지리학 등 자연과학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에 기초한 세계관적지식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를 준다.

개별과학지식에 기초하여 가장 일반적인 지식이 형성된다는것은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이 잘 보여준다.

인식과정은 개별적인것으로부터 일반적인것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인식활동을 통하여 개별적인 지식으로부터 일반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과학환상문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전체로서의 주위세계와 맞다들며 질적으로 구별되는 자연과 사회의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을 형상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독자들은 과학환상문학작품에 그려지는 각이한 대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외부적인것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내적인것에로 침투하며 현상의 배후에 깔려있는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 그려진 대상에 대한 지식은 그 대상과 류사한 다른 대상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옳게 밝혀내기 위한 기초로 되며 여러 사물현상들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보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한 토대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창작된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얻어진 지식은 선행단계의 지식보다 정확하고 완성된 지식으로 심화되며 인식령역도 보다 포괄적인것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결국 자연과 사회에 대한 더욱더 완성된 전일적견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지식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이루어지게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는 사람의 사회적측면과 자연적측면,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의 측면들을 연구하는 개별과학지식을 줌으로써 사람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리해를 가지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련관의 개별적측면들을 밝히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개별과학지식을 가지는것은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련관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지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과학지식을 깊이있게 소유하여야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있다는 철학적리해를 확고한 과학적토대우에서 가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사람과 주위세계의 련관에서 기본적인 측면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이 주위세계와 맺는 련관이라는것을 옳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또한 작품에 반영된 과학지식에 기초하여 주위세계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준다.

대부분 자연과학은 주위세계의 각이한 령역과 사물현상들을 대상으로 그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낸다.

물체의 변위의 법칙, 원자의 운동법칙, 산 유기체의 운동법칙 등 주위세계의 개별적사물의 운동법칙속에는 그 운동들에 관통되여있는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이 존재한다.

이 일반적인 법칙은 개별적인 법칙과 동떨어져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그 과정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작용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반영된 개별적사물이 운동발전하는 합법칙성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위세계가 운동발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취급된 자연과 사회의 각이한 사물현상들에 대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주위세계의 면모,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옳바른 전일적견해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은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인 사람과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줌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

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을 주며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물질세계의 전일적인 면모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세계관적견해를 가질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학환상문학이 과학적세계관수립에 이바지하는것은 둘째로,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반영된 과학지식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변혁할수 있게 하는 힘으로 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세계관에 의하여 제시된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를 주는 가장 일반적인 지식의 체계일뿐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의 체계이다.

과학환상문학에서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변혁하는 기초로 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과학적세계관은 방법론상 두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사람들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객관사물의 리치를 인식하고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대상을 다루는것이다.

이 두 측면은 다같이 과학지식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주위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는 사람의 능력과 우위성을 밝혀주는 과학지식을 담을뿐아니라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이 법칙적으로 존재하며 운동한다는 과학지식을 형상적으로 담고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외부세계를 개조, 변혁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실천활동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지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전일적견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방법을 가지는 기초로 되는것으로 하여 과학적세계관

수립에 이바지한다.

현시기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한계단 더 끌어올리는 사업에도 이바지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과업이다.

우리 당은 이 력사적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에 힘을 넣어 최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반적공업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 나라의 경제력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였다.

과학환상문학은 인물들의 과학탐구생활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주인공처럼 살며 일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지를 개척해야 하겠다는 의욕과 자각을 가지게 한다.

오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과학환상문학앞에 중요한 과업을 내세우고있다.

훌륭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속에 거대한 침투력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을 과학탐구의 새로운 령마루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한다.

과학환상문학은 또한 작품에 반영된 근거있는 환상적내용으로 해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탐구적인 착상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과학적발견이나 기술적개발을 하도록 고무추동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과학환상소설을 많이 창작하여 출판하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도움을 줄것이며 앞으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떠메고 나갈 새세대 청소년들에게 과학환상력을 크게 키워줄것입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청소년들의 과학환상력을 키워주며 그들로 하여금 환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학환상문학이 발전해온 력사를 놓고보아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반영된 환상적내용이 창조물로 현실화된 과정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프랑스의 이름난 과학환상소설작가인 쥴 베른이 자기의 작품 《바다밑 20만리》에서 처음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물속을 다니는 배에 대하여 형상하였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현실화할수 없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때로부터 몇십년 지나서 쥴 베른의 환상은 잠수함으로 출현하였다. 많은 과학환상소설들에서 태양에네르기자동차에 대해 신비롭게 묘사했던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여 1984년 7월 29일에는 제1차 구라파 태양에네르기차경기대회까지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도 근거있는 과학환상이 현실로 꽃핀 례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수 있다.

이렇듯 과학환상문학은 그 사상예술적특성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당의 과학기술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교양적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적안목과 지식을 넓혀나가는데서 커다란 인식적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추동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은 또한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우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활짝 피여나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러가지 문학형식을 통하여 생활을 여러모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세계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현실과 미래에 펼쳐지게 될 풍부하고 다양한 인간생활은 형식의 일률성과 류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활자체가 제기하고 암시하는 예술적형식, 오직 그 형식만이 작가의 미학적리상과 사상적의도를 가장 적중하게 효과적으로 담을수 있는 그러한 예술적형식으로 된다.

그 형식을 찾아낼 때에만 내용의 심오성과 진실성이 담보될수 있고 예술적형상도 참신한 맛이 풍길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는 현시기 과학환상문학은 산 인간들과 그들의 과학기술생활, 정치도덕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생활을 환상의 나래를 펼쳐 진실하게 담을수 있는 예술적형식이다.

과학환상문학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대상의 령역을 넓히는 문제가 중요하다.

과학환상문학은 청소년들만을 위하여 창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동으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읽고있으며 또 읽어야 한다.

문제는 각이한 독자대상에 맞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의 화원을 활짝 꽃피우는데 있다.

학령전 아동이나 인민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과학환상동화극이나 과학환상만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이 적당하며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희곡작품 등이 애독될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성인들에게는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과학적론리가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장중편 과학환상소설들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과학소설, 과학영화문학, 과학실화문학, 과학동화 등 이미 달성한 최신과학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취급한 문학작품들의 가치와 그 인식교양적의의를 일층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과학기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작품들, 과학문학작품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과 과학기술생활을 반영하고있는 예술적 형식들로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앞날에 가서 실현될 과학기술적내용들을 인간성격을 통하여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준다면 과학문학작품들은 현시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리용되고있거나 또 도입되고있는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그것을 직접 다루고있는 인간의 성격들을 통하여 구체성을 가지고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따라서 과학문제를 취급하는 문학작품이라는 사정은 이 두 형식의 호상 긴밀한 련계를 조건지어주고있다.

즉 과학환상문학작품은 과학문학작품에 반영된 최신과학기술성과와 그 전망에 토대할 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과학문학작품은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의 형상수법들을 자기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좋은 창작적수확을 거둘수 있다.

이밖에도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기술문제를 취급하는 현실주제물문학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주체문학의 화원을 풍만하게 꽃피우는 하나의 독특한 향기를 가진 문학의 꽃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는것이다.

혁명적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는 특히 현시기 국제적으로 과학환상문학분야에 심하게 나타나고있는 수정주의 및 부르죠아반동조류들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부르죠아반동문예조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사회주의문학의 혁명적본성, 그 계급적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철두철미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전투적인 문학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그 어떤 사소한 부르죠아적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당성, 로동계급성이야말로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다.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이 《초당성》, 《무계급성》의 구호를 들고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거세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는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과학환상문학의 특성을 운운하면서 과학환상문학에는 당성, 로동계급성이 없으며 있어서는 안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놈들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반동적인 부르죠아 과학환상작품들을 퍼뜨림으로써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의 당성과 로동계급적성격을 흐리게 하고 그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과학환상문학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 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혁명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사상문화적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공세와 침투로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쌓게 된 현정세는 우리 과학환상문학을 비롯한 문학예술분야에서 부르죠아반동사상이 잠시도 발붙일곳을 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다그치는 한편 우리와 같이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을 일반문학예술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의 수단으로 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을 침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정신과 계급적각성을 무디게 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한편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자체를 병들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소설, 영화 등에서 자유분방한 환상의 수법을 악용하여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혁명적기세를 꺾어보려고 한다.

더구나 제국주의앞잡이들인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이 소동에 발맞추어 부당하게도 환상문학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인 견해를 선전하며 특히는 청소년들을 타락시켜 그들의 혁명투쟁을 거세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환상문학작가》는 머지않아 사람보다 더 《지각있는 우수한 자동기계》들이 나타날것이라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떠들어대고있으며 그런 기계들이 도처에서 사람들을 구축하여 실업자와 거지로 만들게 될것이라고 부르짖고있다.

그는 자기의 《과학환상소설》에서 이런 괴상망측한것을 그대로 쓰고있다.

그의 《작품》에 의하면 탄광에서 일하던 자동기계들이 사람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자》들은 《인간성》이 조금도 없는 기계들이여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사람들은 기계보다 《못하기》때문에 점차 자기의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탄마구리속에 기여들어가 마지막 운명의 시각을 기다린다.

이렇게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되며 때문에 작가는 《국민제씨

들이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만류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시기는 바야흐로 도래하였다.》고 새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기에는 놈들의 과학기술만능주의의 반동적본질뿐아니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공포가 력력히 드러나고있다.

이러한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해처럼 인간의 넋을 마구 흐리게 하고 있다.

영국과학환상예술영화 《콩가》는 생물학교수가 육식성식물에서 빼낸 세포액을 주입시켜 단 몇분내에 침판지를 2~3배로 크게 만드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있다.

데크교수는 식물학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야심을 품고 큰 고기덩을 던져주면 잘 훈련된 개처럼 덥썩덥썩 받아먹는 《잎》을 가진 육식성식물을 개인실험실에서 남몰래 재배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식물에서 세포액을 뽑아 주사하여 침판지—《콩가》를 크고 사납게 만들며 그것을 리용하여 자기의 적수들을 감쪽같이 살해한다.

데크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의 연구론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물론 그와 개인적알륵관계에 있거나 그를 릉가하는 학자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콩가》에 의하여 가차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다.

데크박사는 자기 《지시》에만 복종하도록 《콩가》에게 주기적으로 자극성빛을 쪼이고 세포액을 주사하여 나중에는 5층짜리 고층건물보다 더 크고 사납기 이를데없는 《콩가》를 만든다.

《콩가》는 하늘을 찢는듯한 울부짖음으로 온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며 네거리를 활보하는 그의 발길에 채워 고층살림집과 극장, 병원 등이 물먹은 토성처럼 무너진다.

그리하여 문명을 자랑하는 수천수만의 런던주민들은 아우성을 치며 《콩가》를 피해 이리 밀리우고 저리 밀리운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뻐스를 타고 고속도로 내빼려 하나 한걸음에 수십메터씩 내짚는 《콩가》의 속도를 당해낼수 없어 무시무시

한 발바닥에 무참히 깔려죽는다.

과학환상장편예술영화 《풍가》의 작가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데크박사의 말을 통하여 공공연히 뇌까리는것처럼 《과학에서 인간은 하찮은 물건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간멸망의 반동설을 부르짖고 있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인간철학의 제창자들과 합세하여 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인간의 개성적특이성, 자유, 인격이 상실되는것과 같은 《현대의 정신적상황》, 《소외》적현실이 전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술의 《지배》의 결과 이루어진것이라고 뇌까리고있다.

말하자면 기술에는 인간에게 《기계의 성질》을 부식시키는것과 같은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것이며 기술적진보와 《기술의식》의 확대에 따르는 생산과 관리,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합리화》는 인간의 위기를 촉발시킨다는것이다.

그들은 《기술은 인간의 벗인가, 원쑤인가?》라는 문제아닌 문제를 작품에 제기하고 《인간과 기술의 비극적상봉》에 대해서 떠들며 과학기술이 인간에게서 인간적인것을 빼앗은 가장 위험한것이라고 뇌까리였다.

어떤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오늘 서방세계에 《인류위기설》이라는 괴이한 잡설이 퍼지고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거기에 무슨 새로운것이나 있는것처럼, 거기에 과학환상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만한 주제가 있는것처럼 떠들면서 공해위기에 대한 《작품》을 마구 써내고있다.

그들은 최근에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그와 함께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공해로 하여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균형이 헝클어져 《생리적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인류는 조만간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고 쓰고있다.

말하자면 공해위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숙명이며 따라서 문명의 지나친 발달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다만 시간문제이라는 악설을 등장인물의 대사와 성격형상을 통하여 류포시키고 있다.

또한 어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나 식량생산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원료 및 동력 위기가 날로 심각화되는것은 필연적이라고 하면서 100년내외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아우성치는것을 그린 작품을 《걸작》으로, 앞날을 정확히 그린 《작품》으로 떠벌이고있다.

《인류위기설》을 제창하는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핵전쟁에 의한 인류의 멸망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며 제3차세계대전에 대한 《과학환상소설》을 부피 두껍게 써내는가 하면 여러가지 과학환상문학형식을 통하여 핵전쟁의 불가피성과 그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력설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대국들이 가지고있는 핵무기의 파괴력으로 말하면 지구를 몇번이고 초토화할수 있을 정도인데 인류는 핵전쟁에로 줄달음치는 정세발전을 가로막을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필연코 자기가 만들어낸 수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고 설교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이 작품에서 주장하는 궤변은 사람들의 정신적타락도 공해현상도 과학기술이 발전된 결과이며 식량위기도 의학의 발전에 의하여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인구가 급격히 장성되였기때문이라는것, 핵전쟁의 위험도 과학이 발전하게 되여 핵무기생산원가가 낮아졌기때문이라는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인류의 《위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야기되는것만큼 인류의 《파멸》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다고까지 뇌까리고있다.

즉 오늘날 인간은 자기가 창조해낸 현대문명을 감당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이며 자기 창조물의 중압에 질식되여 필연코 멸망하게 된다는것이다.

심지어 실용주의에 물젖은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인간이 살수 있는 사회의 마지막에 온듯한 절박감》을 가지게 한다느니, 《21세기의 위기》니, 《력사의 종말》이니 하고 작품에서 떠들기까지 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현대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인류위기설》을 대대적으로 퍼뜨림으로써 인민대중들로 하

여금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져 미래에 대한 신심을 잃고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투쟁의욕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이밖에도 주관관념론철학의 미국식변종인 실용주의철학을 《리론적바탕》으로 하고있는 실용주의과학환상문학에서는 근친상간, 동성애, 변태성욕, 학대음란증 등 부화방탕한 생활을 반영하고있으며 과학기술수단으로 무장된 강도, 깽, 협잡군, 불량배, 폭행자 등 인간쓰레기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하고있다.

실용주의에 물젖은 과학환상문학창작가들은 장편급 《작품》들에서 미래의 사람들이 평화적로동에 종사하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위하여 헌신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먼 별나라에 사는 주민들에게 화학로케트, 원자로케트, 플라즈마로케트, 이온로케트뿐아니라 광량자로케트에 살인폭탄을 실어 발사하는 등 류혈적인 전쟁을 벌리며 변태성욕에 물젖은자들이 다른 별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곳 부녀자들을 겁탈, 륜간하는 따위의 동물적인 만행들을 되는대로 써내고있다.

이 모든 현대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들은 어느것이나 다 례외없이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을 퍼뜨리려는 립장과 태도를 반영하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부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낡은 미학관과 결합되여 로동계급의 과학환상문학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기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조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사상독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관철하여 우리 문학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과학환상문학분야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과학환상문학건설에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우리는 수정주의자들이 문학예술분야에서 감행하는 교활한 책동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죠아사상과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언제나 혁명적인 언사로 위장하고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문학예술부문, 특히 과학환상문학분야에서 부르죠아사상과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과학환상문학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접근시키고 공존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사실주의 창작원칙들을 거세하고있다.

이른바 《공인》된 과학환상소설가들이라는 수정주의에 물젖은 창작가들은 《과학환상문학제일주의》를 내걸고 예술지상주의를 복귀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가 거세되고 《창작의 자유》가 허용됨으로써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작품들과 순수한 사랑, 모성애, 우정 등을 취급한 무사상적인 과학환상작품들이 공공연히 창작발표되고있다. 사람의 두뇌를 짐승의 대가리에 이식함으로써 그 짐승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따위의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하여 작은 형식뿐아니라 큰 형식의 작품들에서도 계급적성격을 거부하고 무사상성을 설교하고있다.

수정주의에 물젖은 창작가들은 자연과학에는 정치와 사상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자연과학발전에 토대하여 그 리론과 실천에 기초를 두는 과학환상문학은 응당 무당성, 무계급성을 띠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실지에 있어서 《인도주의》구호밑에 무당성, 무계급성, 투항주의로 일관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마구 써낼뿐아니라 그러한 작품을 시대의 전형을 보여준 작품으로, 전 인류적인 의의를 가지는 걸작으로 높이 평가하고있다.

이와 같이 현대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이나 수정주의적과학환상문학이나 다 과학환상문학의 고상한 혁명적사명을 배제하려는 위험한 독소로서 응당 타매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인 과학환상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철두철미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이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그 어떤 사소한 부르죠아적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우리의 모든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우리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활짝 꽃피우는 길에서 근거있는 과학환상을 한껏 펼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 과학기술력사를 해명하는 과학탐험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인 현대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가들의 반동적책동을 폭로분쇄하는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제 2 절 과학환상문학발전에 대한 력사적고찰

주체적문예리론에 기초하여 창작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이전시기 각이한 사회에서 창작된 과학환상작품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작품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이다.》(《영화예술론》, 1폐지)

우리의 과학환상물주제의 작품도 주체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것으로서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는 공산주의인간학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유일한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다.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그들을 고무하며 《인류위기설》, 《생명이 없는 기계와 동물과 인간사회의 공통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끼베르네찌까론(자동조종론)제창자들의 반인민적, 반동적 책동으로 비관과 염세, 허무에 잠겨있던 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래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안겨주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과학환상문학사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고있다.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이 과학환상문학사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이전 시기 과학환상문학이 가지고있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과 창작가들의 세계관적 및 창작방법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한 문학이기때문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은 일정한 과학발전과 문화를 가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각이한 력사적단계를 거쳐 창작되였으며 해당 시기 문학과 함께 존재하여왔다.

세계 과학환상문학사를 펼쳐보면 과학환상문학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발전하였다.

자연과학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장성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새로운 방법인 실험과 수학적분석도 발전된 15~17세기의 현대과학의 발생, 18, 19세기의 개별과학의 발전, 20세기의 물리학과 생물학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단계를 거쳐왔다.

자연과학의 상승적인 발전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더 높이 도약할수 있는 공간들을 모색하였고 그 하나의 방도로서 과학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과학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나 그림, 그

리고 책들을 요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17세기초에 앞날의 과학발전에 대한 예상과 예측을 전달하는 과학환상이야기식의 형태로 과학환상문학의 첫 맹아적싹이 나타났다.

17세기 하반기에 기상학의 창시와 원자설 및 천문학의 발전, 현미경의 출현과 새로운 미립자세계의 발견, 행성들의 운동과 인력에 관한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작가들이 제나름의 《환상》을 펼치게 되였다.

이 환상들은 처음 구두로 전달되여왔으나 보다 광범한 대중의 요구와 사회적관심으로 학자들과 문필가들에 의하여 지면에 옮겨져 많은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고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출현한 과학환상이야기는 오늘날의 과학환상이야기의 체모를 갖추기에는 너무나도 질적차이가 있었으며 과학환상의 높이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먼것들이였다.

과학환상문학의 첫 형태는 18세기에 들어와 나타났다. 이 시기는 과학환상문학이 새로운 산업문화와 분리할수 없는 부분으로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확증하거나 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7세기에 작성된 실험과학의 새로운 방법은 모든 분야에 파급되여야 하였으며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생산수단에서의 획기적인 변혁이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이 시기 증기기관과 태고로부터 사용하던 목탄대신에 석탄으로부터 얻은 코크스에 의한 철생산방법이 처음 도입되고 열과 에네르기의 리용, 기계제작과 전기 및 자기에 대한 연구, 화학, 생물학의 발전은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인간들의 정신령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람들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그 탐구에 대한 욕망으로 불타게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계들의 생산물인 대포알을 타고 달나라를 려행하며 철로 만든 배를 타고 남극을 통과하는것과 같은 환상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작품들이 출현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가 비등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보다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귀족들이 영국에서와 같이 자기의 령지를 가지고있지 못하고 궁정의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돌아가고있었으며 그들의 일부가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였다는 사정과 다른 한 측면은 프랑스에서 행정적인 직업과 법률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의 지도를 받고있었던 신흥부르죠아지가 체험하고있는 사업상 형편으로부터 오는 불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당시 과학은 일종의 류행이기도 하였으며 혁명이기도 하였다.

과학애호가들인 자연철학자들과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나라의 정치경제적발전을 심히 구속하고있는 프랑스의 연구기관들을 비판하였으며 과학연구에 전력을 다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 나타난 19세기 프랑스의 이름있는 과학환상소설가인 쥴 베른은 (1828~1905년) 과학이 급격히 발전하는데 주목을 돌리고 공중으로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이야기인 《기구를 타고 5주일》이라는 과학환상소설을 34살때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그후 쥴 베른은 《땅밑려행》, 《달세계려행》, 《80일간의 세계일주》, 《열다섯살의 소년선장》을 비롯하여 거의 80편의 작품을 써내여 과학환상소설의 시조라고까지 불리우게 되였다.

베른의 과학환상소설가운데서도 1869년에 쓴 《바다밑 20만리》는 특히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과학환상소설은 《바다의 괴물》로서 그 당시 온 세상을 놀래우고 떠들썩하게 만든 《노띨러스》호라는 괴상한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다.

《노띨러스》호는 동력인 전기도 바다물에서 만들어쓰고 식량도 바다자원을 리용하기때문에 아무런 보급을 받지 않고도 거의 10개

월동안이나 바다밑려행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 괴상한 잠수함은 태평양 바다밑을 1만키로메터나 달리다가 산호초가 많은 토레스해협을 무사히 지나 인도양으로 나가고 거기서 홍해로 갔다가 희망봉으로 돌지 않고 수에즈지협밑의 물길을 지나 지중해로 나온다.

그 다음 얼음산밑을 지나 아직 사람의 발걸음이 가닿지 않은 남극에까지 이른다.

약 8만키로메터에 달하는 바다밑을 려행하는 과정에 작품의 주인공들은 별의별 모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

크레스포섬의 바다밑산보, 인도양 바다밑에 있는 산호의 나라와 산호로 비를 세운 무덤, 2메터나 되는 진주조개와 야자만한 큰 진주, 바다밑에서 불을 뿜는 분화구, 옛날에 대서양에 있다가 바다속에 가라앉았다는 수수께끼의 대륙, 아틀란티스, 1만 5천메터의 바다밑으로 내려가서 바라보는 지상의 에베레스트보다도 높은 봉우리들, 보면볼수록 신비해지는 바다밑세계…

이 과학환상소설에서 나오는 지명들은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것이 실지로 존재하는 지명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작품에서 새나 바다밑생물이나 해류에 대해서 쓴것도 거의다 사실이다.

작가는 지리와 항해, 바다와 생물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뛰여난 상상력으로 아직 누구도 미처 다 모르는 바다밑세계를 종횡무진하게 그려냈던것이다.

베른의 환상이 과학적지식에 립각하고있었으며 그의 과학적환상이 생활에 발붙이고있었다는것은 환상적으로 그려낸 《노틸러스》호가 후에 원자잠수함으로 실현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이 작품이 아무리 과학지식에 기초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환상이며 또한 바다와 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보다도 인간에 대하여 쓴 소설이다.

소설에서는 과학지식이 풍부하고 바다와 자유를 사랑하며 대담하기 그지없는 네모선장의 형상을 보여주고있으며 아로낙스박사에

대한 공세유와 네드 랜드의 뜨거운 우정을 세부묘사와 심리묘사를 통하여 절절하게 그리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일련의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작가는 《바다밑 20만리》의 주인공 네모선장을 수수께끼같은 인물로 그려놓았다. 작품에서는 네모선장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슨 목적으로 《노띨러스》호를 만들고 바다밑려행을 하는가, 어찌하여 그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려 하는가 하는 문제가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다.

작품에서 네모선장이 하는 일은 모두 의심만 자아낼뿐이다.

더구나 소설마감에서 공격해오는 군함을 무자비하게 침몰시킬뿐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게 하는 대목에서는 진주잡이 인도인을 구원해주던 너그럽고 인간성있는 네모와는 영 다른 사람을 보는것 같다. 어찌하여 이처럼 끔찍한 살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리유와 타당성이 작품에는 주어져있지 않다. 그러한 참극이 있은후에 네모가 눈물을 흘리며 《전능하신 하느님이시여,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옵니다.》 하고 신앞에서 참회하는것은 모순에 찬 행동이다.

주인공 네모를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로 설정하고 그렸기때문에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사상이 뚜렷하지 않으며 과학과 그 발전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와 상반되는 신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등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각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결국 작가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으로부터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심히 약화되였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탐구정신, 인민대중의 투쟁은 진실하게 형상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성은 과학환상소설의 창시자의 한사람으로 알려져있는 영국의 과학환상소설작가 허버트 죠지 웰즈(1866~1946)의 창작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생활이 그리 넉넉치 못한 자그마한 도자기상점주인의 아들로 태여난 허버트 죠지 웰즈는 13살때부터 로동생활을 하면서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여러가지 책들을 읽던중에 과학환상소설을 쓰게 되

였다.

그는 《시간기계》(1895년), 《투명한 사람》(1897년), 《우주전쟁》(1898년) 등을 비롯한 과학환상소설들을 주로 썼으며 그가운데서도 《우주전쟁》은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있다.

지금은 우주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우주로케트가 다른 행성들에도 날아가고 화성을 찍은 사진도 전송되여 화성에는 사람과 같은 생물체가 없다는것이 확인되였다.

그러나 웰즈의 과학환상소설 《우주전쟁》이 처음 발표되였던 1898년에는 사람들이 화성에도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생물체가 살고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리해할수 없는 신비한 세계로, 언제 무슨 재난을 가져다줄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있었다.

작가는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의식과 과학기술수준에 기초하여 과학환상소설을 썼기때문에 작품은 심한 오유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영국의 수도 런던의 가까운 농촌마을에 화성인들이 내렸다는 소식이 퍼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되고있다.

화성인들이 공격해오자 온 영국땅은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도망치는데 급급한다.

도망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조국이나 인민의 운명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

그 복새통속에서도 떨어진 돈을 줏기 위하여 돌아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하느님의 선량한 사도가 되여야 한다고 부르짖던 목사가 한쪼각의 빵을 위해 비굴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비판하였으며 그런 제도하에서는 갑자기 닥쳐온 큰 자연재해나 불행을 막을수도, 피할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작가는 자본주의사회가 자기의 계급적모순으로 하여 이러한 재난을 막을수도, 해결할수도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

였다.

작가는 작품의 마감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

그런데 화성에는 애당초 세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화성사람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물건들을 다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달라붙었던것입니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는 화성사람들은 인차 박테리아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병은 깊어지고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걷고있었던것입니다.

화성사람들은 우리들, 지구우의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세균에 의해 멸망했던것입니다.…》

작가가 쓴 바와 같이 지구사람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들씌우며 갖은 만행과 악착스레 살륙하던 화성인들은 지구사람들의 단결된 힘으로 응당한 보복을 받은것이 아니라 박테리아에 의해 전멸당하는것이다.

결국 작가는 우리 사람들, 지구상의 인민대중을 박테리아보다도 못한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냈으며 따라서 작품에는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적경향이 진하게 흐르고있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무엇보다먼저 지구인을 다른 우주인들보다 못하다는, 덜 발전된 인간이라는 그릇된 관점에 서있었으며 더우기 우주인과 맞다들게 되면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무역이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협조를 하는것이 아니라 싸움이나 전쟁을 하게 된다는 호전적립장에 서있은것이였다.

이것은 작가 자신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있었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과 과학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세계관적제한성이 낳은 부족점이였다.

이러한 제한성은 19세기 초엽과 중엽 과학환상소설작가들의 공통적인 제한성이였다.

지식계발에 도움을 주는 《흥미문학》으로만 간주되여오던 19세

기의 과학환상문학은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참다운 리상과 지향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다윈의 진화론에 의거한데로부터 《초인간》이란 불합리한것까지 만들어내는데 복무하였고 인종론과 제국주의를 변호하는데 악용되였다.

과학환상문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학의 형태로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20세기 첫 50년기간 과학은 그 이전 과학발전력사의 전 기간에 거둔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자와 원자에 대한 새로운 발명과 리론물리학, 핵물리학, 전자공학의 발생, 발전,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비롯한 생물과학에서의 혁신적진보는 많은 과학적해명을 준 동시에 새로운 과제와 과학적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과학분야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그것을 해명하는 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철학적세계관에 의하여 여러가지 학설과 가설이 특징지어져 분분한 론의와 론쟁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학설과 가설에 기초한 과학환상문학은 작가들의 세계관적차이로 하여 복잡다단한 조류로 분리되였으며 그 작품들에서는 사람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리해에 기초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문학과 인간과의 관계, 과학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줄수 없었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생활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미래에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되며 그들의 호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여전히 력사와 생활의 창조자로 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대답을 줄대신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단순한 부속물로 되는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미래와 삶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하고 투쟁의욕을 마비시키고있다.

영국의 반동작가인 죠지 오웰과 올러스 헉슬레이를 비롯한 《원자 유토피어》 또는 《박테리아 유토피어》소설가들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수심의 동물로, 《죄악의 용기》로 간주하며 인간의 무능력, 도덕적파산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교하고 미래에 대한 인간의 신심과 희망을 말살하며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하고있다.

올러스 헉슬레이는 미래의 22세기를 환상적으로 취급한 소설 《원숭이의 본질》에서 《제3차세계대전》에서 원자전과 세균전의 결과 인류는 거의 전멸되고 몇몇 살아남은 사람마저 불구화되고 기형화되여 처참한 지경에 빠진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동물적인 생활을 묘사하고있다.

그리하여 전쟁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며 희망없는 인간생활을 탄식하고 인간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있다.

또한 악명높은 《반공》작가 죠지 오웰은 과학환상소설 《1984년》(1949년작)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중상모독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색정적인 《집단적잠재의식》을 구현한 《패덕한》들로 묘사하면서 색정주의로 《반공》사상을 안받침하여 저속한 《흥미》를 돋구려하고있다.

추잡한 잡문에 불과한 《1984년》은 그 퇴폐적인 내용으로 하여 런던 텔레비존방송에서 상영까지 중지당한 사실만을 보아도 그것이 고상한 앞날의 생활을 보여주는 환상소설이 아니라 저속한 색정잡문이 되는것을 넉넉히 짐작할수 있다.

더우기 사회란 《통신(언어 정보)》으로 매개되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사회적정보처리와 사회적물질에네르기의 처리를 통하여 자기를 보존하고 조직화하는 체계》로 보는《신인간기계론》을 제창하는 현대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끼베르네찌까와 사회》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면서 그것이 마치 과학환상문학작품의 중요대상이며 주제탐구를 위한 령역인듯이 뇌까리고있다.

이들은 자기의 작품들에서《대사와 조절,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에네르기의 전환과 그것을 조절관리하는 정보처리체계》로서의 개체가 모여《사회조직이라는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마구 써내고있다.

그들이 작품에서 주장하고있는《신인간기계론》의 이러한 견해는 첫째로 사회를《언어, 통신》을 본질로 한다고 하는 개체들의 기계적합으로 보고 그것의 기능을 정보를 받고 처리하며 지령을 내리는 하나의 자동조종(끼베르네찌까)과정과 같은것으로 간주하는것이며 둘째로 사유의 직접적인 표현인 언어에서 사회생활의 기초를 찾

는 관념론적인것이다.

사회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기계론적리해는 곧 사회에 대한 그릇된 관점에 기초하고있다.

《신인간기계론》을 제창하려는 현대부르죠아 어용과학환상문학작가들과 《신인간기계론》을 과학환상소설을 통하여 주입하려는 사람들은 사회를 순수 기술공학적인 견지에서 고찰하는데로부터 자본주의사회의 심각한 사회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자본주의를 이러저러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

미국의 한 과학환상소설가는 미국의 반동적인 사회학설인 《초공업사회》, 《정보화사회》에 기초한 작품에서 정신착란적인 망발을 늘어놓고있다.

그는 《초공업사회》를 끼베르네찌까와 같은 과학기술적성과를 생산과 소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도입하여 정보망, 교통망을 확대시켜 정보에 의한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로 규정지었다.

그는 정보가 현대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며 그것을 담당하는 정보산업을 핵으로 자본주의사회는 점차 정보화사회로 넘어간다고 쓰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표현해주는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현대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인간기계론》을 통한 세계제패야망을 극구 찬양하는데 급급하고있다.

그들은 《오늘의 비행기라든가 방송기술은 통치자의 말을 세계의 임의의곳에 신속히 전달할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국가의 존재를 방해하던 요인을 제거해버렸다. 오늘에 와서는 각이한 방송계통과 항공망들의 국제적분쟁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근대의 통신은 세계국가를 불가피한것으로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미제국주의 대변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쓰고있으며 통신기술의 발전이 《세계국가》 창설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불가피한것으

로 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세계국가가 《언어사용상 가능한 능력의 높이에서 우수》한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망발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이렇듯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반동적인 사상을 반영하여 문학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인민들을 혁명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는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으로 하고있는 과학환상문학은 사람과 주위세계를 주로 인식론의 문제로 세우고 고찰하였던것만큼 현실세계와 인간의 호상관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을 주는데 철저히 이바지하지 못하였으며 일련의 제한성을 발로시키고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과학환상문학작품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많이 창작되였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이 비상한 속도로 개발되는 현시기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와 관심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최신과학기술발전이 이룩된 3대요인들중의 하나가 많은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과학환상작품을 창작발표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적환상을 불러일으켜주고 탐구적열의를 앙양시킨것으로 보고있는 사실자체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이렇듯 최근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과학환상작품들은 모두 자기의 창작방법, 사조적특성과 제한성에서 벗어날수 없었으며 작가의 시대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에서도 벗어날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과학환상장편소설들인 《량서인》과 《갈리스토인들》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

장편과학환상소설 《량서인》의 기본주인공은 발따싸르교수의 과학적창조물인 아가미가 달린 청년 이흐찌안드르다.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이며 생물학교수, 박사인 아. 벨랴예브는 교회몽매자들의 더러운 목적을 타매하고 과학자들의 사업을 적극 보호해주는 생활을 통하여 자본주의체계와 그의 취약성을 폭로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에서 교회의 추물들을 폭로비판하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한 피압박대중의 투쟁을 거부하는 심중한 결함을 발로시키고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대신 압박자들을 피하여 수중세계에서 생활을 시작할수 있도록 생태학적인 적응기관을 가질것을 호소한다.

자기의 과학환상장편소설들에서 작가가 묘사하고있는 환상적인 발견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산도 없이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도우엘리 교수의 머리》, 《아리엘리》에서도 아주 렵기적인 환상의 실험세계로 독자들을 이끌고간다.

결국 작가는 과학적창조의 비합리성의 옹호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무시하고 객관세계의 법칙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시하는 심히 그릇된 오유와 제한성을 발로시켰다.

그는 이외에도 자기의 과학환상장편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장소를 자본주의현실을 선택하면서 과학사업을 개인치부에 악용하는 자본가-기업가들의 부정적인 특징을 아무런 고려없이 묘사함으로써 과학환상소설인지, 일반소설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결함은 게오르기 마르띄노브의 과학환상장편소설 《깔리쓰또인들》에서도 나타났다.

이 장편소설은 《깔리쓰또》(우리 나라에서는 《별나라에서 온 손님》으로 번역출판됨)의 속편으로서 200일간의 지구 체류일정을 마치고 이전 쏘련의 젊은 학자들인 천문학자 게오르기 씨냐예브와 의사 뾰뜨르 쉬로꼬브를 지구의 사절로 함께 데리고 떠나는 깔리쓰또인들에 대하여 흥미진진하게 쓰고있다.

깔리쓰또인들의 항성간 비행선은 11년이 지나서 헬리요스(깔리쓰또인들은 자기의 《태양》인 씨리우스를 이렇게 부른다)를 가까이하게 되며 그들모두는 가장 완성된 기계들뿐아니라 자연력까지 조종하는 복지사회인 깔리쓰또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서 학자들은 공산주의사회는 아니지만 모든것이 평화롭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된 리상국을 보게 되며 커다란 감동을 받는다.

작가는 마치도 공산주의사회가 아니라도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완전히 실현된 복지사회를 건설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심각한 오유를 발로시켰다.

그는 또한 허버트 죠지 웰즈의 《우주전쟁》에서처럼 깔리쓰또사회를 지구보다 더 발전된 사회로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지구인들보다 더 지능이 발달된것으로 형상함으로써 허무주의적경향에 빠졌다.

과학, 특히 우주생물학은 아직까지 지구를 둘러싸고있는 행성들 가운데 발전된 인간이 살고있다는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있으며 설사 지능을 가진 《생물》이 살고있다고 한들 우리들, 자주적인간의 품격을 초월한 사람들이 살고있다는 담보를 할수 없다.

때문에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우리 사회보다 발전된 리상사회가 저 미지의 행성에 있다고 그릴 필요는 도저히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창작상 결함과 오유가 나타나고있는것은 과학환상작품들이 주체의 과학관에 기초하여 창작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심오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였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전형에 대한 창조원리를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결함은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참다운 본성을 인식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발로시킨 제한성이였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선행시기의 모든 과학환상문학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혁신적특성을 가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영화예술론》, 2페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새로운 문학예술

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학예술의 창조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 문학예술의 창조원리는 공산주의새 인간학으로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작용하는 제원리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독창적으로 밝히고있는 새로운 창작리론이다.

문예작품의 종자를 바로잡을데 대한 리론,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에 관한 리론, 세부형상에 관한 리론, 예술적전형창조에 관한 리론, 작품의 구성조직에 관한 리론, 감정조직과 인간관계, 예술적갈등에 관한 리론, 문학작품의 양상에 관한 리론 등은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지침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주체문학의 한 부분인것만큼 주체적문예리론에 철저히 의거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라야만 참다운 과학환상문학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물질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객관세계와 문학예술과의 호상관계를 전개한 선행문예리론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주체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창조리론을 밝힌 문학예술작품창조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예리론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 창작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 어떤 시대를 반영하든지 주체적문학예술이 달성해야 할 높은 사상예술적요구를 실현할수 있었다.

최근에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탐구》, 《두개의 화살》, 《별은 돌아오리라》, 《총명한 사람》 그리고 과학환상소설집 《번개잡이 비행선》, 《열을 내는 꽃》을 비롯하여 활발히 창작발표되고있는 우리의 수많은 과학환상소설작품들, 과학환상동화들과 과학환상영화문학 등은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 창작원리를 구현함으로써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나가고있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과학환상과 사회현상을 가장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여 작품에 반영할 때, 그리고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 창작원리에 철저히 기초할 때라야만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복무할수 있다.

제3절 과학환상문학의 사상미학적요구

1) 과학적환상과 자주성에 대한 문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성과 과학환상문학의 전반실태를 심오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시대, 과학기술시대의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과학환상문학의 사명과 임무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그를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하도록 작가들을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8년 10월 5일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사상미학적문제들과 그 다양한 형태들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주심으로써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가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는 과학환상과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옳게 결합하여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상소설도 써야 한다. 환상소설의 폭을 넓혀 사회생활도 환상형식으로 그려낼수 있다.》(《주체문학론》, 247페지)

환상소설의 폭을 넓혀 과학기술생활뿐아니라 사회생활도 환상형식으로 그려낼수 있다는것은 작가가 작품창작에서 과학환상과 자

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옳게 결합하여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주체철학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공산주의인간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어떤 문제를 내세우고 밝히는가 하는것은 작가가 관심하고있는 기본문제이며 작품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이 환상생활을 그린다고 하여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내세우지 않고 신변잡사에 매달린다거나 흥미있는 과학기술적내용, 렵기적인 환상에 매여달린다면 사람들을 교양하는 자기 본래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이 진정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생활에 발붙인 과학환상속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학,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이 내세우고 해명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며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의 가장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이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반드시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어떠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과 특징, 그 인식교양적역할과 기능이 규제된다.

우리 시대의 과학환상문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과학환상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려면 인간생활에서와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며 거기에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서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으며 사회력사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이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것은 과학환상문학을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요구이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본질적특성으로 된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주성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의 력사이다.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변혁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본질적특성으로 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인간생활에서 본질적내용을 이루는것만큼 문학이 사람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려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환상문학도 주체의 인간학인것만큼 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이 환상적형식으로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과학기술세계를 그려낸다고 하여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도외시하여서는 안된다.

과학환상문학도 근거있는 환상생활속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문제로 내세워야 하며 거기에 정확한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자연의 비밀을 탐구해내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해내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을 환상적형식으로 형상화한다. 따라서 과학환상문학에서는 환상적인 인물이 등장하며 환상적인 생활이 그려지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에 그려지는 환상적인 인물들의 새로운 과학기술적활동을 반영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내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과학환상작품들에 그려지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 미래의 세계를 앞당겨오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의 궁극적목적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이 투쟁과 활동자체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현과정이다.

실제에 있어서 미래의 세기에 가서 실현될 과학기술을 상상의 힘을 빌어 환상적으로 반영하는 과학환상작품들에는 현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문학작품들에서보다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더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총명한 사람》은 사람들을 힘겨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업로보트를 만들고 조종로보트를 만든데 토대하여 지능로보트를 개발하기 시작한 20세기말엽의 과학기술을 뛰여넘어 지성로보트를 만들어냄으로써 21세기 사람들을 육체적로동에서,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모습, 인간의 자주성을 더욱 활짝 꽃피운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청송이와 긍정인물들인 자원개발지능로보트를 만드는 창해연구사, 지성로보트제작의 기본핵인 인공뇌수를 연구하는 혜성연구사와 리지민교수를 한편으로 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인간을 구축하는 로보트를 만들어내는 스미스와 모리 등 인조인간개발업자, 《기술파괴단》악당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갈등을 설정하고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고있다.

제국주의 잔당들인 스미스를 비롯한 《기술파괴단》악당들은 인간을 반대하는 로보트를 연구하며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로보트, 인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에 떨쳐나선 시위자들을 쇠몽둥이《팔》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경찰로보트를 대량 생산하면서 로보트만도 못한 사람들은 응당 구축당하고 사멸해야 한다고 뇌까린다.

하지만 청송이와 창해, 혜성이들은 이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때 가서든지 인간, 사람이며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인공뇌수의 합성도 로보트의 생체화, 각 기관의 정합문제들도 능히 해결됨으로써 지성로보트를 창조할수 있다는것, 그것을 리용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작품은 생활론리와 성격론리를 따라 형상을 꽃피워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존재라는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도로 발전되고 무한한 창조적능력을 가진 자기의 뇌수에 옳바른 사상과 풍부한 지식을 담고 그 창조적능력을 발양시킨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총명한 사람, 인간의 자주성을 꽃피울수 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는것을 환상적인 생활속에서 더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과학환상문학이 의거하고있는 과학적환상자체가 인간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과학환상문학에서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하는것이 필수적인 요구로, 이 문학의 사명과 존재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지난 시기에 창작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가 근본문제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미지의 과학세계를 탐구해내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해내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을 그려내면서도 많은 경우 렵기적이고 흥미본위적인 환상세계를 펼쳐보이는데 치우치고 의의있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게 된것은 작가들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근본문제로 내세우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작가들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이 인간생활과 사회력사적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루

고있다는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데로부터 초래된 력사적제한성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작가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주체의 사회력사적원리를 정확히 체득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과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과학환상문학이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근본문제가 과학환상생활속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과학환상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만들며 새로운 높은 경지에로 올려세운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지향과 념원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고있다.

사람들이 과학적환상을 하게 되며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을 그려보면서 환상의 힘을 빌어 과학연구활동을 벌려나가는것도 자주성을 실현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과학환상작품들에서 취급되고있는 환상적인 형식속에 주어져있는 과학세계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과학기술적내용들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활동도 결국 자주성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에서 취급하고있는 과학기술생활들은 본질상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사람들의 생활에서와 사회의 발전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며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거기에 가장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은 우리 시대 과학환상문학의 혁신적특징으로 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신변잡사적인 문제나 순수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온갖 반동적인 과학환상문학과

뚜렷이 구별되며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의의있는 문제를 환상세계를 통하여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주체의 관점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로 제기하지 못한 이전시기의 모든 진보적인 과학환상문학과도 구별된다.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혀낸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에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해명한다는것은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본보기로 되는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남에게 얽매이거나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며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내용들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닌 새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과학환상문학이 내세우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와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통일적으로 구현된다.

가령 미래의 과학세계를 점령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을 환상적형식으로 그려내는 작품에서 자연을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지향에 맞게 개조변혁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 형상적과업은 이 과학연구활동의 담당자인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해내는 형상적과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인 과정으로 실현된다.

과학환상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다는것은 과학기술적내용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환상문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탐구해내며 미래에 실현되게 될 과학기술적내용들을 환상적형식으로 그려내는것을 본질적특성으로 하고있다. 그런것만큼 과학환상문학에는 과학기술적내용들이 취급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과학환상작품들에서는 과학기술

적내용들이 근본문제로 제기되여서는 안되며 또 제기될수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뜻깊은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내용을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로 형상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과학환상문학의 인간학적요구가 있으며 이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과학환상작품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창작출판된 《두개의 화살》, 《탐구》, 《별은 돌아오리라》를 비롯하여 여러편의 중편과학환상소설들과 《열을 내는 꽃》, 《번개잡이 비행선》 등 단편소설집들은 매개 작품들이 과학기술적내용들을 취급하면서도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김동섭 작)에서는 광대한 새 땅을 얻어내는 자연과의 어려운 투쟁을 그려내면서 화폭의 중심에 진취적이며 담이 큰 주체형의 청년과학자를 확고히 세우고 자연의 횡포와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주인공의 능동적역할과 그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과학기술적내용을 취급하면서도 그것을 인간문제로 전환시켜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형상하였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대신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에서처럼 《순수한》 과학기술적문제, 《순수한 과학기술생활속에서의 저렬한 사람》, 질투, 죽음, 향락, 방종 등을 기본문제로 내세우거나 수정주의적문학에서처럼 《전인류적주제》의 탐색에만 매여달린다면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없을뿐아니라 사람들을 한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개인리기주의자로 굴러떨어지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며 미래에 대한 절망과 불안을 야기시키게 한다.

우리 과학환상문학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주체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밝히는가 하는것은 과학환상문학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이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면서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내세우지 않고 신변잡사에 매달린다면 사람들에게 경험과 교훈으로 될수 있는 인간문제를 내놓을수 없다.

웨. 블라드꼬의 중편과학환상소설 《우주선 〈아르고〉호》는 인간생활을 그리면서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내세우지 않고 신변잡사와 모험거리에 매달림으로써 독자들에게 교양과 교훈을 주는 인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있다.

작품은 희랍의 전설적인 용사인 이아손이 신기한 금빛양가죽을 얻어오기 위하여 모험많은 길을 떠날 때 탔던 배의 이름인 《아르고》라는 명칭을 딴 《우주선 〈아르고〉호》가 우르뜨라 골드광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금성을 향해 지구를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르뜨라 골드는 금보다 탄탄하고 금의 성질을 가진 희유금속으로서 태양스펙트르를 분석한 결과 얻어진 원소주기 계 제111번째 원소라고 가정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들인 탐험대 대장 니꼴라이 뻬뜨로위치 루이진과 중국의 동력학교수 왕룬, 지질학자겸 화학자인 와짐 쎄르게예위치 쏘꼴교수, 몰래 우주선에 오른 공과대학 2학년생 갈리나 루이자(갈랴)는 우주탐험의 길에 오르자마자 위험과 맞다들게 된다. 류성의 습격을 받아 선체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우주방사선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기도 하면서 146일만에 금성, 식물이 여분의 열을 흡수하지 않고 적외선을 반사하고있어 표면이 빨간 빛갈을 띠고있는 대지에 도착한다.

그들이 탄 우주선 《아르고》호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기나 한듯이 새우와 같이 생긴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루이진을 질겁하게 만들며 갈랴는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땅속의 왕지렁이한테 곡경을 치르게 된다.

한편 쏘꼴은 왕거미의 억센 발에 걸려들어 필사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행방을 알수 없는 갈랴를 찾아떠난 왕룬도 끝내 그를 구원하고

왕지네의 습격을 받게 되며 구사일생으로 그놈의 발톱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길이가 4메터나 되고 날개길이가 5~6메터나 되는 왕잠자리에게 걸려들어 뜻하지 않은 공중려행을 하다가 마귀의 호수에 떨어지게 된다. 호수를 건느는 왕룬은 괴이한 딱정벌레와 온몸이 큰 사마귀로 뒤덮인 호박만큼한 커다란 등색사마귀개구리도 맞다들게 되며 욱실거리는 뱀무리에 혼비백산해 달아나다가 왕거머리에게 몸을 휘감기기도 한다.

작품은 우르뜨라 골드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방사성원소인 인프라 라디움을 발견하고 채취하는 과정에 발현되는 루이진과 왕룬, 쏘꼴, 갈라의 높은 정신세계와 그들의 인간관계에서 맺어지고 산생되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풀어나가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릴 대신에 렵기적인 사건들과 모험적인 일화에 치우치고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독자들의 감흥을 자아내지 못하고있으며 책을 덮어놓음과 동시에 인물들의 형상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교양과 교훈으로 될만한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된다. 남는것이 있다면 무시무시한 왕잠자리와 수염을 몽둥이처럼 내휘두르는 6메터이상의 왕지네, 왕거미의 징그러운 몰골뿐이다.

우리의 일부 과학환상문학작가들도 작품에서 인간학의 문제로 될수 없는것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작가들은 과학환상작품들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대신 최첨단 과학기술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인간을 형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환상장면자체를 그려내는데 몰두하고있다. 이것은 작가들이 과학환상문학의 본성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인간문제와 과학기술문제의 호상관계를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옳게 풀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과학환상작가들은 과학탐구활동을 그리는데서도 어디까지나 과학기술, 아직 자연의 비밀로만 남아있는 미지의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 탐구자들의 립장과 태도, 탐구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 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탐구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므로 과학환상문학에서는 마땅히 과학기술의 주인인 사람들의 형상을 창조

하면서 과학탐구과정에서 나서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푸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이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을 위한 투쟁을 그리며 그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그 어느 시대, 21세기 생활을 반영하든지, 30세기 생활을 반영하든지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문제, 현실에 발붙인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야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또한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을 우선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과학환상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인간의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과학환상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생활과 투쟁에서 사람들의 본보기로 될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형상, 앞날의 인간형상을 통해서만 옳게 밝혀질수 있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작품의 중심에 자주적인 인간전형, 사회정치적생명을 위하여 육체적생명을 기꺼이 바칠줄 아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본보기, 미래의 사회에 살게 될 인간형상을 내세운다.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형상의 중심에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내세움으로써 이전 과학환상문학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인간학, 주체의 인간학으로 된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성격창조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함으로써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풍격과 면모를 원만히 갖추게 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성철과 로학림교수는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희생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위험한 과학탐구의 길에 용약 떨쳐나선 자주적인간의 전형이다.

휘발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연료, 동력자원이 점차 고갈되여

가는 21세기에 연료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하여 휘발유 대신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한다면 무진장한 강물을 모두 휘발유처럼 쓸수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한 김성철과 로학림, 휘발유가 점점 줄어드는 조건에서 오직 풀어나가야 할 길은 물을 분해하여 얻은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탐구를 통하여 자각한 김성철과 로학림교수는 인간의 자주성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어려운 탐구에 떨쳐나서 싸워나간다.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적성격은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의 주인공 철수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고 중편과학환상소설 《탄부없는 탄광》의 주인공 파도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의의있는 과학환상, 생활에 발붙인 과학환상속에서 미래인들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자주적인 인간의 참다운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2)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의 형상적구현

과학환상문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복이 가지는 무제한한 위력을 시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대담하고 명철한 관찰력을 가지게 한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문학작품은 비단 인식적인것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과학적탐구력을 키우는것으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다만 과학기술적내용을 습득하는것을 도와줄뿐아니라 탐구, 발명사업의 방법도 가르쳐주며 과학탐구에 림하는 자세와 의지도 가다듬게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과학환상소설 《별나라로 가자》를 친히 보아주시고 우리 작가들이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을 탐구하여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해보겠다는 욕망을 키워주는 과학환상작품을 많이 출판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의 세계에로 그들을 안내하며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사회의 주인으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유익한 공상의 문학이며 현대인들에 의해 창조되여나가는 아름다운 미래에 관한 문학이다.

이 문학은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 문학은 고도로 발전된 미래의 과학, 기술의 진보를 반영하며 그속에서의 인간들의 활동에 대하여 흥미진진한 수법으로 생동하게 묘사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과학적인 가설에 기초한 과학기술적내용을 담는것을 본성적요구로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기술적내용을 떠나서 인식적의의를 가질수 없으며 그 존재가치를 론할 여지조차 없다.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있는 과학기술적내용을 담았을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내용을 담아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과학환상적내용에 대한 표상과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의욕으로 불타도록 이끌어줄수 있다.

과학환상작품들에서 우리 생활과 거리가 먼 과학환상적내용들, 례하면 인공태양을 리용하여 씨비리를 개간하는것, 사하라사막에 맞는 농작물품종을 연구하여 불모의 땅이였던 그곳을 풍년벌로 만든것 등을 취급한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지식계발에만 의의가 있을뿐이며 보다 적극적인 실천행동에 옮기도록 충격적인 자극을 주지는 못할것이다.

과학환상작품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환상적내용을 취급할 때라야 우주세계와 같은 표상

도 체험도 전혀 없는것을 취급하는것보다 더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으며 독자들의 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구현하는데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 과학환상적내용들을 주인공의 설명적인 대사나 또는 작가자신의 말로 기계적으로 삽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은 어디까지나 생활적으로 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은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그 구성의 조화미를 깨뜨리지 않으며 인간성격과의 통일속에서 주인공들의 생활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성격을 적극 부각하기 위한 견지에서 주어져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과학탐구자들의 생활과 활동을 그리면서 과학문제들을 생활속에 용해시켜야 하며 과학기술적내용은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형상적화폭속에 구현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과학환상문학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반영하는 근본원칙이 있다.

그러면 작품에 과학환상적내용을 반영하는데서 나서는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담는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인식교양에 커다란 사상정서적영향력을 미치며 과학환상문학자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과학환상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담기 위한 옳은 길을 밝혀주며 과학환상문학작가에게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준다. 우리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과학환상작가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내용을 작품에 형상적으로 담을수 있으며 그 환상적내용도 참신하고 철학적으

로 심오하게 구현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실제적가능성을 주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과학환상적내용을 폭넓고 정확하게 펼침으로써 작품의 대를 바로 세워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생활을 반영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과학환상문학작가들로 하여금 앞날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릴수 있게 하며 하나의 작은 과학기술적내용에서도 심오한 문제성을 발견하여 일반화할수 있는 창조적지혜와 능력을 주기때문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담는데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할데 대한 요구는 특히 혁명의 무기로서의 우리 과학환상문학이 지닌 당적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원칙적요구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다른 문학과 마찬가지로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의 하나로서 반드시 당의 지도밑에 창작되여야 하며 창작된 모든 작품은 개인의 작품인 동시에 당의 작품으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는 당적요구와 창작가의 지향이 일치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여야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해결을 요하는 절실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것은 당의 요구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 과학환상문학의 기본지향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주고 떠밀어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데 모를 박고 과학환상적내용을 탐구하고 형상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작품이 먼 앞날에 가서도 실현될지말지한 막연한 《과학환상적내용》을 알쏭달쏭하게 취급한다면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질수 없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현되였거나 실현되여가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취급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작품에 취급할 문제로 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현실에 발붙인 환상적내용을 취급해야 한다고 하여 남의 나라 현실을 우리의 환상으로 리용하는것은 추호도 용허할수 없으며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와 그 방향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바다와 땅에 대해서뿐아니라 우주세계에 대해서도 무한한 환상의 나래를 펼쳐 여러가지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써야 한다.

다만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과학환상내용을 반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 정책에 의거하여 과학환상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담을데 대한 요구는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과학환상작품이 과학기술적내용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요구는 둘째로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하며 그것이 최신성과에 기초한것으로 형상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적인 환상, 다시말하여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인 상상의 힘이 없이는 과학의 장래를 그려볼수 없으며 과학자체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근거있는 과학환상이란 과학기술적내용에 과학성이 보장되여 있다는것을 말한다.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이 현대적인 지식에 의거해야 하며 환상을 창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학적개연성을 지켜야 한다.

현대과학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환상, 현실에 튼튼히 발붙이지 못한 상상은 무장이 없는 환상이다.

《무장이 있는 환상》, 과학적인 환상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의가 있는 가설들을 도입해야 하며 적극 탐구해야 할것이다.

현대과학지식은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의 끝없는 샘이며 과학환상문학창작가는 현대과학지식,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여야만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환상을 펼쳐야 하는것은 현실이 환상의 원천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에게 있어서 환상이란 미래생활의 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수단밖의 다른것이 아니다. 미래의 생활이 아무리 다양하고 풍부하다 하더라도 창작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마음대로 《환상》을 펼쳐서는 안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는 근거있는 과학환상, 생활에 발붙인 환상만이 필요한것이다.

진정한 환상은 높은 당적안목을 가지고 생활에 발을 튼튼히 붙일 때에만 나올수 있다.

현대과학지식에 기초하지 않을 때, 생활의 터전이 없을 때 과학환상문학창작가의 환상은 깃을 잃게 되고 목적지향성을 잃게 되며 허황성과 모방의 울타리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반대로 현대과학지식은 창작가에게 환상의 나래를 주며 환상에 의거하여 미래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준다.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환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담는 과정이 작가의 환상이 꽃피고 열매맺는 과정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모든 과학적환상이 그대로 예술적환상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과학환상이 작가의 창조적탐구와 사색의 빛을 받고 형상적화폭으로 재현되여야 비로소 예술적환상으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는 작가의 환상이 끊임없이 작용하는바 그 한계는 바로 현대과학지식, 생활이 결정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들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자기가 준비된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자기가 알고있는 현대과학지식이상의것을 반영할수 없으며 환상도 그 범위에서만 작용하게 된다.

이 범위에서 벗어날 때에는 벌써 그 환상적내용이 허황성을 면

할수 없다.

창작가는 현대과학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면 붙일수록 예술적인 허구와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여 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품위있게 담을수 있다. 바로 현대과학지식과 현실생활은 과학환상작품창작의 전과정에 창작가의 환상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기발하고 생신하게 끊임없이 발양되게 하는 원천이며 샘이다.

그러므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는 작품에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하며 최신성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작가들이 과학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대해서도 밝아야 한다는 문제가 서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독자들에게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들을 알려주며 재미있는 수법으로 앞날의 과학기술의 제문제와 발명을 보여준다.

작가들은 지식의 빈곤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을 외곡하여 반영하거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작품에 담겨지는 정리와 수자들이 정확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땅속힘을 리용한 지하철도에서의 무인전동차의 속도를 《포탄의 속도보다 몇배나 더 빠른 속도인 초속7.9키로메터》라고 썼다면 과학기술의 진실을 심히 외곡한것으로 된다.

현대과학이 실증하고있는것처럼 자동기차가 이러한 속도를 낸다면 그것이 레루우에서는 달릴수 없을것이며 자동기차에 날개가 달렸다면 순간에 날아갈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는 사건진행과정의 세세한 경로와 서술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어떤 과학적문제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론리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상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공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심오한 과학지식과 정확한 수

자, 정리들을 잘 알아야 할뿐아니라 그것들을 형상적으로 응용할줄 알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가하여주신 작품인 과학환상소설 《별나라로 가자》, 《속도를 위한 투쟁》, 《네메지다의 운행》은 과학지식과 수자, 정리들을 잘 활용하여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특히 중편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 작품은 지구를 향해 초당 300Km의 속도로 마주쳐오는 류성 네메지다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옳게 제기되고있으며 형상적으로 응용되고있다.

네메지다의 속도, 초당 300Km로 지구에 육박한다면 태양의 인력도 그것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 달이 지구의 인력으로 우리 지구에다 만조현상을 일으키는것처럼 지구보다 훨씬 더 크며 달에 비하면 백배나 더 큰 네메지다는 충돌하지 않고 지구의 옆을 지나간다고 해도 만조현상을 일으켜 지구를 온통 물바다속에 잠그게 된다는것, 때문에 이것을 막자면 네메지다가 지구옆을 3백만Km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 그러면 이때에는 만조가 다만 20% 더 높아져 지구의 침수를 막을수 있다는것을 독자들이 쉽게 납득할수 있게 원리적으로, 수자적으로 생동히 펼쳐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과학적인 추리와 판단, 대담한 예측을 보여주면서도 그 타당성을 안받침하여줌으로써 환상의 허황성을 조금도 느끼지 않을뿐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럴수 있겠다는 긍정을 표시하게 한다.

주인공 뜨레구보브는 천체망원경으로 네메지다를 관측하던 찰나에 그 시표면에 검은 점이 있다는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 검은 점이 늘 위치바뀜을 하는것을 보아 자기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다는것을 추측한다. 고속도만능전자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33시간만에 한번씩 자전한다는것, 그곳의 1주야는 33시간이라는것을 확증한다.

얼마후에는 네메지다의 검은 테두리가 있다는것을 알아내며 거기서 특수한 방사능을 발견한다. 뜨레구보브는 검은 테두리반점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흰색으로 밝게 빛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유색려광기를 연구하는중에 네메지다가 눈벌판처럼 광선을 반사하고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눈!? 그렇다면 네메지다에 눈이 있는 이상 거기에는 필연코 수증기도 있을것이요. 어떤 대기층도 있을것이 아닌가? 그러면 공기는?

아마 공기는 희박할것이고 류성의 전 주위는 고체공기로 뒤덮여있을것이다.》

뜨레구보브의 추리와 판단이 매우 론리적인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감명을 줄뿐아니라 과학연구방법론과 진지한 연구태도에 감복하게 만든다.

작품은 뜨레구보브의 예측과 판단이 정확하다는것을 네메지다의 스펙토르 분석과정에 산소선이 발견되는것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이처럼 과학기술원리와 수자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형상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작품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고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하기위해서는 다음으로 과학적환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명백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과학환상문학의 과학적 및 론리적 진실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가까운 미래의것인가 또는 아득히 먼 미래의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해명함으로써만 독자들의 리해를 석연하게 할수 있다. 간접적인 표징들에 의하여 즉 세태적인 환경의 묘사에 의해서만 가까운 미래, 가까운 몇년내에 있을 일이겠거니 하는 느낌을 주어서는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할수 없다.

과학환상작품창작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기껏 수고한 《환상》이 이미 실현되고있거나 작가자신이 환상의 나래를 펴지 않은탓으로 문제성없는 《과학환상작품》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령역을

개척해나가겠다는 탐구심을 계발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던져주고 과학적인 상상력을 키워주어야 할것이다.

과학환상작품창작에 필요한 과학적인 환상을 위해서는 리론실천적으로 의의가 있는 가설들을 도입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 《노래하는 등대》에서 취급된 과학적내용은 현실적의의가 있는 가설로 탐구되지 못하였다.

이 작품은 주인공 순오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어업과 수산자원개발에서 큰 혁신을 이룩하는 이야기를 취급하고있다.

그들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촉각으로써 소리를 《들으며》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과학의 최신발견에 주의를 돌리고 탐구의 길에 오른다.

순오는 물고기들이 소리를 내고 듣고 한다면 그들사이에 의사를 교환하는 독특한 《언어》가 있을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한다.

진지한 탐구의 결과 그들은 매개 어류들이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있으며 심지어 그 언어에는 표준어와 사투리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리하여 주인공 순오는 그 언어를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며 그들과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어류언어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주인공은 그 사전의 도움으로 물고기들과 교제하며 물고기들을 어선들이 있는곳으로 무리지어 이끌어오게 함으로써 수산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리용하는 양어체계(소리—언어로 물고기들을 길들이는 방법)와 해상방역체계(음파로 고기들을 자극하여 면역을 일으키는 방법)를 세우게 된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언어를 가지며 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것은 언어와 사유의 발생발전에 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주체언어학의 견지에서 볼 때 과학적가설로 성립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감수성이 민감하고 무엇이든 가르쳐주는대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지식과 과학적세계관을 주는데 있어서 언제나 심중해야 한다.

더우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환상작품창작에서는 사소

한 과학적문제라도 절대로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과학적문제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지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과학인식적문제들을 주인공의 성격창조와 결합시켜 독자들이 상상할수 있게 그려야 한다.

사람들에게 생생한 직관적표상을 불러일으키려면 묘사되는 모든것이 정확해야 한다.

과학의 기초지식과 지어는 자연의 일반상식에까지 저촉되는 표현들은 독자들의 머리에 혼란을 조성할뿐이다. 작가는 환상을 무르익히는데 있어서도 과학에 의거해야 하며 환상의 지반으로 되는 현대적인 지식들을 통속화해줌으로써 독자들이 리해할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게 되여야 환상적으로 표현된 과학기술적내용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는 실감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과학환상작품에서 매개 대상을 정확하게 그릴 대신 가령 《특수형 차를 타고 특수공장으로 나는듯이 달려갔다.》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씌여졌다면 작품이 류사성에 빠질것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다른 문학형태들에 비하여 아직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뒤떨어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특수형, 특이한 모양 등으로 묘사된다면 이야기되는 내용이 아무리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에게는 어슷비슷하다는 인상만 강하게 남게 될것이며 따라서 읽을 재미가 없어지고말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문학작품의 주제령역을 넓히는것과 함께 탐구되는 과학환상대상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적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모든 내용이 다 과학적으로 꼭 맞아야 하는것은 아니다. 과학환상작품창작에서는 과학성을 소홀히 해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과학성을 요구해도 안된다.

우주탐험에 대한 작품을 쓸 때 더욱 그러하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다른 태양계의 행성려행에 대한 작품들

을 많이 쓰고있다.

그런데 이 부문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다른 태양계안의 행성에 식물들과 동물 등 생물들의 유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어떤 학자들은 다른 태양계의 행성에는 생물이 산다고 주장하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과학자들이 주장하고있는 이 두 견해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거기에 근거해서 작가적환상의 나래를 펼쳐 작품을 쓰게 된다.

첫 부류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거하여 작품을 썼다고 하면 첫 견해의 주장자들은 이 작품이 잘되였다고 할것이고 다른 리론의 옹호자들은 유감으로 생각할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미래에 대하여 쓰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각이한 견해와 주장들을 리해한 다음 그것을 기록하는것이 아니라 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창작가 자신의 가설(환상)을 내세우는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내세운 그 가설에 대하여 어느 한 과학자가 주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는 안되며 또한 걸수도 없다.

매개 발명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가능성과 수요, 수단과 목적이 있다.

발명은 목적이 있고 수단이 성숙되였을 때 실현된다.

전문가들은 과학의 수단과 가능성에 의거하고있다.

례를 들면 《반도체로써 손목시계만한 휴대용 무선텔레비존이 달린 전화기를 만들수 있으며 매개 집들의 지붕을 태양발전소로 만들고 사막을 전력공급기지로 만들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다.

목적은 명백하나 수단이 아직 발견되지 않을수도 있다.

로케트원리를 발견한 학자는 목적을 세우고 수단을 찾았다. 그는 우주정복에 대하여 공상하였으며 전생애를 통하여 수단을 찾았다. 마침내 정열을 기울인 결과 수단은 찾았으나 그것은 성숙되지

않았다. 그후 이 학자는 자기의 과학적환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었다.

첫 과학환상소설을 쓴 작가도 이렇게 행동하였다. 그는 지하에서, 지상에서, 바다에서, 우주에서 류다른 려행을 공상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 수단이 규정되지 못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남극을 잠수함으로 통과하며 달나라로 대포알을 타고 날아간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아직까지도 일정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는 기술적전망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정복에 대한 큰 공상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리유는 과학환상문학에서 백프로의 과학성을 요구할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적내용을 반영하는데서 나서는 요구는 셋째로 과학환상적세부를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성격을 그리는데 있어서 한 세부의 비진실성은 작품전체의 진실성을 잃게 하며 한 세부의 홀시는 그 전체의 파탄을 가져오게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환상적세부를 떠나서 인물들의 개성을 드러낼수 없으며 더우기 과학기술적내용의 과학성을 담보할수 없다.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환상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과학환상세부를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는 세부형상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기 위한 大—촉매물질이 들어있는 광석을 채취하러 달의 빙하구역에 갔던 주인공 성철이는 강한 유독성물질의 침해를 받아 숨지게 된다.

하지만 작품에 반영된 21세기의 전자물리치료방법은 달에 누워있는 성철이의 시체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전투를 지구에서 긴장하게 벌린다. 즉 의사들은 심장이 멎은 순간부터 뇌수의 기능이 마비되고 부패변질되는것을 닥기 위하여 환자인 성철의 몸에서 전

해오는 미세한 생물전지신호를 받아서 거기에 강력한 재생임풀수를 작용시켜 환자의 몸에 전달하게 한다. 그들은 특수 의료제조소에 곧 보내올 인공심장이 도착하면 자동적으로 심장이식수술을 진행하게 되며 성철연구사는 죽음에서 구원되게 되는것이다.

이 치료작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20여년간이나 영상재생장치인 《시간기계》를 만든 로학림교수이다. 그가 만든 《시간기계》는 죽은 성철의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머나먼 지구에서도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내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릴수 있었던것이다.

《시간기계》인 이 작품의 한 세부는 성철이의 연구와 실험의 실패원인을 찾아내는데 이바지할뿐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작품에서 세부형상의 중요성과 그 창작실천상의의는 다음대목에서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물리치료기구의사, 전자치료의사들은 로학림교수의 지휘밑에 지구에서 달에 누워있는 성철에게 인공심장을 레이자선에 태워보내는 작전을 벌리고있다.

《시간기계》로 불리우는 영상재생장치의 커다란 화면에 갑자기 레이자선을 타고 올라가던 인공심장이 전진속도를 멈추는것이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태양발전소를 실은 인공위성이 레이자선의 자리길에 들어서 레이자길을 가로막았기때문이였다. 위기일발의 시각이였다.

이제 10분후이면 성철이의 신경세포가 썩기 시작하겠는데 태양발전소를 실은 인공위성이 레이자의 자리길을 피하려면 30분은 걸려야 했던것이다. 더우기나 의사들이 주입한 소생임풀스는 10분이상 견지하지 못하는것이였다.

모두들 안타까와하며 나라의 과학발전, 나라의 연료문제를 풀기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영웅적위훈을 세운 성철이를 구원할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었다.

성철이를 구원하기 위한 한가지 방도는 레이자광선의 세기를 증가시켜 인공위성을 불태워버리는것이였다. 하지만 그 인공위성에

실은 태양발전소는 매초 100만키로와트의 전력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였다.

성철이를 구원하는 치료전투를 총지휘하던 로학림교수도 어쩌지 못하고있는데 한 청년로동자가 달려와 그 인공위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철이를 구원하자고 들이댄다.

로학림교수가 머리를 흔들며 그에게 위성발전소가 어떤 혜택을 주고있는지 아는가고 공박하자 청년은 잘라매듯 이렇게 대답한다.

《그 어떤 혜택을 준다해도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건 인간입니다.

이건 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이 도시, 아니, 수천만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그 말에, 수천만 우리 인민이 그걸 바라고있다는 그 의지에 로학림교수는 눈물을 머금고 청년의 두손을 덥석 그러쥐며 결심을 내린다.

이 모든것을 눈물속에 바라보던 성철의 어머니는 제 아들 하나를 위해 100만키로와트의 위성발전소를 폭파할수는 없다고 로학림교수를 막아나선다.

하지만 로학림교수는 성철의 어머니를 설복하며 주치의사에게 명령한다.

《의사선생, 조절변을 잡으시오. 우리 시대는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100만키로와트의 발전소를 폭파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는 이 땅우에 아니 온 우주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영사막에 옮겨진다.

주치의사가 스위치를 돌리자 강력한 레이자빛을 가진 광선파가 우주공간을 가로질러 쭉 뻗어올라가더니 우주발전소를 설치한 궤도위성에 부딪쳤다. 그러자 인공위성은 먼지처럼 사방에 확 흩어지고 레이자빛은 달걸면에 도착한다. 지구로부터 달걸면에 이르는 광대한 거리를 가로건너간 레이자선을 따라 인공심장을 실은 방열함이 운반체에 실려 빠른 속도로 달에 접근하여 성철이를 소생시킨다.

이것을 영사막을 통해 직접 목격하던 성철의 어머니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심장으로 웨친다.

(…내 아들은 21세기의 발전된 의학기술이 살려낸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간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걸 다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륜리와 도덕이 아들의 가슴속에 소생의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100만키로와트의 위성발전소를 폭파시키는 과학환상세부를 진실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이 작품은 자기의 형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으며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의 승리를 확언하고있다.

이 실례를 통하여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세부형상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작품전체의 형상효과에서도 매우 큰 실천상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작품의 창작과정은 결국 과학기술적내용에서 사상적인 대를 세우고 거기에 세부적인 형상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과학환상적세부가 없으면 형상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므로 매개 세부는 작품전체의 형상성에, 매개 세부의 진실성은 작품전체의 진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진실한 과학환상적세부묘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생동한 과학환상작품의 예술적형상이 창조된다.

작품에서는 과학의 기초지식에 맞지 않는 자그마한 표현일지라도 절대로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작품에 북극성이 하늘에서 이쪽저쪽으로 움직이며 여름밤인데 삼태성을 보며 망원경도 없이 천왕성을 관찰하는 등 천문학의 기초지식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와 눈깜짝할 사이에 수백만개의 복잡한 고등수학문제와 론리적연산까지 하는 초고속만능전자계산기를 과장하던나머지 사람들처럼 계산기가 창작사업을 하는것등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환상문학이기때문에 허용되는것으로 본다면 과학환상문학은 결코 인식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과학적문제의 범위를 벗어나 과학환상작품의 진실성문제와도 관련된다.

북극성이 하늘에서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할 때, 날개도 없는 소, 돼지가 푸른 하늘가로 훨훨 치달아오를 때 독자들은 그 작품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을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환상작품은 두말할것도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과학환상작품들은 인식적기능에 있어서 교과서의 방조자로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작품에서 과학환상적내용은 생활적으로 타당하고 진실하여야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어떤 과학환상만화에서 인식적내용을 아래와 같이 주었다고 하자.

《순돌—식당이 참 멋있구나! 자동식기계장치들이 음식을 입에다 떠넣어주는구나!》

그림에는 음식을 학생자신이 아니라 자동로보트가 먹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계화, 자동화의 방향이 아니다.

과학환상만화나 과학환상동화작품을 이렇게 썼다면 우리 당 정책에 대한 외곡이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속에는 밥을 먹거나 얼굴을 씻는것마저 자기 손을 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달군은 찾아볼수 없으며 그러한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

또한 과학적측면에서 볼 때도 밥먹는것마저도 제 손으로 먹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현대의학이 증명하는바와 같이 30살도 살지 못하고 죽을것이다.

우리의 혁명적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생활의 진실과 어긋나는 환상적내용과 세부를 철저히 배제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보장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이와 함께 독자들에게 과학지식을 주는데 있어서 그것을 다만 지식의 퇴적물로서 보여줄것이 아니라 그 발전의 내적동인까지 규명해줌으로써 그 인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작품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 과학과 생산의 밀접한 련계,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의 필요성 등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지식은 또한 일반과학서적에서처럼 정적인 상태에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문학작품은 과학지식의 단순한 창고로서가 아니라 사람,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움직이는 제조소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과학환상문학이 일반자연과학이 주는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참다운 문학적인 인식을 줄수 있으며 또한 작품들에 묘사되는 기적적현상들이 우연과 안일의 산물인것이 아니라 로력과 투쟁, 혁명과 진보의 산물이라는것을 명시할수 있는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기술적내용을 형상적으로 옳게 반영하는것은 작품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실현하는 기본담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며 일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첫째가는 정치적의무로 하는 우리의 모든 과학환상문학창작가들은 충성의 열도와 창작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과학인식적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는 품위있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3)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과학적환상

과학적환상은 과학환상문학이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표징이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생동하고 기발한 환상적인 수법으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면서 자연의 비밀속에 침투하는 사람들을 형상함으로써 거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난관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과정을 흥미있게 보여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대학생들과 과학자들이 과학적환상력을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래의 세기를 앞당겨보며 오늘날에 생기는 리념이 실천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상상해보는것은 현대 과학과 기술의 가장 흥미있는 미래를 선전하는것이므로 아주 중대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과학환상문학은 이 중대하고 유익한 일을 맡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에서 환상은 가치있는 발명의 시초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실로 이루어지는것이 많기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과학에서 환상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은 환상이 없고 장래를 내다봄이 없이는 전진할수 없다.

가설에 앞서 반드시 환상이 있게 되는것이며 실험은 가설을 과학적리론으로 전환시킬수 있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환상은 아직 탐구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외추법이며 미래에 대한 과학적예측이다.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칠수 있지만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할것이다.

과학환상문학은 무엇보다먼저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을 한껏 펼쳐보일것을 전제로 하며 그때라야만 그것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에서는 사실주의구성요소로서의 혁명적랑만성이 기본수법으로 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래에 대한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 변혁할수 있다는것, 지어 우주세계까지 인간의 창조적힘으로 점령하여 참된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고 추동하는 형상수법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실현될것을 전제로 하는 추상적가능성에 기초한 과학성으로 하여 동화와 신화, 이전의 랑만주의문학과도 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보여주는 미래는 무한히 광활하며 매혹적이다.

땅속을 손금처럼 들여다보며 그밑 수백키로메터를 씽씽 뚫고 들어가는 기계장치들이 나타날것이며 바다속에서도 땅우에서처럼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농사도 짓고 보물도 캐낼것이다.

그때의 생활에 대하여 과학환상문학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이다.

과학환상문학은 무엇보다먼저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을 적극 도입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과학탐구의 세계로 이끌며 그들로 하여금 탐구의 열정으로 불타게 할것을 요구한다.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을 반영한 과학환상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일정한 지식과 열렬한 탐구심을 배양할뿐아니라 그러한 성과들을 실제로 쟁취하려는 투쟁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과학적 세계관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수 있다.

어느 한 과학환상동화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있다.

《…진수는 며칠후에 자기가 만든 뽐프식고기잡는 기계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만능고기잡이배를 척 세워놓고 특수먹이 〈풍어—100〉호를 뿌려주었답니다.

그 먹이의 냄새가 어찌나 빨리 바다 먼곳까지 퍼졌는지 글쎄 얼마 안있어 깊은 바다속에서 잠자던 물고기도 먼바다로 헤염쳐가던 고기떼들도 앞서거니뒤서거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죽기내기로 몰려들었습니다.

진수는 바다속을 들여다보는 텔레비존화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파란 단추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나팔통같은 수지관이 여

러개나 물고기떼속으로 슬며시 내려가는것이였습니다.

그가 다시 빨간 단추를 돌리자 물고기들은 꼼짝 못하고 관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눈깜짝할사이에 배주변에서 와글거리던 수백, 수천만마리의 크고작은 물고기가 만능고기잡이배우에 산같이 쌓여졌습니다.

진수가 이번에는 성냥곽만한 텔레비존무선전화기를 꺼내들고 〈가공시작!〉 하고 소리치자 자동콘베아들이 가락맞게 스리슬슬 돌아가며 고기들을 실어갔습니다.

저장고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자동선별기의 신호에 따라 공치는 공치대로,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차곡차곡 갈라졌습니다.

한편 다른쪽으로 실려간 고기들은 어느새 통졸임이 되여 상자속에 들어가게 되였구요…》

이 과학환상동화작품에 반영된 과학환상은 지금 그물로 고기잡는 방법에 비하면 매우 우월한 방법이다.

이 방법이 앞으로 현실화되면 어로공들은 힘겨운 일을 영원히 바다속에 처넣고 안락의자에 앉아 산업텔레비존을 보면서 손쉽게 수백, 수천톤의 물고기를 잡게 될것이다.

이것은 결코 가능성이 없는 허황한 공상이 아니다.

우리의 고분자, 유기합성공학은 불원간에 이런것을 만들어낼수 있을것이며 또한 고기잡는 선진방법이 반드시 탐구될것이다.

통나무를 타고 돌창으로 고기를 한마리씩 찔러잡던 우리 선조들은 오늘 현대식고기배를 타고 한꺼번에 수십톤의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수산부문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나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기적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우에서 본 과학환상동화의 내용보다 더 발전된 물고기잡이방법을 창조하리라는 믿음직한 전제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우리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과학환상을 적극 탐구하여 활짝 펼쳐보인다면 그것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매우 큰 인식적, 교양적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가령 과학환상소설에서 바다우에 떠다니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벌리는 바다연구소조원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하자.

소설의 등장인물들인 바다연구소조원들은 우리 나라 바다밑에 건설된 광산과 탄광, 압연공장과 식료품공장을 견학하면서 과학자들과 로동계급들의 창조적투쟁에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그들은 바다속광산에서 금, 은, 동, 철, 석탄을 캐내고 원유까지 뽑아내는것을 보면서 전기가 많이 들겠다는 생각에 미친다. (그때 물속의 전등은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이곳 기사장의 말에 의하면 땅우에 있는 수력 및 화력발전소나 조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기때문에 때때로 전력이 약해진다는것이였다.

견학을 마친 주인공과 그의 동무들인 바다연구소조원들은 생각에 잠긴다.

《…지금 바다연구소조에서는 바다속공장과 광산들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바다우에 떠있는 발전소)를 연구하고있다지…

그런데 한곳에만 멈춰서있을것이 아니라 물결힘이 커지는곳을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전기를 생산하는 <바다우에 떠다니는 발전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들은 마침내 바다연구소 학자들을 도와 연구에 달라붙는다.

바다연구소조원들은 탐구속에 날과 달을 보내며 측정도 하고 계산도 한다. 고심참담한 노력끝에 바다속의 어떤 물흐름은 한시간에 큰 강보다 수천배나 더 많은 1000억톤의 물을 움직인다는것을 알아내며 파도가 두드리는 힘은 60여톤에까지 달한다는것을 계산해낸다. 그뿐아니라 바다바람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주목을 돌린 그들은 해류힘, 파도힘, 바다바람힘을 종합적으로 리용한 움직이는 해상발전소를 착상하여 훌륭하게 설계한다.

그리하여 바다연구소 학자들과 함께 《바다우에 떠다니는 발전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 이런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인민경제는 비할바없이 더 빨리 발전할것이며 따라서 우리 조국은 더욱더

부강해질것이다.

이러한 과학적환상은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것으로서 누구에게나 앞으로 실현될수 있으리라는 예측과 확신을 주며 빨리 그런 발전소가 건설되기를 은근히 바라마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과학환상을 실현하는 위업에 자기도 한몫 단단히 해보겠다는 의욕과 충동을 안겨주게 된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문학은 근로인민대중, 특히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있는 청소년들에게 특유한 과학적환상과 그것을 근기있게 실현해나가도록 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가장 대담한 환상들이 현실로 활짝 꽃피는 자주의 새 시대, 주체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자동화, 원격화의 시대이다. 대담하고 기발한 과학적환상이 현실화되는것은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힘찬 창조적로력의 결과이며 진지한 탐구의 열매이다.

우리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에 발붙인 근거있는 과학적환상은 이미 달성한 과학적성과에 기초하여 이러저러한 환상적가설을 세우고 그의 현실성을 증명하는데로 나가야 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과학환상작품들에서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지식을 주며 이러저러한 기구, 기계장치들의 구조설명이 예술적묘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나가는것이다.

과학환상문학창작가는 작품에서 이미 알고있는 개념과 표상들의 도움을 받아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새것을 설계하며 새 기계, 새 기구를 발명하여 새로운 사물의 형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알려진 과학적성과에 토대하고있기때문에 현실에는 없지만 마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 같이 느껴지는것이다.

그런데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황당무계한것들 최신과학성과에 기초한 만능탐험선을 타고 옛날 동화에나 나오는 룡궁을 찾아간다든가, 우주로케트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계수나무아래에서 부지런히 절구질을 하던 옥토끼와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는 식으로 써놓는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우선 독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며 또한 과학적환상으로서의 의의가 상실되고말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지식을 줌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될뿐아니라 그들의 탐구욕을 떨구고 과학적세계관형성에 반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은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인 상상, 근거있는 환상이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다음으로 미래의 생활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과학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상소설에서 환상은 허황한 공상이 되여서는 안된다. 환상소설에서 환상은 력사와 과학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생활의 진실에 발을 붙여야 한다.》(《주체문학론》, 248폐지)

과학환상문학에서 환상은 허황한 공상이 되여서는 안되며 과학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에 대한 공상과 념원에서의 과학성을 보장할 때라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상상의 힘을 키워주며 자기앞에 대담한 큰 목표를 세우고 미래에로 매진하게 한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어 미래에서 앞당길수 있는 모든것을 앞당기게 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만약 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하고 념원함에 있어서 과학성이 안받침됨이 없이 막연하게 공상한다면 오히려 미래를 그 어떤 연막속에 잠그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으며 그야말로 암중모색일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상은 미래, 소망하는 미래에로 지향하는 상상과정이다. 따라서 공상에는 사람들의 소원, 즉 우리들이 매혹되고 동경하는것이 형상적으로 표현된다.

공상은 현재의 활동으로가 아니라 미래의 활동에로 지향한다. 따라서 공상은 흔히 창조적상상의 첫 준비단계를 이룬다.

례하면 발명가는 창조적상상력을 발동하여 실지 만들어야 할

기계의 구조를 창조해나가지만 공상은 그가 장차 연구해낼 기계의 륜곽을 머리속에 그릴뿐이다.

그러므로 공상은 과학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유익한 공상과 그렇지 못한 공상으로 갈라지게 된다. 과학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한 공상이나 환상은 유익한것으로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지식계발과 탐구활동, 나라의 륭성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욕을 추동하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과학성을 보장하여 독자들을 유익한 공상이나 환상으로 불타게 하여야 한다.

미래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생활의 진실에 발을 붙인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그자체가 과학성을 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공상을 그 어떤 과학적한계속에 가두고 절대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환상문학에서 환상생활의 과학성문제를 강조한다고 하여 과학기술통속교재에서처럼 빈틈없는 론리에 맞게 취급할것을 요구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환상문학에서 환상생활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그의 현실성여부를 증명하라는데까지 이르는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를 제기할수는 없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총명한 사람》에서 리지민교수가 연구개발한 지능로보트—《돌쇠》의 생활을 두고 현실성여부를 증명하라고 할수는 없다.

작품에서 《돌쇠》의 《인물》형상을 다음과 같이 하고있다.

《…

인공뇌수를 가진 고급지능로보트인 돌쇠는 생김새와 몸가짐이 신통하게 사람을 닮아서 얼핏 보고는 진짜 사람과 가려내기 어려웠다. 얼굴과 팔다리도 사람처럼 생기고 수수한 고동색잠바옷차림에 로동모까지 씌워놓은데다가 사람의 걸음새도 그대로 모방하니 그럴만도 하였다.

기구학적으로 해석해볼 때 자유도의 수가 365개나 되는 사람몸

체의 복잡한 구조를 그대로 재현시키며 특히는 과학의 최신성과들의 산물인 인공눈과 인공귀, 인공입과 인공코 등을 만드는데는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심참담한 노력이 요구되였다는것을 여기서 새삼스레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비길바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무게가 한키로그람밖에 안되는 사람의 뇌수를 모방한 인공뇌수를 만드는것이였다. 바로 그 인공뇌수가 사람의 뇌수보다 못하기때문에 〈돌쇠〉는 사람이 아니며 사람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였다.》

작품은 계속하여 《돌쇠》가 리지민교수의 지령을 받는 생활이 펼쳐진다.

《너는 일정하게나마 배우고 기억하며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동안 연구실에서 너는 최소한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거쳤다.

이제부터는 현실에 직접 나가서 심화시켜야 하겠다.

이번 인생수업의 목적은 사람들속에 들어가 힘든 로동을 직접 해보면서 생활을 익히는데 있다. 그러므로 일도 배워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가질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너를 비공개로 보내는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눈치채지 못하면 그만큼 네가 능숙하게 행동한것으로 된다.》

《돌쇠》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있었다.

《네시간에 한번씩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자체검열을 하며 12시간안으로 에네르기의 보충사업을 잊지 말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것은 절대로 기계적인 조폭성과 전자기적인 무자비성, 인공적인 도식성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물어볼것이 없느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돌쇠》의 물음이였다.

《한달동안에 내가 준 과제를 다하고 돌아오너라. 저녁에 조용할때 내 방 창문밖에 와서 신호해라. 나는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자, 그럼 떠나거라.》

꾸뻑 절하며 뒤돌아서 내려가는 《돌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교수는 손을 흔들었다.

…

작품에서 《돌쇠》가 자기의 제작자이며 스승인 리지민교수가 차사고로 생명을 잃은것도 꿈만해하는 생활, 농장벌에 나가 직선운동만 하며 논일을 잘해주는 생활, 탄광에 가서 교대없이 수십시간씩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않는 생활, 잃었던 물건을 찾아주는 생활, 나중에는 리지민교수의 원쑤이며 창해와 혜성이를 랍치해간 스미스를 두목으로 하는 《기술파괴단》악당들을 짓뭉개버리는 생활은 매우 흥미있다.

이 과학환상생활, 아직은 그 현실성을 담보할수 없는 생활이라고 하여 과학성이 없다고, 동화적인 환상생활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 없다.

아직은 《돌쇠》처럼 행동하고 일하는 《인조인간》을 만들지 못하고있으나 공업로보트로부터 조종로보트를 계렬생산하고있는 현실은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있는 지능로보트뿐아니라 더 고급한 지성로보트도 만들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반영되는 생활을 두고 증명하라고 할수는 없다.

증명된 가설이 가설로 될수는 없는것처럼 과학적으로 근거지어지고 증명된 환상은 환상이 아니기때문이다.

작품이 이런 증명된 《환상》으로 씌여졌다면 그것은 과학환상문학의 중요한 특성인 환상이 결여되거나 극히 빈약한것으로 되여 환상작품은 아닐것이며 과학이야기나 과학해설서와 비슷한것으로 되고말것이다.

과학환상작품에서는 새로운 기계나 물체의 구조, 명칭, 그의 원리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환상생활이 묘사될수 있으며 응당 그렇게 되여야 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그러한것을 주되는것으로, 본질적인것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더 나아가서는 환상의 측면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부인하면서 작가적환상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과학적환상이 현실생활과 불가분리의 련관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과장과 대담한 허구는 필연적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것은 과학환상적내용은 먼 앞날에 가서 있을것인데 작품에서 취급되는 생활과 세부는 오늘의 현실이거나 혹은 더 후퇴하여 먼 과거의것을 흥미본위로 엮어놓는 경향이다.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인 상상의 힘, 과학적인 환상을 낮추거나 약화시킴이 없이 대담하게 폭을 넓혀 펼치는것은 과학환상문학의 예술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에 대한 공상과 념원에서의 과학성을 보장하여 래일에 살며 일하게 될 새 세대들앞에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어떤 사회이며 그를 위하여 어떻게 살며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환상적수법을 통하여 대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혁명의 시대에 살며 자라나는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 어떤것인가를 퍽 알고싶어하며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만약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과학환상작품들에서 모든것이 《좋고 좋아서》 아침에 잠을 깨면 자동기계가 이불을 걷고 방을 청소하며 한걸음 내디디면 진수성찬이 앞에 펼쳐지는식으로 환상세계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초인간적인 과학자가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을 척척 다 손쉽게 해결하고 실현하는 식으로 아무런 갈등도 투쟁도 없는 옛말속의 꽃동산을 그린다면 생활을 외곡하는것밖에 안될것이다.

물론 미래의 생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생활적인 갈등을 그린다는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창작실천상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주체의 요구대로 혁명은 계속되며 생활은 계속 앞으로 전진할것이므로 시대를 앞서는 투쟁의 불꽃을 꺼버려서는 안된다. 미래에 대한 공상과 념원의 불꽃을 과학성의 연료에 토대하여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은 다음으로 우리 식 환상을 적극 펼칠것

을 요구한다.

과학환상문학에서 우리 식 환상이란 현실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환상으로서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이지만 아직 탐구되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한 가설에 기초한 작가의 환상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성과 혁명성을 띤 주체적인 환상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식 환상은 아무런 인식교양적의의도 없는 공허하고 막연한 환상, 미래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줄 대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희롱하고 최신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비애와 탄식, 허무와 방종을 자아내는 부르죠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과학환상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우리 식 환상은 또한 신화적환상이나 중세기적환상, 랑만주의적환상, 사실주의적환상과도 질적으로 구별된다.

신화적환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인식능력과 생산력발전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던 원시사회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로부터 나온 환상이다.

인류의 유년기에 산 원시사회의 사람들도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발전에 대하여 리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그러한 리해와 해석을 과학적인식에 기초하여 할수 없었다.

자연종교적관념이 지배적이였던 원시고대인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자연의 제현상과 그 변화를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신》에 의한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였다.

이를테면 해나 달들이나 그밖에 많은 물체들에는 령혼이 깃들어있어서 마치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며 행동도 한다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별로도 되고 바람으로도 되며 해와 달로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원시고대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창조한 신화작품에 반영되지 않을수 없었다.

《환웅신화》에서 곰이 약쑥과 마늘을 먹고 굴속에서 정성을 들여 녀자로 변하였다든가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 어머니는 곰으로 설정한것 등은 원시고대인들의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때문에 신화적환상에 의하여 그려진 형상에는 사회 및 자연의 제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우상화가 부여되여있으며 현실적기초가 없는 비현실세계가 반영되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고대인들도 세계를 정확히 보려고 한 사실이 없지는 않다. 원시고대인들이 살던 프랑스의 라스꼬동굴이나 에스빠냐의 알따미라동굴에 그려진 짐승이나 그밖의 물건들의 그림을 보면 그들에게도 직관에 기초하여 세계를 있는그대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 인간들은 신화적환상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중세기적환상은 원시고대인들의 신화적환상과는 달리 봉건통치배들, 봉건사회의 불합리를 징계하고 근로인민대중을 동정하며 그들의 념원과 소원, 욕망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성격을 가지였다.

그러나 중세기적환상은 봉건유교적이였으며 현실과 유리된 생활을 그리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인간의 출생신고도, 결혼식도, 림종의 마지막 시각도 십자가앞에서 거행하여야 했던 중세기에는 환상도 역시 몽매와 굴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계적유물론 또는 형이상학적유물론에 기초한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기적인 비과학적세계관에 기초한 환상은 인간을 종교의 속박물로, 종교의 희생물로서 《천당》을 꿈꾸며 《하느님》의 사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게 한 엉터리없는 환상이였다.

중세기에 나온 전설 《설암자와 잉어》에서 룡왕은 인간의 소원을 풀어주는 인물로, 《신검박힌 불곡산의 석종》에서 나오는 을지문덕장군은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장수로, 《훌령산 백은암》에서 나오는 로승은 예언자로 모두 현실에서 볼수 없는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그리고 《약산동대의 거북바위와 동자바위》에서 사람으로 변한 꽃잎, 《치악산과 꿩의 보은》에서 나오는 구렝이의 화신 등은 모두 중세기적환상과 미신이 만들어낸 인물들이며 형상들이다.

이것은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할수 없었던 고대 및 중세기 사람들의 제한된 세계관과 관련되여있다. 중세기 인민들은 세계를 《하느님》이나 신이 지배하며 세계의 만물은 인간과 같이 의식을 가

지고있다고 여겼던 원시고대인들의 신화적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에 지배적이였던 불교나 봉건유교, 기독교사상은 통치배들의 사상적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저항주의와 타협하고 현실만족과 도피사상을 부식시켰으며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켰다.

이로부터 인민들은 억압자, 통치배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지만 반항할줄 몰랐으며 그들에게 순종하는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였다.

때문에 중세기적환상에 의하여 창조된 작품들은 아무런 투쟁도 없이 《하느님》에게 충실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당》에 가 잘살게 되고 신앞에 불응하고 반항해나서면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는것으로밖에 형상하지 못하였다.

랑만주의적환상은 계급사회에서 사회적모순이 격화되는 시기에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과 당시 사회현실간의 대립을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랑만주의자들은 소여의 계급사회가 빚어낸 모순과 불합리를 없앨수 있는 방도를 알지 못한데로부터 창작에서 현실적이며 생활적인 사실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념원하고 갈망하는 생활, 랑만주의적환상에 기초한 생활을 반영한다. 따라서 랑만적환상에 기초한 작품들은 착취사회의 현실생활을 부인하고 그와 대치되는 리상적인 생활을 보여주기때문에 작가의 주관적인 열정과 희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서구라파에서 프랑스의 마느퐈뜨라공업이 발전하고 영국의 라사공업이 대두하면서 과학기술이 일정하게 발전하게 되자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이 나오게 되였다. 이 시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어》에서 처음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이 제기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포부가 펼쳐지게 되였다.

17세기 이딸리아의 작가 캄파넬라는 《태양의 도시》에서 랑만적환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상에 젖어 미래사회와 과학발전에 대하여 꿈꾸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거의 개별적인 문인들도 환상적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적으로 환상적인 이야기로 되여있는것도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와 환상적인 이야기가 결합되여있는것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랑만주의환상가들은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환상을 펼칠수가 없었기때문에 자기들의 작품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와 환상적인 이야기를 뒤섞어놓은것이 많았다.

그들의 랑만주의환상소설에서는 지나친 과장, 비유, 상징, 격동적이고 시적인 언어표현, 자유분방한 서정, 기이한 사건줄거리 같은것이 많이 쓰임으로써 독자들이 종잡을수 없는 공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환상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여 때에 따라 염세와 타락에 빠지게 하였다.

지난날의 사실주의적환상도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의 견지에서 탐구되지 못하였다.

지난날의 사실주의적환상작품들에서는 환상이 어떻게 되여 발생하는가 하는 환상의 계기점부터 계급적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렵기적이며 흥미본위적인 환상이 아무런 전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왕왕 나오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사실주의적환상은 또한 작품의 전개와 결속단계의 구분이 없고 계급적립장에서 교양성있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심중한 결함을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사실주의적환상에 기초한 작품들은 환상의 론리성도 없고 사상적대도 명백치 못하였다.

작가들은 주체사실주의환상, 우리 식 환상을 활짝 펼침으로써만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과학환상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환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현실에 발을 붙인것이여야지 공중에 뜬것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때에 따라 환상은 엉터리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상은 때에 따라 엉터리없는 결과를 가져다준다는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환상소설을 읽을 때에는 이런 점에 주의를 돌려

야 합니다.》

생활에 발붙이지 못한 환상은 엉터리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런 환상을 반영한 《작품》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뿐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작품에 반영하는 환상적내용을 두고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탐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과학환상문학은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담하게 환상하는 법과 그 환상을 실현하는 법을 배워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인 과학기술의 현실적가능성으로부터 격리되는것을 미리 막아주는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환상세계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가장 관심사로 되는 초미의 문제들을 제기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과학환상이라고 하면 우주비행이나 먼 별나라의 세계 그리고 그 어떤 추상적인 세계에 대한 기발한 발명을 생각하군한다.

물론 우주려행이 현대과학의 최신성과의 한 표현이며 미지의 세계에로의 호기심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우주비행이 미래의 생활에서 주되는것으로는 결코 될수 없다.

왜냐 하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로케트가 자동차수만큼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우에 기둥을 박고 살게 될것이지 결코 우주방랑객이 되지는 않을것이기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농업을 공업화하며 공업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추진시키는 등 긴절한 과업이 얼마든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베링해협을 막아서 기후를 변경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환상을 할것이 아니라 서해안간석지를 막아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서해바다속의 지하자원을 어떻게 캐내겠는가, 그러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변모되겠는가 바로 이렇게 조선식으로 환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의 과학환상작품들이 반영하여야 할 과학적환상의 본질적내용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베링해협을 막아서 기후를 변경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거나 장글을 개간하여 옥답으로 전변시킬수 있는것 그리고 북빙양의 얼음을 녹여 한랭전선을 막았다는 식의 환상을 하는것보다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적환상을 적극 펼치는것이 더 유익하고 의의있는것이다.

이러한 의의있는 과학적환상을 반영한 작품은 독자—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의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무기로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는 의의있는 환상, 조선식환상을 펼친 좋은 작품의 하나라고 본다.

이 작품은 우리 나라에서 아직 원유자원이 개발되지 않고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에네르기자원이 점차 고갈되여가고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물에서 수소를 직접 분리해내는 촉매물질을 연구해내는것을 환상으로 취급하고있다.

지금 현대 과학기술은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네르기위기를 막는것이라고 보고있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연구집단은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대신에 태양에네르기와 지열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 해류힘을 리용하는 길로 연구방향을 돌리고있다.

이런 실정에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그것을 리용한 에네르기,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한다면 에네르기분야의 대혁명이라고 할수 있다. 지구상에 물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고갈될 념려는 없기때문이다.

수소는 휘발유보다 더 좋은 연료로 될수 있다. 그것은 수소에네르기가 휘발유보다 발열량도 2.7배나 크고 공해현상도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물에서 수소를 얻는 공정이 복잡하고 설비가 방대한데 비하여 효과가 적기때문에 대량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물에서 수소를 얻기 위한 수천가지 연구안이 제기되여 일부 리용하기도 한다. 티탄합금을 양극으로 하고 백금을 음극으로 하는 전해조를 리용하여 수소를 얻을수도 있고 마그네슘에 물을 접촉시켜 수소를 얻을수도 있다. 태양빛집광장치로 물을 섭씨 2,750~3,250도까지 가열시키면 물분자가 해리되여 기체상태의 산소와 수소를 얻을수 있지만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적다. 즉 집광장치만해도 수십메터의 직경을 가진 방대한 시설물을 지상에 건설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뿐아니라 저온플라즈마상태에서 해리된 물분자들을 담을수 있는 특수내열합금이 요구되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인공 김성철이가 새롭고 독특한 연구방안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것을 환상으로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해결하고있다. 즉 주인공의 연구안은 대기와 우주공간의 각이한 형태의 에네르기들, 빛량자에네르기나 대전된 구름, 번개불과 같은 거대한 량을 가지고있긴 하지만 자연속에 무효하게 류산되고있는 에네르기들을 자체흡수하는 촉매제를 쓰자는것이다. 이 촉매물질은 순간적으로 거대한 에네르기를 물분자에 전달함으로써 물의 공고한 화합물인 산소와 수소의 《팔》을 단번에 끊어놓을것이다. 그리하여 물에서 수소를 방출하는 환원반응이 비상히 촉진되게 된다. 이 촉매물질을 일정한 온도의 물에 타면 즉시 산소와 수소로 갈라지고 수소는 액화된다. 그리하여 송유관에서 원유가 흘러나오듯이 대동강이나 청천강,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액체수소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것이다.

이 작품의 환상적내용은 듣기만해도 흐뭇해지며 해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소설에서처럼 과학환상작품에 생활에 발붙인 환상, 우리 인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우리식 환상, 조선식 환상을 활짝 펼쳐보일 때 작품은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촉매물질을 얻기 위해 달나라에 가는 환상도 있고 인공심장을 운반하기 위한 레이자선과 태양발전소를 실은 인공위성 등 다른 나라의 과학환상문학작품에 많이 렬거되는 우주려행,

우주로케트에 대한 환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취급된 우주세계에 대한 환상은 부르죠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과학환상작품에서 《약국의 감초》처럼 리용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작품에서 취급된 우주려행이나 우주로케트에 대한 환상은 근거있게 펼쳐놓고있으며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식환상은 우주려행이나 우주세계, 사막개간이나 남극탐사등 미지의 환상세계,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환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주세계에 대한 책은 환상력을 키워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에게 천문학지식도 많이 보급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별나라로 가자〉, 〈속도를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우주세계에 대하여 쓴 책을 여러권 읽어보았는데 아주 흥미있었습니다. 천문학과 관련한 책은 우주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줄뿐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상력을 키워주는데도 좋습니다. 천문학책은 꿈이 많은 청소년들과 과학적 환상과 추상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보는것이 좋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을 보시고 천문학에 대하여 쓴 이 작품은 청년학생들속에서 흥미를 끄는 좋은 소설이라고 하시면서 우주에 대한 과학환상소설을 읽을 때는 엉터리없는 환상에 대해서는 경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말씀은 조선식 환상의 의의와 창작실천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명백한 방향과 방도를 해명해주신 가르치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과학적환상은 엉터리없는 환상과는 인연이 없으며 철저히 로동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환상이여야 하고 제국주의와 그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환상이여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의 어용작가들처럼 미래에 가서는 인간이 공기만을 먹고 산다거나 인간이 만든 자동기계들이 사람을 조종하고 부려

먹는 따위의 《환상》은 우리의 생활에 그 토대를 가지고있지 않는 허황한 망상으로서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리 식의 과학적환상을 적극 펼쳐보임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작품을 통하여 대담한 환상을 즐기도록 하며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게 해야 할것이다. 과학환상문학은 대담한 조선식환상을 고심참담한 연구와 거듭되는 실패와 성공을 거쳐 하나의 위대한 학설로, 과학적인 정설로 만드는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학생들의 자랑찬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그려낼 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제2장 과학환상소설창작

과학환상소설은 새로운 과학세계, 미지의 과학분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될 미래의 생활과 인간에 대하여 생동하고 흥미있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과학환상문학형태이다.

오늘 과학환상소설은 공산주의리상사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된 앞날의 우리 조국이나 자주화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환상소설, 화석이나 고고학적자료에 기초하여 기원전 세기의 인간과 그 생활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력사환상소설과 함께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며 적극 창작발표되고있다.

과학환상소설은 앞날의 우리 조국이나 자주화된 세계를 보여주면서도 주로 과학탐구생활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에 정력을 쏟아붓고있는 과학기술탐구자의 성격을 그리게 되므로 미래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회환상소설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과학탐구자와 그 생활을 정면으로 그리는 과학환상소설문학의 몇가지 사상미학적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독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작품창작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오늘 과학환상소설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비할바없이 비등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요즘 …과학환상소설은 학생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문학소설을 잘 읽지 않던 동무들도 과학환상소설만 나오면 다 읽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과학환상소설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되여 독자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고있다.

어느 한 공인된 과학환상소설작가의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은 23개 언어로 번역출판되여 여러 나라들에 보급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의 저자의 4번째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는 사실만을 두고 보더라도 현시기 과학환상소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독서열의가 얼마나 비등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식의 과학환상소설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과학지식탐구력과 환상력을 키워줄데 대한 방침을 적극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문학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제1절 과학환상소설의 특성

과학환상소설은 인간과 그 생활을 환상적형식으로 그려내고 환상세계를 기본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며 과학기술적내용을 인간문제에 해소시켜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등 과학환상문학의 일반적특성을 다 가지고있으면서도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8년 10월 5일방침에서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을 살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과학탐구에 구미를 돋구는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을 잘 살려야 과학환상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의 고유한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는것은 작품창작에서 근본문제로, 원칙적요구로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앞날에 펼쳐질 인간생활을 서사적묘사방식으로 전개하여 보여주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환상의 수법을 통하여 보여줌으

로써 학생들에게 끝없는 탐구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환상소설은 환상의 수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서사적묘사방식으로 전개하여 보여준다.

과학환상소설에는 사회와 인간생활, 자연의 모든 내용들이 펼쳐질수 있으며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형상적으로 구현된다.

일반소설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반영되며 등장인물들의 현재생활뿐아니라 어제날의 생활도 보여주고 래일의 생활도 보여준다.

그러나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일정한 자기의 묘사범위가 있다. 물론 과학환상소설에도 과학환상이 펼쳐지는 미래의 시기에 맞는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분야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에서, 과학기술생활과 관련된 범위에서 구현하게 된다.

창작경험은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어제날의 생활을 그릴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소설에서처럼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는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그리는 어제날의 생활은 일반소설에서 취급되는 어제날의 생활이 아니다. 오늘의 생활이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어제날의 생활로 될수 있으며 22세기를 그린 과학환상소설에서는 현시점에서 본 래일의 생활, 21세기의 생활도 과거생활로 그려질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펼쳐지는 생활은 일반소설에서 그려지는 생활과 질적으로 다르며 그 특성은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폭넓게 전개할수 있는 큰 형식의 과학환상장편소설들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전개하여 보여주는 특성은 작가가 생활을 환상의 나래를 펼쳐 객관적으로 그린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환상소설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생활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묘사방식의 특성으로 하여 묘사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다면적으로 전개하여 그릴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는 작가의 객관적인 시점을 통하여 일반소

설에서는 그려낼수 없는 환상적인 생활이 실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진다.

과학환상소설은 또한 시간적인 제약과 무대적인 제약을 받는 과학환상극문학과는 달리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뒤생활과 그들의 내면세계까지도 다 펼쳐보여줄수 있는 형상적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환상적형식으로 자유분방하게 펼쳐보이는 과학환상소설은 인간과 그 생활전모를 리해할수 있게 하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묘사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과학환상극문학에서 제한받는 뒤생활이 과학환상소설문학에서는 뒤생활로 처리되지 않게 된다.

과학환상극문학은 무대우에 앞날의 생활을 그려보일것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과학환상극문학의 이러한 무대적조건성은 생활을 반영하는데서 고도의 극적 집중화와 집약화를 필수적요구로 하며 등장인물들의 극적인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본질적이며 정수적인 극적국면들만 전면에 내놓고 이여의 생활들은 생략할것을 요구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과학환상극문학에서 깔리거나 생략된 뒤생활을 전면에 끌어내여 주인공의 성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도록 펼쳐보여주는 전개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문학에서는 작가가 묘사대상에 감성적으로 침투하면서도 객관적인 묘사방식에 의하여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감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서사적묘사방식의 가능성을 보다 전면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전개된 생활묘사야말로 과학환상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일반소설에서도 전개된 생활묘사가 있지만은 과학환상소설에서처럼 자유분방하게 할수는 없다. 일반소설에서는 생활적진실성문제에 저촉되지 않게 잘 타산하여 묘사하여야 하지만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근거있는 과학환상에 기초하여 생활묘사는 얼마든지 전개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바다에서 솟아난 땅》과 《두개의 화살》은 극적집중화와 장면설정들을 잘 주면서도 뒤생활을 끌어내여 전개함으로써 주인공성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게 묘사를 잘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은 서해바다밑의 땅을 인공적으로 솟아나게 하여 8만평방키로메터의 광활한 새땅을 얻어내려는 주인공 철수와 숙희의 과학적환상이 유능한 선배과학자들의 영향과 지도를 받아 나래를 펴게 되는 과정이 소설적으로 전개되여있다.

이 장면은 작품의 주제사상과 인물성격들의 초기상태를 제시하고 리해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학시절부터 푸른 꿈을 키워온 철수와 숙희는 자주 해변가 높은 언덕우에 올라서서 사나운 들짐승처럼 날뛰는 바다를 어떻게 하면 길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몰아간다.

그들은 이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바다를 조사측량하고있는 학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들도 그 위업에 직접 참가하리라는 결심을 다지게 된다. 이 장면은 주인공들이 앞으로 과학탐구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충동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아직 탐구의 사나운 풍랑을 헤쳐가기에는 그들의 탐구적나래가 너무도 연약하였으나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탐구에 한생을 바친 부모들의 유언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가 그들로 하여금 위험이 뒤따르는 자연과의 힘겨운 투쟁의 파도를 넘어 자연정복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작품은 사상주제적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인공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뒤생활까지 끌어내다가 전개하여 묘사하였다. 작품에서는 바다탐사에 나갔다가 그 어떤 알수 없는 《물체》의 강력한 빛에 의해 실명하게 된 주인공 철수가 침대우에서도 오로지 8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에만 몰두하는 장면과 결정적인 시각에 무엇이 자기를 연구에서 떼내게 하였는가 하는 생각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정신상태를 서사적으로 전개하여 묘사되였을뿐아니라 철수를 비롯한 연구소집단의 성과가 눈에

뜨이게 나타나자 그를 시기하는 실장을 리용하여 파괴음모를 꾸미는 미제의 고용간첩과 잠수함을 타고 기여든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는 과정을 흥미진진한 생활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의 이 장면에서는 숙희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 동지인 철수의 눈이 어떻게 되겠는가, 시력을 다시 찾게 되겠는가, 아니면 완전히 실명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불안에 떠는 그의 심정과 함께 중요한 연구사업의 주역을 놀던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연구사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이와 함께 소설에서는 보람찬 연구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탐구생활을 펼쳐보이면서 주인공들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주인공들의 뒤생활이 소설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와 그것을 구현하게 될 성격들의 초기상태를 다각적으로 깊이 리해할수 있게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문학은 묘사범위에서 제한성을 받지 않으며 다른 과학환상문학형태들에서 전개할수 없는 생활까지도 자유롭게 전개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묘사범위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인물들의 과학적세계관형성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과학생활과 폭넓고 깊은 과학지식을 주며 그들의 과학탐구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게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으로 환상세계에 대한 묘사를 위주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묘사를 수단으로 과학생활을 반영하는 묘사의 문학이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이 묘사의 문학이라는것은 그것이 앞날의 생활, 환상적인 생활을 화폭적으로 펼쳐보이는 문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소설에는 언제나 생활화폭이 펼쳐지며 인간성격들의 산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기서 생활화폭이나 인간성격은 일반소설문학과 같은것이 아니다.

과학환상소설의 생활화폭은 오늘 현대의 생활화폭이 아니라 과학환상적내용을 부각하고 안받침할수 있는 생활화폭이며 인간성격

도 보다 완성된 성격으로, 환상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은 일반소설문학의 예술적묘사수법을 다 가지고있으면서도 환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생활의 본질에로 더 깊이 파고들어 모든 생활의 의미와 색갈, 음향, 향기 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묘사의 폭과 깊이는 한계가 없으며 묘사하지 못할 그 어떤 대상도 있을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이 과학생활과 그 생활의 담당자인 인간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고 하여 단순한 기록으로 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감동성이 없는 묘사, 기록적인 묘사, 단순히 과학기술적내용을 전달하는 식의 묘사는 과학환상소설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작가는 일반문학의 묘사대상보다 취급하기 어려운 대상, 미지의 과학환상세계를 묘사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묘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리해하기 어려운 문제, 해득하기 힘든 기계구조나 작용원리를 알기 쉽게 묘사하는 기량을 부단히 숙련하는것, 이것이 과학환상소설가의 임무이며 과학환상소설가로서의 창작적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된다.

과학환상소설가가 해득하기 어려운 과학문제나 기계구조, 작용원리를 알기 쉽게 묘사하지 못하고 따분하게 써놓았다면 독자들은 그 책을 덮고 책장에 세워둘 권리가 있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은 다른 형태의 문학작품들과는 달리 더우기나 따분하여서는 안된다.

일부 작가들은 과학환상소설문학의 묘사대상이 따분하고 흥미없는것이기때문에 작품이 딱딱해지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분한 과학은 없다. 따분한 서술이 간혹 있군할뿐이다.

과학기술은 그자체가 매혹적이며 더우기 미래에 가서 실현될 과학환상은 그자체가 흥미진진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탐구자들은 자기의 온 일생을 과학기술에 바친다. 이 매혹을 독자들에게 전달할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바로 과학환상소설가들이다.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묘사, 설명에 가까운 《묘사》로써는 독자들을 끌수도 없으며 더우기 흥분시킬수 없다. 문맥의 감미로운 박동이 없이, 단조롭고 무난한 단어의 련결로 문장을 이어간다면 치순이 마모된 치차와 흡사하며 그런 치차는 아무것도 끌고 돌아갈수 없을뿐아니라 아무것도 운동시킬수 없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가는 독자들이 차창을 통해서 단조로운 사막지대를 보고있는 려객과도 같이 졸음이 낀 시선으로 작품의 글줄을 대강 훑어내려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소설가는 일반소설가들보다도 묘사의 능수가 되여야 하며 언어의 능수, 복잡한 기계구조도 선명하게 상상할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묘사의 개척자로 되여야 한다.

일반소설가인 경우에는 생활속에서 보고 체험한 대상을 예술적환상을 펼쳐 그리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전혀 보지도 못한것, 지어 상상조차 못했던 과학기술적문제나 기계구조 및 작용원리를 과학기술적가설에 기초하여 작가적환상을 펼쳐 눈앞에 보는듯이, 손으로 만져보는듯이 그려 독자들을 납득시키고 흥분시켜야 하므로 묘사의 능수, 새로운 묘사의 개척자가 되여야 하는것은 필연적이다.

과학환상소설의 묘사수법의 특성은 언어를 유일한 표현수단으로하여 과학환상적생활과 그 개척자, 주인으로서의 인간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때문에 묘사를 위한 언어숙련을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언어묘사는 작품의 감동성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묘사를 떠난 훌륭한 작품이란 있을수 없고 묘사가 잘되지 않은 과학환상소설은 그 어떤 감흥도 자아낼수 없다.

초상묘사, 심리묘사, 환경묘사, 자연묘사, 기물묘사 등을 통한 묘사의 진실성, 생동성, 심오성은 과학환상소설의 형상성, 감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되며 감동성은 작품의 내용과 그 묘사수법의 통일에 의하여 보장된다.

과학환상소설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있는 묘사적특성

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생활세부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에서 나타난다.

생활세부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가 잘 보장될 때 작품은 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주인공 김성철이가 달의 빙하구역에서 大촉매물질을 얻어내고 유독성물질의 침해를 받아 희생되였다는 보도기사를 받아안은 그의 어머니 순영녀성의 심리세부에 대한 분석묘사가 그 례로 될수 있다.

《…

순영은 아까부터 책상에 앉아 해빛이 조화를 부려 수십가지 색을 내는 어항단지에 초점없는 시선을 던지고있다. 그의 무릎에는 한장의 신문이 되는대로 펼쳐져있었는데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해빛은 치명적인 글발이 새겨진 신문의 표지에도 아낌없이 밝은 빛을 부어주고있다.

〈인류과학을 위한 참된 죽음!〉

어제저녁 석간신문에 발표된 성철에 대한 보도기사였다.

성철의 어머니 순영은 벌써 몇번이나 곱씹어 읽어 내용을 훵하니 꿰뚫고있는 그 기사내용을 다시금 곰곰히 음미해보고있다.

기사는 길지 않았다. 김성철연구사가 물에서 수소를 순간적으로 갈라내는 大촉매물질을 연구완성하기 위하여 달의 빙하구역에서 일하다가 유독성물질의 침해를 받았다는것이다. 영웅의 심장은 비록 멎었으나 그는 자기의 희생적노력으로 大촉매물질의 연구완성을 위한 마지막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 내용이였다.

사그러져가는 저녁해빛이 펼쳐놓은 신문을 걸쳐 순영의 침침한 얼굴로 옮겨졌다. 창백한 그 얼굴은 돌로 만든 석상처럼 움직일줄 모른다. 가슴을 에이는 절망감과 고독이, 참기 어려운 비통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을줄 모른다.

그의 머리속으로는 大촉매물질의 연구사업을 둘러싸고 흘러간 지나간 한생의 력사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스물네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섬으로 떠나보낸 녀인,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녀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大촉매물질의 성공을

안고 돌아온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大촉매물질이 성공하여 인류에게 참다운 복리를 가져다준다면 남편의 육체도 돌아온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늘 생각하는 녀인이였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이 촉매물질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돌파구를 죽음으로 열어제꼈다.

순영은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다시 잡았다.

신문의 웃면에는 성철의 사진이 크게 소개되였다. 깨끗한 대학생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있는 성철의 매력있는 얼굴에는 깨끗한 미소가 피여있고 어글어글한 눈망울은 동터오는 청춘의 희망을 마중하는듯 어딘가 먼곳을 바라보고있다.

름름한 그 모습은 세월을 거슬러 제 아버지를 섬으로 떠나보낼 때의 재롱스럽고 귀여운 어린애로 변하였다. 〈아들아!〉

순영의 두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여오르더니 샘물처럼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심리, 사랑과 애절한 감정을 안고 무엇인가를 안타까이 기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독자들을 작품의 세계로 끌어들이는것은 바로 어머니, 순영이의 심리세부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묘사한데 있다.

《…〈네가 진격로를 열어제꼈구나! 장하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난 네가 너무 장해서 운다.〉

실룩거리는 입술사이로는 뜨거운 눈물이 쉽없이 흘러들었다.

〈너의 아버지도 영웅이고 너도 영웅이다. 나는 영웅의 안해이고 영웅의 어머니기에 그것이 기뻐서 운다.〉

순영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였다.

그러자 손수건은 단번에 젖어버렸다.

이때였다.

등뒤에서 살그시 문여는 소리가 들리였다. 인기척을 듣고 순영은 들어온 사람이 딸 성옥이라는것을 알았다.

순영은 붉어진 눈언저리를 딸에게 보이고싶지 않아서인지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순영은 엄한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다.

〈어떻게 빨리 들어오는거냐? 퇴근시간이 아직 안되였을텐데…〉

〈동무들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일찍 들어가란다고? 무엇때문에?〉

순영은 딸의 얼굴을 곧바로 들여다봤다. 슬픔으로 가득찬 성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였고 두눈은 퉁퉁 부어올랐다.

성옥은 책상우에 펼쳐진 신문에서 밝게 웃고있는 성철의 사진을 보자 《오빠!》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순영의 무릎에 얼굴을 콱 묻었다.

순영은 자기도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성옥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얘야, 이젠 그만 하렴. 과학의 험난한 길에 어찌 희생이 없겠냐? 너의 아버지도 너의 오빠도 너무 일찍 갔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사람은 어느때건 한번은 죽기마련이고 살아서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해놓는가가 중요하지. 울음을 그쳐라.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의 뒤를 이어 어떻게 일하겠는가를 생각해라.〉…》

과학환상소설문학에서도 인간심리세부에 대한 분석적묘사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생활세부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중요하며 묘사적특성의 핵이라고 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이 다른 소설형태들과 구별되는 특성은 또한 그것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며 과학기술적내용을 론리적으로가 아니라 환상적인 형식을 통하여 반영한다는데 있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과학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는 문학이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성격을 창조하고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들에 일정한 이야기가 도입되는것은 앞날의 생활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는 과학환상소설문학의 형태적특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간성격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그려지고 해명되며 작품의 주인공은 언제나 환상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된다. 따라서 환상적인 이야기의 전개과정은 곧 주인공의 성

격을 해명하는 과정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환상의 수법을 자유자재로 씀으로써 인간관계나 이야기의 설정과 전개부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펼칠수 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새로 연구되는 복잡한 기계 구조와 원리,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생활과 사회현상을 기계적으로 라렬하지 않으며 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작가의 환상능력에 따라 재구성한다.

과학환상소설작가의 이 분석과 평가에 의한 객관적사물들과 현상들은 앞날에 펼쳐질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것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생활의 객관적론리에도 부합되며 서사문학의 한 형태로서의 특성을 살리게 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이 발전해온 력사를 놓고보아도 흥미있는 과학환상적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전달하는 과학환상이야기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이것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왔다.

17세기 하반기 기상학의 창시와 원자설 및 천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처음 구두로 전달되여오던 과학환상이야기가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과학환상소설의 체모를 갖춘 사실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출판된 《저축되는 태양열》, 《얼음의 힘》, 《미래의 려행》, 《전분합성공장》, 《동해에 원유가 있다》 등을 비롯하여 과학환상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그것은 모두 사건과 이야기 줄거리가 뚜렷한 작품들이였다.

이야기식과학환상작품은 사물과 현상, 사건발전의 객관적론리를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므로 독자들의 흥미와 탐구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이로부터 사건과 이야기보다 인간성격묘사를 통한 과학환상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작품창작을 지향하게 되였다.

과학환상이야기가 점차 성격창조를 위주로 하는 과학환상소설

로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를 무시할수는 없었다.

그것은 과학환상소설에서 성격창조가 이야기를 솜씨있게 짜는 구성의 기교와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아무리 기발한 과학환상적내용을 담은 소설일지라도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잘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능숙하고 솜씨있게 전개해나가는 구성작업을 잘하지 못한다면 인간성격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으며 훌륭한 작품이 창작될수 없다.

어느 한 중편과학환상소설창작과정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 작품은 심의본 수정과정에 작가가 착실히 작업한 결과 의의있는 작품으로 출판되였지만 일정한 창작적교훈을 주고있다.

초기작품은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잘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잘 엮어나가는 구성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인간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하였었다.

소설에서는 작가가 처음에 박사 한세웅의 양딸 수련이가 건축기사로서의 두각을 나타낸데 대하여, 그의 창조물인 훌륭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으며 그에 앞서 한세웅박사의 손자의 발명품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주고있다. 독자들에게는 소설이 손자의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되다가 다음은 수련이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로 착각되게 되며 그후에는 한세웅박사의 탐구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간주하게 된다.

소설의 절반분량을 지나서야 우에서 이야기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서양 운석사건》을 해명하는 이야기이라는것을 짐작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되는 《대서양 운석사건》이란 방사성원소의 광물덩어리로 된 자그마한 천체가 태양계의 먼 변두리너머 오오르트별구름밖으로부터 어떤 원인에 의하여 태양계로 들어오게 되였으며 내부로 돌입하면서 수많은 운석들과도 충돌하게 된것을 말한다.

그렇게 충돌한 운석 하나가 대서양 무인도에 떨어졌으며 방사성원소의 천체는 태양가까이로 접근하던중 목성과 만나게 되여 그

것에 포획되게 되였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헤르클레스성좌에서 지구로부터 5억8천만키로메터라는 현대관측수준에서 볼 때 멀다고 할수 없는 거리의 목성주위를 돌고있는 그 천체를 발견하게 된다. 관측과 분석에 의하면 그 천체의 질량은 230여톤가량인데 그것은 다량의 방사성원소를 함유한 광물로 되여있는것이였다.

분석해보니 20세기 6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피타게 탐구하던 초중원소의 하나로서 원자번호 114번에 해당하는 원소라는것이다.

이 원소는 1kg당 2,100억키로쥴의 에네르기를 발산하는것으로써 우라니움—235의 3배에 해당하는 에네르기를 발산한다.

때문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 특히 조선의 젊은 학자들인 최정민과 정선희부부, 서아프리카의 열에네르기학자 캐리 무스만, 애급지질학자 알 사바흐, 에쓰빠냐천체물리학자 헤르네스 싼체스, 알제리화학자 부메디 부메디엔, 꾸바 천문학자 다까르 잠비, 캐리 무스만의 아들 미라타 무스만의 관심과 탐구적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8명은 운석이 떨어진 대서양의 무인도에 도착하여 공동연구를 벌리게 되며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던중 모두가 바람과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 세계의 통신, 방송들은 입을 모아 이들 8명의 실종사건을 두고 제나름대로 해석하며 조사단을 파견하여 해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헛물만 켜고 돌아서게 되며 세월의 년륜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한세웅박사만은 《미지의 천체 92계획》이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만단의 준비를 갖춘다.

그리하여 90살의 박사 한세웅은 플라즈마로케트를 타고 몇십년이 걸릴지 모를 우주려행, 그 운석이 떨어진 천체 《라크리마》(눈물이라는 뜻)를 향해 조국을 떠나게 된다.

《라크리마》에 도착한 한세웅박사일행은 뜻밖에도 최정민, 정선희부부를 비롯하여 8명의 학자들이 여기에 숨겨놓은 록화테프를 발견하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그들의 실종사건을 해명하게 된다.

《비피》라는 악명높은 제국주의 패잔세력의 두목인 스처드와 브

라이스에 의하여 8명의 학자들이 대서양의 무인도로부터 이곳《라크리마》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발명한 새 원소《노오비온티움》을 인간멸망, 지구를 없애려는 놈들의 흉계를 돕는 일에 강요당하게 된다.

하지만 용감하고 지혜로운 최정민부부는 학자들을 발동하여 놈들의 검은 흉계를 파탄시킬 용단을 내린다.

그들은 핵연료,《노오비온티움》저장고를 만든다는 구실을 붙여《라크리마》에 7개의 수직굴을 뚫어 각각 100톤가량씩 모두 700여톤의 핵연료를 묻어두어 폭발을 일으킨다. 강한 분사추진력을 얻은《라크리마》는 하나의 로케트가 되여 지구로부터 멀리 날아가버리게 함으로써 지구에 닥쳐올 재난을 목숨바쳐 막게 된다.

록화테프에는 마감에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아 참으로 아쉽다. 우리가 발견한 이 거대한 자연의 재부를 우리는 지금 지구로부터 멀리 날려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 눈물의 별이 다시 반가운 인간의 손길을 찾아 지구로 돌아가게 될 날은 언제이겠는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것으로 하여 작가는 이 중편과학환상소설의 제목을《별은 돌아오리라》라고 붙인것이다.

소설은 과학환상적내용도 흥미진진하고 과학적가설에 기초하여 작가적환상을 펼친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지만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구성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인간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사건적으로 보면 최정민과 정선희부부가 주인공이 되여야 옳겠지만 얼핏 보면 최정민의 딸 최수련이가 주인공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그의 양아버지이며 최정민의 스승인 한세웅박사가 주인공인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어느 한 등장인물도 력점을 찍어 형상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구성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로부터 초래된것이다.

이 작품의 구성작업이 제대로 되자면 현재 분량의 2/3가량은 버리고 나머지 1/3 즉 한세웅박사가 우주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로부

터 플라즈마로케트안에서 《대서양 운석사건》을 두고 회상하며 그 비밀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는것으로 시작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의 전반내용은 《라크리마》에서의 생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새 원소 《노오비온티움》을 발견하고 리용하려는 최정민을 비롯한 학자들과 그것을 인간의 멸망에 악용하려는 스쳐드와 브라이스일당사이의 심각한 계급적대립을 보여줌으로써 격동적인 사변들과 사건들,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주인공들의 운명과 밀접히 통일되게, 작품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그 사변들과 이야기들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으로 되게 그려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소설은 일정한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를 전제로 하는 문학의 한 형태이며 이 특성으로 하여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으로 보여주면서 인간성격을 다각적으로 밝히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은 그가 반영하는 생활내용을 담는 폭과 깊이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과학환상소설은 앞날에 펼쳐질 생활내용을 담는 용적의 크기에 따라 단편과학환상소설, 중편과학환상소설, 장편과학환상소설로 나누어진다.

소설형태들은 생활반영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형태적특성을 옳게 살리는것은 과학환상소설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단편과학환상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어느 형태들보다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민감하게 기동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일반단편소설에서는 현재생활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미화분식함이 없이 기동적으로 반영한다면 단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미래의 생활을 우리 당 정책에 탈선되지 않게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일반단편소설에서 취급되는 생활소재를 취급할수 없을뿐아니라 앞날의 과학기술생활이라고 하여도 우리 당 정책적요구와 세계 과학발전추세를 잘 타산하여 무리없이 구현하여야 한다.

단편과학환상소설은 용적이 작은 소설이다.

또한 과학기술적인 인간문제를 민감하고 예리하게 제기하고 짧은 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명확한 사상을 기동적으로 밝힐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단편과학환상소설은 과학기술적인 추세와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우리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그 관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제때에 해답을 줄수 있는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형식으로 된다.

단편과학환상소설 《과수원을 가꾸는 〈나비〉》는 청소년학생들이 전자공학과 식물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기동적으로 반영하여 지혜있고 탐구적열정이 비상한 고등중학교 생물소조원들의 사랑스러운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을 전자공학과 생물학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선도한 작품이다.

또한 단편과학환상소설 《밝혀진 유전의 비밀》에서는 주인공인 청소년학생들이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유전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탐구의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작품이다.

보는바와 같이 단편과학환상소설들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나라의 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은 또한 주제의 단일성에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단편소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있는것이지만 차이점은 단편과학환상소설에서 취급되는 생활의 한 단면, 한 측면은 보다 제한되여있고 참신한 환상적성격을 띠여야 한다는것이다.

단편과학환상소설 《무지개 비낀 도시》는 대기의 수증기속에 있는 수소분자에 소립자를 결합시킨 특수한 빛의 포격으로 일어나는 수소분해반응에 의한 《인공태양》을 은정지구에 띄우는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추운 겨울에도 그 일대만은 플라즈마이온막으로 덮이게 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온실, 보이지 않는 온실구역을 만드는

과학기술탐구생활을 흥미있게 그리고있다.

이 작품은 생활의 한 단면, 한 측면을 선택하여 과학을 사랑한다고 하여 다 과학자로 되는것은 아니라는 주제를 풀어나가고있지만 일반소설에서 취급할수 없는 환상적생활, 인공태양을 띄워 추운 겨울에도 옹근 도시 하나를 온실화하는 과학기술생활을 펼쳐보이고 있는것으로 하여 일반단편소설의 특성과 구별되는것이다.

단편과학환상소설은 앞날에 펼쳐질 생활의 한 단면, 한 측면을 선택하여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본질과 사회적문제에 대한 커다란 사상을 밝혀낸다. 과학기술의 본질과 사회적문제성을 폭넓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장편과학환상소설이나 중편과학환상소설에서 취급할수 있는 환상적사건을 취급하는것은 단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을 무시하는것이다. 장중편들에서 취급할 환상내용을 함축하여 취급하여서는 단편과학환상소설이 창작될수 없다.

주제의 단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단편과학환상소설로 하여금 시대가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에 기동적으로 해답을 주는 가장 전투적인 형식으로 될수 있게 한다.

단편과학환상소설 《번개잡이 비행선》은 물리학과 지질공학 등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하여 수재로 이름높은 한 과학소조원이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의의가 큰 《번개잡이 비행선》을 구상하고 연구하는 과학환상생활의 한 단면을 취급하고있다. 이러한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하여 주인공인 과학소조원과 그의 동무와의 관계속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탐구분야는 더욱 세밀해지므로 어떤 새로운것을 만들자면 그만큼 여러부문 과학자들의 지혜와 힘이 합쳐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이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수재라고 할지라도 집단의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과학연구사업은 그만큼 빛을 볼 시간이 늦어지게 되므로 누구나 다 과학탐구에서 개인영웅주의, 소총명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보는 바와 같이 과학환상단편소설은 생활의 한 단면, 한 측면을 선택하여 하나의 주제를 풀어나가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밖에도 단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은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 묘사의 집중성과 함축성에 있다.

일반단편소설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복잡한 과학기술적내용을 동반하며 흥미있는 과학환상속에서 인간문제를 취급하는 조건에서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 묘사의 집중성과 함축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

단편과학환상소설은 과학환상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문학이며 그자체가 독자들의 흥미를 끌수 있으므로 이러저러한 사건적이야기를 늘여놓다나면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학환상사건을 극적으로 긴장하게 전개시킬수 없어 인물들의 극적관계가 심화될수 없을뿐아니라 환상사건자체도 간결해지지 않게 되며 주제가 여물수 없다. 결과 창작실천에서는 종종 과학환상이야기형태나 과학환상내용을 전달하는 잡문으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학환상속에서 하나의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 작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째이지 못하면 주제를 명백히 실현할수 없게 된다.

단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구성의 자그마한 불균형도 인차 감정을 상하게 하며 그것은 주제실현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로 되여 형상의 진실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단편과학환상소설은 가장 본질적이며 의의있는 집약화된 과학생활단면을 선택하여 시대의 본질을 일반화해야 하는것만큼 간결하고 치밀한 구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주제해명에 필요한 인물만 등장시키고 그의 성격도 주제해명의 측면에서만 그려져야 한다.

과학환상적인 사건도 간결해야 하므로 인물관계가 극적으로 심화될수 있게 성숙된 계기로부터 시작하는것이 좋다.

사건이 간결하고 긴장되여야 인물들의 극적관계가 심화되고 따라서 그들의 내면세계가 깊이있게 드러나게 된다.

단편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은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을 원만히 보장한 작품이다.

작품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탐구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보통 우표속에 수천만개의 빛전지소자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집채같은 짐짝도 공중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지혜와 헌신적인 노력을 다 바쳐가는 주인공과 그의 연구를 허황한 환상으로 치부하고 도리머리를 흔드는 인물이 설정되고있다.

단편소설에서는 인물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켜 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 계기부터 사건을 극적으로 긴장하게 조직하고있다.

작품의 기본사건은 수천만개의 빛전지소자가 들어있는 우표를 만드는것이다. 작가는 이 사건을 간결하게 조직하기 위하여 인물관계가 처음부터 극적으로 맺어질수 있는 성숙된 정황으로부터 시작하고있다.

만약 갓 전학해 온 주인공을 과학소조에 101번째로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하는 극적인 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인공이 그 우표를 만드는것을 결심하는 동기로부터 시작하였다면 사건은 복잡해지고 따라서 인물관계가 희미해지며 주제가 산만해졌을것이다. 단편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은 인물관계가 극적으로 맺어질수 있는 성숙된 계기로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치밀하게 조직함으로써 사건의 간결성을 보장하면서 높은 희생성과 탐구정신, 불굴의 의지를 소유한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깊이 해명할수 있었다.

단편과학환상소설은 그 묘사에서도 집중성과 함축성을 필수적인 요구로 한다. 주제가 단일하며 구성이 간결하고 치밀한데 비하여 묘사밀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주인공의 성격이 두드러질수 없고 주제사상도 명백치 않게 된다.

단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몇개의 과학생활장면에서 작가의 창작적의도를 실현하여야 하는것만큼 하나의 장면, 하나의 세부라도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설정된 장면이나 세부들은 창작적의도에 따라 력점이 가도록 묘사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의의있는 장면과 세부는 살리고 있어

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생활세부들은 대담하게 빼버려야 한다. 중장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많은 과학생활장면들이 묘사되기때문에 밀도가 희박한 한두장면의 묘사가 끼여도 다른 장면에서 보충될수 있지만 단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매 장면들이 뚜렷한 과제를 안고있기때문에 단 한 장면도, 한 세부도 소홀히 할수 없다.

단편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이나 《열을 내는 꽃》에 묘사된 매 장면들에는 생활의 정수가 담겨져있으며 한 세부, 한 장면의 묘사에서도 주인공의 성격적특징을 부각시킴으로써 묘사의 집중성과 함축성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 특성은 단편과학환상소설에 비하여 보다 전개되고 폭넓은 생활을 담는데로부터 주제와 구성, 생활내용의 폭과 깊이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은 무엇보다 먼저 주제설정에서 기본주제외에 부차적인 주제도 설정된다는데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은 주인공이 살고있는 앞날의 어느 한 시기를 포괄하면서 그 시대적본질을 밝히게 된다. 따라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그들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역시 단순하지 않다. 또한 일반 중편소설과는 달리 중편과학환상소설인 경우에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적관계가 얽혀들게 되며 과학기술상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인간관계가 이러저러하게 맺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본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할 기본주제외에 부차적인 주제도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중편과학환상소설에서도 부주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수적인 현상이다.

부주제는 기본주제해결에 복종되여야 한다. 기본주제해결에 복종되지 않는 부주제는 주제의 분렬을 초래할뿐이다.

부주제는 그자체에 의의가 있지만 기본주제를 살린다는데 기본기능이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의 기본주제는 인공적으로 지각운동을 일으켜 서해바다밑의 땅이 솟아나게 하여 8만평방

키로메터의 광활한 새 땅을 얻게 되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발휘한 자기 희생적인 탐구정신이 어데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중편과학환상소설은 이 기본문제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를 위해 자신을 바쳐가는 뜨거운 인간애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자연과의 싸움에서 집체적 지혜와 열정을 발휘할수 있었다는 해답을 주고 있다. 이 기본문제외에도 거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해 나서는 내외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증오심 문제, 온갖 보수적이고 진부한것들과의 치렬한 투쟁문제들이 설정되고있다.

이 부차적인 주제들은 다 기본문제해결에 철저히 복종되여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구성의 특성은 또한 구성의 폭이 넓다는데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은 기본주제외에 부차적인 주제가 설정되는데로부터 그 담당자들인 인물관계가 단편에 비하여 복잡하고 그들관계속에서도 발생발전하는 사건도 비교적 폭넓게 전개된다. 물론 일반소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일반소설보다 구성의 폭을 자유분방하게 넓힐수 있으며 환상적 정황과 계기로 하여 예상을 뒤집어엎거나 결과를 예상할수 없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과학환상소설은 과학기술생활을 위주로 하는 생활범위가 일반소설보다 제한되여있으나 구성의 폭은 더 넓힐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환상적수법으로 형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다는 사정과 환상형식으로 미래의 인간과 그들의 사회생활도 얼마든지 그릴수 있다는 사정에 기인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모든 사람이 통일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면서 신심에 넘쳐 투쟁하고있는데 작가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한 그날의 감격적인 모습을 환상적으로 형상한 소설을 써낸다면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고무해줄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리상사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된 앞

날의 우리 조국이나 자주화 된 세계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그려낼수있다. 그런 소설은 휘황한 래일에 대하여 해설하는 강연보다 더 큰 감흥을 줄수 있다.》(《주체문학론》, 247～248폐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뿐아니라 사회환상소설도 쓸수 있다. 사회환상소설은 미래의 사회생활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과학기술생활을 반영한다면 과학환상소설은 미래의 과학기술탐구생활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그 시기 사회생활도 필요한만큼 구현하게 된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소설구성에서 환상속의 과학기술적내용과 사회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으며 일반소설구성에서보다 구성의 폭을 넓힐수 있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은 복잡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재미있고 뜻이 깊은 이야기로 엮어나가야 하는것만큼 단편과학환상소설에 비하여서도 구성의 폭이 넓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에서 작품에 제기한 주제적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인공 철수와 숙희를 비롯하여 연구소장, 부소장인 한박사, 달우실장, 연구소에 잠입한 간첩인 석호, 해리맨함장을 비롯한 원쑤들, 그리고 철수의 어머니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인물들을 등장시키고있다.

또한 이들을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정복하고 길들이는데 한생을 바쳐갈 푸른 꿈을 실현해가는 연구사 철수와 숙희,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고무해주는 담당교수와의 관계가 기본축을 이루면서 공명심에 들떠있는 연구실장과 연구소에 잠입한 적간첩과의 관계, 연구소장과 담당교수와의 관계, 철수와 어머니와의 모자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져있다. 사건취급에서는 바다밑땅이 물우에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 《돌격호》를 타고 땅밑으로 들어가 무서운 용암도 뚫고나가고 원쑤들의 방해책동도 물리치며 마지막탐사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중심사건으로 취급하면서도 작품의 앞머리에서 보여주는 연구실장의 소극적인 바다개발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차적사건들이 전개되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 형상요소들은 기본주제의 해결에 복종되면서

전일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흥미있고 뜻이 깊은 이야기로 조화롭게 구성되고있다.

이와 같이 중편과학환상소설은 단편에서처럼 생활의 어느 한 단면, 어느 한 계기를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앞날에 펼쳐질 어느 한 시기를 포괄하여 시대의 본질을 일반화하는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폭도 넓지 않을수 없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은 또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준다는데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은 주인공의 생활을 어느 한 시기를 포괄하여 반영하는 구성상 특성으로부터 주인공과 그와 관계되는 인물들의 성격을 다양한 미래의 과학생활속에서 이모저모로 밝혀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중편과학환상소설은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특징적인 성격의 한 측면이 아니라 그의 성격의 전모를 다양한 생활속에서 밝혀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중편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복잡한 사건발전속에서 성격적특징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의 주인공 철수의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의 정복자가 될것을 꿈꾸어 온 학우 숙희와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 연구사업에서 경쟁자인 석우실장과의 관계, 잠입한 간첩놈과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측면들이 조명되고 종합되여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려는 주인공의 숭고한 애국심과 혁명동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정신도덕적특질을 깊이있게 드러내고있다.

작품의 기본주제는 주인공의 성격적특징이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와 사건발전속에서 드러나는 성격적측면들이 축적되고 종합되면서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점차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짐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이 생동한 형상으로 실현되게 된다.

장편과학환상소설은 중편과학환상소설이 가지고있는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은 앞날에 펼쳐질 과학기술시대의 생활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다는데 있다.

장편과학환상소설에서는 앞날에 펼쳐질 해당 과학기술시대의 본질이 집중적으로 체현된 전형적인 사건들을 줄거리로 한다.

아. 엔 똘스또이의 장편과학환상소설 《아엘리따》는 두 세계의 투쟁,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과학기술생활속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는 화성에서 피압박대중이 착취자들에게서 해방될수 있게 도와주는 주인공 구쎄브의 형상을 통하여, 그와 련결된 각이한 계층들의 인물들의 운명발전을 통하여 미래에 펼쳐지게 될 시대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장편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은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과학탐구와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린다는데 있다.

장편과학환상소설에서 앞날에 펼쳐질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한다는것은 결국 그 력사적사건에 참가한 등장인물들의 운명발전과정을 줄거리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뒤떨어진 과학연구방법과 경제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탐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바로 혁명적인 사변으로 되며 이러한 사변속에서 과학기술의 탐구자, 개척자인 인간들의 성격도 변화발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날에 펼쳐질 력사적사건은 미래의 사회적환경으로 되는 동시에 거기에 참가하는 인간들의 혁명적인 생활이기도 한것이다.

이 환경속에서 혁명적인 개척자, 탐구자로 자라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잘 그려야 그 사건들을 뜻깊은 생활로 되게 할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과학탐구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줄거리로 하여야 작품에 제기한 주제의 대를 똑바로 세울수 있고 점차 폭넓고 심도있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인공은 과학기술혁명이 발전하는 과정에 그 본질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하여 락관하면서 미지의 과학세계를 목적의

식적으로 탐구하고 개척해나가게 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피타는 과학탐구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사상의식과 생활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장편과학환상소설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1959년 우리 말로 번역된 이전 쏘련장편과학환상소설 《별나라에서 온 손님》과 그후 그의 속편으로 번역출판된 《깔리쓰또인들》은 우주공학과 항공력학이 고도로 발전된 22세기의 사회력사적환경을 흥미있게 펼쳐보이면서 우주공간의 다른 유성들에도 리성이 있는 생명이 있을수 있다는것과 그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구인들의 생활과 과학기술발전에서 그리고 작품에 반영된 씨리우스계의 네번째 유성, 항성간 비행선으로 11년간을 날아가야 가닿을수 있는 깔리쓰또인들의 사회발전과 그들의 처지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에서는 7월의 어느 한 이른아침에 꾸르스크주지역에 내려앉은 크고 흰 구모양의 항성간비행선과 그 비행선의 주인들인 살빛이 검은 금발의 깔리쓰또인들과의 조심스럽고도 감격적인 상봉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성 깔리쓰또(가상적행성)에서의 계급 없는 사회제도는 과학과 기술의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깔리쓰또인들과의 접촉으로 하여 과학기술이 비상히 발전할것을 두려워하는 제국주의파괴암해분자들은 우주비행선의 원동기를 파괴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게 된다.

작품은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멸망의 마지막 길에 들어선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비인간적만행은 용납될수 없으며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해야 과학과 기술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는 의의있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꾸쁘리야노브교수나 젊은 학자들인 쉬로꼬브와 씨나예브는 이 기본문제를 집중적으로 체현한 인물들이다.

의학박사이며 생물학자인 꾸쁘리야노브가 지구에로 접근해오는 흰 구모양의 굉장히 큰 항성간비행선을 처음 발견한 그 시각부

터 깔리쓰또인들이 지구에 200일간 체류하는동안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복잡다단한 사업을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 투쟁은 원쑤들의 악행으로부터 깔리쓰또인들과 우주비행선을 지키고 지구의 손님들과 친선과 련대성을 보장하는 보람찬 투쟁의 로정인 동시에 그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성장하는 로정이였다.

이 길에서 꾸쁘리야노브교수와 쉬로꼬브의사는 지구의 장래발전과 인류를 위해서는 자기 한몸의 희생도 무릅쓰고 어떤 위험과 죽음의 나락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과학탐구에 용약 떨쳐나서는 참된 과학자로 준비하게 된다.

작품은 원쑤들의 악랄한 파괴암해책동속에서 깔리쓰또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비행선을 수리보강하여 자기의 고국으로 무사히 떠나보내며 자신들이 25년동안 지구와 리별하기로 결심하고 깔리쓰또인들과 함께 과학탐구의 길로 떠나가는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질을 형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제기한 기본문제를 심화시켜 폭넓게 풀어나갈수 있었다.

보는바와 같이 장편과학환상소설은 과학기술탐구속에서, 온갖 낡고 진부한것들과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의 성격을 잘 그려야 작품에 제기한 기본문제를 생활적으로 풀어 독자들을 공감시킬수 있다. 흥미있고 새로운 과학기술문제라고 하여 그것만 장황히 서술하고 론리적으로 전개해나간다면 독자들에게 과학기술도서를 읽는것처럼 어렵게만 느껴졌지 과학기술발전에 용약 떨쳐나서 거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자각과 열성을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작가들은 주체적문예리론에 기초한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과 문학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야 할것이다.

제2절 과학환상소설의 종자

1) 과학환상을 꽃피울수 있는 종자의 탐구

과학환상을 펼칠수 있으면서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탐구하는 문제는 과학환상소설의 가치와 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8년 10월 5일 과학환상문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에서 우리 당 정책적요구를 반영한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옳게 골라쥐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과학적환상을 키워주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종자론에 기초하여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은 과학환상소설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했으며 과학환상소설작품을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게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게 하였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생활속에 있는 인간의 형상이다. 이 인간형상을 꽃피우고 생명을 부어주는 과학기술생활의 사상적알맹이가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종자로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이 인간학으로 되려면 종자를 옳바로 잡아야하고 종자를 잡아야만 그것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탐구생활의 진리를 밝히는 참된 교과서로 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소재와 주제, 사상의 근저에 위치하여 그 모든것을 과학기술생활의 진리를 심오히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떠밀어주는 근본적인 요인인 종자의 발견은 과학환상소설사의 획기적사변으로 되였다.

종자를 파악하고 철학적으로 심도있는 소설작품창작에 힘을 넣게 됨으로써 과학환상소설가들은 도식주의와 기록주의의 저조한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날수 있게 되였으며 과학기술적가설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앞날에 펼쳐질 과학환상세계를 륜곽적으로 그리는데 그치던 경향을 극복하고 산 인간,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는 탐구자들을 생동하게 그리며 미래의 생활을 선도하는 인간학의 창조자로 확고히 전환하게 되였다.

과학환상소설이 19세기중엽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환상소설작가 쥴 베른과 19세기말엽 영국의 이름있는 과학환상소설작가 허버트 죠지 웰즈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과학환상소설창작가들에 의하여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것으로 불리워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전시기 동서고금의 모든 과학환상작품은 인간학창작의 길을 명확히 알고 창작된것이 아니였다. 지난 시기 과학환상소설가들은 인간학의 본성과 그 근본을 틀어쥐지 못한것으로 하여 왕왕 인간을 그리노라고는 하였으나 그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줄 참다운 삶의 진리를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선진적인 시대상과 정신도덕적풍모를 담느라고는 하였으나 그것을 산 인간의 진실한 생활속에서 그려내지 못하였다.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가린기사의 쌍곡선체》(아. 똘쓰또이), 《불타는 대지》(에프. 깐듸바), 《량서인》(아. 벨랴예브), 《무속으로의 조약》(아. 벨랴예브), 《북방의 방파제》(아. 까잔쩨브)와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깊은곳으로 가는 길》(웨. 오호뜨니꼬브), 《황금의 밀바다》(웨. 넴쪼브), 《무지개의 일곱가지색》(웨. 넴쪼브), 《신 끌리프쓰트림》(아. 뾰드쏘쏘브) 등은 산 인간을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하였으며 종자가 명백히 심어지지 않아 과학탐험기와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

초기 우리 나라 과학환상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말엽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우리 나라 과학환상소설작품은 산 인간들의 모습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리였다.

이 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보아주시고 평가해주신 과학환상소설들인 《별나라로 가자》, 《속도를 위한 투쟁》, 《네메지

다의 운행》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과학환상작품들이 창작발표되여 청소년들의 과학환상력을 키우며 과학탐구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1960년중엽에 들어와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은 한층 활기를 띠고 창작되였다. 남궁손의 과학환상소설집 《바다속의 궁전》을 비롯하여 김동섭의 중편과학환상소설 《소년우주탐험대》, 단편과학환상소설들인 《은하수를 지나서》(김동섭), 《래일의 언덕》(김동섭), 《들리지 않는 노래의 비밀》(김동섭), 《〈포보수〉의 지하궁전에서》(차용구), 《장수못의 비밀》(홍순원), 《마지막 생명선》(홍순원) 등 수많은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은 독자들의 탐구욕을 북돋아주고 과학탐구의 길에 용약 뛰여들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과학기술탐험가들의 위훈과 탐구생활에서 창조된 미담들을 전달하거나 흥미있는 사건들을 라렬하는것으로만 그치고 참된 삶의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과학환상소설문학을 탐구생활의 교과서로, 참다운 인간학으로 창조할수 있게 하는 종자리론이 밝혀지지 못했던 사정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에 작품의 주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여왔으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과학환상문학을 탐구생활의 진리를 밝혀주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확고히 전변시킬수 없었다.

종자리론이 제시됨으로써 과학환상소설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생활의 교과서로 되게 할수 있는 근본고리가 밝혀지게 되였다.

종자는 과학환상소설작가가 독창적으로 발견한 생활의 진리,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며 탐구자의 존재가치와 삶의 목적, 방향에 관한 사상의 정수이다. 따라서 종자는 과학환상소설작품에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소재와 주제, 사상의 근저에 놓이며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진리를 밝히는 방향으로 떠밀어주게 된다.

종자에 관한 리론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지난 시기에 우리 과학환상소설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없는것으로 하여 흥미있는 인간관계와 인상적인 성격들을 그려

낼수가 없었으며 독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참다운 삶과 탐구에 대한 작가의 주장이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되지 못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소년우주탐험대》에서도 지구와 같이 사계절이 있고 자연조건도 비슷한 화성에 사람이 살고있다가 다른 행성으로 집단이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과학기술적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최근에 창작발표된 중편과학환상소설인 《두개의 화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작품들은 우리 당의 종자론에 기초하여 작품의 핵,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똑바로 쥐고 거기에서 이야기줄거리를 자래워 주제를 여물게 하고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두개의 화살》에서는 현대과학기술로 무장된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화살,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야할 화살과 적을 소멸해야 할 화살을 정확히 겨누고 쏘아야 한다는 의의있는 사상이 관통되게 되였다.

이밖에도 과학자들은 탐구와 사랑에서 자기리기적이 아니라 자기희생적이여야 한다는 종자를 심고 깊이있게 형상한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에서 철학적인 씨앗을 깊이있게 심어놓게 되였다.

이밖에도 최근 우리 과학환상문단에는 종자에 관한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작품창작에서 일련의 진보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단편과학환상소설집들인 《번개잡이 비행선》과 《열을 내는 꽃》을 비롯하여 장중편과학환상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되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과학환상소설문학은 늘어나는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리만큼 많이 창작되지 못하고있으며 그 사상미학적수준도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환상소설종자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추상적인 사상적알맹이인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적내용을 동반한 생활을 안고있는 사상적알맹이라는데 그 특

성이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종자를 잡을 때에는 과학기술론문에서와는 달리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것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로써 파악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소설종자의 특성을 잘살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과학론문의 종자와는 달리 과학기술생활을 안고있는 사상적알맹이다.

종자는 과학기술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탐구생활의 씨앗이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창작에 앞서 먼저 종자를 옳게 골라잡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를 옳게 골라잡는것은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탐구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여 생동하게 형상해낼 때에만 작품의 인식교양적역할을 높일수 있다.》(《영화예술론》, 20~21폐지)

첨단과학기술이 적극 탐구개발되고있는 현시기 과학기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옳게 골라잡는것은 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창작실천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일반소설의 종자탐구와는 달리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특성에 맞는 종자에 대한 파악이 없는데로부터 종종 정치적인것, 사회학적인것, 과학기술적인것을 그대로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라고 하는 경향과 순수한 인생문제, 생활세태, 일반소설문학에서나 종자로 될수 있는것을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라고 주장하는 편향들이 나타나고있다.

어떤 과학환상소설을 쓴 창작가는 최근 휘발유사정이 긴장한

사정과 관련하여 고주파복사속을 리용한 날아가는 자동차설계제작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소설에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의 힘과 지혜를 합쳐야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종자》로 제기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교양적가치가 있는 《종자》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속에서 탐구된 인간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문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자》에서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성공하여 명성을 떨쳐보려고 했는데 안되고 집단의 힘을 발동하니 인차 되더라 하는 식의 상식적인 사회학적도해밖에 나올수 없기때문이다.

이 과학환상소설은 창작과정에서 실제로 진통을 겪었으며 과학환상소설인지, 과학환상이야기인지 두리뭉실한 《작품》으로 종말짓고말았다.

이 창작가는 응당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시련과정에 하나 둘의 힘과 지혜를 뭉쳐나가는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인간문제, 운명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했었다. 정치적인것, 사회학적인것을 개념으로 제기하는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탐구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기때문이다.

다른 류형의 과학환상소설경우도 종자 아닌 종자를 작품에 심었기때문에 인간학창조의 근본에 관한 문제에서 탈선되는 경우가 있다.

한 과학환상소설가는 수력자원인 조수력, 풍력, 파도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청년과학자들의 탐구생활과 애정륜리생활을 취급한 중편과학환상소설에서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것을 《종자》로 취급하였다. 탐구생활, 일단 연구하기 시작한 문제는 어려운 과제라고 하여도 끝까지 수행해야 하며 그 탐구속에서 언약된 사랑은 끝까지 마련을 보아야 한다는것을 《종자》로 제기하였다. 이 《종자》는 얼핏 보면 운명적인 그 무엇이 있는것 같이 느껴지며 사회적문제성도 있는것 같다.

하지만 이 《종자》는 사회학적인 개념의 직선적인 도해와 추상적인 인도주의가 비껴있을뿐 철학적인 무게를 가진 종자, 인간문제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진짜 종자로는 될수 없다.

결국 이 작품은 심의과정에 류산되고말았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의 특성은 또한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 뚜렷한 예술적표상과 자유분방한 예술적환상을 준다는데 있다. 작가가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잡았을 때에는 벌써 작품에 그려질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 예상하게 된다.

말하자면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문제, 생활범위와 이야기줄거리등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암시받게 된다.

어느 한 중편과학환상소설의 창작경험을 놓고보면 작가가 작품의 종자를 잡았을 때에는 이미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표상이 머리에 선히 떠올랐었다.

과학자는 탐구와 사랑에서 자기리기적이 아니라 자기희생적이여야 한다는 작품의 종자를 쥐게 되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와 집단,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지어 세계를 진감시킬 명예도 사랑도 화려한 꽃다발도 다 바치는 주인공 광원이의 성격이 예상되였으며 뒤에서 꾸준히 광원이의 연구사업을 뒤받침해주는 교수와 모욕을 받고서도 조국의 부를 늘여가는 개척자이기에 희생적으로 도와나서는 해미의 성격발전과정이 생동하게 표상되였다.

이런 인간관계속에서 생활범위가 펼쳐지고 이야기줄거리가 뻗어나가게 되였던것이다.

이렇듯 과학환상소설에서 종자를 바로잡아야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으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의 특성은 다음으로 예술적인 표상과 함께 과학기술적인 표상을 주는 사상적알맹이라는데 있다.

작품륜독과정이나 심의과정에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종자에 대한 요구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종종 튀여나오고있다. 다시 말하여 일반소설과 달리 과학환상소설은 형태상특성으로 하여 종자가 뚜렷하지 않아도 일없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나오게 되는것은 과학환상소설을 권외문학으로 여기면서 일반소설에서 제기되는 종자론의 요구가 필수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릇된 리해가 잔존해있기때문이다.

이 론조가 부당하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오늘 홍수처럼 범람하는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 인간문제를 되는대로 취급하며 철학상의 근본문제까지 제나름대로 해석하며 사람들의 정신령역을 좀먹고 염세와 극단한 인간증오사상으로 이끌어가고있는 조건에서 철학적무게가 담겨진 의의있는 종자를 바로쥐고 우리 식의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에서는 종자에 대한 요구성을 늦출것이 아니라 철학적무게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더욱 철저히 요구하여야 하며 예술적인것과 함께 과학기술적인 표상을 주는 사상적알맹이를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은 과학기술적인 내용이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구현되여야 하므로 작가가 종자를 잡았을 때는 이미 작품에 형상적으로 그려질 과학기술적내용의 범위를 예상하게 된다.

즉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적문제와 인간문제, 인간관계를 조건지어주는 흥미있는 과학기술적자료들이 문학적인 이야기줄거리와 같은 기본형상요소들에 복종되는 방향에서 생동한 과학기술적표상으로 암시받게 된다.

례를 들어 주인공이 파도력, 풍력, 해류힘을 종합적으로 리용한 《바다우에 떠다니는 발전소》에 대한 과학환상소설을 쓴다고 하면 잡아쥔 종자에 따라 과학기술적범위를 예상하게 되지 수천수백가지의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 그 모든것을 통털어 예상할수는 없다. 일부 창작가들은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과학환상 그자체가 흥미있으므로 종자나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탐구보다도 취사선택된 과학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것은 마치도 파도력, 풍력, 해류힘을 종합적으로 리용한 발전소를 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계산부터 이야기해야겠는데 다차원수리물리방정식이나 3중적분공식에 의한 선형계획법문제를 광범한 독자들이 리해할수 없다.

구체적인 원리나 기계구조를 쓸수 있는 정도까지 탐구되였다면 그것은 본래의미에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따라서 과학환상소설을 쓸것이 아니라 과학론문을 쓰는것이 더 의의있는 일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과학기술론문의 종자를 쥐는것과는 달리 작품에 그려질 과학기술적내용의 범위, 기본 테두리를 예상하게 되는것이며 이러한 표상을 받을 때만이 작가가 작품의 종자를 잡았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작품내용의 기본으로 되는 동시에 환상형식의 기초로 되며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되기때문에 작가는 먼저 환상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될수 있는것을 탐구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일반소설의 종자에 비해볼 때 자기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작가는 주로 과학기술생활범위에서, 새로운 과학탐구사업이 벌어지는 실천속에서, 세계 최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투쟁속에서 그리고 과학적가설을 전개한 문헌작업에서 환상적성격을 띤 참신한 종자를 골라잡고 잘 형상할 때라야만 과학환상소설로서의 특성을 살린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낼수 있다.

작가가 현실에서 어떤 대상에 눈을 돌리며 사회생활의 어떤 측면에서 종자를 골라잡는가 하는것은 과학환상소설문학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선택되기때문이다.

그러면 종자를 옳게 골라잡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종자는 무엇보다먼저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는 무엇보다먼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영화예술론》, 2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그 실천방도를 제때에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정책, 특히

우리 당의 과학기술방침과 방향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하며 그것을 깊이 연구한 토대우에서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찾아 환상의 나래를 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언제나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세계 최첨단에 내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종자를 찾아낸다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 《<101번째>과학소조원》의 작가는 수송혁명과 관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작품의 핵으로 되는 사상적알맹이를 과학환상생활과 결부시켜 잡을수 있었다.

이 소설가는 공학을 전문하는 대학교원으로서 당의 수송방침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물동량을 쉽게 수송할것인가를 늘 생각하던중에 수천만개의 빛전지소자가 들어있는 자그마한 우표, 비행기보다 더 큰 출력을 가진 발동기로서 강력한 분사흐름을 내여 물체를 앞으로 떠미는 우표같은것을 연구하여 리용하면 수송문제를 풀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듭해왔다.

우표속에 몹시 작은 프로그람발동기를 설치하고 그것만 붙여놓은 다음 신호를 보내면 굉장히 큰 짐짝도 공중으로 유유히 날아가는 환상, 참으로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우리 인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허황한것이 아니며 원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

작가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환상을 펼치고 무르익힌 결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것, 실패에 겁먹지 않는 사람만이 과학의 탑을 쌓을수 있다는 종자를 골라쥐고 창작의 전 과정을 흥미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이나 《두개의 화살》의 종자탐구과정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과학환상소설작가들은 당정책에 의거하여 생활에 발붙인 미래를 대하여야 하며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작가들은 당정책을 한갖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당의 요구에 맞는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잡아쥘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다음으로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으로 잡아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인간학의 본성에 맞게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 종자로 되자면 주요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구성과 양상 같은것을 예상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경제기술적문제나 과학적문제를 구현할것을 요구하는 과학환상소설에서 종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의 경제정책이나 과학기술혁명을 실현해나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있어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과학탐구와 그들의 투쟁속에서 종자를 탐구하지 않고 경제건설과 과학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라고 하여 그것을 직선적으로 반영한 종자를 탐구하려고 할 때에는 흔히 형상으로 구현할수 없는 종자를 쥐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일반소설의 종자로는 될수 있어도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로 될수 없는것을 쥐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려고 하여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일반소설의 종자는 과학적환상을 형상으로 구현할수 없으므로 과학환상소설의 종자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과학환상소설은 과학환상생활속에서 잡아쥔 사상적알맹이로서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 예상할수 있는 종자, 환상의 형식을 거쳐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질수 있는 종자로 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상의 형식을 거쳐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독자들에게 과학환상소설로서의 감동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종자탐구에서 정치사상적의의만을 중요시하고 예술적의의를 홀시해서는 안된다. 정치사상성이 높아도 과학환상의 형식속에서 예술적형상으로 풀어낼수 없는것이라면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로 될수 없다. 작가가 종자를 똑바로 골라쥐지 못하면 사상성도

예술성도 과학성도 다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정치적의의와 예술적가치가 있는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활을 폭넓게 탐구하고 깊이있게 체험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는 어떤 과학기술의 론리적인 씨앗이 아니라 과학기술탐구생활의 씨앗인것만큼 언제나 생활속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과학환상소설가들이 새로운 최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는 탐구현장이나 연구소, 공장기업소 등 현지에 나가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보람찬 탐구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것이다.

작가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구체적인 생활에서 잡아쥔 종자라야 시대가 요구하는 절박한 인간문제에 대한 옳은 해답을 줄수 있는 사상적알맹이가 박이게 되고 예술적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 인물, 갈등, 사건, 줄거리, 생활세부 등 형상의 요소들이 체현될수 있으며 환상적형식으로 펼쳐질 과학기술의 내용의 범위가 규정될수 있다.

이렇게 잡은 종자라야 과학환상소설가에게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뚜렷한 표상을 주고 앞으로 그려질 생활화폭들과 과학환상의 내용들을 예상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자라야 주제사상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구성형식도 찾아낼수 있게 한다.

어느 한 작가가 중편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잡던 경험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 작가는 한 신문에서 어느 한 출판부문의 책임적인 일군이 자기의 출판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면서도 밤시간마다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 당에 기쁨을 준 과학적발명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작품을 쓰게 되였다.

작가는 흥분하여 그 출판일군에게 달려가 취재하던중 격하지 않을수 없는 사연들을 알게 되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학습하던중 연구사업의 종자를 쥐게 되였다는 사정, 전공분야도 다른 그였지만 우리

당이 요구하고있기에 생소한 과학분야를 초학도의 걸음으로 개척해나갔다는 이야기, 실패를 밥먹듯하며 시비군들의 눈총과 험구를 들으면서도 굴함없이 연구사업을 밀고나가 성공한 사실, 연구성과가 확인되고 제품이 나오자 론문을 써서 명성을 날릴 대신 피땀으로 수록한 자료까지 통채로 넘겨주어 다른 사람이 그 영예를 차지하게 했다는 눈물 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과 그의 연구성과를 직접 취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작가는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을 찾게 되였으며 보통인간들의 미래형을 그려보게 되였다. 한편 작가는 대학때 배운적 있는 한 이름있는 과학자가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할수 없게 되였다는 가슴아픈 사연도 목격하게 되였다.

그 과학자도 림종의 마지막시각에 분초를 쪼개며 론문자료를 정리하여 강좌에 남기고 만년필을 쥔채 숨을 거두었다.

작가는 이 두 과학자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파고드는 과정에 과학자는 탐구생활과 사랑에서 자기희생적이여야 한다는 종자를 쥐게 되였다.

이렇게 종자를 쥐게 되자 작가는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인물, 갈등, 사건, 줄거리, 생활세부 등 형상의 요소들을 표상할수 있게 되였으며 앞으로 써나갈 구체적인 생활화폭들이 예상되게 되였다.

또한 골라쥔 종자로부터 주제, 사상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구성형식도 찾아낼수 있게 되였으며 항암성분이 많은 바다식물을 리용하기 위한 문제 등 작품에 담을 과학적환상의 범위를 예측할수 있게 되였다.

현실에 작가자신이 직접 들어가 체험하거나 혹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앞으로의 생활을 연구분석하는 경우에도 중요한것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당적안목을 가지는 문제이다. 현실에 들어가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론쟁하며 기술자들의 연구과정을 주시한다고 해도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리한 안목, 하나의 작은 과학기술적현상속에서도 의의있는 문제를 골라 나래펼치는 환상력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 가치있는 종자를 찾아낼수 없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예리하고 박식한 안목으로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볼줄 알아야 하며 시대의 지향에 기초한 미래를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라야만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종자는 다음으로 새롭고 특색있는것으로 잡아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작품에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인상깊고 흥미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란 언제나 비반복적인것이며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한 종자이다.

종자에서 이야기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여나며 그속에서 주제가 여물고 사상적내용이 부각되는것이 문학작품의 일반적인 생리이다. 형상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종자가 서로 다르면 그 생리적과정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기마련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는것으로 골라잡아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창작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세심히 관찰하고 체험하며 높은 당적안목으로 사색하여야 한다. 특히 작가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깊은 창작적사색, 여러가지 과학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과학환상소설창작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언제나 작가의 준비정도와 예술적기호에 따라 각이하게 진행된다.

이로부터 매 작가들은 생활에 침투하는 각도가 다르고 생활을 분석평가하는 견해와 방법도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다. 같은 분야의 생활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작품의 종자와 형상이 서로 다르게 되는것은 생활을 작가마다 자기 식으로, 자기 준비정도에 맞게 관찰하고 판단하기때문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창작경험은 같은 분야의 과학기술생활을 취급

하면서도 작가가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자기 식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포착하고 독특한 형상적바탕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비반복적인 종자를 찾아낼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문제는 앞날의 생활과 과학적가설에 기초한 과학적환상을 자기 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주견과 론거를 세워 해석하며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여 독특한 예술적기량으로 형상할줄 아는 정치적안목과 과학기술적준비, 개성적인 창작적자질을 갖추는것이다. 이것이 독특하고 특색있는 종자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쥐려는 과학환상소설가는 반드시 철학적사색에 기초한 과학적가설, 과학적환상을 분석하여 자기의 견해대로 론거를 세워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능력, 자기식의 독특한 형상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적가설에 기초한 과학적환상은 참으로 놀랍고 흥미있으며 신비스러울 정도로 감흥을 주면서 독자들의 인식령역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환상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앞날의 이러저러한 생활은 복잡하고 예측할수 없는 현상과 사건들로 가득차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과학자들이 제기한 가설과 시대가 제기하는 과학기술추세에 민감하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판단하여 자기 식의 예술적형상을 펼치기 위하여 사색하고 노력할 때라야만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게 될것이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분야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은 그자체가 다른 형태의 소설문학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생활분야를 개척하는것으로 하여 반복과 류사성을 피할수 있는 유리한 전제를 가지고있다.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므로 생활자체가 새로우면 역시 종자도 새롭고 특색있는것으로 되기마련이다.

최근 독자들속에서 과학환상소설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이 문학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커진것도 새로운 생활분

야, 앞날에 펼쳐질 과학환상과 그를 둘러싼 인간생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증대되였기때문이다.

여기서 경계할 문제는 특이한 앞날의 생활이나 렵기적인 사건에서만 예술적흥미를 느끼게 되거나 과학적환상의 놀라운 사건이나 기이한 생활을 반영하는 문제와 새로운 생활분야에서 종자를 탐구하는 문제와는 인연이 없다는 점이다.

앞날에 펼쳐질 과학적환상세계와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활이라고 하여,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여 아무렇게나 망탕 흥미를 돋구며 사건을 꾸며내려고 해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낼수 없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환상소설들인 《호이티 토이티》나 《마크스웰의 방정식》에서처럼 코끼리의 대가리에 사람의 뇌수를 이식해넣어 코끼리가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괴상망측한 《과학환상》이나 인간의 두뇌에 전기임풀스를 맞추어 자동스위치를 누르면 사람이 《자동기계》가 되여 초인간적인 계산과 론리적사고를 하게 하는 등 과학기술적론리에도 맞지 않는 《과학환상》을 마구 취급한다면 독자들의 예술적흥미를 자아낼수 없을뿐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포와 미래에 대한 허무와 비애, 염세만을 주게 될것이다.

예술적흥미와 관심은 아름답고 고상한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결합된 참다운 예술적정서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는다고 하여 기이하고 렵기적인 현상과 사건에 관심을 돌려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생활에 발붙인 과학적환상을 한껏 펼쳐 일반소설작품들에서 취급하지 않은 생활분야를 적극 개척하는것과 함께 지금까지 과학환상소설분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우주생활뿐아니라 바다와 땅 그리고 생물물리학과 미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환상과 그를 둘러싼 생활분야에 주의를 돌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앞날에 펼쳐질 과학환상세계를 다양하게 그려 독특한 얼굴을 가진 작품으로 우리 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고 우리 인민들의 과학적세계관형성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2) 과학환상소재탐구와 종자가꾸기

종자는 어디까지나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기초에 불과하다. 종자를 잡았다고 하여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과학환상소설의 기본문제와 소재탐구에 대하여서와 종자의 형상적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종자를 옳게 잡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하면 창작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여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작가는 과학환상소설의 좋은 종자를 골라잡은 다음에는 거기에 형상의 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해나가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잘 가꾸어나가자면 무엇보다먼저 미래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도 다른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토대하고 있다. 생활이 없으면 그 어떤 문학작품도 창조될수 없으며 생활을 생동하게 담지 못했을 때에는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여기서 생활은 일반 소설작품에 반영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인간들의 사상정신령역에서 일대 전진을 이룩한 미래의 생활이다. 따라서 그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풍부하고 아름다운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앞날의 다양한 생활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만 선택하여 그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가하여주신 과학환상소설

《별나라로 가자》는 천문지식과 우주세계에 대한 여러가지 생활중에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만 선택하여 그림으로써 작품의 품위를 높이고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이 작품은 최신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이 별나라를 점령할수 있다는 종자를 잡아쥐고 현란한 우주생활이나 별나라에서의 렵기적인 모험생활 대신에 종자에 맞는 생활, 아무리 최신과학기술성과로 무장된 항성간로케트라고 하여도 그것을 리용, 조절통제하는 탐험가들의 정신상태가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데 필요한 생활구획만 설정하여 그리고있다.

보통 우주세계나 항공력학에 대한 과학환상소설들은 다른 별세계에서의 이러저러한 생활을 보여주는데 급급하지만 과학환상소설 《별나라로 가자》는 그런 생활을 찾는데서가 아니라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참신하게 그린데서 흥미를 돋구어주고있다.

이를 통하여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종자와 관련이 없는 생활은 아무리 특색있는것이라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서게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작품은 잡다한 생활로 엮어진 과학환상이야기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또한 시대적환경이 명백치 않아 21세기생활을 그린 작품인지 30세기의 생활을 그린 과학환상소설인지 모호하게 되며 결국 주제, 사상을 옳게 해결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작가의 창작적의도를 정확히 실현할수 없게 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앞날의 다양한 생활가운데서 과학적인 구획을 설정하고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선택하여 그려야 한다.

만약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그리는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종자에 맞지 않는 잡다한 생활을 끌어들이면 이야기를 한곬으로 전개시킬수 없고 문제의 중심을 종잡을수 없게 될뿐아니라 과학환상소설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져야 하는것만큼 더욱 심중히 생각하여 독자들이 공감할수 있게 생활을 선택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잘 가꾸어나가자면 다음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이 과학기술적내용을 동반하는 문학이라고 하여 성격창조를 도외시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품위있는 작품을 써낼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은 단순히 과학기술적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과학환상이야기도 아니며 과학기술적가설을 론증하는 과학기술론문도 아니다. 과학환상소설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흥미있는 과학적환상을 심도있게 펼쳐보임으로써 교양적의의와 함께 인식적의의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종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지므로 종자를 잘 가꾸어나가자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미래시기의 해당 환경에 맞게 설정하고 잘 그려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리상화해서는 안되지만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량서인》이나 《거품의 나라》에서처럼 19세기 인간성격을 재현하거나 오늘 우리 시대 보통인간들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따라서 해당시기의 요구를 반영한 과학환상소설의 종자에 맞게 성격을 규정하고 환상속에서 생활의 론리에 따라 참신하게 그려내야 한다. 이야기를 재치있게 엮고 극조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인물들이 옳게 설정되지 못하고 성격이 생활의 론리에 맞게 그려지지 못하면 종자를 제대로 가꾸어나갈수 없게 된다.

종자를 꽃피우자면 작가가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그려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작품의 생리에 맞게 모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잘 그려나가는데 지혜와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종자를 잘 가꾸어나가자면 또한 형상적대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능력, 즉 종자에 알맞는 형상의 기본선을 정확히 설정하고 인물, 사건, 일화, 갈등과 같은 모든 형상요소들을 거기에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형상을 창조하는 일은 사상적의도만 가지고는 안되며 거기에 창작기량이 안받침되여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아무리 훌륭한 환상생활소재라고 하더라도 종자의 요구에 따라

재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작품이 되는 경우란 없다.

때문에 과학환상소설가가 종자를 옳게 실현하자면 그것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재가공하는 예술적기량을 소유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특색있는 종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생활분야에 주목을 돌리고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체득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탐구하고 개발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작가적인 안목으로 체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가는 늘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되는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 진지하게 생활을 연구해야 하며 과학기술서적을 탐독하고 그 내용을 인식으로만이 아니라 작가적환상을 펼쳐 감수해야 한다.

심오한 탐구와 창작적사색속에서만 골라쥔 종자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가공할수 있으며 과학환상소설을 훌륭히 써내여 독자들을 과학세계로 이끌수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하나의 작은 물리화학적인 현상을 보고도 문학적인 일화나 장면으로 구현할 형상안이 떠올라야 하며 흥미있는 련쇄반응을 주시하면서도 문학적인 종자를 잘 가꾸기 위한 사건선을 련상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생활을 깊이 파악하고 사색하며 무한한 창조적환상의 나래를 펴야 골라쥔 종자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가공해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많이 알수록 과학기술에 해박하고, 문학적으로 준비될수록 종자의 요구에 맞게 생활을 잘 다룰뿐아니라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내여 종자를 꽃피우는데로 형상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이어갈수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작가의 능력과 자질이 전면적으로 발양되는 창조적인 과정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정력과 지혜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야 한다.

소재를 생활바탕으로 하여 잡아쥔 종자속에는 반드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과정은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를 옳게 쥐였다고 할 때에는 그 종자속에 작가의 창작적의도와 사상적지향이 반영된 기본문제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내세워야 할 기본문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 경제생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주적인 인간의 존재가치와 삶의 보람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문제이다.

과학환상소설이 과학기술적내용을 반영하는 문학이라고 하여 인간의 삶의 가치와 활동방식에 해답을 줄수 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과학기술적문제를 제기한다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과학환상소설분야에서는 종종 창작과정에 인간문제가 파묻히고 경제기술실무적인 문제,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여 문학의 본성에서 벗어났다는 시비를 듣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 봉착하게 되는것은 과학환상소설가가 작품의 기본문제는 반드시 인간문제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적내용, 흥미있는 과학환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에 포로되여 제기했던 인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었기때문이다.

물론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과학환상적내용을 반영하는 특수한 문학이므로 반드시 생산경제적문제, 과학기술적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해야 한다.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최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기대간, 공정간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공장의 무인화, 원격화와 같은 생산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활에는 그와 관련되는 각이한 인물들의 태도와 립장이 나타나며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이 있기마련이다. 이것은 과학환상이나 생산기술문제와 관련된 생활속에서도 얼마든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할수 있다는것, 다시말

하여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도 사회적성격을 띠는 인간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생산기술적문제, 과학적문제를 둘러싸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순수 과학기술상견해의 차이로 대립되는 실무적문제에 국한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속에 뿌리박혀있는 사상적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은 인공적인 륭기운동을 시켜 서해바다밑의 땅이 솟아나게 하여 8만평방키로메터의 광활한 새땅을 얻는 과정에 벌어지는 생활을 취급하고있다.

에네르기마당을 리용하여 수십메터의 물속에 깔려있던 바다밑땅을 통채로 륭기시켜 옥답으로 전환시킬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만해도 가슴흐뭇하게 하는 과학환상문제이며 경제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서로 다른 립장에는 과학적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조국의 경지면적을 넓혀나가는데서 자세와 립장을 달리하는 사상적견해가 나타나고있다. 주인공인 철수와 숙희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풍만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간석지뿐아니라 비옥한 바다밑땅까지 다 옥답으로 전환시키려는 애국주의정신으로부터 희생적인 투쟁을 벌린다.

철수와 숙희의 발기가 경제적이 되지 못하며 위험을 동반한다고 반대하는 연구실장의 리면에는 그들이 성공하면 자기가 진척시켜오던 연구안이 보잘것 없는것으로 묵살되리라는 리기심과 공명이 깔려있다. 연구소안에 잠입한 암해분자는 어떻게 하나 철수와 숙희의 연구사업을 파탄시켜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을 깨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한다.

이와 같은 각이한 태도들은 작품에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과학자, 탐구자들은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적문제를 제기하고 형상해나갈수 있는 바탕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과학기술적문제가 아니라 인간문제가 기본문제로 제기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간문제, 의의있는 기본문제를 탐구하자면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깊이있게 학습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내세워야 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란 다름아닌 우리 당이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 우리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이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작품에 민감하게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당정책을 지식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말고 심장으로 감수해야 한다.

그럴 때라야만 과학환상소설가는 지난날의 흥미본위적인 작품이나 오늘 국제적으로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과학환상소설작품이 범람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을 부패타락하게 하는 속에서도 우리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하는 작품을 써내여 독자들의 과학적세계관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기본문제를 탐구하자면 또한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나고있는 현장생활을 체험하면서 그 과정에 얻은 생활소재를 깊이 분석연구하여 취사선택해야 한다.

좋은 소재를 취사선택하는것은 의의있는 기본문제가 내포된 훌륭한 종자를 찾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소재란 작가가 작품창작을 위하여 연구분석하여 취사선택한 생활자료이다.

소재가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울수 있는 생활바탕으로 되는것만큼 의의있고 참신한 생활소재를 잡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

과학환상소설가가 소재를 잡았다고 할 때 그것은 수많은 생활가운데서 작가가 쓰려고 하는 생활분야의 자료를 종자의 요구에 맞게 선택하여 쥔다는것을 말한다.

소재를 떠나서 종자를 꽃피울수 없을뿐아니라 생활화폭을 창조

할수 없으며 주제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수 없다.

생활소재는 작가에 의하여 분석평가되고 형상적으로 재구성될 때에만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밝혀내는 바탕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소재는 생활자료가운데서 선택되고 평가된것일뿐아니라 창작과정에 종자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될 때 작품의 기본문제를 밝혀내는데 복종된다.

종자는 원래 인간문제를 생활로 안고있다. 종자는 소재와 기본문제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킨다.

따라서 소재는 종자와 불가분리적관계에 놓여있으며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는데 복무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소재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울수 있게 하는 생활적바탕으로 된다. 이것은 소재를 떠나서 종자를 잡을수도 없고 형상으로 꽃피울수도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담는 모든 소재는 생활의 가장 본질적이며 전형적인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정책에 맞아야 할뿐아니라 환상의 형식으로 훌륭히 형상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소재를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발견되고 발명되는 현장에서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과학영화와 론문, 기타 과학도서를 통하여 현대 과학기술추세와 그 전망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하여야 한다. 탐구생활과 연구과정을 떠나서 시대의 본질적인 사실과 사건, 인간의 성격을 찾아낼수 없으며 작품의 소재를 옳바로 쥘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탐구생활과 연구가 심화되는 현장에 들어가면 과학환상소설의 소재가 저절로 얻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생활속에는 과학환상소설의 소재로 될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과 전형적인 인간들이 많다.

과학환상소설가는 감동을 주는 사실과 매혹적인 성격들을 놓고 앞날에 펼쳐질 생활속으로 옮겨갈 환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며 앞날의 생활환경과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식교양에 의의가 있는 본질적인 사회적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문제는 앞날에 살 인간들의 매혹적인 성격을 그리는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완성되고 모든 자질이 다 갖추어진 인간으로 리상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얻어진 소재로부터 작품의 기본문제를 탐구하는 이 작업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생활소재가 내포하고있는 적중한 문제를 작품에 제기하지 못하거나 감동적인 사실이나 매혹적인 성격에 반한 나머지 기본문제를 확정하지 않은채 작품을 쓰게 되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소재를 얻었다고 하여도 사색과 탐구를 거쳐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좋은 종자를 심을수 없고 따라서 풍만한 형상의 열매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작품에서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고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상된 소재를 옳게 선정하고 분석연구하여 사회적문제를 명확히 제기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소재를 탐구하는 사업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제3절 과학환상사건보다 인간성격을 그려야 한다

1) 환상속의 산 인간형상

인간과 그 생활을 환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도 성격창조의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은 인물성격을 통하여 환상생활속에서도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해명하며 시대의 선진사상과 리상을 구현한다. 성격창조는 과학환상소설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물성격을 잘 그리지 않고서는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인물성격을 잘 그리는것은 과학환상소설의 기본 형상과업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인식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인간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힘을 돌려야 합니다.》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모든 문학작품들은 인간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교훈적으로 보여주는것만큼 인간을 진실하게 그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모든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서도 과학환상사건보다 인간을 진실하게 그려야 과학탐구자로서의 보람과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줄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인물성격을 떠난 과학환상작품은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이 신비롭고 매혹적인 과학환상세계를 펼쳐내고 이야기줄거리와 구성이 잘 째였다고 하더라도 인물성격이 잘 그려지지 못하게 되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과학환상세계속에 있는 인물들의 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여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문학은 흥미있는 과학환상사건보다도 그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릴 때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지난 시기 사람들은 과학환상소설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펼쳐보이며 모험적인 이야기들과 렵기적인 사건들을 그려내는것이 기본으로 되는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런데로부터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물성격창조를 기본형상과업으로 내세우지 못하였으며 환상적인 과학세계나 모험적인 이야기들, 렵기적인 사건들을 묘사하는데 몰두하였던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이 환상적인 세계를 묘사대상으로 하며 비현실적인 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그려낸다고 하여 인물성격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를 차요시하여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도 인간학으로 되여야 하는것만큼 마땅히 산 인간을 잘 그리며 인물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물성격을 그린다는것은 미래의 생활속에서 환상의 세계에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산 인간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산 인간을 그려내지 못한 과학환상소설은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이 없으면 과학환상소설의 본성도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인간은 사상과 감정,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생동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에 그려지는 인간은 산인간처

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되여야 한다.

산 인간처럼 숨쉬고 행동하는 생동한 인간이 아니라 로보트나 자동기계처럼 움직이는 인간을 그려내게 되면 그러한 작품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에 나오는 한진성과 캐리 무스만,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의 등장인물들인 철수, 숙희, 연구소장 등 인물들은 환상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인간으로 생동하게 형상되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산 인간을 보여주자면 생활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과학적환상세계에서 움직이는 인간이라고 하여 그의 사상감정이 추상적으로 주어져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안받침되는것으로 그려져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을 떠나서 인간의 사상감정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은 벌써 인간을 추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우주세계를 정복해나가는 과학자의 용감무쌍하고 지혜로운 과학탐구활동을 생활적으로 그려낼대신 행동의 결과만 따라가며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추상적으로 메마르게 그려놓았다.

작품에서는 마땅히 하늘의 《망나니》로 불리우는 류성의 충격을 받아 무한한 우주속으로 끝없이 떨어져나갈 때 주인공 탐구자는 무엇을 생각했으며 제국주의 마지막 잔당들이 숨어있는 한 위성에 구사일생으로 도착한 그가 놈들이 인류를 말살하려는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있는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맞서싸웠으며 어떤 계책과 과학적방법으로 그 흉계를 짓부시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그려내야 하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응당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려야 할 미래인간의 사상감정세계를 스쳐버리고 과학기술적내용이 환상세계를 추구하는것에만 치우치다나면 자연히 인간형상을 놓치게 되며 매혹적인 사건이나 환상은 군더더기로서 생경한 론리만 남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산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과 함께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산 인간을 그린다고 하여 현실에 있는 인간

을 옮겨놓거나 일반소설작품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을 재생시킬수는 없다. 과학환상소설에 그려지는 인간은 앞날에 살며 투쟁하게 될 인간이므로 개성적일수록 인상깊은 인간형상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간성격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작품에서 인간성격은 생활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져야 한다.

과학환상소설 《마지막 생명선》(홍순원 작)은 복잡한 과학환상문제를 대담하게 취급하면서도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특질을 시대적높이에서 전형화하였다.

《마지막 생명선》은 의학대학졸업반학생인 주인공 순정이 종양학 전문가인 손민교수의 지도밑에 암의 비밀과 그 치료법을 연구해내는 이야기이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는 암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불행을 가져오며 그 치료가 얼마나 난문제로 제기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친한 동무인 음악대학성악부 졸업반학생 옥경도 후두암에 걸린다. 유망한 신인예술인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병석에 눕게 되며 불치의 병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주인공 순정은 이것을 목격하고 암의 비밀을 해명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작품의 앞부분은 의학사를 회고하면서 순정이가 과학적사고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손민교수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손민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순정은 암의 비밀을 풀어나가려고 무진애를 쓴다.

암을 비루스성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볼수 있는 론거가 있는가 하면 《비루스성감염이라면 왜 전염되지 않는가?》, 《비루스성감염이라면 어떻게 해서 조직과 기관의 한 부분에만 생기는가?》 등 질문과 항의를 들고 반박해나오는 학파도 있었다. 또한 암은 호르몬대사장애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여러가지 주장들은 다 일정하게 타당한 론거들을 가지고있으나 암의 비밀을 완전히 해명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순정의 사고는 이 모든것을 더듬으면서 암이 인체의 물질대사장애와

무슨 관련이 있을것이라는데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때에 졸업론문으로 토착질병사를 쓰기 위하여 서해안에 나갔던 순정의 동무인 민수가 옛날사람의 묘앞에 세워진 비석을 찍은 사진 한장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 섬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묘의 주인은 어느 옛날에 암을 치료하는 의원이였다는것이다.

순정은 그 비밀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옛날의원의 후손들과 유적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순정을 지도하던 손민교수도 암에 걸리게 된다. 이 불상사앞에서 순정은 모대기며 동요도 하고 고민도 하며 주저앉으려고까지 한다.

그러나 친우인 옥경이와 손민교수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죽음의 나락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불타는 탐구로 날과 달을 이어가게 한다.

그리하여 순정은 수많은 자료에 토대하여 과학적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동물실험들을 진행하여 마침내 암의 비밀을 해명하고 손민교수와 친우의 병을 치료하게 된다.

작품은 암의 비밀을 풀기 위한 순정이의 과학적사고과정과 유적의 비밀을 푸는 과정, 그리고 환자들의 병상 및 치료과정 등 여러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취급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우여곡절로 가득찬 피나는 탐구과정, 진보와 보수간의 날카로운 투쟁과정, 인간정신의 극적인 앙양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순정이의 성격적특질을 원만하게 밝혀낼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림으로써만 과학환상소설에서 성격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고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이 인간학으로 되자면 환상적형식으로 주어진 생활화폭을 통하여 개성적인 성격을 가진 인간을 그려야 한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과학환상의 정황속에서 론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구체적인 인간, 각이한 성격적특질을 가진 인간을 그려야 산 개성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다음으로 환상속의 생활을 타당성있게 잘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산 인간전형을 창조하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기 위하여서는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인간이란 생활밖에서는 존재할수 없으며 인간성격은 생활속에서만 밝혀진다. 또한 인간문제도 허공에 떠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속에 있으며 생활을 통해서만 제기된다.

생활을 잘 그리지 않고서는 인간형상을 창조할수 없으며 인간문제도 옳게 밝혀낼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생활을 그린다는것은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환상적형식으로 그려낸다는것을 말한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깊이 파고들어야 산 인간의 생동한 모습을 보여줄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산 인간을 생동하게 형상하려면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속에 펼쳐지는 해당 시기 (례하면 21세기, 또는 22세기) 인간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된 장엄한 환경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다.

력사발전의 흐름을 타고 앞날에 펼쳐질 이와 같은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보여주는것은 형상창조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미래에 살게 될 인간들의 생활은 비할바없이 풍부하고 다양할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들에게는 정치사상생활, 세계관광생활, 다른 나라 과학원에 파견되여 벌릴 과학탐구생활, 문화생활, 가정생활도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주인공 김성철은 박사원 연구생으로서 탐구에 정진하고있는 청년과학자이지만 그에게는 정치사상생활도 있고 로학림교수와의 대립과 론쟁생활도 있는가 하면 교수의 딸 로은희와의 련애생활도 있다. 그뿐아니라 동생 성옥이와 어머니의 애무를 받는 가정생활도 있고 달의 빙하구역에 도착하여 벌리게 되는 어려운 탐구생활도 있으며 병원생활도 있다. 작품은

성철이의 탐구로정과 운명선을 따라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보였다.

과학환상작품에서는 사람들의 과학탐구실천이나 학술사업일면만 그릴것이 아니라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려야 하며 과학탐구생활이나 생산활동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린다는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환상적화폭속에 주어 구체적인 생활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리는것을 말한다.

생활세부는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로학림교수가 어머니를 잃은 외동딸 은희에게 서리발같은 노기를 터치는 생활세부는 평범한 생활세부이지만 여기에는 생활의 본질이 집중적으로 생동하게 드러나있다. 애인인 김성철의 론문이 훌륭하고 가치가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보류해버리고 그에게만 학위를 주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버지였다는것을 알게 된 은희는 사위될 사람의 론문에 찬물을 끼얹은 아버지가 리해되지도 않았지만 그보다도 한생을 성실하고 량심적으로 살아오는줄 알았던 아버지가 성철이의 일로 하여 사람들의 뒤소리를 듣는것이 가슴아파 아버지를 신랄히 비판한다. 딸의 허비는듯한 모진 말도 말이지만 가냘픈 어깨를 떨며 울고서있는 가긍한 정상에 얼굴이 이지러진 로학림교수는 난생 처음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은희를 질책한다. 교수는 은희에게 과학은 헤픈 인정따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값싼 동정이나 베풀고 어루만질결 과학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천번 다시 일어나 굴함없이 전진하는 그런 진지한 탐구정신앞에서만 과학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거라고 하며 자기가 요즘 밤새워 연구하는 《시간기계》도 바로 성철이의 연구사업을 돕기 위한것이라고 흥분하

여 말한다. 이 생활세부에는 인간의 자주성이 최대한으로 발현되게 될 21세기에 가서 과학자들이 지니게 될 탐구정신과 자세, 그 과정에 오고가는 아름다운 인정 등이 생동하고 진실하게 안겨온다.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인간의 사상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뿐 아니라 그 표현과정의 섬세한 부분까지 생동하게 형상하게 된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지 않고 통채로 사건적으로 제시하는것만으로는 산 인간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없다.

그 어떤 위대한것, 큰것만 그리려고 하면서 거대한 발명이나 발견, 자연개조사건들을 그저 라렬하거나 혁신적인 생산투쟁을 보여주는데 매달린다면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생활을 세부화하지 않고 통채로 라렬하며 과학기술적사건본위로 그리는것은 형상창조의 요구와 어긋나는 기록주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성격을 두드러지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단면들을 골라잡고 거기에 힘을 넣어 섬세하게 그려낼 때 품위있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려면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 환상적이며 생활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문학적인 이야기라고 할 때 인간의 사상정신, 성격적특질을 옳게 밝혀낼수 있는 환상속의 생활적이야기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소설의 종자인 사상적알맹이를 생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 사건, 생활을 말한다.

인간성격을 밝힐수 있는 생활적이야기, 문제성있는 이야기가 없이는 형상을 심오하게 창조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은 산 개성을 그리는데 개성적인 성격은 직선적으로 제시되는것이 아니라 생활적이야기를 통하여 밝혀지기때문에 작품의 종자를 키울수 있는 문학적인 이야기, 심금을 울리는 생활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개성적인 성격을 생활로써 담보해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다음으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짜고 감정조직을 잘해야 하며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등장인물들에게 과제를 뚜렷하게 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자면 감정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감정조직을 잘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심오한 인간문제를 환상생활속에서 보여주려고 해도 작가의 의도를 형상적으로 살려낼수 없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짜고 감정조직을 잘하자면 등장인물들이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에 유기적으로 얽혀져있어야 하며 매개 등장인물에게 과제가 뚜렷하게 주어져있어야 한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짜야 성격을 생활적으로 담보할수 있으며 주인공의 운명선을 그어 종자를 뚜렷하게 살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잘 짜고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과학환상소설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된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종자에 의하여 제약되며 생활의 본질, 인간성격을 옳게 밝혀내는데서 중심문제의 하나로 된다. 인간관계를 심화시켜나가지 않으면 형상에서 그 어떠한 문제도 깊이있게 해명해낼수 없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얽히게 하고 심화시켜야 생활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으며 형상을 두드러지게 살릴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간관계를 두드러지게 그리자면 반드시 환상적인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환상적인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그려지고 인간관계는 환상적인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간관계의 조직과 환상적인 생활에 대한 묘사의 호상관계는 이와 같이 밀접한 련관속에 놓여있으며 호상제약된다.

과학환상소설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형상의 깊이를 보여주고 성격을 두드러지게 밝히는것만큼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얽히게 하면서 성격창조에 필요한 환상적생활을 타당성있게 깔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환상적인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얽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등장된 모든 인물들이 과제해결을 위하여 집중되며 통일되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주인공 김성철이와 로학림교수사이에 로은희를 세움으로써 로학림과 성철이를 사제간일뿐아니라 사위와 장인될 관계로 설정하여 그들의 학술상 대립과 투쟁을 의혹과 기대 속에서 흥분을 안고 지켜보게 하고있다. 또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기 위한 大촉매물질실험에서 희생된 로학림의 스승이며 친우인 김준박사를 성철이의 아버지로 설정함으로써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얽히게 하였으며 그들의 성격창조에 필요한 환상적인 생활을 타당성있게 깔아주고있다. 다시말하여 물을 분해하여 얻어낸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귀한 한생을 바친 김준박사와 로은희의 어머니, 그들의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려고 용약 떨쳐나선 청년과학자 김성철, 大촉매물질을 실험하다가 김준박사와 안해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자책으로 고민하며 남들의 뒤소리에도 귀를 막고 20여년동안 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영상재생장치》인 《시간기계》를 끝내 성공시켜 성철이의 연구사업을 웅심깊게 뒤받침해주는 로학림교수의 탐구생활을 설득력있게 안받침해주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사상주제적과제인 인류의 문명을 위한 주체과학에는 오직 순결한 마음, 그것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명예도 기꺼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는데로 동원되고 집중되며 통일되여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감정조직을 잘하려면 환상적인 생활속에서 감정의 론리를 찾고 그것을 생활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게 끌고나가며 생활적인 타당성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의 본질, 생활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힐수 있으며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해낼수 있다.

2) 인간성격을 리상화하여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형상창조에 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관한 문제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긍정적주인공과 부정적인물로 갈라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긍정적주인공을 잘 형상화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떤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그의 성격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성격과 관련되는 기본문제로서 사회제도와 계급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제기되고 해결되였다.》

(《영화예술론》, 37페지)

어떤 작품에서나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주제, 사상적요구에 맞고 뚜렷하게 성격화하며 개성화하여야 인간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소설 《별나라로 가자》와 《속도를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여러권의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을 친히 지도하여주시면서 최신과학기술을 탐구하는 주인공들의 투쟁을 잘 그려내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을 잘 형상하는 문제는 작품의 가치를 좌우할뿐아니라 독자들에게 인식교양적의의를 부여하는데서도 결정적작용을 한다.

주인공을 훌륭히 형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그의 준비정도를 종자의 특성에 맞게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주인공이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실현하는 직접적담당자이기때문이다.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는 주인공의 성격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종자의 특성에 맞게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준비정도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주인공을 옳게 형상하기 위한 첫 공정으로 된다.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은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종자를 꽃피우는데 적합하도록 규정지어져야 하는것이다.

과학환상련재소설 《탄부없는 탄광》은 21세기 중엽 한 공업대학

생이 수백년동안 답습해온 탄광에서의 채탄작업방식을 완전히 없애고 탄부들이 갱속에 들어가지 않고 석탄을 캐내는 새로운 탄광운영방법을 이야기하고있다. 이 작품은 탄부들을 고되고 힘든 지하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기쁨과 명예보다 슬픔과 희생을 각오하고 과학탐구사업에 달라붙어야 한다는 문제를 종자로 하고있다. 작가는 이 과학환상소설에서 종자의 요구에 맞게 주인공 과도의 성격적지향과 준비정도를 규정하고있다. 과도는 대학졸업실습기간에 로동계급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그들의 고된 로동과 위험천만한 고비들을 자신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체험하였기에 청년과학자의 본분을 다하는 인물이다. 주인공 과도는 석탄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애착을 지니였을뿐아니라 불타는 탐구적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소유하고있으며 과묵한 성격이지만 풍부하고도 다면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청년과학자이다.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성격적지향은 탄부들의 지하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수자조종콤퓨터자행채탄기인 《잠지함》, 즉 석탄층을 자체로 탐사하고 물속을 마음대로 뚫고다니는 잠수함처럼 땅속을 주름잡아 꿰지르며 석탄을 캐내오는 완전자동기를 만들어내려는것이였다.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을 이렇게 규정하였기때문에 그의 참신한 형상을 통하여 종자를 원만히 꽃피울수 있었다. 주인공의 성격이 매혹적으로 그려졌다 하더라도 그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이 종자의 특성에 맞게 규정되지 못하였더라면 작가의 창작적의도는 실현되지 못하였을것이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종종 창작과정에 창작적의도와 종자의 특성에 맞게 주인공의 주도적인 지향을 뚜렷이 하지 못하여 작품의 주제를 똑바로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

북극지방의 기후를 변경시키며 중앙아세아의 사막의 기후를 변경시키는 문제를 취급한 아, 뽀드쏘쏘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신골리프쓰트림》도 그러한 작품들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 중편과학환상소설은 한때 다비도브기사의 유명한 계획으로 소개되였던 중앙아세아의 가맹공화국들의 토지를 관개할 목적으로 씨비리에 있는 일부 큰 강을 남쪽으로 흐르게 할데 대한 환상과는 반대

로 대기(공기)의 자연발생력을 조종하는 문제를 취급하고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고르노브는 북극지방의 영원한 얼음을 핵연료를 사용하여 청산해버릴것을 제기하며 다음에 운하를 통하여 중앙아세아의 사막에 북빙양의 물이 흘러드는것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거기에 부단히 활동하는 관개와 강우의 원천을 만들며 고비사막에서 가열된 다량의 공기가 밀려들어올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강력한 인공소낙비를 리용할것을 제기하고있다.

작가는 이 과학환상소설에서 기후를 조절하는 과학기술계획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의의있는 과학환상문제를 취급하고있다. 그는 주인공인 젊은 학자 고르노브의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설비들을 행동속에서 보여주면서 자연의 힘과 긴장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인민들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하지만 작품의 종자가 뚜렷하지 못한데로부터 주인공 고르노브의 주도적인 지향을 뚜렷이 하지 못하고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주인공의 주도적인 지향을 뚜렷이 하며 주제를 똑바로 살려내기 위한데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여야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흥미있는 사건을 보여주는데만 치우치고말았다.

이 작품의 제2부를 보면 얼음산은 잠수함과 잠수용 강철함속에서 작업하는 수백명의 사람들을 죽음속에 몰아넣으면서 마지막 얼음구멍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자연과의 투쟁은 지식, 견인성, 기지 및 모험을 요구한다. 주인공 고르노브를 비롯한 학자들은 예견하지 못했던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작업구역에 핵연료인 끄이빼리트를 가져다가 두꺼운 얼음표면을 녹여 사경에 처했던 잠수부들을 구원함으로써 수중건설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제3부에서는 중앙아세아에서 두번째로 무서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묘사하고있다. 주인공 고르노브는 동료학자들과 함께 대기의 자연발생적인 힘인 고비사막으로부터 오는 다량의 가열된 공기를 막아내기 위하여 투쟁한다. 고르노브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이 가열공기력을 막는 전투를 힘겹게 지휘한다. 그의 지휘에 의해서 모든 인공강우기들이 일시에 움직이게 되며 조종사들은 필요한곳에 굉장한 소낙비를 내려붓는다.

이 극적인 전투를 묘사함에 있어서 작가는 주인공 고르노브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을 뚜렷이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렵기적인 흥미를 자아내는 사건에만 치우침으로써 주제를 똑바로 살려내지 못하였으며 독자들의 감흥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작품은 중앙아세아사막의 토지개량학자 이즈마일 아훈 베끄블라또브, 젊은 학자 워또르 고르노브와 그의 양아버지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을 비교적 흥미있게 형상하기도 하였다. 사막의 기후를 변경시킬데 대한 주인공 고르노브의 계획은 그토록 존경해마지 않는 양아버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과학연구활동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나 양아버지는 고르노브의 계획이 더 혁신적이라는것을 리해하고 자기의 수십년에 걸치는 창조물과 명예를 부정하고 고르노브를 도와나선다. 또한 젊은 학자들인 이싸따이 싸비로브와 삐뜨리첸꼬는 고르노브의 착상과 계획에 매혹되여 자연과의 힘겨운 투쟁에서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선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력점을 찍어 형상하지 못하였으며 고르노브의 설계에 의하여 기후를 조절하는 리론적기초를 설명하기 위한 행동의 집행자에 불과하게 만들어놓았다.

작품이 흥미있는 사건과 매혹적인 성격을 그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환상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원인은 주인공의 정신적인 잠재력이 해명되지 못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주인공들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사상의식의 준비정도를 똑바로 규정하지 못하여 작품의 주제를 똑바로 살려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이러한 결함이 나타나는것은 흔히 작가가 주인공의 원형인물에 매혹되여 성격을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와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에 맞게 잘 살려 형상해내지 못한데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과학연구기관이나 공장에서 커다란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한 연구사나 기사에 매혹되여 그를 그대로 주인공으로 하여 소설을 쓰고싶은 충동을 받을수 있다. 일반소설을 쓰는 작가는 원형인물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선택할수 있지만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주

인공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성격은 원형인물처럼 되여서는 안되며 일반소설의 인물과 같이 형상화되여도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작가는 종자를 확정한 다음 그 원형인물에 토대하여 종자의 요구에 맞는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사상의식수준이 있는 주인공을 과학환상세계가 펼쳐지는 시대에 부합되게 표상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그려진 인간은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여야 하지만 현실그대로의 인간인것이 아니라 환상세계의 인물이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이 창조하게 되는 인간의 형상에는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반영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는 예술가의 주관을 거치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과학환상소설작가는 현실의 관조자가 아니라 탐구자이며 생동한 현실에 자기의 리상을 구현하여 새로운 현실, 미래를 《창조》하는바 그것이 바로 인물의 형상속에 구현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식의 과학환상소설은 원형인물을 그대로 작품에 옮겨놓거나 렵기적인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먼 옛날의 인물성격을 형상론리를 무시하고 그리는것도 경계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먼 미래의 리상화된 인간을 제나름대로 마구 그려내는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여서는 안된다. 얼핏 생각하면 21세기에 가서 실현될 과학환상을 취급한 작품이라고 하면 21세기에 살게 될 인간성격을 창조하여야 하고 30세기에 실현가능한 과학환상문제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인간을 형상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창작실천상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아무런 의의도 없다. 40세기, 50세기에 가서 실현될 과학기술적가설은 내놓을수는 있어도 그 미래시대 인간들의 성격변화발전을 예상하고 예측하기는 어려울뿐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과학환상소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창작되는것이지 먼 미래의 인간들을 위

하여 창작되는것이 아니다. 때문에 과학환상소설에서 현실에 발붙인 리상적인 인간을 그려야지 40세기, 50세기에 가서 실현될 과학환상적내용을 취급한 작품이라고 하여 그때의 인간형상을 창조하려고 해도 안되며 그렇게 요구해도 안된다.

작가들은 과학환상소설의 주인공을 지나치게 리상화하여 그리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작가는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종자를 확정한 다음에는 현실적인것과 리상적인것의 통일속에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사상적준비를 가진 주인공을 새롭게 표상하면 그만일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주인공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준비정도를 잘 규정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에는 대체로 우리 시대의 가장 높은 미학적리상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을 내세우고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주의식이 미약하나 생활의 우여곡절속에서 점차 과학적세계관이 서가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수도 있고 생활의 진리와 어긋나는 인식과 견해를 가졌다가 생활경험과 교훈을 찾는 과정에 진리에 도달하는 주인공을 내세울수도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인물은 어느 경우든지 다 성장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여야 한다. 처음부터 사상정신적풍모가 높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생활과정에 풍모가 더욱 세련되고 다듬어지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여, 앞날에 펼쳐질 과학세계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여 발전속에서 그리지 않고 완성된 인물로 형상한다면 그 성격은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올수가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의 초기성격을 규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창작전례를 두고보면 대체로 주인공의 지향에 어느 정도의 외적인 저항을 걸어줄수 있는 형상구조가 마련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처음부터 사상정신적풍모가 높은 주인공을 형상하자면 그가 자기의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에 부딪치게 될 저항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커야 한다. 그러나 성장하는 성격의 주인공은

그자체에 이러저러한 내적모순을 체현시킬수 있기때문에 외부적인 저항이 약하여도 그가 안고있는 내적모순에 의하여 문학적이야기가 뻗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가는 형상구조를 잘 타산해보고 주인공의 초기성격을 정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작가들은 흔히 주인공의 초기사상의식수준을 높이 규정하고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미래의 인간을 작품에 그려야 하는것만큼 인물성격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오를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과학환상소설의 초기 성격을 지나치게 높이 규정하거나 완전무결한것으로만 그린다면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작품의 인식교양적의의도 보장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의 초기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형상하는가 하는데 따라 주인공의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할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작품의 우렬을 결정할수 있으므로 그것을 높게만 규정하는 폐단을 없애고 종자의 요구에 맞게 형상의 론리를 잘 타산한 기초우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체온》(홍순원 작)은 과학기술혁명을 위하여서는 희생을 겁내지 말고 피타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과학원원사이며 저명한 의학자인 리인정교수는 처음부터 과학혁명을 위해서는 희생을 무릅쓰고 피타는 노력을 꾸준히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강한 지향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였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성격을 진실하게 그릴수 없었다.

이 작품은 과학환상문제를 취급하는데서도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주인공의 초기성격을 거의 완성된것으로 설정해놓고 아무런 성격발전도 보여주지 못하였기때문에 매혹적인 사건들을 펼쳐놓았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리인정교수는 과학의 거장이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인간수업

을 한 로학자이므로 초기성격을 응당 높이 규정하여야 했다. 또한 사상의식수준이 처음부터 높은 주인공인 리인정교수의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에 부딪치게 될 저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든가 그가 안고있는 내적모순을 심각히 야기시켜 문학적이야기를 줄기차게 뻗어나가게 하여야 했을것이였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에 부딪치는 반선인물도 주어져있지 않고 문학적이야기를 끌고나갈 심각한 내적모순도 없어 주인공은 다만 과학환상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물로, 필요한 행동의 집행자로 그리였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흥미있는 과학적가설과 작가의 풍부한 지식이 안받침되여 독자들의 상식을 넓혀주는데는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으나 과학환상소설의 풍격을 원만히 갖추지 못하였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적문제는 성격을 현실발전, 과학기술발전속에서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도 문학의 한 형태인것만큼 인간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힘을 돌려야 하며 과학자, 탐구가의 내면세계와 고결한 풍모, 과학적세계관형성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의 모든 활동과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과학탐구과정에서 깊이 인식되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과학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 그리는것은 결국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 묘사하는것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은 주인공의 성격장성의 력사, 사상의식장성의 력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앞날에 살게 될 미래의 사람들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살며 일해야 하는것은 필연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나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사상이 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도, 인류력사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량식으로,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적사상이다. 미래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미래에 살게 될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그렇다고 하여 미래에 가

서는 주체사상교양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가 실현되여가는 미래에로 갈수록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것은 합법칙적요구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들에서는 사람들이 정신도덕적풍모를 점차적으로 갖추며 과학탐구의 투쟁에 나서서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하는것이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론할점이 없지 않지만 주인공 김성철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성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종자를 꽃피우고 주체사상을 특색있게 천명하고있다.

주인공 김성철은 평범한 박사원 졸업생으로서 처음부터 완성된 성격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부결된 자기의 학위론문을 두고 지도교수인 로학림박사가 개인감정으로 찬물을 끼얹은때문이라고 고깝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성철이를 작품에서는 과학발전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줄 아는 참된 성격의 소유자로, 참된 과학자의 사명을 다해나가는 21세기 청년과학도의 전형으로 발전적으로 그리고있다.

처음 성철은 대기속에서는 대전된 구름이나 번개, 대기밖에서는 빛량자에네르기를 자체흡수하는 물분해 촉매물질을 얻어 물에서 수소를 방출하는 환원반응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액체수소를 생산하는 연구안을 준박사학위론문으로 제출한다.

그의 론문이 기발하고 대담하며 과학적론거들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청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준박사론문이 아니라 박사론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튀여나오게 된다.

주인공 성철의 론문이 현실에 도입되기만하면 휘발유나 디젤유가 아니라 무진장한 물을 연료로 쓰게 되는것으로서 에네르기분야의 대혁명을 의미하는것이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로학림교수의 반대에 부딪쳐 성철의 론문

은 실물실험도 해보지 못한채 류산되고만다.

성철은 그렇듯 존경해마지 않던 로학림교수가 자기 론문을 부정한것은 《시간시계》 즉 지나간 력사의 사실들을 재생해볼수 있는 《영상재생장치》를 함께 연구하자고 권고하던 교수의 의견을 거부한데 있다고 단정하고 매우 언짢아한다. 그보다도 이 연구사업을 위해 한생을 바친 아버지 김준박사의 위업을 실현시킬수 없게 로학림교수가 방해하고있는데 대하여 고깝게 생각한다. 하기에 성철은 로학림교수의 외동딸이며 자기의 애인인 로은희의 다심한 애정도 시끄러운것으로 여기며 번민에 싸여 몸부림친다. 그는 자기의 실물실험을 혼자 몰래하려고 모험을 하다가 사경에 처하게 되며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은희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후에야 성철이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며 동생 성옥이와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통하여 로학림교수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풀리기 시작한다.

교수가 다 파괴된 성철이의 실험실을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크고 훌륭하게 건설하도록 큰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안 성철이는 비로소 로학림교수를 찾아가게 되며 거기서 아버지 김준박사와 은희 어머니가 그 실험을 하다가 25년전에 잘못되였다는것, 《시간시계》 즉 《영상재생장치》를 만들어 25년전에 은희 어머니가 위기일발의 순간에 전자계산기로 분석해보낸 촉매물질의 구조를 다시 재생하여야 성철의 연구가 성공할수 있다는것, 그 위험한 폭발을 방지하려면 진공로에 부압을 조성하고 규소를 포함하고있는 한가지 첨가제를 찾아야 한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제서야 성철이는 교수앞에 고개를 수그리며 로학림교수가 《시간시계》를 20여년동안이나 피타는 탐구를 거쳐 만들어낸것은 성철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켜주고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음을 눈물겹게 깨닫게 된다.

성철은 그 폭발방지용 첨가제가 달에 있다는것을 알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은희가 먼저 그것을 구해오려고 달의 빙하구역,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위험지대로 용약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성철은 눈물을 휘뿌리며 그 고마운 마음들에 감심하며 목메인다.

그는 은희가 아니라 자기가 그 위험을 맞받아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품은채 고속우주로케트를 타고 은희보다 먼저 빙하구역에 도착하여 그 첨가제를 채취한후 유독성물질의 침해를 받아 숨지고만다.

이렇듯 작품은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성철이의 사상의식장성과정, 과학적세계관형성과정이 싹트고 자라날수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조건들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면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듦으로써 독자들이 복잡다단한 과학환상적내용들과 기술실무적문제들에 파묻히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주인공 성철이와 로학림교수, 은희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장성과정을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주체형의 인간, 과학탐구자들의 성격장성과정을 과학적세계관의 형성과정으로 그리는 문제가 원칙적인 요구로 제기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성격형상의 높이와 심도를 확고히 담보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격의 높이와 심오성은 인간이 어떤 사상의식을 지니고있으며 의식장성과정이 얼마나 깊이있게 그려지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행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인간을 높은 사상의식의 소유자로, 정치적자주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소유자로 그리지 않고서는 성격을 깊이있게 형상해낼수 없다.

인간의 이러한 사상정신세계는 그가 지닌 과학적세계관, 혁명적세계관에 의하여 담보된다.

과학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있으며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함없이 탐구의 길을 걸을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성격을 과학적세계관의 형성과정으로 그리는것은 과학환상소설창작의 필수적요

구로, 인물들의 성격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개성적특질을 뚜렷이 밝혀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려면 생활의 본질적인것이 성격형상에 개성적으로 구현되도록 일반화하고 개성화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형상되는 주인공은 반드시 전형화의 근본원칙인 예술적일반화와 개성화를 거쳐야만 참다운 성격형상, 본보기성격으로 될수 있다.

인물의 성격을 전형화한다는것은 개성적인것을 모나게 돋구면서 성격의 본질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살린다는것을 말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전형은 성격의 본질적인 측면을 개성적으로 돋굴 때에만 살아나며 이것은 생활을 일반화하고 개성화하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주인공의 개성적특질을 그려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의 사상의식이 개성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내는것이다.

우리의 일부 과학환상소설작가들은 주인공의 전형적인 성격을 그린다고 하면서 사상의지적품성에서는 일반적특성을 부여하고 습관, 취미, 말투 등 륜리도덕적풍모나 기질적측면만을 강조해주면 되는것으로 리해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개성에 대한 완전한 몰리해이며 바로 여기에 인물성격이 개성을 잃게 되는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상과 의지, 감정은 하나로 어울리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룬다. 인간의 사상이 단순하지 않고 그것이 다양하고 생동하게 표현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사상은 성격을 특징짓는 근본요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성도 그의 사상의식에서 기초를 찾아야지 다른 외형적인것, 생리적인것에서만 찾아서는 안된다. 특히 사상과 의지, 감정이 하나로 어울리여 인간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결국 세상에 사람이 열이면 열, 만이면 만이 다 그들의 내면세계의 차이, 사상의지적 및 감정정서적차이에서 오는것

이며 결정적인것은 사상이다. 철학적으로 추상화한 사상은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일수 있으나 매 인물이 지닌 사상은 구체적인것이며 서로 꼭같을수 없다. 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라고 하여도 그들이 지닌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과학환상소설을 처음 쓰는 작가들은 물론 많은 문학통신원들은 이 진리를 잘 모르거나 또 안다고 해도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것처럼 리해하고 사상정신세계는 일반화하고 기질적, 관습적 측면만을 개성화하여 전형을 창조하려고 한다.

사상정신세계가 개성적이 못될 때 아무리 기질적측면이나 륜리도덕적측면을 달리한다고 하여 개성적으로 안겨올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주인공의 형상은 성격의 론리, 생활의 론리에 맞게 그려야 한다.

성격의 론리, 생활의 론리를 규정하는것은 인간의 사상의식이다.

인간의 개성적특징은 사상정신적면모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인공을 개성적으로 그리자면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다 공통적인 일반적특징을 추려다가 《종합》할것이 아니라 매 인물에 고유한 성격의 론리에 맞게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엔. 그레브뇨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아르끄따니야》와 게. 아다모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지하자원에 대한 승리자들》에서는 자연의 힘을 정복하며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보여주고있으나 주인공들은 독특한 사고방식, 신념, 세계관으로 하여 특징지어지는 매력있는 개성을 소유한 인물들로 그려지지 못하였다.

이 두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통적인 일반적특징을 추려다가 《종합》한것 같아 사상정신세계가 뚜렷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쌍둥이》와 같은 인상을 자아내고있다. 게. 아다모브의 장편과학환상소설 《상전의 추방》의 주인공도 중편과학환상소설 《지하자원에 대한 승리자들》의 주인공과 별반 다른 성격적

특질을 가진 개성적인 인물로 형상되지 못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아르끄따니야》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북극의 얼음밑에 숨은 파쑈잔당을 숙청하는 이야기를 취급하였다. 장편과학환상소설 《상전의 추방》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인 간첩들과 파괴암해분자들을 숙청하고 몰아내는 투쟁선이 기본으로 되여있어 어슷비슷한 감을 자아낸다. 다른것이 있다면 이 두 작품의 부피상차이나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다를뿐이다.

웨. 이와노브의 장편과학환상소설 《에네르기는 우리에게 예속되였다》에서도 종자에 맞게 주인공을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발전과 그 표현을 개성적으로 형상하지 못한 심중한 결함을 범하였다.

이 작품은 종자도 명백치 않으므로 주인공의 초기성격도 옳게 규정되지 못하였고 사상의식의 성장과정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작품의 작가는 성격창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과학성이 없는 환상을 제멋대로 펼치고 렵기적인 흥미만을 추구하였다. 작가는 원자탄두를 장치한 원거리미싸일을 발사하며 이전 쏘련과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전쟁을 보여주면서 쌍방학자들의 전투적인 결투끝에 쏘베트학자들이 승리하며 라인강우에 있는 전쟁방화자들의 요새인 《성》은 그 장본인들과 함께 땅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것으로 묘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타승하고 지구우에서 그 오물을 영원히 청산해야 한다는 사상과 리상은 아주 긍정할만한 일이지만 이 작품은 모가 나고 뿔이 돋은 주인공들의 성격이 없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보여줄대신 제멋대로의 환상세계를 펼쳐 사건을 흥미본위로 마구 이끌어간것으로 하여 예술적가치를 심히 떨구고 인식교양적의의마저 없게 만들었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취사선택한 원형들의 특징적인 성격에 자기 리상이 조화롭게 안받침된 개성적인 성격, 사상정신적특질이 명백한 성격을 창조해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소설들에서 주인공은 다른 소설

에서 창조되는 주인공의 성격과 비슷해서도 안되지만 공허하게 생각되는 환상적인 인물로 되여서도 안된다.

게. 마르띄노브의 장편과학환상소설 《깔리쓰또인들》에서 나오는 지예곤, 비야이닌, 미예니온, 웨니얀 등 머나먼 우주인들처럼 사상정신적특질은 찾아볼수 없고 도덕적측면에서만 완성되여 비판사업이나 교양사업은 필요없는것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과오를 범해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당사자만이 알아 참회하듯이 고개를 수그리고 량심상가책을 받으면 그만인것으로 그려서는 의의가 없다.

이 작품에 씌여진것처럼 로동교화소는 물론, 아무런 예심기관도, 재판소도 없고 범인을 처벌하는 기관도 전혀 없다면 이것은 문자그대로 무정부주의적인(이 작품의 141페지) 사회로 전락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주인공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최고도로 발현되게 하는 주체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 누구보다도 생활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하는 사람, 인간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모든 사회적 및 자연적 질곡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 주체형의 인간전형으로 참신하게 그려져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주인공의 사상의식이 어떻게 개성적으로 표현되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륜리도덕적인 풍모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륜리도덕적풍모는 사람의 인간적개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따라서 주인공을 개성적으로 형상하기 위해서는 그의 륜리도덕적풍모를 잘 그려야 한다.

우리 과학환상소설문학이 내세우는 긍정적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인간전형은 사상정신적으로 존엄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높은 문화수준과 인간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였을뿐아니라 고상한 인간성을 지닌 인간으로 그려져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을 개성적인 인간으로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의 기질적특성도 잘 그려야 한다.

사람의 개성은 심리와 성미, 말투, 동작, 기질에서도 표현된다.

세상에는 성미가 과격한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침착한 사람도 있으며 말투가 거친 사람도, 행동이 특이한 사람도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일반소설처럼 주인공한테만 고유한 기질을 부여한다면 그의 형상이 산 인물로 독자들의 인상에 깊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주인공뿐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형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소년우주탐험대》(《아동문학》, 1960년 3호—9호)의 주인공은 말을 조리있고 물흐르듯이 거침없이 하는것으로 하여 인상적이다.

에프, 깐드바의 장편과학환상소설 《불타는 대지》와 아, 까잔쩨브의 장편과학환상소설 《북방의 방파제》, 웨. 오호뜨니꼬브의 《깊은곳으로 가는 길》, 과학환상단편집 《탐색의 세계에서》의 단편들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은 고유한 기질이 부여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형상은 별로 인상적이 못된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인물들의 기질적측면을 잘 살려내는것은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등장인물들의 체모를 깎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 씌여진 한 작가의 과학환상소설 초고에서는 주인공이 말끝마다 《과학 제일이요》하면서 《똑같이 나누어주라》를 《똑같이 도합수 취해주라》로, 《합쳐놓으라》를 《적분을 취하라》 등으로 보통생활상 언어마저 과학술어로 표현하게 하니 그가 돋보이는것이 아니라 저조하게만 여겨진다. 직업적특성이나 체질적특성으로 하여 굳어진 고유한 습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문화적이거나 천박스러울 때에는 그리지 말아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주인공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초상묘사도 잘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은 흥미있으면서도 복잡한 환상세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주인공의 성격이 창조되므로 초상묘사에 의하여 성격이 떠오르고 개성적특질에 의하여 초상이 눈앞에 그려질수 있게끔 형상

화해내는 문제가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의 성품이 비껴있으며 그의 외모에는 개성적인 취미와 생활처지가 반영되여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작품을 창작하기전에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초상을 정확히 표상하고있어야 한다.

초상묘사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뚜렷하게 개성화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초상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생활 경력, 습성, 지식정도, 직업 등을 나타낼수 있으며 내부적충동과 심리변화 등 사상감정의 움직임을 표현할수 있다.

초상묘사가 인물성격을 그려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가는 초상과 성격사이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할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초상묘사는 인물의 개성적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낼수 있는 몇개의 요소만을 찍어주는 방법, 대비적으로 초상묘사를 주는 방법, 운동속에서, 극적인 정황속에서 외형적으로 발현되는 특징을 포착하여 그려주는 방법 등이 있다.

과학환상소설은 과학적환상에 의하여 정황을 예리하게 조성할수도 있으며 사회적관계들을 첨예화하고 환경을 극적으로 형상할수 있으므로 초상묘사를 통한 성격창조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그 준비정도를 옳게 규정하고 도덕륜리적풍모와 기질, 초상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과학환상소설의 창작공정상으로 볼 때 종자탐구과정과 병행되여 진행되는 성격탐구과정이다. 과학환상소설가가 종자를 탐구하였다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울것인가 하는것이 확정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창조를 위하여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뒤생활과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를 잘하여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주인공을 인물관계의 중심에 세워야 하며 그의 운명발전선이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선으로 되여야 한다.

이밖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주인공의 앞길에 굴곡

과 난관이 겹쌓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주인공의 불굴의 의지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그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가 남김없이 발현되게 하는것이다.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푸른 이삭》과 《별은 돌아오리라》의 심의과정에 《주인공의 몫이 없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 약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였다. 이 의견은 지극히 당연한것으로써 초기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의 지향에 걸리는 반선이 확실히 약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별은 돌아오리라》의 심의과정에 제기된 의견은 우선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백치 않아 형상의 짐을 골고루 분배하는 식으로 구성이 짜져 어느 한 인물의 성격적특질도 가늠할수 없게 된것이다.

다주인공인 경우에도 주인공을 명백히 하고 그의 앞길에 곡절과 시련을 겹쌓이게 하지 않고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할수 없으며 주인공에 대한 독자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어려운 국면에 부딪치게 하여야 그것을 뚫고나가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극명하게 펼쳐보일수 있다.

주인공을 련속적인 극적정황속에 세워야 그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 살려낼수 있다.

주인공이 심각한 사상의지적, 인정륜리적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의 앞길에 고충과 굴곡을 주자면 인물관계가 그러한 방향에서 설정되여야 한다. 독자들은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바다에서 솟아난 땅》, 《두개의 화살》, 《바다밑 20만리》, 《푸른 이삭》과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별나라에서 온 〈손님〉》, 《깔리스또인들》, 《우주탐험가들》, 《거품의 나라》 등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아글타글 애쓰던 과학연구사업이 실패한다든가, 혹은 자연의 횡포한 현상에 의하여 기껏 만들어놓았던 창조물이 산산쪼각이 난다든가 하는 대목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설정들도 주인공에게 형상적인 짐을 실어주기 위해 제시되였다.

그러나 자연적인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는 극적인 국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것이고 기본은 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주인공의 앞길에 고충과 난관이 덧쌓아지게 하는 문제이다.

웨. 오호뜨니꼬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깊은곳으로 가는 길》과 일련의 그의 단편과학환상소설들에서는 주인공의 앞길에 굴곡과 난관이 겹쌓이도록 형상하지 못함으로써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특질을 명확히 그려내지 못하였다.

웨. 오호뜨니꼬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깊은곳으로 가는 길》과 과학환상소설 《땅속 깊은곳으로》에서는 한 기사가 설계한 자동지하탐사기에 기초하여 작가적환상의 나래를 펼쳐 땅속 깊은곳으로 제 마음대로 타고들어갈수 있는 환상적인 지하정을 묘사하고있다.

작가의 모든 주의는 기술적인 장비, 텔레비존영사막과 지상과의 무선통신에만 쏠려질뿐 주인공의 개성적성격을 개방하기 위한 형상작업에는 거의 낯이 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하정의 설계가들인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은 독자들에게 다만 지하정이 어떻게 설계되고 완성되여가며 그 기술적장비가 어떻게 마련되여가는가에 대해서 해설하여주는 해설자에 불과할따름이다.

이 중편소설에서는 전반에 결쳐 기술에서 누가 더 유익하며 더 필요한가에 대한 론쟁이 거듭 진행될뿐이다. 일면적인 깊은 전문지식을 소유한 인간이 더 유익하며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시야가 넓으며 다방면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 시문학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가 하는 부질없는 론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후자가 더 유익하다는것으로 끝나며 그 확인으로써 그 대표자인 교수가 지하에서의 두더지의 운동과 지하정의 운동이 류사하다는것을 고찰하게 된다. 또한 지하정설계가들중의 한사람인 왈렌찐 까뚜슈낀은 원래 시인으로서 실패의 고비만 맛보던 사람이였는데 지하정설계사업에서 계속되는 론쟁끝에 시적인 주제도, 령감도 얻어냄으로써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한다.

작품은 지하정의 첫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땅속 깊은곳에로의 시험려행결과에 앞으로 지하깊은곳에서 수평면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새것을 많이 발견할수 있는가를 예측하는것으로써 끝나고만다.

이 중편과학환상소설은 론의할 문제점이 많지만 모든 약점은

결국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줄수 있는 짐을 무겁게 지우지 못한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지하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겪는 난관과 우여곡절은 거의 묘사되지 않았으며 누가 더 유익한 사람인가 하는 부질없는 말씨름을 하는 장면들만 지루하게 펼쳐보임으로써 불굴의 의지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주인공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점은 뒤생활과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를 잘하여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것이다.

인간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것은 과학환상소설문학의 우점이며 그 형상성, 예술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환상속의 인간, 미래의 생활속에 있는 인간을 생동하게 그려야 하므로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 주인공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소설은 실재한 인간을 전형화하여 그리는 일반소설과는 달리 미래의 인간, 환상속의 인간을 그리게 된다. 따라서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않으면 독자들이 공감할수 있는 참신한 성격의 소유자를 보게 되는것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인간, 생동한 형상으로 안겨올 대신 짙은 안개속의 인간처럼 륜곽만 보이는 형상을 짐작하게 된다.

환상속의 인간의 전모, 성격의 전모는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묘사할 때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은 표면화되지 않은 생활의 반영과 깊이있는 성격의 다면적이고 심도있는 묘사를 실현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뒤생활이란 표면화되지 않은 일체 생활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제시할수 없는 그러한 뒤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일반소설문학에서보다 환상적정황속에 주인공을 세울수 있다는 측면에서 뒤생활을 더 심도있게 펼쳐보일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는 래일의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미

지나간 주인공의 생활인 오늘의 생활을 보여줄수도 있고 썩 더 거슬러올라가서 먼 옛날 생활을 펼쳐보이기도 하며 사람들의 사회생활, 과학탐구생활을 그리면서 그의 가정생활, 사생활이 여기에 겹쳐지기도 한다.

뒤생활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사회계급적본질과 생활경력, 개인적인 취미와 기호 등 성격적특질을 밝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과학환상소설에서 긍정적주인공들의 뒤생활은 무한히 깨끗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것이여야 한다. 뒤생활을 묘사한다고 하여 주인공에게 있을수 있는 뒤생활을 모두 빠짐없이 전면에 그려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주인공의 아름다운 풍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뒤생활을 탐구하여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에 맞게 그려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사람들의 잡다한 뒤생활을 무작정 끌어들이는것은 인간성격의 본질적특징을 드러내는것을 방해하고 이야기의 흐름새에 손상을 줌으로써 성격의 전모를 리해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영향을 준다.

웨. 오호뜨니꼬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깊은곳으로 가는 길》에서 긍정적인물의 한사람인 왈렌찐 까뚜슈낀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그가 지하정설계가의 한사람으로 형상화돼있다. 그런데 작가는 그의 성격을 그리면서 잡다한 뒤생활, 한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졸작품만 내던 일이며, 그것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던 일등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참말로 지하정을 개발하여 나라의 채취공업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시문학에서 이름을 날리지 못하자 과학탐구에서 명예를 회복해보려고 하는 공명출세주의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지하정이 성공하게 되자 그가 출판사에 보내는 문학잡지에 시 《깊은곳으로의 길》을 발표하며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보아 다시 시문학으로 뛰여들려는지 종잡을수 없다.

이 작품의 156페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무더운 여러 나라〉에 대해서와 나의 눈으로 보지 못한 모든것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매혹적인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사업에 자기의 생활을 결합시켜 그 사업에 열중하자 나는 참으로 창조적인 령감의 생기를 띠워주는 원천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시를 출판하기 시작한 그 사태가 이것으로써 아마 설명되는것 같습니다.》

왈렌찐 까뚜슈낀의 뒤생활을 잡다하게 무작정 끌어들이다보니 성격의 본질적특징이 흐려진것은 물론 과학탐구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야만 성공할수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려는지, 생활을 깊이 체험하여야만 문학적소재와 종자를 훌륭히 골라잡고 좋은 시를 쓸수 있다는것을 말하려는지 알수 없게 되였다.

소설에서 사람들의 뒤생활을 그리는 수법은 다양하다. 때로는 주인공의 과거생활을 회상수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중인물의 시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소개하기도 하며 때로는 작가가 직접 주인공의 이러저러한 뒤생활을 펼쳐보이기도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뒤생활에 대한 묘사는 어떤 계기에서 누구의 시점으로 펼쳐보이는가에 따라 그 미학적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작가는 주인공의 뒤생활을 묘사할 때 해당한 계기에서 누구의 시점으로 묘사하여야 주인공의 성격의 진면모를 명백하게 드러낼수 있겠는가를 잘 타산하여야 한다.

성격형상에 요긴하며 필요한 전형적인 뒤생활이 가장 효과적인 수법으로 특색있게 그려지게 될 때 성격의 전모는 뚜렷하고 명백하게 그려진다.

뒤생활과 함께 심리에 대한 묘사도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위력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주인공의 뒤생활을 자유롭게 그릴수 있을뿐아니라 인간의 심리세계를 남김없이 드러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소설은 인간의 사상의식수준과 감정기분상태, 사람들이 체험하는 미묘한 감정의 파동까지도 섬세하게 형상해낼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분석적으로 잘 그려주어야 그의 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펼쳐보이고 성격의 전모를 참신하게 보여줄수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실재한 인간의 전형,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공산주의적인간의 성격에 토대하여 시대적구획에 맞는 인간을 재창조해야 하므로 심리묘사에 힘을 넣어야 한다. 미래인간들의 형상은 외적형상보다도 내적인 세계, 내면세계를 통하여 그 형상이 두드러지기마련이다.

과학환상소설은 일반소설과는 달리 형상적인 수법으로 인간을 그려내므로 심리묘사에서 보다 넓은 형상의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창작실천은 과학환상소설이 심리묘사의 위력한 수단에 의하여 어느 형태에서보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할수 있으며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하고 섬세한 파문을 그대로 보여줄수 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에서 주인공 리인정교수의 사랑하는 딸인 영애연구사가 사경에 처하여 중앙구급병원에 실려갔을 때 체험하는 리인정교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치료용전자계산기의 진단결과 당장 영애의 콩팥이나 간장과 꼭 같은 이식장기가 필요하다는것, 그것을 가까운 인체장기제작소에서 만든다고 해도 시간의 촉박성으로 영애를 살릴수 없다는 사정, 통보과의 자동정보송수신설비로 순식간에 전국의 인체장기제작소들에 알아보았으나 그런 장기는 다 써버리고 현재는 한개도 없다는 사정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주인공 리인정교수와 기술부원장 김박사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초미문제의 하나인 자기의 연구과제, 얼음속에서 《잠재우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정상회복시키는 《저체온 생명조종》법을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예술적으로 강조하고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심리묘사는 이처럼 주인공들의 체험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밖에 초상과 행동, 정황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보이는 심리묘사에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환상생활, 미래의 해당 시기에 맞는 생활을 잘 선택하여 밀착시키는 문제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심리묘사가 위력한 형상수단으로 되고 사람들에게 큰 사상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그것이 주인공들의 구체적인 생활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등장인물들의 생활 그 자체와 완전히 융합되여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생활로부터 우러나오지 못하고 생활에 기초함이 없이 작가에 의하여 제나름으로 주어지는 심리묘사는 아무런 생활적내용을 가질수 없으며 성격해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심리묘사는 그것이 주인공들의 생활에 대한 묘사로 되여야하며 어느것이 생활에 대한 묘사이고 어느것이 심리에 대한 묘사인지 그 한계를 그을수 없으리만큼 심리묘사와 생활묘사를 밀착시켜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심리묘사를 생활과 밀착시킨다는것은 주인공의 심리를 그들의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심리묘사를 생활과 밀착시켜 진실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심리를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구체적인 정황과 조건에 맞게 그려야 한다.

주인공의 성격이 생활의 객관적론리와 통일될 때 심리묘사는 생활과 밀착되게 되며 따라서 성격해명에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고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가지게 된다.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과학환상소설에서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며 심도있게 그리는것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려야만 주인공의 뒤생활과 내면세계도 풍부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으며 따라서 성격의 전모를 다면적으로 보여줄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창작과정이란 리상화되지 않은 미래의 긍정적인간, 주인공의 성격창조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성격의 주도적인 지향과 그 준비정도를 작품의 종자에 맞게 잘 규정하고 개성적특질을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주인공의 앞길에 굴곡과 난관이 겹쌓일수 있게 하며 뒤생활과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를 잘하여야 품위있는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할수 있다.

3) 부정인물을 그리지 않을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부정인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되며 그를 반대하는 론조도 튀여나오고있다. 물론 긍정인물만 등장하는 과학환상소설이 적지 않으며 또 많아야 한다. 그것은 미래의 사회가 긍정이 결정적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하지만 과학환상소설에서 부정인물을 그리지 않을수 없다.

창작실천은 미래의 생활을 펼쳐보이는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부정인물의 형상창조를 배제하거나 차요시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래의 사회에서도 생활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한다. 과학환상이 펼쳐지는 앞날의 생활이라고 하여 다 긍정만이 존재하고 부정적현상은 조금도 없다고 볼수는 없다. 물론 그때의 부정은 어제날이나 오늘날과 같은 그런 부정적현상은 아닐지라도 전진하는 새것을 이러저러하게 방해하는 낡은것, 부정적인것이 존재하기마련이다.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혁명은 계속되므로 온갖 낡은것을 밀어내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중단되지 않는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낡은것을 대표하며 그것을 체현한 구체적인 인물형상을 창조하여야 낡은것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예술적으로 정확히 재현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부정인물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는것은 생활의 진리와 혁명투쟁의 법칙을 정당하게 보여주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창작실천은 부정인물이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주제, 사상을 해명하며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부정인물은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생활의 진리를 밝히는데서 자기의 고유한 몫이 있고 그가 찾은 생활의 교훈으로써 생활의 진리를 반증하고 확인한다. 또한 긍정적주인공앞에 시련과 난관을 조성하고 충돌을 야기시키면서 긍정적주인공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부각시키고 성장발전을 가속시킨다. 작품에서 부정인물을 잘 그리지 못할 때에는 긍정인물도 잘 그릴수 없다.

어느 한 중편과학환상소설 창작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 작품의 부정인물인 진오석의 사상정신적 및 륜리도덕상태를 생활에 발붙인 형상을 창조한다고 하여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정적현상들을 체현한 인간으로 그려놓았기때문에 그와 맞세운 긍정인물인 정광원이의 정신도덕적품격을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게 그리려고 해도 그릴수가 없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 등장인물들의 정신세계가 저급하여 불쾌감을 자아낸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물론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등장인물들의 품격을 리상화해서도 안되지만 일반소설에서 창조되는 식으로 인물들을 그려서도 안된다.

과학환상소설들에 형상되는 부정인물들은 사회계급적성격에 따라 적대적부정인물과 비적대적부정인물로 갈라볼수 있다.

적대적부정인물의 계렬에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의 인물형상이 속하며 비적대적부정인물의 계렬에는 낡은 사상을 체현한 부정적인물형상이 속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적대적부정인물형상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 잔여분자들과 앞잡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의 투쟁이 계속되여야 하므로 과학환상소설에서 적대적부정인물형상은 필수적과제의 하나이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에 형상된 검은 잠수함을 타고있는 미국놈들과 연구소에 잠입한 간첩도당, 아. 엔, 똘쓰또이의 장편과학환상소설 《아엘리따》의 주인공 구쎄브의 적들인 화

성의 착취자들,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아, 까잔쩨브의 《불타는 섬》, 웨 이와노브의 《에네르기는 우리에게 예속되였다》, 게, 아다모브의 《상전의 추방》에서 사회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잔여세력은 모두 적대적부정인물들이다.

적대적부정인물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놈들을 지구상에서는 물론 우주공간에서조차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는 정신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들에서는 오랜 력사를 두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렬한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한후에도 재침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침략자이라는것을 날카롭게 폭로하여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소년우주탐사대》나 중편과학환상소설 《별은 돌아오리라》에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이나 머나먼 다른 태양계의 행성에 숨어살며 재생의 야망을 품고 갖은 비인간적행위를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본질과 야수성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적대적인물형상창조에서도 진실성에 대한 요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들의 형상도 그자체로써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져야 한다. 원쑤들의 형상이라고 하여 만화적으로 서술하거나 생활적타당성이 없이 되는대로 그려서는 안된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은 놈들의 야수적본성을 날카롭게 폭로단죄하면서도 자연주의적수법을 경계하고 사실주의 전형화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전형화의 묘사원칙은 사실을 그대로 복사할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본질을 뚜렷이 밝혀낼것을 요구한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것이라고 하여 놈들의 만행을 자연주의적으로 그린다면 놈들에 대한 증오심보다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과학환상소설 《마크스웰의 방정식》과 장편과학환상소설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일 없느니…》를 비롯한 수정주의과학환상소설들

처럼 최신과학기술수단으로 무장된 제국주의잔여분자들이 인간의 머리에 적당한 주파수를 넣어주어 사람들을 기계처럼 광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그들의 무자비성과 부화방탕한 생활을 보여준다면 놈들에 대한 증오심보다도 공포심을 자아내게 된다. 놈들의 야수성을 보여줌에 있어서도 그 어떤 잔인한 행위도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불패의 신념, 그 위대한 정신력앞에서는 무맥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놈들의 사상정신적취약성을 드러내보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적대적인 부정인물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는 적들에 비한 우리의 위력이 예술적으로 확인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적들의 형상은 놈들의 파멸을 확인하는 형상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우리의 강대성을 반증하고 확인하는 형상으로 되여야 한다. 동시에 적대적인물들의 입을 통하여, 혹은 파국적운명에 처한 놈들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는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견지에서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적대적인 부정인물형상창조와 함께 비적대적인 부정인물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는것은 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비적대적인 부정인물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과학자, 탐구자로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지고있는 부정인물의 사회계급적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미래에 있을수 있는 부정은 주관적으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고 하지만 채 극복하지 못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사업과 생활에서 이러저러한 결함과 부족점을 발로시키는 사람들이다.

미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이러한 사회계급적성격은 그 형상과 운명처리에서 적대적부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련의 미학적원칙을 제기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비적대적부정인물의 형상은 무엇보다먼저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따돌리는 식으로 그려서는 안된다.

작품에서 투쟁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적인물 그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습성이다. 부정적인물이 비록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생활습성을 가지고있더라도 과학자, 탐구자로서의 근본립장을 완전히 저버린 인물로 그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운명처리에서도 사건의 발전속에서 교양개조되는것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개변후 그의 생활에 앙양한 전망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성격의 특징을 정확히 그리지 못하면 일부 과학환상소설작품들에서처럼 긍정인물에게는 모든 긍정적인 측면을 다 집중시키고 부정적인물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 집중시키는것과 같은 폐단에 빠질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긍정과 부정의 대립과 충돌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 심화발전과정에서는 부정인물을 적대적인물과 같이 처리하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비적대적부정인물을 이런식으로 형상해서는 안된다.

사실 창작과정을 놓고 보면 과학환상소설에서 비적대적부정인물의 형상창조는 적대적부정인물의 형상창조에 비하여 더 어렵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비적대적부정인물의 형상에서는 부정 일면만을 집중시킬수 없고 부정의 성격과 농도가 구체적인 작품에 따라 각이하게 주어져야 하기때문이다.

비적대적부정인물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 어떤 류형의 부정인가를 명백히 찍어주는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속에서 보게 되는 각양각색의 부정과는 질적차이가 있겠지만 앞날에 가서도 그 형태와 류형이 완전히 없어지리라는 담보를 내리기는 힘들다.

몇년, 몇십년 후에 가서 경험주의나 보수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볼수 없으며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었거나 집단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라

라고는 믿기 어렵다.

해방후 오늘까지 우리 당의 옳바른 인간개조정책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비할바 없는 전변이 일어났으나 개인리기주의, 관료주의, 보신주의는 여전히 남아있어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을 미루어볼 때 부정과의 투쟁은 계속되여야 하며 따라서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부정인물을 설정하고 그 형상창조를 추구하는것은 너무도 타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과학환상소설의 부정인물에게 어떤 류형의 부정을 체현시킬것인가?

그것은 과학환상소설가가 작품에서 실현하려는 사상미학적의도에 따라 규정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작품의 주제와 사상에 따라 부정의 류형과 특징이 규정되여야 한다. 가령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과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한 주제를 내세웠다면 부정인물에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부족한 결함을 체현시켜야 할것이고 중편과학환상소설인《신비한 체온》에서처럼 자기희생성에 대한 주제를 제기하였다면 동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줄 모르는 사람으로 부정인물의 성격을 규정지어야 할것이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것 같지만 실지 창작과정에서는 제대로 풀지 못해 애를 먹는 일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문제를 사건의 바탕에 깔고있는 과학환상소설들에서 부정인물은 새로운 과학의 경지를 개척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저애하기가 일쑤이다.

과학환상소설가는 부정인물의 주도적인 성격적지향과 그의 준비정도를 과학기술문제와의 련관속에서 규정할 때 새로운 연구안을 반대하는 리유밑에 깔린 온당치 못한 사상적근원을 주제해명의 견지에서 명백히 찍어주어야 한다. 즉 부정인물의 표면에 내세우는 그 밑바닥에 깔린 사상적립장을 옳게 규정하고 형상해야 한다.

비록 기술개발문제에 사건발전의 바탕을 둔 작품이라 하더라도 매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와 주제는 다르다.

여기로부터 새 연구안을 반대하는 부정적인물들의 사상적근원도 구체적으로 달라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에서는 주인공 리인정교수가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 뱀 등 랭혈동물들은 5도이하의 체온으로 수개월을 끄떡없이 살아가는데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들은 왜 체온이 20도아래로 떨어지기만 해도 죽는가 하는 문제를 포착하고 사람도 저온상태에서 《잠재우는》 방법으로 온갖 잡병을 다 없애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새 연구안을 제기한다.

생명의 본체와 그를 연장할데 대한 문제가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도 의학계와 생물학계의 관심으로 되는것만큼 작품에서는 응당 부정인물, 리인정교수의 새 연구안을 반대하는 인물을 설정하고 부정적인 사상적근원을 주제해명의 견지에서 명백히 찍어주어야 하겠으나 두리뭉실하게 엮어놓았기때문에 다 읽고나서도 도대체 작가가 형상전반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 이 작품의 작가는 주인공 리인정교수가 자기의 새 연구안,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는 위대한 발견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첫 시험대상으로 하며 그를 얼음속에서 30일간 《인공잠》을 재우는 자기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문제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안을 반대하는 부정적인물은 치료용만능전자계산기가 병원마다 설치되여있고 최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인공심장, 인공장기 등 모든것을 만들어 갈아넣을수 있는 최신식설비가 그쯘히 갖추어진 조건에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무엇때문에 하며 고생을 사서 하겠는가 하는 인물로 설정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탐구생활에서뿐아니라 뒤생활의 이모저모에서 그러한 낡은 생활의식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할것이였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물도 명백치 않고 더우기 부정적인물의 초기성격도 규정되여있지 않아 매혹적인 환상장면들이 도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안겨오지 못하며 책을 놓음과 동시에 주인공의 모습도 독자들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만다. 다시말하여 이 작품은 미담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긴형식의 과학환상이야기와 같은 감을 주고있다.

비적대적부정인물의 성격을 형상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낡은 사상 잔재를 정확히 규제하는것이다.

비적대적부정인물은 작품의 마감에서 반드시 교양개조된것을 전제로 하고 작품에 등장하는것만큼 사건발전속에서 그가 긍정적주인공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받게 될 사상적영향과 자체체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초기 부정의 농도를 규정하여야 한다.

비적대적부정인물의 성격규정에서 어떤 부정인가 하는 문제는 작품의 주제에 따라 규정되여야 하며 어느 정도의 부정인가 하는 문제는 이야기줄거리 발전에서 그가 받게 되는 긍정적영향과 느끼게 되는 체험에 따라 규정되여야 한다.

어느 한 중편과학환상소설의 부정적인물인 진오석의 초기성격에서 부정적측면을 강하게 체현시켜놓으니 그의 성격발전에서 생활의 론리가 무시되고 비약이 초래되였다.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 진오석의 초기성격을 약하게 규정해놓으니 그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극적매듭들이 충분히 주어질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성격발전의 진실성을 보장할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작품을 창작할 때에는 전반적인 이야기줄거리의 구도를 잘 짜고 부정인물의 극적체험과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들을 예상하면서 비적대적부정인물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비적대적부정인물의 초기성격을 정확히 규정한 다음에는 성격발전의 론리에 맞게 전반적인 형상체계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

비적대적부정인물들을 옳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개변의 생활적계기들을 련속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낡은 사상 잔재는 집요하다. 한두번의 비판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 긍정인물에게서 받는 영향과 함께 그자신이 낡은 사상 잔재가 빚어낸 후과와 교훈을 생활적으로 심각히 체험하게 될 때에만 부정인물의 성격발전은 진실하게 그려질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들의 고상한 풍모가 더 발현될 앞날의 생활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하여 부정을 밉지 않게 두리뭉실히 그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부정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극복될수 있는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나 부정인것이다. 부정자체를 곱게 보거나 어루만지는식으로 그려서는 작품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이 두가지 점에 류의하면서 부정인물이 긍정적주인공과의 관계속에서 자기를 랭혹히 돌이켜보는 생활의 극적계기를 잘 마련해야 한다.

이 형상작업을 잘하지 못하고 가령 부정적인물이 다른 외적요인에 의하여 개변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부정적인물자체의 성격발전은 타당성을 띨수 있어도 구성의 일관성과 째임새를 파괴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작품창작에서 형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을 잘 그리는데 모를 박으면서도 부정인물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제4절 과학환상생활창조를 위한 설계

과학환상소설가들이 창작에서 가장 고심하며 품을 많이 들이는 작업의 하나가 과학환상생활창조를 위한 설계, 새롭고 특색있는 구성을 조직하는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소설에서 흥미있는 환상적사건을 보여주는데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구성을 새롭고 특색있게 조직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미래인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서는 새롭고 절실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훌륭하게 형상하려면 작품의 구성을 새롭고 특색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앞날에 펼쳐질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재미있고 인상깊게 엮어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생활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보여주어야 할 과학환상소설가들에게도 이야기를 꾸미는 독특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성이다.

과학환상소설마다 구성은 특색이 있게 되여야 한다. 작품마다 종자가 다르고 그에 따라 주제사상이 같지 않으며 반영하는 생활이 다르기때문에 구성이 같아질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실천과정에서는 생활소재도 다르고 종자와 주제사상도 같지 않은 작품을 창작하면서 틀에 박힌 류형적인 구성을 답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학환상소설가가 참신한 인간성격과 특색있는 형상으로 빛이 나는 작품을 창작하려면 미래생활과 인간성격의 다양성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구성을 탐구하는데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때때로 일부 작가들속에서 과학환상소설은 특별한 구성작업이 필요없이 환상세계를 훌륭히 펼쳐보일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면 된다는 론조가 생겨 물의를 일으키군한다.

현실생활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미래의 생활을 반영하는 과학환상소설의 경우에 구성을 새롭고 특색있게 조직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구성은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기때문에 작가는 구성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낼수 없다.

과학환상소설가는 구성조직을 잘하지 못하면 생활의 론리에 어긋나는 형상을 만들어내게 되며 나아가서는 작품의 사상적내용까지도 외곡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인간관계, 이야기줄거리 등 구성의 요소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구성을 짜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

1) 미래인간들의 관계를 새롭고 참신하게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인간의 지적능력이 최대로 발현될뿐아니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필 미래의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더욱 새롭고 참신하게 얽히기 마련이다.

그런 생활을 반영하는 과학환상소설을 품위있게 써내자면 구성의 기본으로 되는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잘 풀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관계가 제대로 엮어지지 못하면 작품이 인간학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들의 성격도, 생활도, 사건도 제대로 그려낼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과정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심화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된다.

환상속에 살아움직이는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면 작품의 환상이야기들이 쉽게 엮어지게 되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상사건들도

인물관계속에서 펼쳐지기 마련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의하여 단서가 잡히게 되고 인간관계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며 인간관계의 해결과 함께 끝이 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간관계는 작품의 사상을 체현한 주인공의 성격을 해명하는 공간으로 된다.

주인공은 다른 인물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그 성격적특징이 밝혀진다.

과학환상소설의 인간관계는 일정한 인간학적문제를 안고있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사이의 관계이며 극적으로 얽혀진 문학적과제를 안고있는 인간관계이다.

인물들사이의 관계가 인간학적문제를 안고있다는것은 그들사이에 실무적인 혹은 일상생활적인 련계가 아니라 정치사상적인 문제가 제기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물들이 직무상관계에 놓여있거나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더라도 그들사이에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치사상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문학작품의 인물관계라고 말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물관계가 극적으로 얽혀져있다는것은 그들사이에 대립과 충돌, 오해와 상봉 등 극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하며 서로 상반되는 사상적지향을 가졌다하더라도 인물들사이의 관계가 극적으로 얽혀져있지 않는다면 과학환상소설의 인물관계로 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은 한 학자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연구사업을 딸과 사위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있다.

세계학술회의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돌아온 교수 리인정박사는 생명의 본체와 그를 연장할데 대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연구사인 딸과 재능있는 총각사이에 참다운 사랑이 꽃펴나는것을 알게 된다. 작품은 아버지인 리인정교수와 딸의 자기희생성을 생동하게 그렸으며 그들의 성격적면모도 어느 정도 진실하게 그렸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관계가 없

으며 문학적이야기도 없다. 결과 과학환상소설작품이 되지 못하고 과학환상이야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얼핏 보면 아버지와 딸이 서로 돕고 고무하며 딸과 연구사총각이 신뢰하고 양보하면서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으므로 그들사이에 관계가 매우 치밀하게 얽혀져있는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다. 우선 그들사이에는 사회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가 제기되여있지 않다. 아버지와 딸사이에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인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심화시킬수도 없고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 어떤 사상적인 결론도 얻어낼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그들사이에는 어떤 극적인 이야기도 빚어질수 없다.

리인정교수의 딸인 영애와 연구사인 창호와의 관계도 문학적인 인물관계가 아니다. 두사람사이에도 역시 해결하여야 할 인간문제가 없으며 극적인 이야기가 없다.

이처럼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의 인물관계는 엄연한 의미에서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인물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중편과학환상이야기로밖에 볼수 없는 정도이다.

《신비한 체온》과 같은 작품의 인물관계를 가지고서는 문학적인 사건, 시작과 끝이 명백하고 상승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떤 결과에 이르는 이야기를 꾸밀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의 구성에서 기본은 인물관계이다.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학적문제도 해명할수 없을뿐아니라 구성의 다른 요소들도 옳게 조직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의 구성에서 인물관계가 기본으로 되는것은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해야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선명하게 펼쳐보일수 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인물관계가 맺어져야 이야기가 시작되고 인간들의 성격도 그릴수 있으며 커다란 감동과 기대를 안고 작품세계에 끌려들게 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의 구성에서 인물관계가 기본으로 되는것은 또한 인물관계를 잘 맺어주어야 생활을 찾아낼수 있기때문이다.

인간관계를 떠난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활자체가 사회적실천활동을 벌려나가는 인간들의 호상관계속에서 일어나기때문이다.

생활을 떠난 추상적인 인간이 있을수 없는것과 같이 인간을 떠난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해명은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낳으며 그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만 탐구될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면 생활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깊이있게 추구해나가야 생활이 나오기마련이며 그러한 생활은 다양한 인간들의 운명선을 그려나가기 위한 바탕으로 되면서 구성을 립체적으로 조직해나갈수 있게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창작경험은 구성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탐구된 생활이 빈약하여 그 질적담보를 우려하던 작품도 인물관계가 극적으로 잘 맺어짐으로써 형상과정에 풍부한 생활이 담겨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설정된 인물은 작가의 의도에 관계없이 자기의 생활론리를 타고 움직이며 사고한다.

창작과정에 작가들은 구상단계에서와는 다르게 작중인물이 작가의 초기 의도를 무시하면서 자기나름대로 행동하는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작가가 과학환상소설의 구상단계에서 앞으로 작품에 담겨지게 될 모든 생활을 다 예상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물관계가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 치밀하게 맺어지면 작가가 예견할수 없었던 생활을 인물들자신이 펼쳐주면서 작가를 그 세계에로 이끌어간다. 그렇기때문에 인물관계를 잘 맺어주면 창작과정에 필요한 생활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소설의 구성에서는 인간관계를 똑똑히 설정하고 해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풀리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투쟁과정에 서로 맺게 되는 사회정치적 및 륜리도덕적인 제관계의 형상적반영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해결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는것

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형상체계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당정책적견지에서 본질과 현상을 옳게 가려보고 어느것이 기본을 이루고 어느것이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갈라내야 합니다.》

과학적가설에 기초하여 미래에 펼쳐지는 생활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여 작가가 당의 정책적요구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해결할수는 없다.

주체의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설정되고 해결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작품에서 당정책적대를 바로 세울수 있고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힐수 있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해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과학탐구자들간의 호상관계, 혁명적동지애의 관계를 의의있게 밝히는것이다.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의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참다운 인간전형인 자주적인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자주적인 인간의 형상,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는 자주적인 인간들의 사회적관계, 혁명적동지애의 관계속에서만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가 참다운 인간애의 문제와 뗄수 없이 결부되여있기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인간의 자주성을 열렬히 옹호하는 참된 사상감정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을 떠나서 인간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옹호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의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진정한 인간애를 체현한 자주적인 인간,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생명을 가지는 주체형의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럼으로써 사회생활의 기본을 개인으로 보면서 인간증오사상을 고취하며 개인주의적으로 살것을 설교하는 실존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에 기초한 과학환

상소설문학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할수 없으며 인간과 동지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자기 계급과 인민,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두고 말할수 없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해결하는데서 인간애, 동지들간의 호상관계, 혁명적동지애의 관계를 의의있게 밝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과 해결이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모든 문학작품의 구성에서 노는 중요한 역할을 밝히시고 인간관계의 본질적내용을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바로 설정하고 그것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들을 제시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작품이 제기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문학적인 이야기속에 인간의 운명선을 밀착시킴으로써 극의 발전과 인물들의 감정조직을 통일시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관계는 인생관의 관계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생관의 관계는 운명적인것이 얽혀있는 관계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등장인물들사이에 호상대립되면서 운명적인 문제가 련결되여있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과학환상적내용들을 전달하거나 환상이야기를 매개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과학탐구자, 최신기술을 개발하는 선구자로서의 인생관을 가지고 호상 련계하거나 대립되면서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복무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학환상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긴장감과 기대를 가지고 작품세계에 끌려들어가게 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물들의 운명선에서 극을 찾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형상할 대신 흥미있는 과학환상적이야기만을 펼쳐보이려고 한다면 문학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며 가치를 떨구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인간관계의 설정과 해결에서는 인물들이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얽혀지게 인간들의 운명선에서 극을 찾고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것이 기본이라는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인물들이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얽혀지게 하려면 모든 인물들이 작품의 종자와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서 뚜렷한 형상의 몫을 가지고 구성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그자체로서는 아무리 의의가 있는것이라 하더라도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형상과제가 뚜렷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에서 리인정교수와 그의 딸인 리영애연구사, 애인인 장교수의 둘째아들 창호 등 인물들과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특수한 연구안은 그자체로서는 의의가 있지만 구성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옳게 설정되지 못하였고 인물들의 형상과제가 뚜렷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작품의 가치를 심히 떨구어놓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매개 인물들은 종자를 밝히는데서 자기의 몫을 가지도록 일정한 문제성을 체현하지 못하였다.

주인공 리인정교수를 비롯하여 영애, 창호 연구사들에게는 각기 자기가 수행하여야 할 뚜렷한 과제가 없다.

이 작품이 잘되자면 매개 인물들에게 형상과제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그것이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며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로 하나와 같이 합류해들어가도록 했어야 할것이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매개 인물들에게 뚜렷한 과제를 줄뿐아니라 그들이 맡고있는 과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인간관계의 심화발전을 조건지으며 기본이야기줄거리에 매개 인물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지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매 인물들에게 뚜렷한 형상과제를 주고 그것을 옳게 풀어나감으로써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의 요구와 작품의 기본줄거리의 흐름에 맞게 등장인물들을 행동하게 하여 구성의 립체성과 째임새를 잘 보장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은 등장인물들이 맡고있는 과제가 똑똑하지 못한데로부터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작품의 기본

줄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가 서로 극적으로 물리고 얽혀지고 그것이 풀리는 과정을 거의 찾아볼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설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매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는것이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규정한다는것은 그의 성격에서 핵으로 되는 사상적지향이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물관계설정에서 인물들의 사상적지향을 똑바로 규정해야 하는것은 그것이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특징짓는 기본요인이기때문이다.

작품에서 매 인물은 자기의 사상적지향을 실현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것은 기본인물들뿐아니라 부차적인물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인물들의 사상적지향은 작품의 종자가 안고있는 사회적문제성이 체현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또한 그가 어떤 시대, 어떤 계급적토대에서 어떤 사회적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성격은 일정한 사회계급적토대우에서 그가 받은 이러저러한 사회적영향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한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믿을수 있게 규정하자면 그 성격이 이루어지게 된 바탕을 타당성있게 깔아주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인물들의 지나온 경력을 례외없이 밝혀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환상소설은 사건발전의 특성으로 하여 인물들의 과거지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환상소설가는 흥미있는 과학적가설을 많이 알고있는것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경력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지 발현되는 성격의 주도적특질이 납득될 정도로 그것이 형성된 사회적바탕을 생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편과학환상소설 《열을 내는 꽃》에서는 주인공 은실이의 과학

탐구에 대한 굳은 신념과 강의한 의지, 불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된 사회적조건을 밝혀주고있다.

오은실은 어느 겨울날 백화원을 견학하던중 눈우에 피여난 만병초를 사색의 눈으로 여겨보며 겨울에도 봄이나 여름처럼 거리와 마을에 만발하는 열을 내는 뜨거운 꽃을 육종해낼수 없겠는가 하는 착상을 하게 된다. 그는 유전자공학적방법으로 얼음핵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균을 얻어내는 한편 열을 내는 강력한 데핵산을 식물세포속에 넣어주고 생물체진화속도를 수만배까지 높여 육종기일을 훨씬 줄이는 연구사업을 피타게 해냄으로써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

은실이의 성공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꽃이 만발하여 거리와 마을의 풍치를 한결 더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꽃으로 방안의 온도까지 높이고 습도를 조절할수 있게 되였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벼, 강냉이를 비롯한 모든 알곡작물과 남새, 과일나무들도 영영 겨울을 모르고 사철 푸르싱싱자라게 할 결심을 다시금 가지게 된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론의할점도 없지 않지만 타당성있는 유전자공학적가설에 기초하여 매력있는 과학환상을 펼쳐보임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고있다.

작품은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의 반대와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인민들의 보다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는 그의 성격의 론리적타당성을 주기 위해 은실이가 학교 생물소조원이라는 경력을 밝히고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에서는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야 할 화살과 원쑤놈들을 소멸해야 할 화살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악하게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종자로 하고있다. 이 종자를 해명하기 위하여 주인공 한진성은 남보다 더 많이, 더 잘 알고 더 힘이 세지기 위해 완강하고 이악하게 노력하는 학생탐구자로 형상화되였다.

그는 여름방학에 서아프리카의 대서양에 있는 한 작은 섬나라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협조하고있는 아버지 한세웅박사를 도와 과학탐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 진성이는 이곳 섬나라의 재능있는 과학자인 캐리 무스만과 그의 아들인 미라타와 메리를 사귀며 생활하는 과정에 이 나라 사람들의 피눈물나는 력사를 깊이 알게 된다.

이 나라를 오래동안 식민지로, 략탈의 대상지로 삼아오던 제국주의자들, 특히 《협조》와 《원조》의 너울을 쓰고 독립한 이후에도 이 나라의 주요경제명맥에 손을 뻗치고있는 브라이스놈을 비롯한 미국놈들의 검은 속심을 똑똑히 알게 된 진성이는 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안고 아버지를 도와나서 탐구에 더욱 열중하게 되며 건설공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보는바와 같이 이 작품은 과학탐구문제를 새로운 생활무대에 놓고 취급하면서 과학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 원쑤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백배하는 인물로 주인공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성격이 이루어지게 된 생활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자면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여야 할뿐아니라 인물배치를 잘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매개 등장인물들은 자기구실을 할수 있게 제자리에 서있어야 한다.

인물배치에서 과학환상소설가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필요없는 인물을 설정하지 않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작가들은 흥미있는 과학환상이야기를 매력있게 전개시키려는 욕망으로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주요계기, 사건전개의 주요계기들을 조건지어주는 화폭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과학환상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같은 성격의 인물을 두셋씩 반복하여 설정하거나 합칠수 있는 인물을 필요없이 갈라놓으면서 인물들을 많이 끌어들이려 하는 편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구성이 째이지 못하게 된다. 인상깊은 과학일화를 삽입하기 위하여 등장한 인물이거나 탐구된 성격이 매력있다고 하여 설정한 인물은 일관한 인물관계를 보장할수 없기때문에 과학환상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돋구는데 도움을 줄수 없다.

일관성은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주요계기, 사건전개의 주요계기들을 조건지어주는 화폭들에서 반드시 필

요하다면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물도 설정할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련쇄속에 맞물려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흥미있는 일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물 또는 형상의 몫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자체가 매력있다고 하여 끌어들인 인물은 대담하게 없애야 한다.

어느 한 작가는 자기의 중편과학환상소설 수정과정에 작품의 주인공 정광원의 조수이며 그를 짝사랑하는 효희라는 등장인물을 없애버렸다.

진오석과 해미의 사랑관계, 스티븐슨과 메리메의 사랑관계에 반하여 과학탐구에만 몰두하는 정광원이를 사랑은 하면서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진실하고 아름다우며 재능있는 효희의 성격을 보여주고 주인공의 탐구생활을 부각하기 위한 과학일화와 생활일화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효희를 설정하였었다.

하지만 수정과정에 인물배치를 다시 하고 매 인물들의 형상의 몫을 명백히 하면서 주인공 정광원이를 중심으로 모든 인물들이 얽혀지도록 하려고보니 효희의 성격은 매력있기는 하지만 형상의 덫으로 된다는것을 느끼고 이 인물을 빼버렸다.

처음에는 효희가 등장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이 잘된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감을 느꼈는데 쑥 빼버리고보니 매력있는 성격으로 해서 아깝게만 생각되던 효희의 성격이 반복된 불필요한 인물이였다는것을 자각하게 되였던것이다.

인물배치에서 작가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또한 빈구석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인물이 없게 되면 과학환상소설의 내용이 빈약해지거나 인물들의 호상관계가 잘 째이지 못한다.

《태양반성가설》에 기초한 우주탐험을 보여주는 어느 한 작가의 장편과학환상소설 창작과정을 놓고보면 불필요한 인물이 설정된것은 쉽게 찾아낼수 있지만 필요한 인물이 빠진것은 찾아내기가 조련치 않았다. 이 원인은 작가가 장편과학환상소설구성단계에서 이야기가 산만해진것은 인차 찾아냈지만 내용이 빈약해진것은 쉽게 찾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는 구성을 몇차례 다시 짜는 과정에 인물배치에서 빈구석이 없는가를 주의깊게 살핀 결과 결함을 극복

할수 있었다.

과학환상소설이나 기타 다른 소설작품을 창작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체험하는바이지만 구성단계에서는 아직 작품에 담겨질 생활적내용을 륜곽적으로만 표상할수 있고 주인공의 생활에서 펼쳐지게 될 모든 정황들은 다 예견할수 없기때문에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모든 구체적인 정황들에서 매개적역할을 놀수 있는 인물들을 정확하게 타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초고를 쓰는 과정이나 초고를 다 써놓은 다음에 인물배치에서 빈구석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초고를 쓴 다음에 인물배치의 빈구석을 메우자면 작업량이 엄청나게 크다. 때문에 작가는 구성단계에서 인물배치의 빈구석이 없는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물배치를 잘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인물을 설정해서도 안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인물을 놓쳐서도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자면 또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얽혀지도록 하는것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종자가 제기한 문제성을 안고있는 기본인물이며 사상주제적과제의 주되는 담당자이다.

그러므로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련결되고 통일될 때에만 모든 형상요소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룰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주인공선을 뚜렷이 살려야 전반적인 인물관계를 명백하고 탄력있게 조직할수 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잘 그려야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주인공을 현실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고 인물관계를 조직하여야 구성의 조화성과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다.

다주인공적인 과학환상소설작품들에서 구성조직이 하나의 유기체로 되도록 인물관계를 조직하는 문제는 단주인공작품들에 비하여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구경은 한명의 주인공을 내세우는 작품들의 인물관계조직에서 적용되는 형상방도와 수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것은 다주인공적인 과학환상소설도 따지고보면 주제해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 몇명의 기본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물관계가 얽혀지므로 역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진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인물들이 얽히도록 하자면 우선 주인공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인물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해야 한다.

작품에서 모든 인물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문제는 다름아닌 작품의 사건의 바탕에 놓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바탕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공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이여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사고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와 생활적으로 련계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에서 솟아난 땅》의 사건에 놓인 기본문제는 서해바다밑땅에 인공적인 지각운동을 일으켜 8만평방키로메터의 비옥한 새 땅을 얻어내는것이다.

중학시절부터 서해바다밑땅을 륭기시켜 새 땅을 얻어낼 크나큰 희망을 안은 주인공 철수는 연구사가 된후 높은 자각과 완강한 의지를 발휘하여 이 사업을 밀고나간다.

주인공과 갈등관계에 놓인 달우실장은 자기의 연구안대로 서해바다밑땅을 개간하려고 한다.

그는 륭기운동에 의한 8만평방키로메터의 새 땅개간 연구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자기의 연구안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공명과 리기적인 타산을 앞세우는 그는 철수의 연구사업이 자기의 리익에 저촉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적극 반대해나서며 나중에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연구소에 잠입한 미제의 고용간첩 석호와도 결탁되여 철수를 모해하고 한사코 방해한다.

철수의 소꼽시절동무이며 동창생인 숙희는 공동연구자로서 연구소장과 함께 철수의 연구사업을 희생적으로 도와나서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숙희, 연구소장, 철수의 중학시절부터 그를 적극 이끌어주고 도와준 한박사는 주인공의 연구사업과 그 성과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그들모두는 주인공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인공이 움직이는데 따라 그들도 함

게 움직이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물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하여서는 또한 주인공과 다른 긍정인물들이 혈연적관계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인물들을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주는것은 인물관계를 밀착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며 이야기를 극적으로 엮어나가고 화폭의 정서와 감정을 예리화할수 있는 생활적전제로 된다.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진 일가친척들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정치사상적인 문제에 인정적인 감정과 도덕륜리적인 의식이 결합되여 인물들에게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정서적체험을 야기시킨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주인공 김성철이와 그의 어머니, 그의 동생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과학탐구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정치사상적인 문제에 부모와 자식간, 오빠와 동생간의 인정세태적인 감정, 륜리도덕적인 의식이 결합되여 주인공 김성철에게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효성을 못다하는 애틋한 감정, 녀동생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겹쳐지게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두개의 화살》, 《바다에서 솟아난 땅》, 《소년우주탐험대》, 다른 나라의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상전의 추방》, 《불타는 대지》, 《북방의 방파제》 등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의 경우 흔히 인물들의 관계가 혈연적으로 맺어진것을 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들에서 인물관계를 혈연관계로, 깊은 인연을 가진 관계로 맺어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할수도 없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모든 사람들이 일가친척들속에서만 생활하는것도, 인연이 깊은 사람들속에서만 문학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는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작품의 소재에 따라 인물들을 혈연적관계로, 혹은 인연이 깊은 관계로 맺어주는것이 합리적일수도 있으며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가는 작품에 반영된 생활내용으로 보아 인물들을 혈연적관계로 맺어주어야 하겠는가, 깊은 인연관계, 혹은 보통사람들의 관계로 해야 하겠는가를 잘 타산하여야 한다.

보는바와 같이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풀어나가는것은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2) 과학환상소설의 갈등

심의과정이나 작품합평과정에 앞날의 과학탐구생활을 보여주는 과학환상소설의 갈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론의된다.

일부 사람들은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갈등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매력있는 과학환상세계를 펼치기 위한 인간관계나 펼쳐주면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창작실천은 과학환상소설에도 갈등이 필요하며 갈등에 의하여 환상적사건들을 더욱 흥미있게 펼쳐보일수 있고 미래의 사회적관계를 첨예하게 반영하며 환상속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미래의 인간들의 활동과정에도 새것과 낡은것, 선진적인것과 반동적인것과의 투쟁이 있기 마련이며 이 투쟁은 사상적인 대립과 충돌의 형태로 표현된다.

앞날의 생활이라고 하여 모든것이 훌륭하며 낡은것과 반동적인 것이 없다고 단언할수 없다.

미래의 사회에서도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 사회를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래의 사회적관계들을 반영하며 미래의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야 할 사명을 지닌 과학환상소설은 이러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잘 그려낼 때에라야만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인식적역할과 교양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혁명투쟁이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선진적인것과 반동적인것간의 투쟁과정이며 이 투쟁에서 새것이 승리하고 선진적인

것이 승리하는것이 생활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바로 이러한 투쟁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그려야 합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의 갈등도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선진적인것과 반동적인것과의 투쟁의 예술적반영이다.

갈등은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사이의 대립과 충돌로 표현된다. 이 대립과 충돌에 의하여 긍부정인물들사이에 극적관계가 야기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갈등은 형상창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모든 작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긍정이 우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미래의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긍정적사실만 가지고도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구태여 예술적갈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이 있는 한 그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피할수 없는것처럼 그 표현형식으로서의 갈등도 인물들의 극적관계의 기초로, 이야기줄거리를 밀고나가는 요인으로 된다.

긍부정인물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심화되고 해결되는 과정은 곧 이야기줄거리가 발전하고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다.

긍부정인물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심화시킨다는것은 서로 상반되는 생활의 목적과 지향을 가진 긍부정인물들사이에 야기된 대립과 충돌이 점차 강화되여 그 어느쪽에서나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말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등장시키기는 하였지만 서로 상대방의 생활에 작용하면서 관계가 심화되여가는 과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형상과제를 수행할수 없다. 갈등을 설정만 해놓고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성격의 발전도, 인간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갈등을 심화시키자면 모든 인물들의 관심사로 되는 기본사건을 일관하게 끌고나가야 한다. 갈등을 심화시킬수 있는 생활적바탕은 기본사건이다. 과학환상소설의 기본사건은 긍부정인물들의 목적과

지향이 반영되여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는 기본사건이 발전하는데 따라 긍부정인물들의 립장과 태도가 점차 견결해지고 확고해질수 있다.

기본사건이 내포하고있는 문제가 어느 한쪽의 리해관계에만 관련된다면 긍부정인물들의 대립과 충돌을 예리화시킬수 없다.

갈등을 심화시키자면 부정인물의 활동이 긍정인물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저촉되면서 난관과 시련을 가져오며 반대로 긍정인물의 활동이 부정인물의 그릇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향에 직접적으로 저촉되게 되여야 한다.

어느 한 중편과학환상소설의 구성안을 토론하는 과정에 기본사건인 바다밑땅에 《항암성바다벼》를 재배하는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가 긍정인물인 정광원이와 동해미, 부정인물인 진오석이의 관심사가 덜해져 《이야기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무척 애를 먹었다.

거듭 수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기본사건을 긍부정인물들간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게 맞물리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야기가 제대로 걸린다》는 합의를 받고 집필에 들어갈수 있었다.

여기서 작가는 기본사건이 인물들의 공동의 관심사로 될 때에는 긍부정간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이야기가 극적으로 뻗어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야기가 전개될수 없다는 심각한 창작상 교훈을 얻게 되였다.

모든 인물들의 관심사로 되는 사건이라야 그 발전에 따라 그들의 극적관계가 점차 심각하고 예리하게 조성되게 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비록 긍부정인물이 설정되였다 하더라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사건이 주어져있지 않으면 갈등을 심화시킬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알고 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긍부정인물들의 관계가 더욱더 첨예화되여 어느쪽에서나 결판을 보지 않을수 없는 극한점에 이르도록 갈등을 심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인물들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심도있게 밝힐수 있게 되며 생활과 투쟁의 본질을 예리하게 밝히고 작품의 극성을 강화하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요인물

들사이의 련계를 맺어주며 대립과 충돌을 강화하여주는 촉매인물을 옳게 설정하고 그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인물관계설정에서 긍부정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촉매적인 인물을 설정하게 된다. 신중히 타산하여 설정한 이러한 인물은 응당 자기의 역할을 놀아야 한다.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에 의한 방법과 간접적인 대립과 충돌에 의한 방법이 적용된다. 간접적인 대립과 충돌에 의하여 갈등을 심화시켜야 할 때 촉매적인 인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총명한 사람》에서는 주인공 청송이를 비롯한 리지민교수와 자원개발기술자인 창해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성로보트를 악리용하려는 스미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잔당에 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간접적인 대립과 충돌에서 촉매인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대립관계에 있는 주요인물들의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수 있도록 감정을 축적시켜주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촉매인물들의 역할을 높인다고 하여 그들자신이 주요인물들을 대신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 설정된 대립된 두 인물사이에 충돌이 없을수는 없다. 다만 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서로 맞설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할뿐이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촉매적인물의 역할을 적극 높임으로써 대립되는 인물들의 생활적인 목적과 지향에 기초한 감정을 축적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긍부정인물들이 만나는 기회에 대립과 충돌이 심화될수 있다.

촉매인물을 설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긍부정인물의 어느쪽이나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는것과 함께 주인공의 내부체험을 심화시킬수 있도록 설정하는것이다.

갈등의 심화과정은 긍부정인물들간의 외적인 대립이 점차 격렬해지는 과정일뿐아니라 그들의 내부적인 체험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갈등이 격렬하게 번져져도 주인공에게 정서심리적인 강한 극적체험을 안겨줄수 없다면 주인공은 메마르고 개념화된 성격으로 그

려지기 마련이다.

창작실천에서는 주인공의 인정적인 감정을 자극할수 있는 촉매인물을 설정하여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심화시켜온 갈등은 옳게 풀려야 한다.

갈등을 옳게 해결하는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어떤 사상이 승리하고 패하는가 하는것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운명발전의 결과도 갈등관계의 해결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갈등을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제도의 본질과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은 갈등이 반영한 사회적모순이 성격과 투쟁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제도의 본질을 명백히 천명할수 있으며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할수 있다.

또한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갈등을 옳게 풀어야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정확히 천명할수 있다.

작품의 주제와 사상은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진다.

인물들의 성격은 인물관계, 갈등의 심화에 의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되며 갈등관계의 해결에서 그 성격적본질이 완전히 밝혀지게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복종된다. 여기에 복종되지 않는 인물은 작품에 등장할 자리가 없다. 따라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운명처리, 갈등을 똑똑히 해결하는것은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서 주인공의 운명처리를 잘하는것과 주인공의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의 뒤처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부정인물의 뒤처리를 잘하는것이 성격 그자체를 돋구어줄수 있을뿐아니라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지킬수 있기때문이다.

모든것이 발전된 미래사회에서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지키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다.

지구우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계속되여야 하며 계급로선도 일관하게 관철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식 과학환상소설문학은 갈등을 옳게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어야 하며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하여 계급투쟁의 원칙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총명한 사람》은 순수 과학탐구생활을 보여준것이 아니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는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인물성격을 그림으로써 미래의 사회발전에 제동을 거는 적대계급들의 패배와 멸망의 불가피성을 뚜렷이 강조하고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부정인물인 스미스는 미제국주의 잔여분자로서 멸망하는 자기의 지위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고 회복해보려고 갖은 모략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는 공업로보트와 조종로보트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능로보트인 《돌쇠》를 만들어낸 리지민교수를 회유하려다가 실패하자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무참히 죽여버리며 돈으로 매수하였던 로보트기술자인 모리가 조선학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도덕품성에 충격을 받고 동요하자 그의 뇌수를 산채로 로보트화해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다. 뿐만아니라 초청하는 식으로 유인한 창해와 은하를 감쪽같이 없애치우려 하는 살인귀이다.

스미스에게 매수되였던 모리는 조선을 비롯한 외국의 로보트주문품을 개발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파괴활동을 하라는 스미스사장의 비인간성을 목격하면서 꺼져가던 기술자의 량심을 부활시키게 된다.

모리는 스미스와 함께 조선을 방문하던중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복무하는 지성로보트를 개발하는 청송이와 창해의 정신세계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게 되며 스미스의 더러운 강요를 뿌리치게 된

다. 결과 그는 스미스의 희생물이 되여버리지만 청송이와 맺은 과학도의 우정을 잊지 않고 죽음으로써 스미스를 고발한다.

이렇듯 작품은 주인공과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의 뒤처리를 잘함으로써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이라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존재라는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에서도 브라이스와 스쳐드를 비롯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프리카 섬나라에 기여들어 갖은 모략책동을 다하는것을 폭로단죄하는 주인공 진성이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투쟁을 통하여 적대계급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혁명승리의 필연성을 강조하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제를 푸는데 참여하여온 모든 인물들의 운명처리, 갈등을 똑똑히 해결하는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명백히 밝혀내고 강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흥미있는 과학환상속에 잘 심화시켜오던 갈등도 그 해결을 잘 지어주지 못하면 주제사상이 여물지 못하게 되며 결국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갈등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어야한다.

갈등의 성격에 따라 긍부정인물들의 처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

불상용적인 사회적모순에 기초하고있는 적대적갈등은 처음부터 예리하고 극단적으로 조성되는것만큼 결렬하는데로 나아가거나 긍정이 부정을 타승하는것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적대계급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혁명승리의 필연성을 강조하는것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에서 부정인물인 브라이스와 스쳐드는 과학자의 탈을 쓰고 섬나라에 기여들어 《비피(BP)》로 략칭된 《브라이스의 락원》이란 연구소를 차려놓고 무스만의 아들 미라타를 비롯한 수많은 섬나라사람들을 랍치하여 인체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보디로보트에 의한 제2노예사회의 실현》을 다그치는 연구사업을 비밀리에 벌려왔다.

하지만 한진성과 무스만 등 긍정인물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얼을 빼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려는 놈들의 범죄적인 계획은 파탄되고 미국은 세계 사회계와 과학계의 규탄의 대상으로 궁지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적대적갈등은 긍부정인물이 완전히 결렬하고 부정인물이 파멸되는것으로 해결되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비적대적갈등은 상용적모순에 기초한 갈등으로서 극단적으로 조성되거나 결렬에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단결이 더욱 강화되는것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그것은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미래의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반영하기때문이다.

물론 비적대적갈등이라 하여 비판이 없거나 심각하지 않은것이 아니며 그 해결에서 승부가 없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예리하고 심각하게 그린다고 하여 적대적갈등을 해결하는식으로 결렬에로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낡은 사상과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극복하고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인것만큼 갈등의 해결에서도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단결이 더욱 강화되는것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긍정적주인공 김성철이와 로학림교수와의 갈등은 예리하고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그 갈등의 해결에서는 결렬에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동지적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해결하고있다.

갈등은 계급적성격에 맞게 해결하여야 사회제도의 본질과 생활발전의 합법칙성, 계급투쟁의 원칙과 방법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고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갈등은 또한 등장인물들의 운명발전에 대한 작가의 명백한 결론을 줄수 있게 해결되여야 한다.

갈등의 해결에서 작가의 결론을 명백히 주지 않으면 혼란을 줄수 있다. 인물들의 뒤처리를 똑똑히 보여주지 않고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버린다면 독자들은 제나름으로 결론하게 되며 따라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수 있다.

비적대적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낡은 사상잔재를 폭로비판하는데 그치고 부정인물이 개조되여 참다운 생활의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독자들에게 사상투쟁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줄수 없다.

그러므로 갈등해결에서는 반드시 인물들의 뒤처리를 명백하고 뚜렷하게 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갈등은 또한 높은 정치성과 호소성을 가지도록 여운있게 해결하여야 한다.

갈등해결에서는 언제나 과학기술혁명은 계속되며 투쟁은 더욱 줄기차게 발전하여나간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긍정이 승리하고 부정이 패배하였다고 하여 환성을 올리며 일은 다 되였다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과학탐구자들에게 혁명적열정과 새로운 투지를 안겨줄수 없다. 투쟁이 간고하고 어려운것이라 하여도 과학환상이 실현될 미래는 찬란하며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강하게 울려나오도록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인공의 투쟁끝에 커다란 탐구적수확을 거두게 되고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어야만 사람들, 과학탐구자들이 그처럼 어려운 과학기술혁명의 길에 나서서 한생을 바쳐 연구하고싶은 충동을 받을수 있으며 혁명적랑만의 세계에 끌려들어갈수 있다.

갈등해결에서 사상정서적여운을 강하게 주자면 갈등을 지루하게 끌지 말고 제때에 끊고 맺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독자들에게 투쟁의 길을 명백히 가르쳐주며 갈등의 해결을 인상깊게 제때에 끊고맺는 형상수준을 소유함으로써 높은 정치성과 강한 호소성을 가진 작품을 적극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갈등을 잘 설정하고 옳게 푸는것이 작품의 우렬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해서 모든 과학환상소설에서 반드시 갈등을 설정하고 풀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과학환상이 펼쳐지는 미래사회를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긍정적사실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할수 있

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예술적갈등이 설정되지 않는다.

갈등은 생활에서 긍정과 부정간의 투쟁과 대립의 반영이다. 따라서 작품이 긍정과 부정의 직접적인 대립과 투쟁이 없는 생활을 반영할 때 성격들의 직접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갈등이 없게 되는것은 당연하다.

과학환상소설의 종자와 생활소재의 특성에 따라 작품에서 갈등문제를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과학환상이 펼쳐지게 될 앞날을 보여주는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긍정적인것이 기본이며 부정이 꼭 나와야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갈등이 있어야 작품이 되거나 극성이 강화되는것은 아니다.

극성은 극적긴장성과 첨예성으로부터 오는 미학적정서로서 이것은 성격간의 충돌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여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감정선, 감정조직에서도 온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갈등을 설정하지 않은 작품도 있으며 이런 작품에서 극성은 감정조직에 의하여 보장된다.

과학환상소설들인 《열을 내는 꽃》, 《예순일곱살난 소년》, 《무지개 비낀 도시》, 《노래하는 등대》 등은 갈등을 설정하지 않은 작품으로서 극성은 감정조직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현실긍정의 열정과 지향 속에 부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안받침하는것이다.

갈등을 설정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여 이것을 일면적으로 해석하고 작품에 부정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이 없어도 되는것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비판정신이 없이는 긍정적인 모범 그자체도 똑똑히 보여줄수 없을뿐아니라 궁극에는 《무갈등론》에 떨어지고만다. 미래의 생활을 반영할수 있다는 리론은 《무갈등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무갈등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계속혁명을 인정하지 않는 기회주의적사상조류에 바탕을 둔 그릇된 리론이며 부르죠아과학환상문학가들이 과학환상소설작품을 통하여 《무갈등론》을 론증하고 확인하려고 하

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우리의 과학환상소설문학에서는 긍정적인 모범을 내세우고 찬양하는 그자체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과 비판으로 되여야 하며 긍정적모범에 대한 옹호가 부정에 대한 규탄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작품에 창조된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갈등을 설정하지 않은 작품창작은 형상방법에서 갈등을 설정하는 과학환상소설과 일련의 차이점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 방법이 다른것이다.

갈등을 설정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에 의하여 이야기줄거리가 발전하고 전개된다. 이때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은 갈등이다.

갈등이 설정되지 않는 작품에서도 반드시 극적견인력은 있어야 한다. 한장면을 읽고 다음장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과학환상소설 작품이라면 누구도 읽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극적인 기대선이 강하여야 독자들을 작품의 세계에로 흥미있게 이끌어들일수 있고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자체도 탄력있게 전개시킬수 있다. 미래에 살게 될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줄수 있는 훌륭한 긍정적모범을 소재로 잡았다고 하여도 인물들의 극적관계가 맺어지고 이야기줄거리를 상승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요인과 추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작품으로 쓸수 없다.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과학환상소설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 구성수법에는 우선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오해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다가 오해가 풀리면서 사건이 결속되는 수법이 있다.

이때 소설의 극성과 견인력을 보장하는 주되는 요인은 오해이다. 오해에 의한 인물들 호상간의 감정교차에서 극성이 조성된다. 오해에 기초하여 인물들사이의 불신과 마찰, 엇갈리는 감정의 교차가 일어나면서 사건의 긴장성과 감정의 예리성이 조성된다.

이런 작품에서는 오해가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줄거

리가 발전한다.

인물들사이의 심화되는 오해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하는 기대가 이야기줄거리를 전개시키는 추동력으로 된다.

단편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은 과학적환상을 펼쳐 보이면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씌여진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김순길과 철수 그리고 《나》는 다같이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가진 긍정인물들이다.

새로 전학온 순길이는 공학연구소 소장인 박사 김준선생의 지도를 받는 과학소조에 101번째 소조원으로 되려고 하나 《나》와 철수의 의심을 받게 된다. 자격이 없다는것이였다. 이 과학소조에는 모두가 다 최우등생이며 큼직한 발명과제를 맡은 학생들만이 들수 있으나 새로 전학온 순길이는 우표를 연구한다는것이였다. 그의 실력상태도 잘 모르겠거니와 우표애호가처럼 우표나 연구하겠다는것이 신통치 않았다.

김준연구소장에게 보고하였더니 받아주라고 하면서 우표로 편지나 저절로 날아가게 하는것은 쬐쬐한 일이니 보다 큰것을 연구하게 하라고 하여 순길이를 101번째 과학소조원으로 받기는 하였지만 그에 대한 의심은 가셔지지 않는다. 아니나다를가 순길이가 연구한 우표는 끝내 일을 그르치고만다.

어느날 순길이는 새 이불장을 사놓고도 차가 제때에 오지 않아 안타까와하는 한 할머니를 도울 생각으로 자기가 연구한 우표를 이불장에 붙인다. 그러자 이불장은 날개달린 새처럼 둥둥 떠가다가 별안간 기우뚱거리며 땅밑에 곤두박혀 박살이 나고만다.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던 《나》는 물론 철수를 비롯한 모든 동무들이 과학소조를 망신시킨 그를 비판하고 끝내 대렬에서 제명한다.

그때로부터 석달이 지난 어느 눈내리는 겨울날이였다. 순길이가 또다시 그 우표에 의한 짐수송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달려가 과학소조책임자의 권한으로 그따위 모험은 당장 중지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몸에 우표를 붙이고 시험하겠다고 한다. 여차하면 인명피해를 낼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여서

《나》는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순길이는 굽어들지 않고 생글거리며 이렇게 말한다.

《날 믿어줘, 이 우표속에는 수천만개의 빛전지소자가 들어있지. 보기에는 자그마한 우표지만 비행기보다 더 큰 출력을 가진 발동기를 대신하지. 강력한 분사흐름이 물체를 앞으로 떠민단말이야. 거리에서 이불장을 운반하다가 실수한건 그 순간에 해빛이 구름속에 가리워지면서 빛전지가 동작을 멈췄기때문이거든.》

그래서 석달간 그 약점을 퇴치하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끝에 비오는 날이나 눈내리는 날이나 가림없이 쓸수 있는 매우 작은 빛축전기를 달아주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는것이였다.

그의 론리적이면서 사리정연한 말에 《나》는 할수 없이 다시 시험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순길이의 지시에 따라 그의 몸에 우표를 붙이고 절환기를 돌리였다. 순길이가 휙 날아오르며 둥둥 떠갔다. 절환기를 든 《나》의 손에 땀이 질벅하였고 눈앞에는 이불장이 박살나던 일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순길이는 풍랑을 맞받아나가는 수리개처럼 자유로이 날으며 활짝 웃는것이였다.

드디여 《나》는 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진심으로 기뻐해마지 않았다. 그에 대한 오해가 컸던것만큼 그의 굴하지 않는 탐구정신과 자기 희생적인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에 《나》와 철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작품의 기본이야기는 대체로 이렇게 구성되였다.

이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추동력과 구성은 오해에 기초하여 보장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극조직이 오해에 기초하여 진행되였을 때도 인물들이 극적체험을 하여 극성을 조장시켜나가는것이다.

그래야 작품에 갈등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극적긴장성을 띠고 탄력있게 전개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오해의 수법을 적용하는 류형은 첫째로 독자들에게는 사실을 밝히고 작중인물들에게만 오해를 가지게 하는것

이다.

둘째로, 독자들에게도 사실을 숨기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수법이 있다.

오해의 수법을 적용하는 작품을 창작할 때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주제작업을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

갈등을 설정하는 작품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사상적지향을 가진 긍부정인물의 관계가 맺어지면 긍정인물의 사상적지향속에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스스로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오해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인물들간에 오해가 생겼다 하여 그자체에 어느 경우든지 사회적문제성이 내재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처음은 나쁘게 여겼던 사람이 지내놓고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만 작품이 씌여졌다면 인물의 성격도 있고 이야기도 견인력있게 전개될수 있겠지만 거기에 인간학적문제는 없을것이다. 오해선을 리용하여 구성하는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는 자칫하면 과학환상속에 담긴 미담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만다.

오해의 수법을 적용하는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할 때 작가는 오해의 생활적타당성을 충분히 깔아주어야 한다. 작가는 오해를 조성해야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할수 있다는 생각을 앞세우면서 인위적으로 착각이나 편견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며 일부러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오해선을 리용하여 창작하는 과학환상소설에서 또한 특별히 중요한것의 하나는 절정에서 사건을 재치있게 전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오해에 의하여 축적되였던 불만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역전시켜 신뢰감으로 바꾸면서 작품의 사상을 감동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사건이 급전되여 진실이 드러나면서 종자가 꽃피고 주인공의 성격의 진면모가 드러난다. 오해가 사건의 급전에 따라 한 계기에서 풀리지 않고 여러 계기를 통하여 서서히 점차적으로 풀린다면 과학환상소설의 주제를 감동적으로 밝혀낼수 없고 예술적감흥도 크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그러므로 독자의 예상을 뒤집으며 사건을 급전시켜야 한다.

가령 과학환상소설의 마감에서 바다속에 심은 벼를 비롯한 알곡작물이 수확기에 들어서서도 푸른 이삭으로 그냥 남아있다고 씌여졌다고 하자.

바다밀땅농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견학단원들은 실망하여 거짓통신을 날리고 사람들을 속였다면서 연구자들을 조소하고 비난한다.

연구성원들은 당황해하고 독자들도 아쉬움을 어찌지 못하며 락심천만해진다.

이때 시험결과를 가지고 달려온 주인공이 바다밀땅의 알곡작물은 익으면 황금이삭으로 누렇게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푸른색으로 변한다는것을 알려주며 모든 자동수확기들에 가을걷이를 하라는 총지령을 내리게 된다.

기자들과 수많은 견학단성원들의 비난은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그들의 실망은 기쁨으로 터쳐진다.

이와 함께 독자들의 마음도 후련해지며 과학환상소설작품의 마감처리가 괜찮게 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것은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으며 사건을 급전시키는것이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단편적인 실례에 불과한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 구성수법의 다른 하나는 상봉선을 리용하는 수법이다.

반드시 서로 만나야 하는 인물들의 운명교차를 따라 작품의 기본사건을 전개시키는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상봉에 대한 기대가 이야기를 밀고나가는 견인력으로 된다. 독자들은 인물들이 어떻게 만나게 될것인가 하는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줄거리를 따라가게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신비한 체온》은 여러가지 부족점이 있는 작품이지만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상봉선을 리용하여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데서는 일정한 구성상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이 과학환상소설은 주인공 리인정교수와 그의 딸인 리영애와의

특수한 조건, 환상작품에서만 있을수 있는 환경에서 상봉선이 작품의 기본사건선으로 되고있다.

리인정교수와 리영애연구사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인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인간들이다.

작품의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을 긍정인물들로 설정하고 그들사이에 벌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반영하면서도 기본사건선을 극적으로 엮어나갈수 있었던것은 그들의 상봉관계가 야기시키는 극성을 옳게 리용했기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연구사업때문에 사랑하는 딸자식인 영애를 첫 실험대상으로 생각은 하고있으면서도 순간의 실수로 영영 리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고민해마지 않는 리인정교수, 그럴수록 아버지의 고충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품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연구사업을 성공시켜 인민들에게 커다란 행복과 기쁨을 마련해주려는 리영애연구사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기대가 작품의 견인력으로 되고있다.

독자들은 식물신경을 《잠》들게 하는 차단제를 《초음파주사기》로 넣은 다음 령하 20도의 낮은 온도조건에서 30일동안 《인공잠》을 재운 영애를 뜬눈으로 밤밝히며 주시하고있는 리인정교수의 아픈 마음, 사랑하는 딸과 다시 만날수 있겠는가 하는 극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작품을 읽게 된다.

이처럼 상봉선을 리용하여 긍정적사실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형식의 과학환상소설을 쓸수 있다.

그런데 상봉선을 리용하여 이야기줄거리가 전개되는 과학환상소설에서 작가가 창작실천상 특별히 고려를 돌려야 할것은 인물들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깔아주는것이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연이나 혈연적인 관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상봉선이 극적인 견인력을 가지지 못한다.

때문에 상봉선을 리용하는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 혹은 부모형제들이 만나는것으로 인물관계가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설정된다.

이러한 작품창작에서 특히 류의해야 할것은 헤여지게 된 원인이 사회적성격을 띠게 하는것이다.

사사로운 원인이나 생활에서 어떤 실수로 하여 헤여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상봉과정이 아무리 아기자기한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졌다 하더라도 작품에 의의있는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할수 없다.

헤여지게 된 원인이 사회적인 의의를 띤것으로 될 때 참된 인간문제를 해명하는 작품이 될수 있다.

상봉선을 리용하는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에서 또한 류의해야 할것은 상봉의 계기를 반드시 극적으로 조직하는것이다.

상봉의 계기에서 축적되여온 감정이 폭발하고 주제사상에 대한 총결론이 강렬한 정서적여운속에 뚜렷이 주어지자면 반드시 상봉의 계기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하게 이야기를 전개시켜놓았으니 만나게 해야겠다는 식으로 상봉시켜서는 과학환상소설의 가치를 심히 떨구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긍정적사실만 가지고 소설을 창작하는 다른 하나의 구성수법은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점차 리해하여가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수법이다. 이런 류형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대가 작품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견인력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 《예순일곱살난 소년》이 바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점차 리해하여가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 작품이다.

《예순일곱살난 소년》에서는 남극탐험을 떠나게 되는 조선소년과학탐험대장 창혁이가 탐험대원으로 새로 나타난 리성규라는 소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대선에 기초하여 줄거리를 전개시킨다.

곱게 빗어넘긴 반고수머리, 처녀애처럼 유순하게만 보이는 까만 눈, 창혁에게는 성규가 온실에서 조용히 자라는 생기없는 꽃처럼

보여 탐험대성원으로는 적합치 않다고 단정한다.

그런데 료해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규와 담화하던 창혁이는 그의 나이를 두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성규의 진짜 나이는 예순일곱이고 가짜나이는 열일곱이라는것이였다.

이런 엉터리같은 《소년》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작품에서는 이처럼 초면관계로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주인공인 창혁이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나가고있다.

성규는 창혁이가 공부하는 《광명고등중학교》가 50년전에는 제5고등중학교였는데 자기는 바로 그 학교 학생이였다는 말에 창혁이는 그가 옛날사람인지, 지금사람인지 몰라 아연해진다.

성규는 성이 나서 펄펄 뛰는 창혁이에게 정 자기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1병원 장수과에서 일하는 최정희선생에게 물어보라고 일러준다.

창혁이는 성규의 담당의사였던 정희선생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가 50년전에 남극에서 행방불명되였던 소년이며 그동안 남극대륙의 두터운 얼음장밑에서 《인공잠》을 자는 상태로 자기 생명을 유지해왔다는것, 정희선생이 뇌파통신으로 《죽은》 성규와 《담화》하고 진상을 안 다음 그에 대한 구출작전을 벌렸다는것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과학환상소설작가가 특별히 고려를 돌려야 할것은 주인공이 시점을 가진 인물에게 관심을 끌수 있게 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환상소설 《예순일곱살난 소년》의 주인공 성규는 처음 만났을 때 창혁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약하고 곱살하게 생긴 그의 외모는 2천메터이상이나 되는 얼음산과 령하 90도를 오르내리는 남극을 탐험하는 성원으로는 적합치 않았다.

게다가 나이가 17살이 아니라 67살이라니 창혁이는 물론 독자들도 성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만일 이 작품에서 성규가 다른 탐험대원들처럼 어깨가 쩍 벌어

지고 나이 또한 17살이라면 창혁이는 성규에 대하여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을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도 아무런 극적기대를 안겨주지 못하였을것이다.

또한 이런 류형의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 류의할점은 극적인 정황을 조성하여 이야기줄거리의 탄력을 강화해주는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오해선이나 상봉선을 리용하는 작품들보다 극적견인력이 약하다. 처음 호기심을 가졌던 인물도 일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거나 함께 생활해보면 호기심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줄거리의 탄력이 풀리게 되는 대목에서 사건을 굴절시키면서 극적정황을 조성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 《예순일곱살난 소년》에서는 《죽은》 성규와의 《담화》를 하는것으로 극적인 정황이 조성되였다.

이런 정황이 없었다면 작품은 극적견인력을 잃었을것이며 주인공의 정신세계도 깊이있게 밝혀내지 못하였을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긍정적사실만을 가지고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려면 갈등이 없이도 극적견인력을 보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구성수법을 탐구하여야 한다.

흥미있는 과학환상속에 다양한 생활로 펼쳐지는 정연한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기 위해서는 독자들에게 극적기대를 줄수 있는 요인을 찾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인간세계를 펼쳐보이는 기교를 가져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긍정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앞날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극적견인력을 보장하는 형상방도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리용하여야 할것이다.

3) 환상이야기도 째이게

과학환상소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읽히우는 작품으로 되자면 매력있는 과학환상세계가 펼쳐져야 할뿐아니라 이야기줄거리가 흥미있게 엮어져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편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을 친히 보아주시고 복잡한 우주공간의 환상이야기와 천문학지식을 흥미있게 엮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네메지다의 운행〉은 천문학에 대하여 쓴것인데 청년학생들속에서 흥미를 끄는 좋은 소설입니다.

천문학은 재미있는 과학입니다. 천문학은 무한한 우주공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아직까지 개척하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네메지다의 운행〉과 같은 과학환상소설을 빠짐없이 읽어야 합니다.》

과학환상소설이 《네메지다의 운행》과 같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인식교양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흥미있는 과학적환상과 흥미있는 문학적이야기가 잘 배합되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작가들이 쓴 일부 과학환상소설들은 과학환상이라는 그늘밑에 극히 도식적인 인간관계, 극히 피상적인 인간문제, 극히 무미건조한 이야기줄거리를 곁들어 붙이고있다.

일부 작가들은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과학적내용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야기줄거리를 단순하게 엮어놓아도 무방한것처럼 여기고있다. 이야기줄거리를 복잡하게 주고 해명하자면 과학적내용을 묻어버리거나 밀어내게 되여 다른 류의 소설과의 차이가 없어지는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고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흥미있는 과학적환상을 펼쳐보이는데 관심을 돌리면서도 이야기줄거리조직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창작실천은 과학환상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를 복잡하게 엮어나

가도 과학적내용을 얼마든지 소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과학적환상에 의하여 정황을 보다 예리하게 조성할수도 있고 사회적관계들을 첨예하게 반영하여 생활환경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창작실천에서 과학환상적내용을 살리는 문제때문에 이야기줄거리를 될수록 단순하게 엮어 문학성을 떨구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야기줄거리를 풍만하고 특색있게 조직하기 위하여 과학적환상을 대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은 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이러저러한 생활을 서로 련결된 전일적인 화폭으로 보여주고 그 변화발전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부르죠아과학환상소설가들은 이야기줄거리가 과학환상을 펼치는데 제한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줄거리가 없는 과학환상소설들을 마구 써내고있다. 그 《작품》들을 보면 앞뒤의 련관이 없는 이러저러한 환상과 타당성없는 생활을 뒤섞어놓아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런 과학환상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게 만들고있다.

미국과학환상소설작가 리챠르드 마떼손이 쓴 과학환상소설 《스위치를 누르시오》와 카나다출신의 미국과학환상소설작가 알프레드 반—보그르의 과학환상소설 《괴물》, 로베르트 얀그의 과학환상소설 《날아다니는 번철》, 프랑스과학환상소설작가 보리스 비안의 환상소설 《부지런한 학생들》 등은 모두 이야기줄거리가 없는 《과학환상소설》들이다.

이 작품들은 앞뒤의 련관이 없는 이러저러한 환상과 생활을 뒤섞어놓아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수 없게 되여있다.

알프레드 반—보그르의 과학환상소설 《괴물》은 주인공 이네슈와 책임생물학자 하마르, 고르씨드대위를 비롯한 비행선원들이 어느 한 행성에 도착하여 전멸된 생명체들을 목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앙상한 뼈골과 해골들을 둘러보는 그들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자기들이 가지고 온 특수한 소생기에 그 잔해들을 넣는다. 그러자 이 행성의 주민이였던 렬등족이 되살아나 물음에 대답한다. 고르씨드대위는 소생한 주민과 이야기하다

가 싫증나게 대답하거나 위험한 인물들은 쏴죽이기도 하면서 되살아난 이 행성주민 《괴물》들과 언쟁도 하고 광선살인무기로 그들의 반항도 억제한다. 그러다가 《괴물》들이 달려들자 우주선을 타고 떠올라 원자무기로 이 행성을 다시금 주검의 무지로 만들어버린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디서 온 행성사람이 어느 행성사람들을 왜 멸살시키는지도 해명하지 않은채 끝나고 만다.

이런 《작품》들은 과학환상소설의 형태적특성을 부인하고 과학탐구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는 반동적문학류파에 속한다.

사실에 있어서 과학환상소설은 이야기줄거리에 의하여 과학적환상과 생활반영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속에서 깊이있고 폭넓게 보여준다.

우리의 혁명적인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째이고 론리정연한 이야기줄거리를 형상창조의 위력한 예술적수단으로 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작품에서는 이야기를 잘 꾸미는것이 중요합니다.》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는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고 이야기줄거리를 옳게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줄거리를 옳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종자에 기초하여야 한다.

종자는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데서 기초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작품의 사상을 천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기때문에 반드시 종자에 기초하여야 하는것이다.

작품의 종자에는 이야기줄거리의 기틀이 잠재되여있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그 종자를 꽃피울수 있는 일정한 이야기줄거리를 예상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종자에는 반드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그 바탕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간관계에 의한 이야기줄거리가 자라나게 될 생활적바탕을 의미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종자는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할수 있는 명백한 과녁을 주고 이야기줄거리발전에 추동력을 준다.

작가는 종자에 확증된 그 과녁을 향하여 과학환상적내용을 펼치면서 이야기줄거리를 줄기차게 뻗쳐나가야 한다.

종자에 확증된 과녁을 향하여 과학환상적내용을 펼치면서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한다고 하여 과학적환상이 제약을 받거나 밀려날 우려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종자에 기초하여 과학환상을 펼치면서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해나가면 독자들에게 명백하고 합목적적인 인식적의의를 부여할수 있다.

어느 한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우주려행과 다른 태양계에서의 자원개발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광물학뿐아니라 생물학, 전자공학, 극저온물리학, 나중에는 바다식물학에 대해서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과학환상소설인지, 과학기술적내용을 소개하는 잡문인지 알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작가가 종자에 확증된 과녁을 향하여 과학환상적내용을 펼치면서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해나간다면 과학환상이 묻어버리게 되거나 밀려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분방하게 펼쳐보려는 욕망으로부터 범한 심각한 오유이다.

결국 그는 다방면적인 과학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론리정연하고 짝 째이게 전개하지 못하여 과학기술원리상 적지 않은 결함까지 발로시키였다.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줄거리가 가닿아야 할 목표는 오직 하나이며 그 목표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도 하나가 있을뿐이다. 이야기줄거리를 이렇게도 엮을수 있고 저렇게도 엮을수 있다고 하면서 과학환상적내용을 펼치는데 급급한다면 기필코 이야기줄거리가 뒤흔들리게 되여 구성의 대를 바로세울수 없게 된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모든 구성요소들이 다 종자에 기초하여 조직되여야 하지만 이야기줄거리는 주요구성요소들을 자체내에 내포하고있는 구성작업의 마지막공정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종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안되는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를 옳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사건, 서술, 묘사, 일화가 다 들어가면서도 명백하고 폭넓게 구성이 짜져야 한다.

우선 사건발전의 정연한 론리성은 과학환상소설가가 생활의 내적련관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고리들을 찾아내여 튼튼히 맞물리게 할 때 이루어진다.

이야기줄거리를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과정으로 조직하고 서술, 묘사, 일화가 다 들어있게 명백하면서도 폭넓게 조직하는것은 구성의 론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건발전의 론리성은 생활발전의 내적련관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고리들이 밀접히 맞물리게 되는데서 보장된다.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매듭이 뚜렷하지 못한 과학환상소설의 줄거리는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계기들을 뚜렷이 밝힐수 없고 예술적흥미도 잃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줄거리는 실제상 과학환상소설의 줄거리가 아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과정이 언제나 순차적으로 놓이는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그 순서가 바뀔수도 있다.

사건의 해결이나 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추리하는 식으로 씌여진 과학환상소설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사건발전의 매듭들의 순서는 바뀔수 있어도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절정이다.

절정을 잘 정하고 깊이있게 그리는가 못그리는가에 따라서 갈등과 사건은 물론 주제와 사상을 옳게 밝혀내는가 못밝혀내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결정된다.

이야기줄거리에서 절정이란 갈등과 사건발전의 폭발점이며 주인공이 끌고온 감정선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의 절정은 과학환상이 펼쳐지는 탐구생활발전의 합법칙적결과로, 복잡한 생활과정을 거쳐 얽혀지고 발전하여온 사건과 갈등, 성격과 인간관계의 성숙된 요구로, 필연적인 폭발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과학환상소설가가 제마음대로 뒤로 밀수도 없고 더 앞당겨올수도 없는 극발전의 객관적론리이다. 이 론리를 무시하면 과

학환상소설의 형상이 진실성을 잃고 인위적인것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절정은 종자의 요구에 따르면서도 언제나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절정을 그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절정을 이루는 장면의 정황을 성격발전과 사건발전의 해결을 위한 계기를 지어주는 마당으로 형상화하는것이다.

정황은 사건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조건이며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이다.

절정장면의 정황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쪽에서도 다같이 피할수 없는 폭발에로 나가도록 조건지어져있지 않으면 안된다.

모순은 대립되는 두 측면의 동시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발전하고 폭발한다.

절정에서의 극적과제는 주제와 사상에 대한 총결론을 주는것이다. 절정에서 이 과제를 놓치면 더는 해결할 기회가 없다.

절정에서 극적과제를 해결하는 기본고리는 주인공의 형상에 있는것만큼 그의 정신세계를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파고들어 주제와 사상이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절정이 갈등의 종국적폭발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하여 순전히 과학환상적내용에 기초한 사건의 외적인 격렬성만 보여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과 그에 따르는 정신도덕적높이를 잘 그려야 작품의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는 또한 서술, 묘사, 일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되고 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종일관 극적긴장성을 띠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야기줄거리는 사건줄거리뿐아니라 서술, 묘사, 일화가 다 들어있다고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과학환상이야기줄거리도 째이게 전개되고 발전되도록 하는 리론실천적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작품의 구성을 째이게 하려면 이야기의 흐름에 정서적굴곡을 만들어놓으면서 독자의 마음을 쥐였다 놓았다 하게 긴장감을 조성

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것은 독자들에게 과학환상 내용을 더 잘 리해시키며 과학탐구생활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긴장감은 사건을 아슬아슬하게 꾸며놓는데서 오는것보다도 과학탐구자인 주인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새롭고 흥미있는 과학적환상과 탐구생활을 활짝 펼칠수 있도록 서술, 묘사, 일화가 사건줄거리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생기는것이다.

사건줄거리가 부단히 새롭게 전개되면서 환상생활을 보여주는 자유분방한 묘사와 서술, 흥미진진한 환상적인 일화가 자연스럽게 펼쳐져야 독자는 커다란 기대감으로 마감까지 작품을 읽게 된다.

새로운 과학원리나 기계구조를 설명하는 사건줄거리나 전개하고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과학기술문제나 이러저러하게 보여주면서 매력있는 환상적인 묘사나 서술, 일화를 재치있게 펼쳐보이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그 작품을 몇페지 읽지 않고 덮어놓게 된다.

더우기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씌여지는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사건줄거리를 새롭게 전개시키는 한편 과학환상생활과 미래인간들의 풍모를 립체적으로 보여주는 서술과 묘사, 일화가 잘 맞물려있어야 흥미를 돋굴수 있다.

갈등을 설정하지 않는 작품에서는 극적긴장성이 성격들의 충돌과 마찰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는다. 다만 부단히 변화되는 탐구생활과 환상세계에 주인공의 체험에 대한 서술과 극적묘사, 그속에서 발현되는 그의 매혹적인 풍모에 대한 공감과 흥미있는 환상속의 일화로 독자들의 마음을 틀어잡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창작에서는 이야기줄거리의 굴절과 전도에 더욱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줄거리를 새롭게 전개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생활의 론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미래에 펼쳐질 생활과 과학환상에 대하여 쓰는 작품이라고 하여, 이야기를 부단히 굴절시키고 전도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활의 론리를 무시하고 인물들을 작가

의 마음대로 등장시키거나 우연적인 계기에 의하여 새로운 탐구생활현상이나 과학적환상을 펼쳐놓아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도 문학작품인것만큼 언제나 진실성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과학환상소설에 펼쳐질 생활이라고 하여 허황한 이야기나 과학적가설에 기초하지 않은 제나름의 고안된 《과학환상》을 마구 그려놓는다면 과학환상소설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어떤 사건이 새롭게 벌어진다면 그것을 낳게한 생활적전제가 반드시 제시되여야 한다. 그러한 생활적전제는 사건의 직전에 주어질수도 있겠지만 보통 작품에서는 흔히 훨씬 전에 심어진다.

원인뒤에 곧 결과가 뒤따르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형상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재미가 없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작품의 썩 앞에서 어떤 사건의 전제를 깊이 심어놓고 퍽 후에 가서 그러한 전제에 의하여 전개되는 사건을 펼쳐보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야 하지만 왕왕 과학적환상을 동반하는 문학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성격론리에도, 생활론리에도 맞지 않는 흥미본위의 환상적내용을 펼치는가 하면 모험적인 사건도 기계적으로 삽입하여 작품의 품격을 심히 떨구고있다.

웨. 넴쪼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황금의 밑바닥》에서는 까스삐해의 해저에서 원유를 채취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하여 취급하고있다. 현재는 가까운 해저에서 원유를 채취하고있으나 앞으로 임의의 깊이에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그 어디서든지 원유를 쉽게 채취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가싸노브기사는 원유채취에 필요한 떠다니는 섬의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설계가 와씰리예브는 수중첨공기—무한궤도에 의하여 움직이는 수중가옥—땅크를 창조한다. 와씰리예브의 착상과 설계가 더 훌륭하다는것을 인정한 가싸노브기사는 자기가 먼저 착상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모욕을 느낌이 없이 와씰리예브를 지지한다. 그리고 한때 와씰리예브를 적극지지하며 그를 도와준 로케손기구의 설계가인 자기의 처 싸이다의 사업을 리해하게 되며 합심하여 새로운 원유채취방법을 완성해나

간다.

이 과학환상소설의 작가 웨. 넴쪼브는 집단의 창조적인 로력속에서 개인의 재능이 수평화되고 압살되는것이 아니라 활짝 꽃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수중땅크를 완성시키는 사업에 설계기사 싸이다도, 전기첨공기의 설계가인 마리암도, 젊은 기술자 씨니쯔끼도, 수중첨공기의 시험에 참가하는 보통로동자들도 함께 자기의 창조력을 바쳐간다.

그러나 웨. 넴쪼브는 원유채취를 힘껏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와 원유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작품의 줄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작가는 시험과 사고를 보여주는 소설의 16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뒤에 계속되는 11개 장은 와씰리예브와 씨니쯔끼의 모험에 대하여 즉 사고로 수중땅크에 갇힌 몸이 된 와씰리예브와 씨니쯔끼가 구원될 가망이 없는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장황하게 서술하고있다.

이 작품의 중간이후는 과학환상소설이 아니라 모험소설로 만들어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보려 하였으나 실망을 안겨줄뿐이다.

이 작품이 잘되자면 수중땅크에 갇히게 될 사건이 벌어질 생활적전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그 해결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작품후반부를 모험소설로 할것이 아니라 수중땅크의 공업적리용을 보여주며 그것을 다른 경제부문에서 적용할수 있는 전망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되는 이야기들속에서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면 좋았을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다만 과학기술적발명의 제시로 그치고 그 실현은 등한히 하고있다.

이러한 결함은 게. 아다모브의 장편과학환상소설들인 《지하자원에 대한 승리자들》과 《상전의 추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 두 작품은 다 땅속에 있는 열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쓴 부피두꺼운 소설이다.

장편과학환상소설 《상전의 추방》에는 북빙양에 약간의 골리프

쓰트림난류를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법, 아니면 북빙양의 찬물을 해저로부터 땅속깊은곳으로 뚫은 몇개의 2중식턴넬을 결쳐 흘러들여보내는 방법으로 북빙양의 얼음산을 녹일데 대한 《라브로브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을 형상하고있다.

과학환상의 규모와 대담성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작품이다.

지구의 지열은 물의 온도를 부단히 필요한 정도로 유지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극지방의 얼음을 녹일수 있으며 따라서 북빙양에서 일년내내 항행할수 있을뿐아니라 북방의 기후를 변경시켜 광활한 동토대를 곡창지대로 만들수 있을것이다.

생각만해도 흐뭇한 과학적환상이 아닐수 없다. 게. 아다모브는 이 작품에 볼가, 까마, 아무르, 오비, 이르띄슈, 안까라강의 강유력한 수력발전소가 완전히 조업을 개시하게 되며 태양발전소와 조수 및 파도력발전소들이 일떠서게 될 그 시기에 가서 라브로브의 계획이 실현될수 있다고 예견하고 그것이 실현될수 있는 《년대》까지 밝힘으로써 북빙양개조사업에 필요한 전력원천까지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서술하였다.

이 거창한 건설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의의를 밝히는데 이야기를 집중시키며 이 거창한 자연개조의 주인인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보여주려고 한것은 좋지만 이야기줄거리에 굴곡을 주어 흥미선을 돋구기 위해 왕청같은 이야기가지를 덧붙여놓은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작가는 라브로브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진지하게 보여주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내는데 이야기를 집중시키지 못하고 작품중간에 갑자기 끼여든 외국자본가들이 파쑈의 후예이며 라브로브와 아끼모보를 시기질투하던 베료진과 같은 앞잡이들을 내세워 그 거창한 자연개조를 파탄시키려고 시도하는데로 이야기를 몰아가고있다. 즉 한 갱도건설장에서 일어난 이상한 폭발의 원인을 자연의 힘의 작용이나 그 어떤 설계상, 시공상 결함으로 보고 해명하고 탐구하는 주인공의 진지한 태도와 성격을 보여줄대신 파괴암해분자들의 죄행으로 손쉽게 처리해버리

고말았다.

때문에 독자들은 라브로브의 공식적인 직무가 부상이라는것을 알고있기는 하지만 그의 사상정신적인 면모를 알지 못하게 된다. 분출하던 용암으로 건설장이 커다란 위험을 겪는다. 그러나 일단 용암이 멎자 라브로브가 총지휘하여 사고범위가 확장되는것을 막고 다시 건설을 시작한다. 이 장면들에서도 라브로브의 외적행동만 보여줄뿐 그의 심리세계와 정신적풍모는 찾아볼수 없다.

이 작품에는 이야기줄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주인공의 성격과 등장인물들의 형상이 있는것이 아니라 거의 기계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들, 과학환상적인 이야기를 매개하는 인간들의 기성화된 도식들이 있을뿐이다.

작품에서 북극지방의 얼음우에서의 소년 지마 라브로브의 모험을 보여주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으며 더우기 해상이나 백곰을 묘사한 많은 장면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것이다.

이것은 아동독자들의 맹목적인 흥미를 돋굴수 있을지 몰라도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작가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데 신경을 쓰던나머지 라브로브의 계획을 실현할데 대한 명확한 표상을 주지 못하고 작품의 마감에서 약간의 사변적인것으로 골리프쓰트림수도건설의 결과에 대하여 몇마디 설명하고있다.

작가는 마땅히 이 장편과학환상소설에서 북극지방의 광활한 해양체계가 변경되므로 세계적해양은 어떻게 되는가,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은 어디로 흐르게 되는가, 북극의 물이 륙지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큰 홍수를 막아야 하는가를 정서적굴곡을 주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부단히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였다. 하지만 게. 아다모브는 원인에 결과가 뒤따르고 결과가 또 새로운 원인으로 되여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는 생활의 흐름을 타고 이야기가 부단히 굴절되는 과정으로 되게 하지 못하고 우연적인 계기에 의하여 새로운 생활현상들을 펼쳐놓거나 이러저러한 과학환상적내용을 삽입하는 식으로 이야기줄거리를 끌고나갔다.

작가는 북극지방을 개조하여 배들의 항행을 보장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북극지방의 기후를 변경시킴으로써 지구에 어떤 후과를 미치게 되는가, 좋은점은 무엇이고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것은 무엇인데 그것은 사전에 어떤 대책으로 막을수 있는가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어야 하였지만 자연개조의 참된 지향과 의미를 원만히 보여주지 못하고 중도반단하고말았다.

장편과학환상소설 《상전의 추방》이나 중편과학환상소설 《황금의 밀바다》의 공통된 다른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독자들의 예상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다.

이 작품들의 이야기는 독자의 예상을 뒤집으면서 전개되지 못하고 독자가 예견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였기때문에 예술적품위와 견인력을 잃게 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황금의 밀바다》에 그려진 환상세계를 통하여 독자들은 어떤 장소에 원유가 있을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실지로는 그 장소에서 원유가 터지지 말아야 하고 주인공 가싸노브기사의 설계안이 묵살될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사실에 있어서는 성공해야 하겠지만 이 작품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독자가 예상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작품을 끝까지 읽을수 없게 만들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어나가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인물관계의 추선을 명백히 하고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는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충돌과 투쟁, 단합과 결렬의 과정을 거치면서 크고작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벌어진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이 서있다. 모든 인물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주인공과 관계를 맺는 모든 인물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형상의 몫을 가지는것은 아니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함에 있어서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과의 선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만일 인물관계의 기본선을 놓치고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균일하게 펼치든가 주인공밖의 다른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필요이상 강조한다면 작품의 골격이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인물관계의 주선에 부선들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줄거리의 대를 튼튼히 세울수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에서 주인공인 천문학자 뜨레구보브와 서방세계의 천문학자 립프교수와의 적대적갈등이 기본갈등으로 되고있으며 이 두 인물과의 관계가 인물관계의 주선으로 되고있다. 그밖의 많은 인물들이 주인공과 관계를 맺고있지만 이 두 인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예리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복종되여있다.

작품은 파미르고원 천문대 대장인 뜨레구보브와 연구사인 그의 안해가 12월 4일 144개의 천체망원경이 일시에 조종되는 천문대에서 7327호별의 비밀을 밝혀내던중 난데없이 초당 30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유성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해진다. 이 속도로 날아오면 태양도 그것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여 지구에 재난을 들씌울수 있기때문이였다.

(어느 항성의 유성일가? 어떻게 되여 저 유성이 곧바로 지구에 날아드는것일가?…)

주인공 뜨레구보브는 해왕성의 궤도에 해당되는 거리(태양으로부터 450억km의 거리)까지 다달은 유성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용약 떨쳐나선다. 그러나 서방학자인 립프교수는 야신의 친딸인 암흑의 녀신을 이르는 희랍의 녀신 네메지다의 이름을 그 유성에 붙여놓고 그것은 173일만에 지구에 육박하여 무서운 재난을 일으킨다고, 인류는 완전히 멸망한다고 뇌까린다.

하지만 주인공 뜨레구보브는 12월 13일 파미르천문대를 떠나 우주위원회에 도착하여 네메지다의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기한다.

그는 네메지다가 지구옆을 3백만키로메터의 거리로 지나가게 한다면 두려울것이 없다는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 뜨레구보브는 우선 네메지다가 지구옆을 지나갈 때 생

기는 만조로 인한 침수현상이 심히 나타날 서방지구로 달려가서 사업을 지도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립프교수의 리론을 악용한 놈들이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지구위기설》을 떠들고 《인류멸망설》을 되까리며 돈벌이를 하는데만 급급하고있었다. 그뿐아니라 놈들은 뜨레구보브를 위협하며 인민들을 기만하여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날뛴다. 하지만 뜨레구보브의 진지한 노력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립프교수의 리론도 적들의 기만선전과 위협공갈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만다.

한편 뜨레구보브의 대책적인 발기와 제의를 적극 지지해나선 로마노브와 호멘꼬 등 긍정인물들은 네메지다의 량극이 굉장한 높이의 얼음산으로 뒤덮여있다는 그의 발견에 기초하여 그것을 폭발시킬수 있는 로케트, 안찌리드(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얼음으로서 인공적으로 불붙일수 있는 물질)를 적재한 특수로케트를 네메지다를 향해 발사시킨다.

이들은 립프교수의 의견을 반대하고 서방세계여론을 배격하는 인물들로서 주인공 뜨레구보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지만 두 긍부정인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예리화시키는데 복무하고있다.

기본인물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기본갈등선상에 놓인 두 인물의 접촉을 강화하는것으로만 리해해서는 안된다. 과학환상단편소설들인 《예순일곱살난 소년》, 《열을 내는 꽃》, 《101번째과학소조원》과 같이 등장인물이 적은 경우에는 인물관계의 주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끌고나가는것이 곧 두 인물의 접촉을 강화하는것으로 표현될수 있으나 중장편과학환상소설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에서 주인공 뜨레구보브와 접촉이 많은 인물은 적대적갈등관계에 있는 립프교수나 그 리론의 제창자인 돈벌이군들이 아니라 로마노브와 호멘꼬, 특히 뜨레구보브의 안해인 연구사 안또니나이다. 뜨레구보브는 극적흐름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만 립프교수와 그 추종자들과 한두차례 충돌하며 대결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줄거리는 두 인물의 관계선을 타고 흘러간다.

갈등이 설정되지 않는 작품의 경우에도 인물관계의 주선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돋구어나가야 한다. 이때에도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뚜렷이 하여야 구성의 대를 세울수 있다.

방대한 과학환상적폭을 안고 수십명내지 수백명의 등장인물을 그려나가는 장편과학환상소설들에서 인물관계의 주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복잡하게 엉키는 부차적인 인물관계를 주선에 복종시켜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인물은 일단 작품에 등장한 후에는 자기의 성격론리와 생활론리를 타고 자기딴의 생활로선을 따라나간다.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세우자면 면밀한 타산을 앞세워야 한다.

최근에 번역출판된 장편과학환상소설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은 갈등이 설정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매혹적인 과학환상장면들과 작가의 풍부한 과학지식에 기초한 사건전개로 하여 한때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며 1965년 세계과학환상소설추첨에서 높은 점수로 당선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작가의 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간과할수 없는 오유를 범하였다.

갈등이 설정되지 않은 이 작품은 인물관계의 주선을 명백히 하지 못하였고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뚜렷이 하지 못한 결과 이야기줄거리의 대를 바로세우지 못하였다.

물론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는것이 뚜렷하지 않고도 줄거리가 명백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것은 내적모순을 안고있는 주인공을 세우고 그의 초기성격과 마감성격을 뚜렷이 조응시키는 수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례외적인 경우이다.

장편과학환상소설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은 인물관계의 주선을 명백히 하지 못했을뿐아니라 주인공이 안고있는 내적모순에 의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한것도 아니다.

이 작품은 인류가 태양계의 행성들인 화성이나 금성, 천왕성을 점령한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은하계밖으로 탐험의 길을 떠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은 우리의 육안으로써는 스러져가는 불덩

어리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은하계밖의 별구름이다. 은하계밖의 별구름은 3천만개이상이나 되며 그중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것은 안드로메다의 별구름, 작은 마젤란별구름, 큰 마젤란별구름 3개뿐이다. 별구름이란 구름처럼 보이는 수억개의 천체들로 이루어진것이다.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은 빛속도로 수백만년 가야 하는 먼거리에 있는것으로서 그 질량은 태양의 1천억배이며 별의 총수는 2천억개이다. 이 별은 이미 10세기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장편과학환상소설은 이미 수백년전에 지구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우주와 지구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큰 가락지별시대》의 407년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이 시기에 지구우에는 두개의 인공태양이 걸려 남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한랭한 기후를 온화하게 하며 주민들은 지구의 30도선을 따라 따뜻한 지대에서 살고 나머지지대는 산업지대와 가축사양지대로, 영양식물과 경제림지대로 전환되였다. 지구의 어느곳에서나 립체텔레비존전화로 말과 화면을 주고받으며 특히는 먼 은하계의 우주인간들이 보내는 말과 화면도 《큰가락지별》이란 환상적인 별에서 사는 리상적인 인간들을 통하여 받기도 하며 지구의 지식과 경험을 우주에 알려주기도 한다.

작품은 사건이 전개되는 장소를 비행선과 지구 및 우주공간으로 자주 바꾸면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있다. 37번째의 별세계비행선 《딴뜨라》의 우주탐험과 그 과정에 부닥치는 예상외의 난관들을 극복하는 장면, 깨끗한 량심을 가진 37번째 탐험단 단장인 주인공 에륵 호르와 단원인 우주항법사 처녀 니자 크리트의 사랑, 다르웨제르와 웨다 꽁그의 사랑, 아프리카 태생인 멘 마스와 인도족인 차라 난지의 순결하고 고상한 사랑과 동지우애심에 기초한 모험적인 연구사업, 고고학적발굴사업과 최고도로 자동화된 로동생활을 이모저모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 시대적배경과 장소를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복잡다단하게 설정한것은 이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으로 되는 동시에 심각한 약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크고작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의 중심에 주인공인 베륵 호르를 세우지 못하고 모든 인물들을 주인공을 중심으

로 관계를 이어주지 못했기때문에 작품의 구성이 균형을 심히 잃고 있다. 또한 인물관계의 주선에 부선들을 철저히 복종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쇠별》장의 이야기와 《뚜카나별자리의 에쁘씰론》장과의 이야기가 별개로 동떨어진것처럼 느껴지며 이여의 다른 장과도 사개가 물리게 이어주지 못해 구성의 대가 흔들리고있다.

소설에는 14명으로 구성된 《딴뜨라》 비행선원들이 우주공간에서 은하계의 여러 별들의 소식을 지구에 전달해주던 《지르다》라는 행성이 70년전에 갑자기 침묵을 지키는 원인과 직녀성을 연구하러 떠난 34번째 비행선 《빠루쓰》가 거문고별자리에서 행불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떠난다.

이 비행선은 보조비행선 《알그라브》를 약속된 행성에서 만나기로 되였으나 만나지 못한다. 그리하여 《딴뜨라》는 아나메죤이란 빛속도를 내는 연료를 보충받으려고 행성 《지르다》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 우주인들이 방사성물질을 망탕 쓰다가 온 행성이 오염되여 전멸되였다는것을 알고는 할수없이 되돌아서 다시금 《알그라브》를 여러해동안 찾았으나 성공하지 못한채 지구로 돌아서게 된다.

비행도중 인력이 센 무쇠별을 만나게 되여 끌려간다. 《딴뜨라》는 천신만고하여 함정행성이라고 하는 내부행성에 착륙하며 이미 85년전에 행불된 34번째 비행선인 《빠루쓰》 탐험대원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된다. 《딴뜨라》선원들은 비감에 잠겨 《빠루쓰》에 남아있던 아나메죤연료를 옮겨싣다가 검은 해파리같은 행성생물체와 검은 십자가처럼 생긴 움직이는 괴물의 공격을 받아 에륵 호르와 니자 크리트가 신경이 마비되여 의식을 잃는다. 니자의 희생적인 보호로 피해를 적게 받은 에륵 호르는 인차 정신을 차렸으나 니자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다.

《딴뜨라》승조원들은 고장으로 여기에 끌려와 비참한 운명을 마친 훌륭한 원거리비행선, 지구인간들이 모르는 기술로 만든 직경이 350메터나 되는 안드로메다의 원반형비행선의 신비로운 금속쪼각, 내부행성에서 잡은 두마리의 검은 해파리를 가지고 지구에 돌아와 연구를 계속한다.

한편 지구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송신실 실장 멘 마스와 물리수

학자 렌 보즈는 우주에 가로놓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지배하며 우주로 에네르기를 어떻게 송달하겠는가를 연구하고있다.

그들은 티베트천문대에서 별세계비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모험적인 실험을 하다가 무서운 폭발로 중상을 입게 된다.

그러나 지구와 은하계사이에 장애물로 놓여있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며 우주로 강력한 에네르기를 송달할수 있는 성공의 열쇠를 얻게 된다. 하지만 멘 마스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고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가서 원시족같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을 반성하며 단련한다.

멘 마스와 렌 보즈의 모험적실험으로 얻은 성과에 기초하여 먼 은하계로 진출할수 있게 된 38번째의 탐험단은 비행선 《레베지》를 타고 70광년 가야 하는 아헤르나르별을 향하여 떠난다.

에륵 호르를 대장으로 하는 《레베지》의 탐험대원들은 빛속도로 84년간 달려야 하며 지구에서는 170년후에 소식을 받게 되는 그곳으로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을 점령하기 위하여, 지구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살아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우주탐험의 길로 떠나는것으로 소설은 끝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작품은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주인공 에륵 호르와 기본상대인물과의 선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지 못하였다.

특히 에륵 호르는 송신실 실장 멘 마스와 수학자 렌 보즈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들이 하는 사업도 련관이 없이 별개의 딴 문제를 추구하는것이다. 마감부분에서 그의 전송을 받으며 먼 우주로 떠나가는것외에는 그들의 관계가 아무것도 주어져있지 않다. 때문에 작품은 독자들에게 에륵 호르를 주인공으로 하는 우주탐험가와 지상의 외부송신실 실장인 멘 마스와 그의 전임이였던 다르 웨제르, 물리수학자 렌 보즈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모험과정을 서술한 이야기를 합쳐놓은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이 장편과학환상소설 제목을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이라고 달았지만 실상 안드로메다의 별구름과는 거의 관계없는 내용이 펼쳐지며 그것을 탐색하기 위한 주인공 에륵 호르의 노력과 연구과정

은 보여주지 않고있다. 다만 무쇠별에 끌려가 내부행성에 착륙했을때 먼 은하계에서 날아온 원반형비행선의 금속쪼각을 떼내가지고 돌아와 분석해본 결과 그 비행선이 안드로메다에서 날아온 비행선이였다는 식으로 짧게 서술되였으며 작품의 마감에 에륵 호르를 단장으로 하는 22명의 《레베지》비행선승무원들이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을 점령하기 위하여 떠나는것으로 되여있을뿐이다.

오히려 모험적인 실험을 통하여 지구와 먼 은하계사이에 장애물로 놓여있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며 우주로 강력한 에네르기를 송달할수 있는 성공의 열쇠를 찾아 안드로메다별구름을 점령하기 위한 기초를 쌓은 멘 마스와 렌 보즈가 이 제목에 더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이 장편과학환상소설이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어나가기 위해서는 멘 마스와 렌 보즈의 성과에 기초하여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으로 떠나는 에륵 호르와 니자 크리트를 비롯한 탐험단원들의 작별인사로 작품을 시작하여 안드로메다로 가는 로정에 보조비행선 《알그라브》, 행성 《지르다》의 운명을 알게 되고 무쇠별에 끌려가 원반형비행선과 《빠루스》비행선의 최후를 목격하게 되며 지상의 송신실 실장인 멘 마스와 교신을 통해 새로운 출로를 찾고 간고한 투쟁을 벌려 다시 항해하는것으로 형상하여야 했을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주인공의 운명선을 보여주면서 작품의 종자, 주제와 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사건선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감으로써 모든 부차적인 사건선들과 일화, 세부들을 자체속에 복종시켜야 했을것이다.

매개 사건들과 일화들은 그자체로써만 흥미있는것으로 되여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군더더기로 되고만다. 작품에서는 하나의 일화까지도 그것이 격에 맞게 제자리에 박혀야 성격을 살리고 사건을 전진시키며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혀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가는 아무리 흥미진진한 일화나 환상적세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극적이야기를 엮고 성격들을 특색있게 밝혀내는데 맞지 않는것이라면 대담하게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편과학환상소설 《안드로메다의 별구름》은 심중한 약점들을 가지고있다.

이외에도 작품에 반영된 미래사회에서는 말도 적게 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표정을 보고 리해해야 한다는것이며 당대 인간들은 사상투쟁도, 비판의 무기도 다 줴버리고 만약 과오를 범하면 원시림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반성하고 단련해야 한다는따위의 허황한 설교, 그때에 가서는 지구우에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으므로 사람들은 지구의 30도선을 따라 따뜻한 지대에 집중되여 하나의 공통어로 살게 된다는 식의 허황한 사상을 주장하는 치명적인 결함도 내포되여있다.

이것은 1940년대초에 문단에 등장하여 장편력사과학환상소설 《거품의 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환상소설과 탐정소설들을 쓴 공인된 과학환상소설작가 이완 예프레모브의 사상적제한성으로 오는 심중한 창작상과오로서 오늘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국가》를 창설해야 한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을 부추기는 행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가는 인물관계의 주선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돋구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작품의 종자와 소재에 따라서 이야기줄거리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를 언제나 각이하게 탐구리용해야 할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어나가려면 다음으로 이야기를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맺어야 한다.

작품의 첫머리에는 평범한 생활로부터 들어가 작게 시작하는것이 좋다.

그래야 작품은 첫 시작부터 안정감을 줄수 있다. 이야기가 작은데로부터 소박하고 아담하게 시작되여 모든것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안겨오도록 되여야 독자들이 작품의 환상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기에 스스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안정감을 주는것은 과학환상소설의 첫머리를 떼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장편과학환상소설 《우주전쟁》처럼 첫 머리를 화성인들이 지구

를 습격하는것으로 시작하거나 장편과학환상소설 《안드로메다의 별구름》과 같이 복잡한 기계장치로 설치된 환상적인 비행선을 조종하며 아나메존이라는 미지의 특수연료나 쓰뽀라민(잠을 자지 않게 하는 환상적인 약) 등 표상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여 처음부터 관중을 놀래우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야기의 첫 시작은 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야 하며 한가지 틀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모든 과학환상소설에서 그 첫머리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여서는 안되며 안정된 기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심각한 환상세계에 끌려들어가게 되여야 한다.

첫머리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또한 흥미있게 들어가야 한다.

작품의 시작에서 일정한 정서적흐름을 준 다음에는 지루하지 않게 본이야기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

어떤 과학환상소설작품은 아직 아무런 극적인 요소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생활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극적국면이 전개되기도 하고 지어 사건이 절정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이것은 작품의 시작이 곧 극의 시작으로 되지 않으며 작품의 첫머리를 떼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정상적인 서술형식의 작품인 경우에는 환경이 펼쳐지고 인물이 소개되면서 점차적으로 극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환경과 성격, 인물관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데 치우쳐서 이야기줄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까지 첫머리에서 지루하게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최근에 번역출판된 장편과학환상소설 《우주탐험가들》의 첫머리에는 1908년 6월 30일 로씨야 중부씨비리지방에 떨어져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뚠구쓰운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쓰고있다. 뚠구쓰지방에 떨어진것이 운석인가, 소행성인가, 아니면 다른 천체에서 날아온 우주비행선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세계과학계에서는 수십년동안 론쟁을 벌렸다. 작가는 바로 이 론쟁에 기초하여 그것을 우주비행선이라고 가정하고 소설을 전개시키고있다. 때문에 이 장편과학환상소설은 현실감을 주고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환경과 성격, 인물관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

면서 뚠구쓰지방에 떨어진것이 운석인가, 소행선인가, 아니면 다른 천체에서 날아온 비행선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론쟁하는것을 너무 지루하게 펼쳐놓아 독자들은 거의다 이 작품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덮어놓기가 일쑤이다.

환경과 성격들이 소개된 다음에는 빨리 금성을 비롯한 우주탐험의 길에 올라 본이야기로 쑥 들어가서 처음부터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명백하게 제시하여야 하겠으나 이 작품에서는 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운석인가, 비행선인가 하는 론쟁을 거듭하며 우주탐험을 준비하는것으로 서술되여 지루하기가 그지없다.

작품의 첫머리를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명백해질수 있게 시작하는것이 중요한 미학적요구이다.

처음부터 인물들의 극적관계를 명백하게 하면서 작품의 기본문제로 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암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작품의 첫머리는 또한 시대상과 인물관계가 알기 쉽고 뚜렷하게 안겨오게 되여야 한다. 시대와 인물관계가 명확히 알리게 하는것은 사람들에게 기본문제를 곧바로 인식시켜 작품의 세계에 빨리 끌려들어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시작은 명백하면서도 또한 끝이 빤드름하게 내다보이지 않게 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의 뒤를 짐작할수 없게 감추는 방법으로 첫머리를 떼려고 해서도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첫머리형식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환상생활내용과 양상에 어울릴 때에만 참신하게 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창작에서는 첫머리를 잘 형상하는것과 함께 마감을 똑똑하고 크게 끝맺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의 마감은 주인공의 생활발전과정을 통하여 종자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며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 마당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이야기를 크게 끝맺는다는것은 과학탐구의 결과를 똑똑하게 보여주면서 제기하고 전개하여온 문제를 폭넓게 밝혀 커다란 사상을 얻어낸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마감을 크게 해야 한다고 하여 그 어떤 사건의 요란한

결말만을 보여주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작품의 마감에서는 어디까지나 사상을 명백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하여 인식적의의만 주려고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양적가치가 있어야 한다.

작품은 사상적내용이 똑똑하고 크게 되여야 교양적의의도 커진다.

처음에 문제를 크게 걸고 요란한 사건을 보여준데 비하여 발전하여나가는 사상은 없고 뒤가 허전하면 작품은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마감장면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투쟁결과를 뚜렷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생동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크고 명백한 사상으로 확증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은 과학환상소설작품을 통하여 과학탐구생활의 진리, 투쟁의 법칙을 감명깊게 받아들일수 있다.

작품의 마감을 크게 끝내며 사상적내용을 명백하고 깊이있게 강조하는데서 기본조건으로 되는것은 지금까지 주제를 푸는데 참여하여온 모든 인물들의 운명처리를 잘하는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운명을 옳게 처리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주인공과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부정인물들의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미래의 생활을 보여주는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인물들이 자기를 개조하여나가는 보람찬 탐구생활과 이여의 생활전반을 잘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또한 펼쳐야 할 과학적환상과 생활에 대한 결론을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는 전제밑에 작가가 작품마감에서 중도반단하는 현상을 발로시켜서도 안된다.

일반소설에서는 간혹 독자들의 판단과 상상에 맡겨야 할 작품이 없지 않지만 과학환상소설에서는 마감처리를 독자들의 의문과 아릿한 생각이 없도록 잘 매듭지어야 한다.

웨, 오호뜨니꼬브의 중편과학환상소설 《깊은곳으로 가는 길》에서는 인간이 땅속 깊은곳으로 타고 들어갈수 있는 환상적인 지하정을 착상하고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있다.

지하정이 첫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지하깊은곳에서 수평

면을 따라 움직이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는가를 보여주자 작가는 이야기를 끝내고만다.

작가는 과학환상소설에서 제한된 국면, 즉 독자의 주의를 다만 환상적기계와 그 장치의 설계에만 집중시키는 과제를 설정하고있다.

이 작품의 마감처리에서 지하정의 발명이 지하자원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전에는 유용광물이 없다고 단정했던 그런 구역에 어떻게 돼서 새로운 공업중심지들이 나타나게 되였는가를 보여주었으면 좋았을것이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마감을 지루하게 끌지 말고 제때에 끊고 맺어야 한다. 이야기는 다 끝나고 보여줄것도 더는 없는데 지루하게 끌면 기껏 쌓아올린 정서적흥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작품의 여운이 강하게 되여야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이야기줄거리를 잘 엮어나가는데서 이야기를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을 맺는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의 이야기를 옳게 조직하여야 작품의 주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구성의 대를 잘 세울수 있을뿐아니라 예술적흥미를 보장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가들은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과학환상적내용에만 치중하려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종자와 소재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줄거리를 잘 조직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4) 과학환상소설에서 감정조직과 환상장면의 설정

지난날에 창작된 과학환상소설이나 오늘 다른 나라에서 써내고 있는 많은 과학환상소설, 특히 장중편과학환상소설들은 주로 사건조직을 극조직의 기본으로 하면서 사건에만 매여달리고있다. 이런

데로부터 과학환상세계속에서 인간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그려내기보다 사건을 가지고 흥미본위로 극을 위한 극을 꾸미는데 과학환상생활을 복종시키는것과 같은 편향을 범하고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과학환상소설이나 오늘 부르죠아과학환상소설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높은 정신적미를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 사상을 인상깊은 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려면 극조직을 잘해야 한다.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다.》(《영화예술론》, 156페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문학예술작품의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할수 있게 되였다.

과학환상소설의 구성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구성에서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꾸려진 작품만이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고 예술적감화력을 높일수 있다. 사건에만 기초하여 이야기줄거리가 조직된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릴수 없고 형상전반에 정서가 차넘치게 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신비롭고 흥미있는 과학환상에 기초한 사건을 그리면서도 사건 그자체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정서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나가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감정조직은 작품의 기본감정선에 크고작은 부차적인 감정선들을 복종시키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축적시키고 폭발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감정의 축적과 폭발을 위한 생활적전제를 잘 깔아주어야 한다.

갈등을 인물관계의 기초로 하는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감정을 축적시킨다.

갈등의 심화과정이 외적인 사건의 격렬성을 보여주는데 국한하지 않고 인물들의 내적체험을 부단히 심화시키는것으로 될 때에만 감정이 축적되므로 우선 인물관계가 인물들의 내적체험이 강화될수 있게 맺어져야 한다. 인물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어야 이러저러한 생활의 국면들에서 그들의 관계에 의하여 빚어지는 감정이 열렬하고 예리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긍부정인물관계에서 연고관계를 파고들거나 혹은 사랑하는 관계로 설정하여 그들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따라 인물들의 사상감정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긍정인물의 감정, 내적체험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것이 좋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주인공 김성철이의 학위론문을 부정하는 로학림교수는 성철의 애인인 로은하의 아버지로 설정하였고 중편과학환상소설 《별은 돌아오리라》에서는 수련이를 한 박사의 양녀로, 《대서양운석사건》 해명에 희생을 무릅쓰고 떨쳐나선 최정민과 정선희부부의 친딸로 설정함으로써 긍정인물의 내적체험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기본인물관계뿐아니라 중편과학환상소설 《총명한 사람》, 《별나라로 가자》, 《속도를 위한 투쟁》에서처럼 방계인물들, 호상관계도 인물들의 내적체험이 강화되게 맺어져야 한다.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감정을 축적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긍부정인물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쪽에서도 다같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수 없으리만큼 대결을 첨예화시키는것이다. 긍부정인물간의 대립과 충돌을 첨예화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사이에 발생한 감정을 폭발의 접경에로까지 이끌어갈수 없다. 갈등의 첨예성에 따라 감정의 축적도가 커지므로 긍부정인물의 대결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감정을 덧쌓이게 할수 없다.

감정을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폭발시켜야 할 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을 덧쌓아주어야 한다.

어떤 현상에 부딪쳤을 때 촉발되는 사상의 감정이 예리하고 심각해지자면 그 이전에 체험된 상반되는 감정과 대조되여야 한다.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 기쁜 일에 부딪치거나 반대로 기쁨에 잠겼던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감정이 폭발적으로 승화된다. 폭발시켜야 할 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을 덧쌓아주는 실례는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서아프리카 섬나라의 독립절에 참가하였던 한진성이는 무스만 선생과 거리를 산보하며 숙소로 돌아오게 된다. 무스만은 아들애와 가깝게 지내던 진성이와 함께 걸으며 갑자기 행방불명된 아들 미라타가 생각나서 수심에 잠긴 음성으로 《독립절 기념은 하는데 이 나라엔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너무나 많구나!》하고 탄식한다. 진성이는 숙소에서 잘 때도 무스만선생이 꿈속에서 미라타를 찾으며 소리치는통에 깨여난적이 있어 그의 아픈 마음을 십분 리해한다.

공원을 지나오던 무스만과 진성이는 꽃을 들고가는 한 흑인소녀를 알아보고 반색한다. 무스만은 그 소녀애가 자기 아들 미라타와 친동기처럼 지내고있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더욱 기뻐해마지 않는다. 한해전에 만났다가 헤여진 이 소녀처럼 아들애도 만날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과학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브라이스박사놈을 비롯한 미국살인귀들이 보디로보트에 의한 제2노예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대상으로 미라타를 리용하였으며 그의 뇌수는 본래 자기의것을 상실하고 《인공뇌수》가 들어앉게 되였다는것, 점차 보디로보트화되여간다는것을 알고는 미칠듯이 감정을 폭발한다.

이처럼 폭발시켜야 할 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을 덧쌓아주는 형상수법은 감정을 축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이 수법은 오해선을 리용하여 구성되는 과학환상소설들에서 기본감정선조직에 리용된다.

과학환상소설들인 《101번째 과학소조원》이나 《열을 내는 꽃》과 같이 오해선을 리용하여 구성된 작품들에서는 주인공을 오해하는 상대인물의 감정을 깊이 깔아주다가 절정에서 진실을 확인하면서 상대인물의 감정을 폭발시킨다.

갈등을 설정한 과학환상소설들인 《바다우에 떠다니는 발전소》, 《탄부 없는 탄광》, 《땅속의 〈오뚜기〉》들에서도 개별적일화나 세부, 부차적인 사건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정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폭발시켜야 할 감정과 상반되는 감정을 덧쌓아주는 수법으로 감정을 축적시키고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감정축적을 비등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한 인물이 터놓지 않은 감정이 다른 인물에게 교감되면서 그 감정이 점차 증폭되도록 해야 한다.

교감에 의한 감정증폭은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이 바르 그 사람에게 굴절되여 전달될 때 일어난다. 맞대놓고 인물들이 서로 자기의 심금을 헤쳐보일 때에는 감정의 증폭이 생기지 않는다.

가령 화산의 폭발을 미리 막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실장과 연구사, 한 처녀조수가 있다고 하자.

연구사는 용암의 류동상태를 실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애인인 처녀조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지함》에 몸을 싣고 솟구치는 용암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처녀연구사는 조종실에 올라앉은 그를 부여잡고 왜 그런 모험을 하려 하는가고, 연구실장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일을 왜 동무가 부득부득 나서려 하는가고 눈물을 흘리며 막아나선다.

이때 연구사는 과학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모험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든 꼭 들어가서 확인하고 정확한 실험수치를 쥐여야 하는데 청년과학자인 우리가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서겠는가고 열렬히 부르짖는다.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도 나약성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있던 연구실장이 현지로 오다가 그들을 목격하고 주춤 걸음 멈추며 몸을 숨긴다.

아픈 마음을 누르듯 한동안 말이 없던 연구사가 갈린 목소리로 처녀조수를 달래며 우리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연구실장이 얼마나 딱해하겠는가, 나는 그를 대신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용암의 류동상태를 알아내야 한다고, 내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여 돌아오지 못한다면 동무가 내대신 들어가서 꼭 성공시켜 연구실장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고 절실히 부탁하는것이였다.

이 눈물겨운 말을 듣는 연구실장의 자책과 감동은 비할바없이

커진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이런 감정을 두사람사이에 교차시키고 그것을 다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교감시키면서 승화시키면 감정의 증폭이 생기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감정조직에서는 감정축적을 잘하는것과 함께 축적된 감정을 잘 폭발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감정폭발의 계기는 어떤 수법에 의하여 축적된 감정인가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갈등에 의하여 축적된 감정은 긍부정간의 심각한 대결로 폭발의 계기가 주어진다.

이때 폭발의 계기는 긍정인물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와 관련되여있어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총명한 사람》에서 긍정인물인 청송이는 자기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새로운 로보트, 자기의 그렇듯 존경해마지 않던 지민교수의 유언을 지켜 지능로보트—《돌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 발전된 지성로보트를 개발하던중 제국주의 마지막 잔당들인 스미스와 《기술파괴단》의 놈들이 지민교수를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죽게 하였으며 지금은 친구인 창해와 은하를 유인해다가 살인하려고 한다는것을 알았을 때 가장 심각한 체험을 하게 되고 제국주의 살인악당들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을 기술개발의 《동업자》로 생각했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놈들과는 절대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고 단죄한다.

이처럼 과학환상소설가는 긍부정간의 대결을 긍정인물의 생활에서 절실한 문제와 잇닿아있는 계기에 주어야 한다.

역감정에 의하여 축적된 감정은 사건이 전도되며 급격히 감정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폭발한다.

교감에 의하여 축적된 감정은 증폭된 감정을 받아안은 인물의 주정토로나 내면독백의 형식으로 폭발한다.

감정을 폭발시키는데서는 폭발의 생활적바탕을 옳게 제시하는것과 함께 폭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을 옳게 찾는것이 중요하다.

감정폭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폭발의 계기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작가의 의도로 감정축적을 너무 오래 끌면 오히려 감정이 처지게 된다. 반대로 너무 빨리 폭발시키면 정서적흥분을 강하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감정폭발의 계기는 가장 긴요한 대목에서 주어야 한다. 감정의 흐름에서 긴장성은 인물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순간과 관련되여있으므로 작가는 고조된 감정이 극한점에 이르는 순간을 옳게 포착하여 폭발의 계기를 주어야 한다.

작품의 기본감정선이 폭발하는 계기는 언제나 사건의 절정장면과 일치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에서 미국인들의 《과학기술센터》가 감행한 범죄에 대한 부인할수 없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나라의 경찰이 그곳을 수색한 날 저녁 련락을 받고 이곳으로 급히 달려온 무스만은 라체상태로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검은 유리함속에 보관되여있는 아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유리함속에 누워 보디로보트화되여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무스만은 한동안 석상처럼 꼼짝않고 서있었다. 재를 뿌린듯 뿌옇게 빛을 잃은 그의 두눈에는 눈물도 없었다. 그의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볼편의 근육이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바로 이 대목이 사건의 절정장면이다. 작가는 기본감정선이 폭발하는 계기를 여기에 일치시키고 발전하여오던 모든 영상의 선들이 한데 뒤엉켜 총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 절정에서 작품전반을 통해 축적되여온 무스만의 기본감정도 결속을 지으면서 터져오르게 하였다.

이렇듯 과학환상소설가는 절정장면을 조직함에 있어서 주제사상에 대한 총결론을 지울수 있도록 할뿐아니라 기본감정선을 폭발에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기본감정선뿐아니라 부차적인 감정선의 폭발계기도 제때에 적당한 대목에서 주어야 한다. 부차적인 감정선의 폭발점들은 이야기줄거리발전에서 절정을 제외한 크고작은 형상의 봉우리들, 형상의

집약화와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대목들에서 주어져야 한다.

감정폭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폭발의 계기에서 감정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세부를 탐구하는것이다.

이 세부는 폭발되는 감정을 더욱 예리하게 최대한으로 승화시켜 독자들의 가슴을 심히 자극하며 눈물이 나게 되여야 한다.

이처럼 인물들사이의 감정련계를 잘 지어줄뿐아니라 과학환상소설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의 련계를 잘 조직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감정조직은 인물들사이의 감정련계뿐아니라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련계를 조직하는 형상작업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련계를 조직하는 형상작업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시기 과학환상소설형상작업에서 이 문제는 거의 배제되고 인물들사이의 감정련계에만 주의를 돌려왔다. 따라서 복잡한 과학환상내용과 과학기술적문제를 등장인물을 통하여 무리없이 전달하는데 그치였고 독자들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세계에 빠져 자연히 작품에 끌려가도록 감정의 련계를 지어주지 못하였다.

과학환상소설이 독자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과학탐구와 기술개발의 협산준령을 톺아오르게 하려면 작품에 그려지는 과학기술적내용들이 생신하고 독자들이 납득할수 있는것이여야 하며 등장인물들을 통한 정서적교감이 그대로 독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있도록 진실하고 생활적이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과학환상소설작품에 담겨지는 환상생활과 과학기술적내용들이 생활에 발붙인 참신한것으로 될뿐아니라 그 예술적가공도 생활의 론리, 성격의 론리에 맞게 형상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여야 한다.

작가는 과학환상소설작품의 구성에서 장면설정의 의의와 장면처리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상의 제반 문제들도 잘 알고 형상에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환상장면을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는것은 과학환상소설구성의 일관성과 재밌새를 보장하고 작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환상장면은 과학환상작품에서 형상적화폭들을 이루는 기본단위이다.

과학환상소설의 매 환상장면은 그 전반형상을 구성하는 개별적화폭단위로 된다.

창작실천에서는 구성의 기본요소들인 줄거리와 인간관계, 사건이 꾸려지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하기 위한 환상장면들을 배렬한다. 환상장면은 과학환상소설의 얽음새 발전을 단계짓는 단위들이기때문에 매 환상장면들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 환상장면과 환상장면사이에는 내적인 련관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일반소설에서도 장면조직은 얽음새발전을 단계짓는 화폭단위로 된다. 하지만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장면조직이 환상장면조직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일반소설에서도 때에 따라 형상론리상 환상장면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학환상소설에서는 매 장면들이 다 환상장면으로 되며 그것이 기본장면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장면에서는 얽음새를 전개시키기 위한 형상의 제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작품의 내용을 한단락씩 환상적화폭으로 펼쳐보인다. 장면에는 환상속에서 인간관계와 사건의 발전이 동시에 주어지면서 형상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회화성과 조형성을 가진 화폭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환상장면은 구성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형상적화폭의 단위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장면이 환상적화폭단위이기때문에 작가의 설명부분은 환상적성격을 띠고있지만 장면에 속하지 않는다. 설명은 환상장면과 환상장면을 련결시켜주기 위한것이다.

작가의 주정토로는 설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주정토로는 한 환상장면내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환상장면과 환상장면사이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는 한장면이 끝나고 그 장면에서 야기된 감정을 승화시키면서 작가의 주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주정토로가 장면내에서 환상적화폭에 용해되여 주어지는 경우는 환상장면에 속한다. 그러나 환상장면과 환상장면사이에서 주정토로가 주어지는 경우는 환상장면에 속하지 않는다.

과학환상속에서 삽입되는 이야기는 환상장면을 이룬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삽입되는 이야기는 구성의 단위로 될뿐아니라 환상적화폭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장면들이 사건발전이나 인간관계 발전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거점으로 되지는 못한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소설에도 기본장면과 삽입장면이 있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기본장면이란 환상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간관계 발전의 지탱점으로 되는 구성단위, 화폭단위를 말하며 삽입장면이란 환상속에서 기본사건의 발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장면을 말한다. 삽입장면들은 기본장면들사이에 정서적다리를 놓아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정서적으로 리해할수 있게 한다.

이외에 과학환상소설에는 사건이 전개되는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 지난날의 이야기를 펼쳐보이거나 현재의 이야기를 펼쳐보이는 화폭단위인 회상장면이 있다. 비록 지난날의 이야기나 현재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환상속의 사건과 인간관계의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설정되는것만큼 회상장면은 기본장면에 속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장면설정을 잘하여야 예술적세부들을 집중하여 생활화폭을 창조하면서 종자의 형상적실현에 이바지할수 있고 인물선과 사건선, 갈등선과 감정선의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장면은 형상의 기본선들을 하나의 화폭속에 펼쳐보이면서 그 발전의 단계를 지어준다. 인물선과 사건선, 갈등선과 감정선은 장면과 장면들을 거쳐야 론리적단계를 밟아 순조롭게 발전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장면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매개 장면의 기본과제를 똑똑히 확정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하여 매 장면의 중심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확정하여야 한다.

장면에서는 성격도 사건도 다 기본과제를 밝히는데 집중되여야 하는데 이런 요구를 해결하는 일을 초점작업이라고 한다.

장면의 기본과제를 옳게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인물들의 행동과제를 기본과제해결에로 지향시켜야 한다.

장면의 기본과제는 인물들의 활동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밝혀진

다. 형상적화폭들에는 때에 따라 자연묘사나 정황묘사가 주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인물이 서있다. 장면에서는 인물들의 관계를 명백히 설정하여 기본과제를 해결하는데 철저히 복종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장면을 잘 조직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장면의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의 매 장면은 립체적으로 형상되여야 한다.

장면을 립체적으로 그려내는것은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매 장면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생활의 본질이 담겨있어도 립체성을 띠지 못하면 장면의 형상은 철학적깊이를 가질수 없다. 더우기 미래생활과 과학적가설에 기초한 과학적환상에 의거하여 씌여지는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 장면을 립체적으로 조직하지 못하면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잘 그려낼수 없게 되며 미래사회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몰리해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소설작가들은 매개 장면의 초점을 노리면서도 전반적인 장면들의 련계와 발전과정을 잘 타산하여 장면과 장면들이 생활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함으로써 사건발전에 도움을 주며 작품의 정서적흐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장면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기때문에 개별적인 장면들은 구성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독자적인 역할을 놀아야 하지만 서로 맞물려서 빈틈없이 째일 때에만 빛날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의 장면들에는 미지의 환상적내용들이 반영되기때문에 그 련계를 잘 지어주어야 형상적화폭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체를 이루게 된다. 그때라야 과학환상내용을 담은 문학적이야기의 흐름자체도 순조로와지고 진실성을 띠게 된다.

과학환상소설의 장면조직에서 앞뒤의 사개를 맞추는데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회상장면과 삽입장면의 설정문제이다. 흔히 회상장면과 삽입장면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구성의 전반에 손상을 주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파괴하기 쉽다. 때문에 회상장면이나 삽입장면을 얽음새발전의 적합한 대목에 설정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창조와 내용전개상 반드시 과거이야기와 환상이야기가 필요하게 된다. 그때 작가는 어떤 대목에서 그것을 끌어들이겠는가에 대하여 잘 타산하고 적당한 대목에 주어야 한다.

회상장면은 등장인물이 심각한 극적체험에 부닥쳐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스스로 돌이켜보는 대목에서나 혹은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사건발전의 계기를 해명하기 위하여 과거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에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작품에 반영된 현실이야기와 과거이야기사이의 사개가 물리고 과학환상소설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수 있다.

삽입장면은 흔히 극적장면의 뒤끝에 삽입되여야 한다. 삽입장면은 기본장면들의 극적인 사건의 련결에 정서적다리를 놓아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일수 있게끔 되여야 한다. 삽입장면은 순수 설명으로 그치거나 기본장면들과는 아무러한 정서적련결도 없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서는 첫시작에 속하는 장면과 절정장면을 옳게 설정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다.

작품의 첫머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환상이야기가 벌어지는 시대적배경과 인물들의 호상관계, 생활장소와 같은것들이 뚜렷하게 안겨오고 말하려고 하는 문제가 암시되여야 한다. 첫머리가 뒤엉키여 복잡하게 되면 사건이 제곬으로 뻗을수가 없고 이야기의 갈피를 잡을수 없게 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그 어떤 경이적인 과학환상장면으로 독자들을 놀래우며 렵기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참다운 예술적흥미로 독자들의 마음을 끌도록 작품의 첫머리 장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네메지다의 운행》의 첫머리는 과학환상이야기가 벌어지는 21세기의 어느해 12월 4일 파미르고원 천문대 대장인 뜨레구보브와 그의 안해인 연구사 안또니나가 여느때와 다름없이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것으로,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별, 이때까지 볼수 없었던 소유성이 나타났다가는 없어지고 그러

다가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것을 발견하는것으로 시작된다.

뜨레구보브는 이상하여 안해와 토론도 하고 론쟁도 벌리면서 그 소유성이 움직임을 말해주는 세개의 흔적을 추적하여 천체가 이동하는 전 행로를 계산해낸다.

초당 300km!

이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는 소유성은 과연 어떤 별이겠는가?

작품은 아주 례사로운 평범한 생활로 안정감이 있게 시작되면서 말하려는 문제와 생활장소,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암시하고있다.

과학환상소설은 첫머리장면을 잘 떼는것과 함께 작품의 구성에서 결정적위치에 놓이는 절정장면설정을 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환상속에서 매 장면을 거쳐 발전하여온 갈등과 사건은 절정에 이르며 폭발한다. 주인공이 끌고온 감정선도 절정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서로 다른 지향을 안고 걸어오던 등장인물들의 운명도 여기서 결정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절정에서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총결론이 주어진다.

절정장면을 어떻게 설정하고 형상하는가에 따라 갈등과 사건은 물론 주제사상을 옳게 밝히는가 못밝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절정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환상속의 사건과 갈등, 성격들의 발전과정의 필연적결과로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절정은 환상속의 성격발전과 사건발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갈등을 폭발에로 이끄는 본질적인 계기와 결정적인 투쟁이 벌어질 정황이 이루어질 때, 과학환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때에라야 생겨난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탐구》에서 절정을 이루는 생활적계기는 로은하가 주인공 김성철이를 대신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大축매물질이 매장되여있는 달의 빙하구역으로 떠나가는것이다. 애인인 로은하, 오해하고 멀리하며 배척했던 그가 자기의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라서 고갈되여가는 휘발유 대신 무진장한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활짝 꽃피게 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판에 뛰여든것은 주인공

김성철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불씨에 불을 달아놓은것으로 된다.

인간의 운명에서 정신적축적이 마련되여있어도 새로운 질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 성격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구체적인 계기는 인물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된다.

보통 어떤 사람에게는 참을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흥분을 주지 않을수 있다. 그것은 제기된 사건이 그자신의 운명과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가에 따라서 규정된다.

절정에서 모순의 극한점을 폭발에로 이끄는 극적계기는 주인공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와 직접 잇닿아있어야 한다. 누가 희생되였거나 침해당했다고 하여도 주인공자신을 격동시키고 결정적인 행동에로 추동하지 못하는것이라면 절정의 계기로 될수 없다. 아울러 과학환상소설의 절정은 과학환상을 승화시킬수 있는 결정적인 고리로 되여야 한다.

주인공 성철이에게서 애인인 로은하의 그런 용단은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것으로, 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어쩌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론문을 묵살해버린 로학림의 딸이라는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 기어코 연구사업에서 성공하겠다는 자기의 맹세와 결의도 리해 못하는 처녀를 사랑할수 없다는 속다짐의 마지막지탱점을 허물어버리는것으로 된다. 성철이에게는 이제 그가 먼저 달의 빙하구역에 도착하면 다시 만날수 없고 그를 모욕하고 박대한데 대하여 사죄하려고 하여도 때가 늦게 되는것이였다. 운명이 판가리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저앉을수도, 때를 놓칠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정적인 시각에 이른 성철이에게서 이미 우주선을 타고 떠난 은하보다 더 빨리 도착할수 있는 광량자로케트를 타고 달의 빙하구역으로 향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또한 환상적인 물질인 大촉매물질을 해결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할수 있게 된다는 과학적인 환상도 필연적인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정황은 환상속의 사건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

는 구체적조건이며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이다. 절정을 이루는 장면의 정황은 성격발전과 사건발전의 해결을 위한 계기를 지어주는 마당으로 되여야 한다.

절정장면의 정황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그 어느쪽에서도 다같이 피할수 없는 폭발에로 나아가도록 조건지어주어야 한다.

절정에서의 극적과제는 주제와 사상에 대한 총결론을 주는것이다. 절정에서 이 과제를 놓치면 더는 해결할 기회가 없다. 절정뒤에 오는 해결장면은 절정에서 밝힌 주제와 사상을 더욱 뚜렷이 확인할뿐이다.

절정의 과제를 해결하는 기본고리는 주인공의 형상에 있는것만큼 그의 정신세계를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파고들어 주제와 사상이 승화된 과학환상속에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절정이 갈등의 종국적폭발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하여 순전히 환상사건의 외적인 격렬성만 보여주고 긍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식으로 결과만 내놓아서는 안된다. 절정에서 희한한 과학환상이 펼쳐지며 탐구과정이 무르익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환상장면에서 주인공의 사상의식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정신도덕적높이를 잘 그려내야 과학환상소설작품의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작품의 사상적결속이 명백하고 크게 되여야 인식교양적의의가 커지는것만큼 절정장면에서는 과학환상을 실현하는 주인공의 투쟁결과를 뚜렷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작품에 제기한 문제를 크고 명백한 사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장면조직의 사상미학적요구들을 실현하는데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똑똑히 파악한 토대우에서 장면조직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수법들을 탐구리용함으로써 비반복적이고 독특한 과학환상소설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제3장 과학환상동화창작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환상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과학환상동화는 자유분방한 과학적환상과 의인화의 수법으로 꿈많은 어린 독자들을 미래와 공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매혹적인 문학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8년 12월 31일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여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설맞이공연에 출품된 과학환상동화극을 비롯한 과학환상아동예술작품들을 친히 보아주실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과학적환상을 가지도록 하며 그것을 실현해보겠다는 포부를 키워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뛰여난 소질을 가진 학생소년들을 잘 키우며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매해 전국 과학환상창안품 및 과학환상문학작품 현상모집사업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적환상을 계발시키도록 하는 현명한 방침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진행되는 전국 과학환상창안품 및 과학환상문학작품 현상모집사업에 매해 수만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과학환상동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과 신묘한 과학환상창안품들을 내놓고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의 과학적환상력은 비할바 없이 높아가고있으며 그 환상을 실현해보겠다는 의욕이 날을 따라 증대되고있다.

특히 유치원 높은반 어린이들과 인민학교 학생들, 중학교 낮은반 학생들은 과학환상동화를 흥미있게 읽으며 환상력을 키우고 제딴의 과학적환상을 펼쳐가고있다.

우리 시대 어린이들은 동화문학이 생겨난 때로부터 잘 알려진 곰, 너구리, 산토끼, 수염고래, 고양이, 개, 승냥이, 여우가 의인화되여 나오는 책들도 좋아하지만 과학기술발전의 산물인 자동로보트—《기계사람》, 하늘을 주름잡아 달리는 로보트, 분자와 원자, 콤퓨터 등을 의인화의 대상으로 하여 씌여진 작품들을 더 좋아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과학적인 환상, 탐구적인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과학환상동화를 비롯한 과학환상동화극, 과학환상그림책들을 보풀이 일도록 읽고 또 읽는다.

그것은 과학환상동화를 비롯한 과학환상동화극, 과학환상만화책들이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기때문이다.

과학환상동화문학은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정서, 그들의 생활감정에 맞는것으로서 어린이들의 인식교양에 크게 작용한다.

과학환상동화작품들인 석윤기의 《똘똘이박사의 희망과 사업》, 김동섭의 《웅이와 〈기계사람〉》과 《과학궁전을 찾아간 차돌이》, 《태양도시를 꾸리는 박사기계들》,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은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동화에서 과학적환상의 제시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시대에 살고있는 어린이들의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궁냥을 넓혀주며 창조적힘을 길러준다. 과학환상을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으로 하며 그것을 인식문제의 추구에 리용하는 동화의 한 형태인 과학환상동화는 우리 시대 아동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문학형태이다.

우리 시대의 벅찬 혁명적현실은 과학기술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와 함께 동화의 독자들인 우리 시대 아동들의 정신세계가 이미 동화적환상에만 머물러있을수 없으리만큼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과학환상에 기초한 동화창작이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이러한 과학적환상의 요소들을 동화의 세계로 끌어들이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이라는 현실적조건과 《환상적》이라는 비실재적

인 조건을 무리없이 잘 량립시켜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어떤 동화적환상을 펼치던간에 그 기저에는 생활이 깔려야 하므로 과학적환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대담하게 동화세계에로 침투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는 무엇보다도먼저 동화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과학환상동화는 동화의 기본형상수단인 동화적환상에 의거하며 과학적환상도 동화적환상의 예술적높이에까지 승화되여야 한다. 류의해야 할것은 모든 환상이 다 동화적환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으며 그들의 정서적요구와 심리적지향에 따라 전개되면서 그들의 감정과 창조적상상력을 계발시켜주는 환상만이 동화적환상으로 된다.

과학적환상도 역시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아야 하며 그들의 정서적요구와 심리적지향에 따라 펼쳐지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는 환상으로 되여야 한다.

작가의 환상이 우주의 신기한 비밀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립자세계의 현상들을 《관광》 또는 《방청》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수단 또는 의인화수법에 의하여)환상에 그쳐서는 과학환상동화를 훌륭히 창작해낼수 없다.

아동문학의 한 형태로서의 과학환상동화도 아동들의 생활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들의 동심세계를 해부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과학지식의 엄밀성에만 치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생활을 외곡하여 반영하게 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과학환상적내용은 철저히 동화의 예술적형상속에 용해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화는 동식물들을 의인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생태적성질에 따르면서도 그 성질의 완전한 포로가 되지 않고 환상을 적극 활용한다. 그렇다고 하여 동화의 인식적기능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동화는 아동문학의 어느 형태보다도 훌륭한 인식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과학환상동화는 역시 과학지식을 반영하면서도 거기에 환상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창조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을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하여 과학환상과 순 허구적인 비실재적환상을 무질서하게 뒤섞어놓으면 어린이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는 환상을 계발시키는 문제와 인식문제를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제1절 과학환상동화의 종자

과학환상동화를 창작하는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자를 잘 골라잡는것이다. 종자를 잘 골라잡아야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옳게 전달할수 있고 과학환상동화적형상을 훌륭히 꽃피울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아동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아동과학환상문학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과학환상동화의 특성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무엇보다먼저 과학환상세계속에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내용이 생활적으로 쉽고 명백하게 요약된것이여야 한다.

과학적환상이나 의인화의 수법을 주요한 형상수단으로 하는 과학환상동화는 꿈이 많고 기발한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심리와 미학적기호에 잘 어울리는 문학형태이다. 과학환상동화는 놀랍고도 신기하며 우습고도 흥미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탐구하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 흥미를 돋구어주고 그들의 교양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한다.

과학환상동화는 신기하고 기적적인 과학환상, 어린이에 비유된 기계, 기구들의 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고 사상을 구현함으로

써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속에 널리 퍼지게 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과학환상과 의인화의 수법은 신기하고 기발한 형상과 표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로부터 어린이들의 기호와 수준에 맞게 로동계급적관점에 튼튼히 서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과학환상동화를 창작하여 보여주는것은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과학환상동화문학이 대상하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은 생활체험이 부족하고 사고방식도 극히 단순한것으로 하여 인식능력에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 복잡한 과학기술현상과 자연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며 작품이 응당한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심리정서적특성에 맞는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무엇이 선한것이고 무엇이 악한것인가 하는것 등을 알기쉽게 보여줌으로써 선한것을 지향하고 악한것을 미워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의 종자는 아무리 발전된 자동기계라고 하여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수 없다는것이다.

어느 한 학교에 모든것을 제힘으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의 힘을 빌려 쉽게 할것인가 하는 생각에만 골똘해있는 삼돌이란 학생이 있었다.

그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느날 형인 이돌이와 함께 강철공장에 견학갔다가 공학박사인 아버지가 일하는 연구소에 들린다. 그곳에서 삼돌이는 아버지가 쇠물을 쉽게 뽑아내게 할수 있는 기계사람을 만들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호기심이 동한 삼돌이는 그 기계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매달린다. 끝내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삼돌이는 지하실험실에 내려가 피아노를 치고있는 기계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것이 어려운 수학문제도 단숨에 풀

고 외국어도 몇가지쯤은 휑 꿰뚫고있으며 탁구도 아주 잘 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교의 탁구선수인 삼돌이는 한번 눌러놓을 생각으로 기계사람에게 경기를 해보자고 팔을 걷고 나선다. 탁구판에 나선 삼돌이는 모지름을 쓰며 이기려고 했으나 결국 21대3, 21대 0으로 지고만다. 이렇게 되자 기계사람에 대한 삼돌이의 환상은 뭉게치는 구름처럼 커지였다. 그는 기계사람만 있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해결될것만 같았다. 삼돌이의 눈앞에는 아까 용해공아저씨들이 힘들게 쇠물을 뽑던 일이 생각나서 기계사람에게 용해작업을 할수 있는가고 물어본다. 기계사람은 방법만 대주면 수십명의 용해공들을 대신하여 얼마든지 쇠물을 뽑을수 있다는것이였다. 신이 난 삼돌이는 《강철종합직장에 대한 표준조작법》이란 책을 《기계사람》에게 읽히우고 그것을 끌고 용해장으로 달려간다. 삼돌이는 으쓱대며 용해공아저씨들이 보란듯이 기계사람의 앞가슴에 붙은 《작업》단추들을 누른다. 그러자 기계사람은 솜씨있게 용해작업을 해제낀다. 그러던중 갑자기 로상태가 나빠지며 쇠물이 사방으로 휘뿌려지기 시작한다.

삼돌이는 그런것쯤은 기계사람이 손쉽게 처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기계사람은 굳어진듯 멍청히 서있기만한다. 용해로가 터져나갈듯이 웅웅거리지만 기계사람은 눈만 껌벅이며 《야, 이거 야단났구나, 책에 이런것을 막는 방법은 씌여있지 않으니…》 하고 헤덤비는것이였다.

위험은 용해공아저씨들의 지혜로 가시여지게 되였고 삼돌이는 기계사람을 차버리며 《등신같은것… 너같은걸 크게 믿었던 내가 바보이지…》 하고 말하면서 자신을 두고 총화하게 된다. 그의 잘못된 생각은 로장아저씨와 공학박사인 아버지의 충고에서 더욱 명백해지게 된다.

이 과학환상동화의 줄거리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핵은 아무리 신기한 자동기계라고 하여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수 없다는것이다.

바로 이 종자에는 옳은것, 그른것에 대한 생활적진리가 쉽고 명백하게 요약되였다. 즉 최근 서구라파과학환상동화문학에서 우심

하게 나타나고있는 인간무능, 사람이 발전된 자동기계들인 지능로보트나 개발중에 있는 지성로보트보다 못하다는것은 매우 그릇된 일이며 제아무리 발전된 자동기계라고 해도 인간의 지능을 절대로 초월할수 없다는 진리가 체현되여있다.

과학동화 《탄소의 자랑》은 화학원소들의 세계에 의인화수법을 도입하여 비교적 재치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종자를 해명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산소는 까맣고 보기 싫은 탄소를 밉게만 생각하며 깔본다.

어느날 산소는 땅밑에 석탄의 형태로 묻혀있던 탄소와 몇억년만에 만나 한 공장에 들어간다. 그들은 아궁에서 불붙는것을 도와준다. 그때 산소는 탄소와 결합되여 탄산가스로 된다.

로동자들의 일을 도와주었건만 사람들은 탄소와 결합된 산소를 더러운 공기, 유해가스(탄산가스)라고 하며 쫓아낸다.

여기서 기분이 몹시 상한 산소는 탄소를 멸시하며 함께 다니지 않겠다고, 사람들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푸념을 한다. 탄소는 산소에게 외형이 곱고 맑아서만 유익한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서 보람을 찾을줄 알아야 하고 바로 거기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타이른다.

하지만 산소는 뾰로통해서 그렇게 늘쌍 얼굴이 시꺼먼 탄소에게서 무슨 아름다움을 찾아볼수 있는가고 모욕한다.

탄산가스로 되여 옥신각신하던 산소와 탄소는 다시 식물의 잎사귀에 빨려들어가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결합되고, 분리되고, 헤여지고, 만나고 하는 과정에 산소는 탄소의 고유한 성질,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려 하며 그것으로써 자기의 보람을 느끼는 정신을 배우게 된다. 그럴수록 얼굴은 물론 온 몸이 새까매서 보기 흉하던 탄소가 아름답고 돋보이는것이였다. 산소는 제 잘못을 깨닫고 니트론을 만들기 위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를 잡는데 자기가 필요하다는것을 알고 어려운 전투장으로 솔선 달려간다.

이 과학동화는 사회와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존재가치와 삶의 보람이 결정된다는것을 작품의 기본핵

으로 하고있다.

이 종자에는 고운것과 미운것에 대한 생활적진리가 쉽고도 명백하게 집약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이 종자에는 외형이 깨끗하고 곱다고 해도 사회와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줄 모르면 그것은 미운것이며 비록 외형은 보잘것없고 지어 흉하게 생겼어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되였을 때 그것이야말로 고운것으로 된다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이 담겨져있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종자는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본질적내용이 생활적으로 쉽고 명백하게 집약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종자에 의하여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에 대한 내용이 형상의 꽃으로 풍만하고 아름답게 피여날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또한 의인화할수 있는 요소, 동화적환상의 요소와 과학적환상의 요소를 다같이 띠고있는것이여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동화적환상과 과학적환상은 어린이들에게 생활의 본질을 똑똑히 리해시키며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계급적으로 파악시키고 주체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데 기본목적을 두어야 하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생활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환상, 진실치 못한 의인화는 형상의 진실성을 파괴할뿐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교양에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비록 과학환상동화의 종자가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에 대한 본질적내용을 담고있는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동화적환상과 과학적환상 그리고 의인화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에는 반드시 의인화할수 있는 요소, 동화적환상의 요소와 함께 과학적환상의 요소가 들어있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 《태양도시를 꾸리는 박사기계들》에서 최신과학의 요새는 깊은 지식과 다방면적인 기술을 요구한다는 종자는 의인

화할수 있는 요소,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을 펼칠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있다.

이 종자에 의하여 꾸준하고 진지하며 완강한 탐구력을 요구하는 수학이나 물리학보다 화려하고 가벼운 화학을 전공하는 자동로보트와 백번 계산하고 천번 재보고서야 결심을 내리며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서서 발명과 발견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해주는 물리수학박사기계—자동로보트가 의인화되였으며 거기로부터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이 펼쳐지게 되였다. 작품에서 의인화된 수학, 물리학, 화학 자동로보트-박사기계들이 도시의 새로운 열원천을 개발하기 위해 탐구하는 이야기며 고갈되여가는 도시의 열문제를 태양에네르기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출로를 찾고 새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안을 내놓는 물리수학박사기계의 이야기 등은 모두 과학적환상에 토대하고있다.

그리고 물리수학박사기계나 전기박사기계의 말을 듣지 않고 제혼자 모험적인 원자에네르기 특수시험을 하다가 폭발사고를 일으켜온 도시에 재난을 들씌우는 이야기, 《도시운영조종대》의 경보신호에 따라 달려간 물리수학박사가 재치있는 솜씨로 원상회복하는 신비로운 이야기 등 풍만한 동화적환상이 펼쳐지게 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의인화할수 있고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의 나래를 펼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종자에 의하여 의인화된 인물들을 옳게 설정하여 형상할수 있고 과학적환상에 기초한 동화적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의 특성에 맞는 좋은 종자를 골라잡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연구과정을 통해서만 과학환상동화작가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수 있으며 보다 복잡하고 다양할 미래의 생활에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정확히 갈라낼뿐아니라 그것

을 분석할줄 아는 당적안목을 키울수 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동화 《과학궁전을 찾아간 차돌이》의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 현시기 청소년교양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가 개인리기주의를 짓부시고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되였다.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을 조직과 집단속에서 더욱 빛내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가르치심에 담긴 심오한 뜻을 가슴깊이 아로새기게 된 작가는 학생소년궁전 과학연구소조와 학교들에 나가서 체험한 생동한 생활사실들에 기초하여 집단속에서 재능이 두드러지고 집단속에서 개성이 발현된다는 종자를 발견하게 되였던것이다.

작가는 이 종자를 과학환상동화적인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어느 한 학교의 바다연구소조원인 차돌이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그가 비상한 재능을 가졌지만 혼자 힘으로는 뽐프식 고기잡는 기계를 절대로 만들수 없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동화적인 형상을 꽃피울수 있는 좋은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작가들이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생활, 특히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고 만들어보려는 그들의 소박한 탐구생활을 풍부하게 체험해야 한다.

아이들의 다양한 생활, 그것은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과학환상동화작가의 생활체험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과학환상동화자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인것만큼 그들속에 있는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에서 종자를 찾아야만 아이들에게 가까운 작품을 창작할수 있기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느라면 그 과정에 의의있는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를 수많이 발견해낼

수 있을것이다.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의 창작과정은 그 실례로 된다.

현실속에 들어가 아이들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작가는 그들속에서 나타나는 《그른것》을 찾아보게 되였다.

공부를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게 공부하는 학생들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하겠는가, 노력은 적게 들이고 학기마다 최우등성적증을 가질수 없겠는가고 헛꿈을 꾸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놀음놀이에 빠져 시간을 다 보내고나서 급해맞아 남의 숙제장을 빌려다가 베끼기도 하였고 조직에서 맡겨준 솜씨전람회에 내놓을 실험기구도 남의 힘을 빌려 공짜로 만들어왔다. 특히 요즘 수자조종자동놀이감인 《게모》를 비롯하여 만능전자수산기, 자동로보트들이 청소년학생들에게 많이 차례져 리용되고있는 조건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대신 그 자동기에 의거하여 속셈도 잘하지 않고 계산훈련도 게을리하는것이였다.

작가는 그들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숙제공부도 얼렁뚱땅 해치우고 계산능력도 착실히 키우지 않으면서 전자수산기나 외국어번역용로보트에 의거하는 낡은 사상이 점점 자라면 훌륭한 과학기술자가 될수 없다는것을 청소년학생들에게 꼭 인식시켜야겠다는 충동을 받게 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아무리 신기한 자동기계라고 하여도 사람의 지혜를 따를수 없다는 종자, 제 머리로 사고하고 계산할 대신 전자수산기로 계산해치우고 로보트로 외국문을 번역하는데 습관되면 나중에는 자동기계가 사람보다 낫다는 엉터리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종자를 무르익힐수 있었다.

이처럼 작가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환상동화로 될수 있는 종자를 찾아내게 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을 창작할수 있었다.

과학환상동화의 특성에 맞는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생활뿐아니라 어른들의 과학기술생활을 비롯한 여러 생활을 깊이 연구체험하여야 한다.

어른들의 생활, 그들의 과학기술탐구사업, 이러저러한 생활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꼭 이야기해주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짓부시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벅찬 투쟁을 그린 작품도 많이 쓰게 된다. 그런데 아동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아동과학환상문학형태에서는 이러한 어른들의 생활을 그리는데서 일련의 제한을 받게 된다.

아동과학환상소설인 경우에는 어차피 아이들과의 관계속에서 어른들의 생활을 그리게 되기때문에 생활을 정면에서 묘사하지 못한다.

다른 아동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학환상동화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과학환상동화는 생활을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의인화의 수법으로 그리며 확대와 과장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아이들이 미처 리해할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도 얼마든지 화폭적으로 재현할수 있다.

과학동화 《치료부대의 뉘우침》의 창작과정은 어른들의 생활도 깊이 연구하기만 하면 아이들을 위한 과학 및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종자를 얼마든지 찾아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인민반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위생문화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투쟁모습을 수많이 목격하게 되였다.

작가는 아이들에게 공부밖에 모르는 글뒤주가 아니라 인민반과 동 위생문화사업을 통하여 제고장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적지 않은 생활자료들을 쥐게 되였다.

작가는 병나서 울지 말고 웃으면서 예방하자는 우리 당의 치료예방정책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과학동화적형상으로 꽃피울수 있는 종자, 병을 따라가며 치료하는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병을 미리 막는데 힘을 돌려야 한다는 의의있는 종자를 쥐게 되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른들의 생활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깊이 연구하기만 하면 아이들을 위한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종자를 얼마든지 찾아쥘수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또한 몰라보게 발전하는 우리 나라 과

학기술의 현실태를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는 과정에도 잡아쥘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지도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이 땅에는 《자동화의 왕국》, 《과학기술의 왕국》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단추만 누르면 수만대의 집채같은 대형기계들이 저절로 돌아가며 갖가지 아름다운 천들을 펄펄이 늘여가고 석탄폭포, 쇠돌폭포가 쏟아진다.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록색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농장벌마다에는 황금파도가 출렁이고 어장들에는 풍어기가 나붓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뜨겁게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도 작가들은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를 잡을수 있다.

과학환상동화 《똘똘이박사의 희망과 사업》 (석윤기, 《아동문학》 1960년 5월호)은 기계전시회장에서 자동로보트들의 작업과정을 직접 보고 그 연구기관에 나가 취재하는 과정에 발견된 종자에 의하여 창작되였으며 과학환상동화 《웅이와 〈기계사람〉》은 기계공학자인 작가 김동섭이 로보트를 직접 연구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에게 최신과학기술성과의 하나인 만능자동기계-로보트에 대하여 알려주고싶은 충동으로 생활을 탐구하는 과정에 발견된 종자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를 옳게 골라잡기 위해서는 작가가 여러가지 생활속에 깊이 침투할뿐아니라 생활을 동화적으로, 과학환상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작가는 아동과학환상소설이나 과학환상아동시, 과학환상아동극문학 작가들과는 달리 생활을 있는그대로가 아니라 과학환상적인 각도에서 보아야 하며 동화적인 머리로 사색해야 한다.

그래야 생활속에서 과학환상동화적인 요소를 발견할수 있으며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다.

과학환상동화 《과학궁전을 찾아간 차돌이》의 종자탐구과정은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차돌이는 바다연구소조원모두가 다 함께 희한한 만능고기잡이배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으면 성과가 덜 날것만 같아 혼자서 그것을 만들려고 과학궁전을 찾아온다. 여기서 방법론을 알아다가 슬쩍 혼자 만들어보자는 심산이였다.

그는 모든것이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된 소년과학궁전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리둥절해진다.

이런 경우 아동과학환상소설가라면 부닥친 생활을 어느 한 대목에서만 써먹기 위하여 소년과학궁전의 생김새며 이곳에서 일하는 만능자동로보트들의 모습, 그들의 놀라운 작업과 쏟아지는 생산품들을 눈여겨볼것이다.

하지만 이 과학환상동화작가는 생활을 그런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로보트들이 눈깜짝할 사이에 화학섬유《홍남 100호》용액을 리용하여 분무식뿌리개로 옷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과 한 나무에 추리, 살구 등 여러가지 과일이 주렁지도록 새로운 육종법과 재배기술을《연구》하며 코끼리보다 더 큰 돼지와 게사니의 세곱은 더될 닭들을 키워내고있는 만능자동로보트들의 환상적인 모습까지도 그려보았다. 이뿐아니라 자동로보트들이 놀라운 고급기능과 기술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지시,《프로그람테프》에 찍혀진 지령대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두고 이 작가는 아무리 발전된 자동기계라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들은 집체적힘을 모으면 그 어떤 현대적인 기계나 발명품들도 내놓을수 있다는데로부터 과학환상동화《과학궁전을 찾아간 차돌이》의 종자를 발견하게 되였다. 즉 아무리 발전된 6세대만능전자계산기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두뇌를 초월할수 없다는 종자를 쥐고 이 작품을 쓰게 되였다.

현대과학기술은 복잡다단하고 세밀하다.

한두사람의 지혜와 재능만으로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룩하기 힘들다.

생물공학적인 발견을 하려고 해도 생물학자의 힘만으로는 안되

며 전자계산기전문가와 모형공학자, 의학전문가, 기사, 실험수들의 힘을 합쳐야 빨리 더 훌륭하게 발명품을 내놓을수 있다.

과학환상동화 《과학궁전을 찾아간 차돌이》의 작가는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 생활의 진리를 깊이 체험한데 기초하여 과학환상적인 각도에서 동화적인 머리로 사색하여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되였다.

과학환상동화를 쓰는 작가들은 이처럼 생활연구방식에서 독특해야 하며 과학기술생활을 동화적으로 보고 과학환상적인 머리로 사색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특성에 맞는 종자를 골라쥐기 위해서는 또한 생활체험을 기계나 기구, 자동화요소들, 동식물 등 의인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에 대한 관찰과도 결합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작가는 과학환상동화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의인화할수 있는 요소, 환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요소를 띤 종자를 골라쥐자면 과학기술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 및 사회현상을 동화적으로 보고 동화적으로 사색할뿐아니라 반드시 기계 및 기구, 자동화요소들, 동식물이나 그밖에 의인화대상으로 될수 있는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따라세워야 한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의인화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의 이러저러한 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 이미 체험한 생활의 본질과 류사한 측면이 발견되면서 종자가 떠오르기도 하기때문이다.

한 작가는 화학원소들을 의인화할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개개 원소들의 원자와 분자상태를 연구하는 과정에 산소는 맑고 깨끗한 겉모양을 가지고있지만 탄소는 일반적으로 석탄의 형태로 거멓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척 보기에는 어지럽고 손을 대고싶지 않은 탄소이지만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것으로 하여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원소의 하나이라는 점에 생각이 집중된 작가의 머리속에는 인간생활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적지 않다는 점에 력점을 찍게 되였다. 이 과정에 지난시기 체험했던 생활의 본질이 재인식되면서 원소들을 의인화하여 그것을 형상할 결심을 가지였으

며 결국 《숨은 공로가 진짜》라는 과학동화의 종자를 골라쥐게 되였다.

과학동화나 과학환상동화의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더 있을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작품의 종자를 옳게 설정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인식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과학환상동화를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제2절 과학환상동화에서 인물설정과 그 인간관계조직

과학탐구생활속에서 골라잡은 환상적이며 특색있는 종자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종자가 요구하는대로 과학환상동화적인 인물들을 잘 설정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적인 인물들을 종자의 요구대로 잘 설정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종자의 요구에 비추어 필요한 인물들을 먼저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가령 작가가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를 래일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을 아껴야 한다는것으로 골라잡았다고 하자.

이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놀음놀이에 빠져 시간가는줄을 모르며 오늘 숙제를 못하면 래일에 하자는 인물이 필요할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분과 초를 아껴 열심히 공부하며 45분 공부는 그 시간에, 오늘의 숙제는 오늘 당장에 하고야마는 인물이 필요할것이다.

과학환상동화작가는 종자의 요구에 맞는 인물들을 잘 설정함으로써만 자기가 골라쥔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종자를 활짝 꽃피울수 있게 된다.

아무리 종자를 잘 골라잡았다고 하더라도 인물들을 잘 설정하

지 못한다면 우량종자에서 싹은 텄으나 가지를 뻗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꽃나무같아서 탐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의 꽃을 기대할수 없게 된다.

과학환상동화적인 인물들을 종자의 요구대로 잘 설정하려면 또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들들을 어떤 기계들이나 기구 및 자동화요소 등 사물현상에 체현시켜서 형상할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 의인화대상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의인화수법은 이 단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리용된다.

과학환상동화의 작가는 기계나 기타 여러가지 과학기술적현상들의 자연생태적특성과 기구 및 기계학적특성을 잘 살펴보면서 가장 적중한 대상을 골라잡아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일반동화의 의인화대상을 고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 기계들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물현상의 유용성을 옳게 살리는것, 미학적표상을 잘 살리는것 등이 다 해당되지만 그중에서도 의인화의 대상을 고르는데서 류사성을 극복하고 그 폭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인화대상의 폭을 넓히는것은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류사성을 극복하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며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계에 대한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의인화대상을 넓힌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과학환상동화》에서처럼 막연한 《우주사람》이나 《우주동식물》 등 현실생활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들을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흥미본위로 마구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작가들은 현실에 발붙인 의인화대상을 탐구선정하며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것들을 리용하여 과학환상동화가 어린이들의 인식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드록 하여야 한다. 의인화대상은 매 년령기별 어린이들의 생활에 가까운것, 그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능히 리해할수 있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의인화대상의 폭을 넓힌다고 하여 해당 년령기의 독자들과 거

리가 너무 먼 낯선 대상들을 무턱대고 선정해도 안되지만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게 해도 안된다.

의인화대상을 일반동화에서처럼 곰, 산토끼, 너구리, 민들레씨, 답싸리 등에서만 찾을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원자핵, 전자와 분자, 반도체소자들과 소립자들, 자동기계들까지도 적극 동원리용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작가는 또한 원자와 분자, 전자와 핵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의 유용성을 옳게 살릴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하여 그것들이 인간생활에서 노는 역할과 쓸모 등을 잘 살려야 한다.

과학환상동화 《태양도시를 꾸리는 박사기계들》에는 사람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태양열의 종합적리용을 위한 계산과 설계를 완성하는 물리수학박사기계인 자동로보트의 유용성, 지질학적조건과 원유 및 가스의 매장상태를 정확히 탐사하여 알려주는 지질박사기계—지질탐사용로보트의 유용성 등에 의하여 인물들이 설정되여있다.

의인화대상을 고르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계들과 기구, 자동화요소 등 사물현상의 자연생태적특성을 잘 살펴보면서 가장 적중한 대상을 골라잡는것이다.

과학동화 《치료부대의 뉘우침》에서 작가는 병을 따라가며 치료하는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미리 막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 종자를 체현하고있는 인물을 위생선전책, 비자루, 삽, 먼지털이를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형상하였다.

그것은 병을 미리 막는데는 위생선전책, 비자루, 삽, 먼지털이의 생태적특성이 가장 적중하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병을 미리 막자면 먼저 위생선전을 잘해야 하고 다음은 털고 쓸고 닦아 언제나 주위환경을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작가는 또한 병을 따라가며 치료하는 인물로 주사기, 감기약을 의인화하여 형상하였으며 병균이 어디 숨어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내는 《정찰병》으로 청진기를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형상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동화적인 인물들의 자연생태적특성을 잘 살려 적중한 대상을 골라잡음으로써만 작품의 종자를 참신하게 꽃피울수 있다.

의인화의 대상을 고르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미학적표상을 잘 살리는 문제이다.

일반 동화작품들에서는 동식물이나 그밖의 사물현상을 사람들이 아름다운것으로 보는가, 미운것으로 보는가 하는 미학적감정에 따라 구렝이나 여우, 승냥이, 옴두꺼비, 파리 등은 부정인물로, 인간생활에 리로운 동물들인 제비, 황소, 고양이, 비둘기 등은 긍정인물로 선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일반동화에서처럼 그 구별이 선명하지 않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주로 기계, 기구, 책, 원자, 전자와 창조물들을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인물들을 형상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추악하고 미운것이란 하나도 없다. 따라서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작품의 종자에 따라 인물의 미학적표상을 정확히 잡고 형상해야 한다. 작가가 자연생태적특성과 유용성, 미학적표상 등 여러가지 측면 가운데서 어느 측면을 살리는가에 따라 긍부정인물로 갈라지게 되므로 과학환상동화작품창작에서는 미학적표상을 잘 살리는것으로써 의인화의 대상을 고르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학환상동화작품창작에서 인물설정을 잘하는것과 함께 인물을 구체적으로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으로 개성화하여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인간을 구체적으로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으로 개성화하여 그리는것은 과학환상동화에서도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산 인간을 그려내지 못한 과학환상동화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없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자기의 형태적특성으로 하여 인물을 형상하는데서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묘사보다도 설화체가 기본서술방식으로 되여있고 많은 경우 전자나 원자 또는 여러가지 자동로보트나 최신 기계, 기구들을 의인화하여 작중인물로 내세워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 수법과 방법의 특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일부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성격을 개성화하는 작업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사람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는 과학환상동화인 경우 흔히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과학창작품을 제힘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마는가에 따라 좋은 학생, 나쁜 학생으로 구분하거나 화학원소나 기계, 그 생태적특성을 위주로 하여 마음씨 고운 산소와 수소, 흉악한 탄소와 검은 구름, 우둔한 함마와 망치, 꾀많은 전자수산기 등으로 성격을 확정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과학환상동화들에서 전자자동화기구, 최신과학기술수단, 화학원소나 분자식들의 생태적특성을 리용하는것은 매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에 토대함으로써 성격을 개성화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지만 그것만을 절대화할수 없다.

문제는 생태적특성에 어울리면서 종자, 주제의 요구에 따르는 문학적성격으로 창조하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 《똘똘이박사의 희망과 사업》에서 똘똘이박사와 로보트, 과학환상동화 《태양도시를 꾸린 박사기계들》에서 물리박사로보트, 수학박사로보트 그리고 과학동화들인 《탄소의 자랑》과 《치료부대의 뉘우침》에서 탄소와 산소, 비자루, 주사기, 파리채 등은 이름만 들어도 그 모습과 성격이 인차 떠오른다.

과학환상동화의 인물을 생태적특성에 어울리면서 종자, 주제의 요구에 따르는 문학적성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조의 수법을 쓰는것이 중요하다.

성격창조에서 대조의 수법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적면모를 대조적으로 확대과장하면서 인물의 특징을 살리고 개성화를 실현하는 수법이다.

과학환상동화는 과학환상소설에서처럼 형상과정에서 묘사를 실현하지 못하고 사건과 이야기를 설화형식으로 전달하는것만큼 인물의 모습을 생김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림그리듯 보여줄수는 없다. 더우기 최신과학기술수단이나 비날론, 나일론, 벤졸, 아류산나트륨 등 분자화학식이 복잡한 등장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는 없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해당 인물의 성격에서 주되는 특징에 모를 박고 그것을 확대과장하면서 개성화한다.

이에 있어서 성격이 상반되는 두 인물을 대조시켜놓게 되면 매 인물의 주되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인상적으로 안겨오게 된다.

과학환상동화문학창작에서 대조의 수법을 잘 리용하게 되면 이야기를 명백하고 뚜렷하게 꾸리는데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과학동화 《탄소의 자랑》에서 탄소와 산소는 새까맣고 맑다는 외모와 냄새에서부터 특이한 대조를 이루고있으며 과학환상동화 《웅이와 〈기계사람〉》에서 웅이와 자동로보트는 생존방식의 본질적 차이로 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인물들을 대조시켜놓는데만 그치지 않고 매 인물들의 특징을 확대과장하면서 대조의 농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과학환상동화 《태양도시를 꾸린 박사기계들》만 놓고보더라도 처음에는 각이한 박사기계들의 생김새에 의해서만 서로 대조되였으나 사건의 발전과 함께 차츰 행동과 성격의 대조로 확대되면서 심화되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현란하고 황홀한 재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화학박사기계에 비하면 보잘것 없이 생각되던 물리수학박사기계가 원자가마의 폭발사고를 과학적으로 막아내는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되며 화학박사기계한테서는 무슨 일이든 제 혼자 다 할수 있는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원자가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고 늘쌍 깔보던 물리수학박사기계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가련한 몰골을 찾아보게 된다.

과학환상동화작품에서는 또한 긍정인물들을 될수록 친근하고 아름답게 그려야 어린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등장인물을 친근하고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적미를 두드러지게 부각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 인민들의 과학탐구에 대한 신념과 의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한껏 꾸리기 위한 깊은 정서와 감정, 과학기술전통을 살려 더 높이 오르려는 지향과 념원이 드러나는 민족생활의 정황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매개 민족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지리적환경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자기 민족에게만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 취미, 지향,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과학환상동화와 우주세계를 주로 취급하면서 알쏭달쏭한 환상을 마구 펼쳐놓는 서구라파의 과학환상동화문학이 사람들에게 주는 미학정서적감흥이 서로 같지 않은것은 민족생활이 다르고 또한 감정과 정서, 취미와 기호, 특히는 계급적처지와 사상이 다르기때문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와 첨성대를 만들었으며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에 대한 탐구와 륜리도덕을 더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풍습을 간직하여왔다.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는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와 용감성, 로동에 대한 근면성,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다.

우리의 과학환상동화작품에서는 이러한 성격적기질들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품의 긍정인물들을 우리 인민에게 고유한 정서와 감정을 체현한 과학환상동화적성격으로 훌륭히 형상해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개성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설정한 다음에는 인물들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주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인물들은 제가끔 고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있다. 때문에 인물들을 설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사이의 호상관계를 잘 맺어주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기본으로 되는 이야기란 본질상 과학환상속에 있는 동화적인물들의 흥미있는 생활을 말하는것인데 그것은 바

로 인물관계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인물관계를 맺어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설정된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종자의 실현에 가장 알맞게 맺어주는것이다. 그래야 종자가 요구하는 이야기가 스스로 흘러나오게 된다.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에서 작가는 종자의 요구에 따라 두가지 계렬의 인물들을 설정하였다. 그 하나는 노력하기를 싫어하고 남의 등에 업혀 쉽게 살려는 동생 삼돌이와 같은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이돌이와 같이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제힘과 지혜로 훌륭한 기계를 발명하려는 인물이다.

작가는 두가지 계렬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들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어야 했다.

우선 주인공을 어느 인물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작품의 종자는 노력을 싫어하고 남의 등에 업혀 살려고 해서는 큰 발명을 할수 없으므로 제힘을 믿고 끝까지 내밀어야 한다는 문제를 강조할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주인공은 자동기계의 등에 업혀 살려다가 실패하는 인물, 그리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힘으로 꿋꿋이 살아나가려는 부정인물이 주인공으로 되여야 했다.

그리하여 작가는 동생 삼돌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

이제는 삼돌이를 중심에 놓고 그와 형인 이돌이간에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 남았다.

두 인물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맺어준다면 긍정인물인 형이 삼돌이가 다니는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매번 잔소리나 하고 비판을 주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품이 따분하고 도식적일뿐아니라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수도 없기때문에 작가는 삼돌이와 이돌이 사이에 기계사람을 놓고 그것과 삼돌이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처음 작가는 이 모든 인물들과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맺어주려고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머물렀다. 단 한번이라면 몰라도 삼돌이가 여러번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돌이가 거둔 성과를 직접 목격하게 되므로 그는 스스로도 결함을 뉘우치게

될것이였다.

작가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두 계렬의 인물들을 설정하고 특별한 갈등이 없이 해학적인 관계로 인물들간의 관계를 맺어주면 종자의 요구를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이처럼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인물관계는 종자가 요구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가장 효과적인 형식을 취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인물관계를 맺어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또한 과학환상아동소설에서보다 아주 단순하게 설정해야 한다는것이다.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행동성이 강한것이다. 이것은 사고를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의 지속성이 부족한데로부터 표현되는 심리적현상이다.

이 특성으로부터 과학환상동화작품들은 지루한 설명이나 장황하고 복잡한 이야기보다 단순하고 명백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동화 《똘똘이박사의 희망과 사업》은 생신한 과학환상과 흥미있는 이야기로 어린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있지만 지루한 설명과 대화로 거둘수 있는 성과를 더 거두지 못하였다.

이 작품은 전반적인 이야기와 인물초상이 지나치게 세밀하며 장황하다. 더우기 전반부분에서 《박사》와 이뿐이와의 지루한 대화, 소설적인 정황묘사는 과학환상동화로서 갖추어야 할 간결성과 함축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과학환상동화라기보다 과학환상아동소설에 더 가깝게 되여있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지루한 설명이나 장황한 이야기가 금물이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가 작품의 첫 대목에서부터 설정되지 않을수 있으며 한번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중도에서 없어질수도 있다.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에 놓고 다른 인물들은 주인공의 행동선이 전개되여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대목에서만 등장시켜 관계를 맺게 한다. 그리하여 어떤 인물들은 작품의 첫머리에만 등장할수도 있으며 어떤 인물들은 마감에만 나타날수도 있다.

과학환상동화의 인물관계를 맺어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

으로 의인화된 기계, 기구 및 자동화요소 등 사물현상의 자연생태적특성에 맞게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맺어주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에는 환상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생활적인 타당성도 없이 사람과 사람이 아닌 대상이 서로 말을 주고받게 하거나 걸어다닐수 없는 식물이 마음대로 걸어다니면서 다른 인물들과 관계를 맺게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예술적형상이 이루어질수 없다.

과학환상동화 《웅이와 〈기계사람〉》에서는 웅이와 《기계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웅이의 지시에 따라 축구장에서 멋진 슛을 여러번 함으로써 관중들의 절찬을 받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사람인 웅이와 자동로보트인 《기계사람》과의 대화는 생활적인 타당성을 깔아주어 무리없이 진행된다.

웅이는 자동로보트에 자기와 의사를 통하게 할수 있는 《언어》—프로그람을 넣어줌으로써 자유롭게 대화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를 주지 않고 웅이와 《기계사람》이 말하게 하거나 또 바다생물자원에 대하여 쓴 어떤 과학환상동화초고에서처럼 주인공소년이 잠수함과도 말하고 물고기들과도 롱을 걸게 한다면 작품의 진실성을 잃게 되고 어린 독자들의 인식교양에 지장을 주게 될것이다.

과학환상동화작품에서는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이 잘 량립되여 활용되여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과학환상과 동화적환상을 무질서하게 뒤섞어놓으면 과학환상동화작품으로서는 물론 일반동화작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기계, 기구 및 자동화요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물현상의 자연생태적특성에 맞게 인물관계를 잘 맺어주면서 과학환상과 동화적환상을 잘 량립시켜나갈 때 훌륭한 동화적형상이 창조될수 있는것이다.

제3절 과학환상이야기를 동화적으로 잘 엮어야 한다

과학탐구생활속에서 골라잡은 환상적이며 특색있는 종자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잘 엮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야기줄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발전하여야 하며 극적긴장성을 띠고있어야 한다.》(《영화예술론》, 76~77페지)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는 이야기를 잘 엮는것이 중요하다. 과학환상동화의 종자는 바로 이야기를 통하여 실현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형상의 모든 요소들은 이야기를 잘 꾸며내는데 복종된다.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환상동화작품에 그려지는 이야기는 단순하고 선명한 이야기이며 변화무쌍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과학환상동화의 이야기를 꾸미는데서 나서는 창작실천상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의인화된 대상의 본래의 특성을 잘 살려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나가는것이다.

어떤 동식물이나 기계요소, 원자 및 전자 등 사물현상을 의인화한다는것은 그것이 가지고있던 본래의 특성만을 넘겨받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학환상동화의 형상세계는 인간세계와 자연그대로의 동식물, 기계 및 기구요소 기타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의 이야기는 의인화된 대상이 본래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재미있게 엮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기계, 기구 및 자동화요소 등 여러가지 사물현상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동화 《웅이와 〈기계사람〉》에서 《기계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만능전자계산기로보트의 특성을 살려 꾸며진것이다. 만능전자계산기는 눈깜짝할 사이에 수천수만개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며 자연현상과 조건들을 타산하여 예측하는 능력도 가지고있다. 때문에 전자계산기로보트인 《기계사람》은 축구장에서 뽈의 운동방향과 속도, 선수들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여 통쾌한 슛을 멋지게 하는것이다.

이렇게 의인화된 전자계산기의 본래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엮었기때문에 재미가 있을뿐아니라 어린 독자들이 작품을 통하여 전자계산기의 특성과 그 능력까지도 가늠할수 있게 해준다.

과학환상동화의 이야기를 꾸미는데서 나서는 창작실천상 문제는 다음으로 환상과 과장의 수법을 리용하여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나가는것이다.

환상과 과장의 수법은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필수적이다.

기계와 기구, 자동화요소들을 의인화한다는것자체가 환상과 과장을 요구한다.

과학환상과 과장이 없이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면 그것은 사실상 과학환상동화가 아니다.

과학환상과 동화적환상의 수법으로 이야기를 엮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환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과학적환상은 과학적가설에 기초한것으로써 앞으로 실현될수 있거나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인 상상, 근거있는 환상이다.

동화적환상도 본질에 있어서 객관적현실과 사람들의 념원이 예술적으로 특이하게 반영된것이므로 환상의 기초에는 언제나 현실생활이 놓여있다.

과학적환상이나 동화적환상의 밑바탕에는 현실생활이 깔려있는데로부터 이 두 문제는 량립할수 있으며 서로 보충하고 승화시켜

과학환상동화작품을 형상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우리의 주체적과학환상동화문학에서의 환상은 공산주의적리상에 기초한 과학적인 환상이며 혁명실천과 결부된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환상이다.

물론 과학환상동화에는 가상적인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환상은 생활의 본질을 담은것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적환상의 수법으로 이야기를 엮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환상을 가장 효과적인 대목에서 인상적으로 펼쳐주는것이다.

작품에서 과학적환상은 절대로 람용되여서는 안되며 동화적환상은 동화적인 정황자체가 그것을 요구할 때 인상적으로 주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과학적환상은 동화적환상의 예술적높이에까지 승화되여야 하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사건을 더 전진시킬수 없게 되였을 때 어린 독자들이 주인공의 운명을 두고 한껏 긴장되여있는 절박한 정황에서 동화적환상과 잘 배합되여 주어져야 한다.

환상의 수법으로 이야기를 엮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학적환상을 잘 마련해주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을 준다고 하여 아무러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엉뚱한 환상을 꾸밀수는 없다.

과학적환상은 반드시 이미 마련된 일정한 계기와 조건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펼쳐져야 한다.

과학환상동화 《태양도시를 꾸리는 박사기계들》에서 원자가마실험을 하던 화학박사기계가 핵연료의 새끼치기반응을 잘 조절하지 못해 폭발사고를 일으킨다.

도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시각 물리수학박사가 달려들어와 벽에 붙은 비상단추를 누른다.

그러자 벽홈에 들어갔던 쌍신포아가리가 툭 튀여나오며 새하얀 빛줄기를 실험중에 있던 원자가마실에 뿜어댄다. 그 합성빛막에 둘러싸인 원자가마실은 불길이 더 번져나가지 못하며 폭발도 일어나

지 않는다.

이 과학적환상은 작가가 미리 마련된 조건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펼쳐지고있다. 이 환상을 위하여 작가는 작품의 앞에서 새끼치기반응을 조절하자면 중성자수를 세게 흡수하는 붕소나 카드미움철합금막대기를 써야 하며 폭발시에는 안전장치를 리용해야 한다는 물리수학박사기계의 조언을 과학토론회장을 통하여 그려내였다.

과학환상동화에서 과학적환상과 함께 과장의 수법도 이야기를 흥미있게 전진시켜나가는 효과적인 수법이다.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과장의 수법은 처음부터 마감까지 성격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쓰일수도 있고 사상주제적과제에 맞게 인물의 성격적특질을 밝히기 위하여 가장 절실히 필요한 어느 한 측면에서 사실, 사건이나 인물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쓰일수도 있다.

과장의 수법을 쓰는데서도 역시 중요한것은 진실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의 이야기를 꾸미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창작실천상 문제는 또한 이야기를 순조롭게 잘 엮어나가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에서 이야기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시간적순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소설에서는 때로 이야기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이야기가 전개되여가는 도중에 회상이 끼여들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다가 도중에 회상을 끌어들이거나 사건을 전도시키지 않는것이 좋다.

그것은 과학환상동화의 독자대상이 인민학교학생과 유치원 높은반 원아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어린이들은 년령층에 따라서 각이한 특성을 가지는것만큼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그 예술적특성이 달라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독자들은 보통 사고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감성적사유가 추상적사유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다가 도중에 회상을 끌어들이거나 사건을 전도시키면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들의

사고에 혼란을 조성할수 있게 된다.

그것은 과학환상아동소설이 묘사체문학이라면 과학환상동화는 설화체문학이라는데 기인된다.

과학환상아동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창조가 기본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물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하는 방법으로 씌여진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이야기가 전개되여가는 도중에 회상이 끼여들기도 하면서 형상체계와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이야기가 기본이므로 이야기를 구수하고 흥미있게 전달하는 방법, 순조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쓰면서 일반적으로 회상법과 사건전도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학환상동화는 이야기를 시간적순차대로 끌고나가야 한다.

과학환상이야기를 순조롭게 엮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전반부에서는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써나가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작품의 전반부에서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잘 설정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것을 해결짓게 쓰는것이 효과적이다.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데 따라 후반부의 이야기가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전반부에서 인물들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고 심화시켜나가는가, 그 관계속에서 어떤 사건이 빚어지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과정을 잘 형상해야만 후반부에서 그것이 원만히 풀려 하나의 맺힌 이야기로 되며 따라서 창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가 뚜렷이 표현되게 된다.

과학환상동화 《이돌이 형제와 기계사람》의 전반부는 용해장에서 로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것을 보고 그들을 대신해서 일할 자동기계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이야기, 아버지가 일하는 공학연구소에서 자동기계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직접 만나보는 이야기, 《기계사람》을 만나 탁구경기도 하며 그것에 현혹되는 이야기, 용해작업도 할수 있다는 그것의 《말》에 기뻐 어쩔줄 모르며 강철직장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작가는 후반부에서 무엇이나 거침없이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한 《기계사람》이 돌발적인 정황과 사건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멍청히 서있는것으로, 사람이 프로그람테프를 통하여 지령을 주지 않으면 갓난애기보다도 못하다는것으로 《기계사람》에 대한 환상을 깨고 주인공 삼돌이로 하여금 남의 힘을 바라지 말고 제 힘을 믿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형상하였다.

이리하여 과학환상동화는 앞뒤가 원만하게 맞물린 이야기로 되였다.

과학환상동화작품창작에서는 이렇게 전반부에 이야기를 많이 주고 후반부에 가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순조롭게 엮어나가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순조롭게 엮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첫시작을 잘 떼는 문제이다.

과학환상동화의 첫시작은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기 위한 환경이나 사건의 발단을 제시하며 어린 독자들의 주의를 처음부터 작품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첫시작을 떼는 방법은 구체적인 작품에 따라 그리고 과학환상동화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다.

그가운데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사건이 일어날수 있게 환경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 인물의 성격적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암시하는 방법,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는 방법, 인물관계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흥미있는 물음을 제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첫시작을 떼는 보다 효과적인 형식을 잘 탐구함으로써 작품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훌륭한 과학환상동화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첫시작을 잘 뗀 다음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순조로우면서도 흥미있게 끌고나가야 하며 끝을 여운있게 교훈적으로 잘 맺어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작가는 이밖에도 작품창작에서 여러가지 구성형식들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야 한다. 나이

가 어린 독자들에게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해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반복의 형식에 의한 이야기의 구성, 선한것, 옳은것, 고운것과 악한것, 그른것, 미운것과의 대비속에서 옳게 형상해낼수 있는 대비의 구성형식, 사람이 등장하는 과학환상동화작품들에서 많이 쓰이는 환상세계와 과거생활을 결합하는 구성형식, 인물들이 모여서 이야기판을 벌리는 구성형식, 두 인물의 행동선을 엇바꾸어나가면서 그리는 구성형식 등을 종자의 요구에 따라 적중히 선정하여 적용할 때라야만 품위있는 과학환상동화작품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제4절 환상동화적인 말을 잘 살려 써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언어구사를 잘하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이야기는 언어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렇기때문에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말을 잘 골라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환상동화문학의 언어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조형적이고 회화적이면서도 음악성이 풍부한 언어여야 한다. 그래야 소박하고 꾸밈없는 어린이들의 활달하고 자유분망한 생활감정을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눈에 보듯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릴수 있다. 작품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쉽고 형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면 어린이들에게 쉽게 리해될수 없으며 그들의 흥미를 자아낼수 없다.

어린이들을 위해 씌여지는 과학환상동화라고 하여 그것을 단순히 쉬운 말로만 쓴다고 생각하면서 헐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과학환상동화는 과학환상동화대로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어려운 탐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언어를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까다롭고 딱딱하며 숨결에 거슬리는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피하고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한 고유조선말을 널리 쓰는것이다.

고유조선말은 우리 어린이들이 늘 쓰는 말로서 그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고 그들의 사상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과학환상동화문학작품에서는 그들이 늘 쓰는 입말, 고유조선말을 기본으로 하면서 풍부한 언어 표현과 수법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써야 한다.

과학동화 《치료부대의 뉘우침》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어느 늦가을이였습니다.

병없는 농촌마을을 세우기 위하여 치료부대네 전투원들이 무기를 메고 달려왔습니다.

그중에는 정찰병인 청진기며 손아귀가 드센 집게 그리고 백발백중의 명사수인 주사기, 탄약공급수인 여러가지 약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촌을 병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두눈에 불심지를 켜달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목표 감기네패거리들 련발로 쐇!〉

그들의 대장인 치료는 청진기가 정찰해온데 따라 제때에 집중포화를 들이대군했지요.

그래서 이 위력한 무기로 농촌깊이 숨어들어 건강을 좀먹는 병을 여지없이 족쳐댔습니다.》

작품은 이처럼 딱딱한 말마디 하나 없이 부드럽고 구수하게 씌여졌다. 이 작품은 입말체의 고유어로 감칠맛이 나게 씌여졌으며 문장들도 어린이들의 호흡에 알맞게 되여있다.

과학환상동화는 이처럼 어린이들이 늘 쓰는 생활적인 말, 입말체의 말로 부드럽고 구수하게 씌여져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의 언어를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의 동심에 맞는 생동한 말을 쓰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여러가지 언어표현수법들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생동하게 엮을 때라야만 어린 독자

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과학환상동화 《이돌이형제와 기계사람》의 한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기계사람의 생김새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머리에 철로 된 두개의 안테나가 소뿔처럼 비죽이 돋아있고 얼굴에는 퉁방울같은 눈이 달려있었습니다. 앞가슴에는 여러가지 색의 크고작은 단추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 몸뚱이는 온통 합성수지로 되여있구요.》

여기에서 작가는 형용어와 모양을 본딴 말들을 잘 살려 쓰고있으며 비유법을 적절히 리용하고있다.

과학환상동화작품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생동한 말로 쓰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형용어를 잘 살려 써야 하며 《아작아작》, 《아르릉사르릉》, 《냠냠》과 같은 소리와 모양을 본딴 말들이 효과적으로 씌여지도록 문장조직을 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유법과 반복법 등 여러가지 언어표현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나가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언어를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 된 말, 환상적인 말을 잘 살려쓰는것이다.

과장된 말, 환상적인 말은 과장 및 환상의 수법이 많이 리용되는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필수적이다.

과장된 말, 환상적인 말을 잘 살려쓰지 못하면 과학환상동화작품의 종자가 아무리 생신하고 이야기가 흥미있게 엮어졌다고 해도 모래알이 섞인 흰쌀밥을 씹는격이 되고만다.

과학환상동화 《새 요술쟁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에는 달님, 얼음산, 해님, 안개산, 구름, 바람 등에 대한 과장된 말을 잘 살려 쓰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환상적인 말도 아기자기하고 흥미있게 쓸대신 전문교육기관에서나 배우는 정도의 복잡한 화학기술전문술어들을 무리하게 삽입하고있다.

《카바이드에서 아세틸렌을 얻고 석탄가스화에서 나오는 일산화

탄소와 암모니아를 서로 작용시켜 청산을 얻을수는 있지, 또 이 아세틸렌과 청산으로부터 니트론의 원료인 흰 가루(폴리아크릴로니트릴)도 얻을수 있고.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포함돼있는 연기를 잡아 디메틸프롬아미드를 얻어내야 하겠는데 연기를 잡아낼수 있는 그런 요술쟁이를 어디서 찾아낸담?》

과학환상동화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독자들도 리해하기 어려운 술어들을 교과서에서와 같이 늘어놓는다면 어린 독자들이 어떻게 리해하며 그런 작품을 읽겠다고 하겠는가?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어렵고 힘든 과학기술적문제들도 동화적으로 감수하고 표현할줄 알아야 하며 복잡한 수학공식과 유기화합물의 분자식도 어린 독자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동화적인 말, 환상적이며 과장된 말로 표현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동화 작가들은 또한 간결하고 시적인 말로 작품을 써야 하며 길게 늘어진 말, 씨가 먹지 않은 말을 배제하고 하나의 짧은 문장에도 많은 뜻이 담기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 나서는 실천상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문학작품창작일반이 그러하듯이 과학환상동화창작에서도 그 어떤 격식화된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창작과정과 형상수법은 구체적인 과학환상동화작품의 특성에 따라, 창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 작가들은 작품창작에 대한 일반적리해에 기초하여 창작실천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새로운것을 적극 찾아내여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훌륭한 과학환상동화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제5절 과학환상동화에서의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

환상은 과학환상동화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환상동화

에서 환상을 뺀다면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것이며 또한 과학환상동화에서의 환상이 꿈을 꾸듯 공상에 지나지 않을 때 어린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을 옳게 구현하며 그의 가능성을 백방으로 동원하는것은 과학환상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이 나래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이 두 문제를 잘 끌고나가야 한다.

동화적환상은 현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념원이나 소원, 욕망 등을 창작가의 상상력을 빌어 어린이들의 심리정서적특성에 맞게 그려낸 비실제적인 형상세계이며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창조된 현실생활에서 볼수 없는 가공된 형상세계이다. 이로부터 동화적환상은 사물과 형상의 이러저러한 본질을 직접적으로 그려보여주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상에 굴절시켜 다양한 특질과 본질을 가진 신기한 형상으로 재창조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동화적환상은 신기하고 매혹적인것이 특징적이다.

동화적환상이 매혹적이고 신기한것은 가공된 생활세계에서 현실보다 앞서나가는 새로운 생활세계를 기록적으로가 아니라 변형시켜 그려주는데 있으며 환상세계에 어린이들의 심리정서적공감을 자아내는 의인화되거나 과장된 형상이 서로 결부되고 동반되여 나타나는것과도 관련된다.

동화적환상은 현실생활에서 볼수 없는 생활세계를 펼쳐주지만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반영한다.

동화적환상에 의하여 펼쳐진 생활은 허황한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현실생활에 있는것이거나 앞으로 있을수 있는것이며 인간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마지 않는 생활을 형상적으로 그린것이다. 다시말하여 동화적환상의 밑바탕에는 현실생활이 놓여있다.

동화적환상의 밑바탕에는 현실생활이 놓여있다는 사실은 바로 근거있는 환상, 생활에 발붙인 과학적가설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환

상과 량립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아직 탐구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외추이며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인 과학적환상은 환상에서의 과학성과 진실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동화적환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1960년도에 창작된 과학환상동화 《바다속의 장수풀》이나 과학환상동화 《새 요술쟁이는 어떻게 나타났나》를 비롯한 적지 않은 과학환상동화들은 동화적환상과 과학적환상의 구별이 없이 마구 뒤섞어놓아 어린 독자들의 인식교양에 혼란을 주고있다.

이 작품들은 제가끔 환상의 나래를 퍼덕이며 날아만 다닐줄 알고 생활이 있는 땅으로 돌아올줄을 몰랐다. 새들도 생활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창공을 날다가는 땅으로 내려와 걸어다니군한다.

과학환상동화의 동화적환상과 과학적환상도 날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으로 다시 내려와 어린 독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하며 날아도 그것을 위해 날아야 할것이다.

과학환상동화 《바다속의 장수풀》의 작가는 대담한 환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에서 과학적기초가 빈약하고 동화적환상과 과학적환상을 구별없이 뒤섞어놓은탓으로 하여 일반 동화인지, 과학환상동화인지 분간할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영복이가 바다속에 들어가는 목적자체부터 뚜렷하지 못하다. 바다속의 자원을 탐사하러 가는지, 한줌만 먹어도 몸이 뚱뚱해지는 장수풀을 뜯으러 가는지 명백치 않으므로 주인공의 고심참담한 모험이 허거프[illegible]간 느껴진다.

이 작품은 바다속에 들어간 주인공이 물속에서 다시 목욕을 하는 장면과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잠수복을 입고 그냥 풀냄새를 맡아보는 등 과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막연한 설명으로 과학적환상내용을 대치하고있다.

특히 작가는 현대과학의 성과에 기초한 과학환상동화를 창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인공이 잠수뽀트를 타고 물고기의 왕인 룡어가 살고있는 집, 《룡궁》에 들어가는것으로 그려놓음으로써 동화적환상을 펼치려 하는지, 과학적환상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알수 없게 하였다.

이 작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잠수뽀트를 타고 룡궁에 간다든가 로케트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계수나무방아를 찧는 옥토끼와 만났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과학환상동화에서는 기계장치나 기구 등 《환상의 과학성》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환상과 환상적현상이 생활의 진실과 어떻게 련관되여있는가에 있다고 보고있다.

물론 환상과 환상적현상이 진실과 어떻게 련관되여있는가가 작품의 척도이며 평가기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렇지만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의 하나인 원자잠수함이 땅속을 마음대로 뚫고다니며 지질도에 표시되여있지 않는 유용광물들을 찾아내는 환상이라면 일없겠지만 그것이 옛이야기에 나오는 룡궁에 들어가 장수풀을 가져오는것으로 그려진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생활의 진실을 떠난 외곡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비유해 말하면 현대식양복에 버선을 신은것이나 다를바 없다.

과학환상동화 《바다속의 장수풀》은 주인공 영복이가 잠수뽀트를 타고 물고기의 왕인 룡어가 사는 집으로 가서 장수풀을 얻어오게 할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속을 이리저리 탐사하며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물질(풀이라고 해도 좋다)을 발견하고 채취해오는 과정을 시련과 난관을 동반한것으로 보여주었으면 좋았을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돼야만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이 형상적으로 얽힌 작품으로, 그 환상들이 생활의 진실에 토대한 과학환상동화로 될수 있다.

작품에 반영된 과학적환상이 과학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교과서에서처럼 빈틈없는 론리에 맞게 취급하거나 과학적가설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도 안된다.

작가가 과학적환상의 엄밀성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다나면 생활을 외곡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의인화된 어떤 두 부대(실례로 세균과 백혈구)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자. 이 전투는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그런데 의인화된 이 미생물의 두 집단은 사회의 두 집단을 대

변하게 된다. 사회의 두 집단사이의 전쟁은 인간들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으로서 인간의식에 관계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의인화되지 않은 본래물질의 자연과학적성질에만 따르다나면 전쟁의 운명은 세균과 백혈구사이의 생태적적응정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관계에 있어서는 운명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게 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 인식문제를 희생시킬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출로는 동화의 형상적원칙에 따르는것이다.

이렇게 씌여진 작품이 과학환상동화를 각색하여 만든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 《소녀 수의사를 도운 박사들》이다.

이 작품은 세균과 백혈구 등 사물현상들을 의인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생태적성질에 따르면서도 그 성질의 완전한 포로가 되지 않고 환상을 적극 활용하고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의 과학환상인식적기능이 마비되지 않았다.

과학환상동화는 과학지식에 따르면서도 거기에 환상을 결합시킬수 있다.

환상을 과학지식에 배치되게 주는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의거하게 하며 동시에 예술적인것으로 되게 한다면 교양적사명과 인식적기능을 다같이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이것은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의 과학성만 운운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과학자가 설정한 가설과 과학환상동화작가가 과학지식에 토대하여 설정한 환상은 같을수 없다. 작가의 환상은 새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인것이다.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상대성을 가진 가설을 일정한 틀에 잡아넣고 가타부타 할수 없듯이 생활에 근거하여 내놓은 환상을 과학적리론을 가지고 시비한다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그 환상이 독자들에게 진실하게 느껴지느냐 안느껴지느냐 하는데 있다.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인물성격과 생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현상들을 의인화하는 수법으로 재생하는 식의 《환상》을 창

조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그런 《환상》은 높이 떠서 날지도 못하거니와 그나마 날다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환상》들이다.

새는 하늘을 믿고 나는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 들끓고있는 땅을 위하여,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날아다닌다. 마찬가지로 환상은 독자들을 데리고 의인화된 사물들과 현상들이 있는 동화세계를 날아다니기만 할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생활로 돌아와 거기 서있는 어린 독자들에게 무엇을 속삭여주어야 하며 그 어떤 선물을 안겨주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과학적환상은 앉을곳 없는 새와 같아서 날개는 부러지며 마침내 땅바닥에 곤두박히게 될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인식교양적의의도 없는 무의미한 환상으로서 어린 독자들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을 자유롭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을 고려없이 펼쳐놓아도 그것은 쓸모없는 환상으로서 어린이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게 된다.

과학환상동화 《새 요술쟁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에 나오는 달님, 얼음산, 해님, 안개산, 구름, 바람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해당 자연물의 과학적성질을 반영한것인지 아니면 순허구적인 동화적형상인지 어린 독자들로서는 리해할수 없게 되였다.

이 작품은 주인공 화세 (지금이 과학의 세상이라고 하여 단 이름)가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아저씨들의 부탁을 받고 전기를 도와 니트론을 낳게 하는 새 요술쟁이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이다.

화세는 달님한테도 가보고 해님한테도 가서 부탁해보았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수 없이 땅나라로 돌아온 화세는 바람을 만나게 된다. 바람이야말로 그런 요술을 부릴 힘을 가지고있었다.

화세는 《가까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큰 힘을 가진 바람을 몰라보고 먼 하늘나라를 찾아 헤맨》 자기를 꾸짖는다.

작가는 화세가 만난 달님, 해님, 바람 등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자연과학적성질을 구현하려 했다. 즉 달님은 조수력발전소를 돌

리는 힘으로, 해님은 《전기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휘발유없이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고 석탄없이 기차가 움직이게 하며 용광로의 쇠물도 녹여주고 집집의 밥도 끓여줄수》 있는 힘으로, 바람은 《풍차나 돌리고 바다의 돛배나 몰고다니던 옛날의 바람》으로만이 아니라 전기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할수 있는 힘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화세가 만난 어떤 자연물과 자연현상들, 례하면 얼음산이나 안개산같은것은 과학적리치에 맞지 않게 묘사되여있다. 얼음산은 달님에게로 가는 도중에 있는것으로, 안개산은 해님을 찾아가는 길 복판에 있는것으로 되였다.

이렇게 되면 어린 독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지 못할뿐아니라 도리여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 작품이 과학환상동화일진대 리치에 맞지 않는 자연현상을 허용할수 있겠는가.

과학환상동화에서는 일반동화에서와는 달리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하는것만큼 엄밀한 과학성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과학적리치에 맞지 않는 환상을 무질서하게 뒤섞어놓는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과학환상동화작품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취급하고있는 《환상》도 철저히 경계하고 환상수법적용에서 계급적선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은 높은 당성과 함께 로동계급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과학환상동화문학이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자면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형상으로 실현하는 모든 공정들에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환상수법적용에서 계급적선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것은 환상 그자체가 생활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시키는 훌륭한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환상과 과장은 어디까지나 현실속에서 흘러나오는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흥미있게 리해시켜주는 훌륭한 수법이라고 지적하시였다.

환상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리해시키는 수단으로 되자면 그 수법이 로동계급의 리익의 견지에서 씌여지는 경우에라야만 가능하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관점을 떠나서는 생활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할수 없기때문이다.

환상은 그 시작과 전개 및 결속에서 로동계급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해야 한다.

환상이 시작되는 계기점을 계급적요구의 견지에서 타당성있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은 환상의 론리가 무엇보다도 환상이 어떻게 되여 발생하는가 하는데서부터 그 출발점이 마련되기때문이다.

환상이 있는 작품에서 형상의 비진실성은 흔히 환상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아무런 생활적타당성이 없이 설정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서구라파의 과학환상동화작품들은 주로 환상이 나올만한 아무런 전제가 주어져있지 않는데 갑자기 날개달린 우주사람이 달려들어 지구사람들을 무리로 쓰러뜨린다거나 다리도 없는 나무가 따라다니며 로케트를 붙잡아 짓뭉개버리는것과 같은 기상천외한 사실을 담고있다.

환상은 기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것일수록 흥미있는것이지만 그 발생의 근저에 생활적타당성이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의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환상의 발생을 조건짓는 그 생활적기초는 계급성을 띠면 띨수록 더욱 타당한것으로 된다. 그것은 환상의 심리적기초로 되는 인간의 념원, 소원, 욕망 등이 그가 어느 계급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나기때문이다.

과학환상동화 《태양도시를 꾸린 박사기계들》, 과학환상동화 《똘똘이 박사의 사업과 희망》 등 우리의 과학환상동화작품들은 환상이 시작되는 계기점에서부터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생활적으로 안받침하고있음으로 하여 환상의 론리에도 타당성을 주고 따라서 작품의 사상적대도 뚜렷이 세울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과학환상동화작품들은 환상의 시작점에서뿐아니라 환상

이 전개되는 전과정에서도 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움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형상된 부정인물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하고 긍정인물들의 생활을 통하여서는 지지와 공감을 느끼게 하고있다.

이것은 과학환상동화작품에서 받는 충격이 그 어떤 순수한 반감이나 사랑, 지지와 공감이 아니라 계급적감정에 기초한 반감이고 증오이며 사랑이라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과학환상동화들인 《과학궁전을 찾아간 차돌이》, 《박사기계》 등 우리의 작품들은 환상의 결속을 그 시작되는 계기점과 환상전개단계에서 불러일으킨 사상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확정하는 방향에서 매듭지음으로써 작품의 계급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과학환상동화에서 작품의 결속은 대체로 환상이 끝나는것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결속부분에서 종자와 주제, 사상이 명백히 천명되게 되는것은 보편적현상이다.

과학환상동화에서 환상의 결속부분은 작가의 예술적기량을 가늠할수 있게 하며 또한 작가의 사상적 립장과 관점을 판단할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환상의 결속부분을 계급적립장에서 교양성있게 마무리하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작가가 기량을 발휘하여 환상의 결속을 흥미있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깊은 뜻이 깃들어있지 않게 되면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작품창작에서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은 생겨날 때부터 목적과 의도가 명백하게 하여야 하지만 결속단계에 와서도 뚜렷한 사상을 안고 끝을 맺게 하여야 한다.

환상수법적용에서 계급성을 뚜렷이 하는것은 오늘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이 사람들에게 무지와 몽매를 강요하고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는 이색적인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자본주의제도를 미래에까지 이끌고가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을 《작품》에 반영하여 어린

독자들로 하여금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싸움에 《맹수》가 되여야 하며 별나라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는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어떤 부르죠아어용과학환상동화작가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밥이나 빵대신 공기만을 먹게 된다고 《작품》에 쓰고있다.

미래에는 인간이 공기만을 먹고산다거나 혹은 기계가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한다는 식의 《과학환상》은 황당무계한 부르죠아식사고방식이고 억측이다.

인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여도 식량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몇년만 더 참으라, 공기만을 먹게 될테니》하는 따위의 《환상》적인 빈소리는 용납될수 없다.

우리의 과학환상동화작품에서는 이러한 《과학환상》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철두철미 당성, 로동계급성에 기초한 우리 식의 과학적환상을 자유분방하게 펼쳐야 한다.

우리의 과학환상동화작품들에서는 이 땅의 풍부한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문제, 바다자원의 종합적리용문제, 새로운 합성물질의 리용, 농업과학에서의 《록색혁명》과 식료품의 합성문제,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최신성과와 전망, 태양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동력원천의 개발문제들을 과학적환상으로 펼쳐 동화적환상수법으로 어린 독자들을 환상세계에로 이끌어 매혹시켜야 한다. 환상세계는 화성이나 금성, 토성 등 별나라에만 있는것으로 여기고 결핏하면 우주세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과거와 최근 시기에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명과 가설 등 허다한 소재들을 선택할수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자기의 비결을 해명하며 선조들의 훌륭한 제강법과 건축술을 해명하는 력사과학환상동화작품도, 휘황찬란한 앞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환상동화작품도 어린 독자들의 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과학환상동화작가들은 과학적환상과 동화적환상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어린 독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정력과 지혜를 기울이여야 할것이다.

제4장 과학환상영화문학창작

과학환상소설과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급속한 발전은 환상속의 인물과 그 생활을 상상과 련상으로가 아니라 직접 화면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과학환상영화의 사상예술적기초인 과학환상영화문학을 필수적요구로 제기하였다.

20세기 초엽에 발족한 과학환상영화는 최신과학기술, 특히는 광학, 사진학의 급속한 발전과 합성촬영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하여 현실에 발붙인 미래의 과학기술생활과 인간들의 성격을 생동한 화면으로 보여줄수 있는 넓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합성촬영을 비롯한 영화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은 과학환상만화영화, 과학환상인형영화, 과학환상지형영화 등 과학환상아동영화뿐아니라 과학환상예술영화도 얼마든지 제작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 부문 작가들을 필요로 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문예리론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한계단 높은 수준에 도달한 현실적조건에 맞게 과학영화와 과학환상영화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1967년에 발표된 우리 나라의 첫 과학환상영화문학 《꼬마우주탐사대원》이 그림영화로 제작된데 이어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들인 《꼬마박사》, 《춤추는 풍년벌》, 《하늘의 쇠돌》,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 《남수의 환상》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작품들이 영화로 실현되여 어린이들의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궁냥을 넓혀주며 과학적환상을 실현하는 방법론을 체득하게 하고있다.

이 장에서는 환상적이며 영화적인 특성을 옳게 살릴데 대하여서와 과학지식탐구와 환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는 문제, 과학환상아동영화창작의 사상미학적 요구와 방도에 대하여 서술할것을 목적하고있다.

제1절 환상적이며 영화적인 특성을 옳게 살려야 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과학환상영화의 대본으로,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과학환상문학의 한 형태인것만큼 환상적이며 영화적인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때 영화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동영화창작사업을 지도하여주시면서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동화적이며 환상적인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영화적인 특성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환상적인 특성과 영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일반영화문학과도 구별되며 다른 과학환상문학형태들과도 차이나게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말과 행동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안에 일관성과 집중성, 극적긴장성을 띤 얽음새를 통하여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학환상극문학형태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여러가지 수단들과 요소들을 결합시켜 과학환상영화로 형상할것을 예견하는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문학으로,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앞으로 제작될 영화의 종자와 주제, 사상, 인물성격들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제시하여준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는 주인공들의 사상적지향과 개성적특질, 인간들의 호상관계와 다양한 과학기술생활세부들이 반영되여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 그려진 이 모든것은 영화에서 역인물들의 행동과제와 생활의 기초를 마련해주며 영화의 내용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영화연출가의 창조적환상을 낳는 바탕으로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또한 영화의 형식을 제시하여준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 반영된 구성, 형상수법, 언어와 양상 등 형식의 제요소들은 영화에 구현되여 영화의 형식을 이루게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대사는 영화에서 역인물의 대사로 재현되며 영화문학의 인간관계와 갈등,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 사건전개는 영화적으로 재현된다.

과학환상영화창조과정이란 바로 과학환상영화문학형상을 영화적형상으로 옮기는 재창조과정이다. 따라서 과학환상영화문학과 과학환상영화예술은 서로 떼여낼수 없는 통일체를 이룬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화의 첫공정인 영화문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영화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과학환상영화제작의 첫공정인 과학환상영화문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과학환상영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그것은 영화문학이 영화예술발전을 조건짓는 사상예술적기초로 되기때문이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문학의 한 형태에 속한다. 따라서 형상창조에서 다른 형태의 과학환상문학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진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종이우에 써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며 주인공들의 성격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는 과학환상소설과 류사성을 가진다.

과학환상예술영화문학은 또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작가의 설명이 없이 등장인물들자체의 행동과 대사로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과학환상희곡과 공통성을 가진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이 체현하고있는 이러한 문학적특성은 과학환상영화작가로 하여금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성적요구와 형상화의 제원칙과 방도들을 잘 알고 그대로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이 종이우에 글로 씌여지며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희곡, 과학환상시문학과 류사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결코 읽히우기 위한 문학인것은 아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과학환상영화로 실현될것을 전제로 하여

창작된다. 과학환상영화로 실현될것을 바라지 않고 영화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는 없을것이다. 바로 문학 그자체의 목적보다 영화창작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과학환상영화문학은 다른 형태의 과학환상문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영화창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인것만큼 영화가 가지고있는 특성에 전적으로 의거하고있으며 영화 언어와 문법에 맞는 자기의 고유한 언어묘사방식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미래의 생활을 환상적형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문학의 한 형태이라는데 있다.

미래의 생활을 환상적형식으로 보여준다는것은 일반영화에서처럼 생활을 전형화된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그들의 행동자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탐구되고 전형화된 인간—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를 극적으로 조성시켜 그들의 행동자체를 통하여 앞날의 생활을 직접 보여준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이 환상적형식을 띠게 되는것은 모든것을 근거있는 과학환상속에서 주인공들의 행동과 생활을 보여줄것을 요구하는 과학환상문학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일반 영화문학에서는 극적으로 조성되는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행동을 통하여 현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과학적환상에 의하여 정황을 보다 예리하게 조성할수도 있으며 사회적관계들을 보다 첨예화하고 환경을 전형화함에 있어서도 보다 넓은 가능성을 준다.

일반적으로 과학환상영화문학은 환상의 사유형식을 빌어 예술적허구를 펼치며 예술적형상을 창조해내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된다는 점에서 일반 영화문학과 뚜렷이 구별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작품에서는 종자를 잡는 과정과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는 과정이 환상으로 추동되며 인물성격과 생활사건 등 모든 형상요소들이 환상세계에서 재구성, 재창조되여 독특한 형상체계를 이루게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과학과 기술을 인간생활의 견지에서 그것도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을 거쳐 미래와

련결시켜 사람들의 리상과 희망을 결부하여 형상적으로 반영하므로 작가의 사색과 기량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황을 예리하게 조성할수도 있고 극적관계를 첨예화할수도 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바다세계나 땅속자원세계, 우주세계를 비롯하여 생물공학의 새로운 경지나 소립자의 미개척분야 등 아직 탐구되지 못한 자연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생활을 현실속에서가 아니라 앞날에 펼쳐질 환상세계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자연정복의 길에서 발현되는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감수하게 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영화문학이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 변혁하는 창조적힘을 발양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근거있는 환상, 생활에 발붙인 환상을 활용하여야 한다.

환상이 작가의 창조적상상력에 의하여 재가공된것이라고 하여 정황을 아무렇게나 조성할수도 없고 극적관계와 갈등을 마구 뒤섞어놓을수도 없다.

장편영국과학환상예술영화문학 《콩가》에서는 근거있는 환상을 펼쳐보이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작가의 머리속에서 아무렇게나 재가공된 렵기적이며 흥미본위적인 환상정황속에서 극적관계와 갈등을 마구 뒤섞어놓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생물학교수인 데크박사가 남미주의 쟝글에서 새끼침판지—《콩가》를 잡아다가 5층짜리 고층건물보다 더 크게 만들어 런던시민들을 시내에서 몰아내는 《환상》, 비현실적이며 허무맹랑한 《환상》을 펼치고있다.

데크박사는 육식성식물에서 빼낸 즙액을 《콩가》에게 주사하여 크게 만들뿐아니라 빛을 주기적으로 쪼이며 《주문》같은것을 외워 《콩가》가 사납기 이를데 없게 만든다.

《콩가》의 힘과 포악성이 극도에 달하여 시민들은 물론 영국군대들이 현대적무기를 가지고 그놈을 제압하려고 하여도 끄떡하지 않는다. 《콩가》는 로케트포와 기관총사격을 해대는 군대들을 맞받아나가며 총알들을 《손바닥》으로 막아치우고 모조리 짓뭉개버린다.

이런 《환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환상이 작가의 머리속에서 재가공되였기때문에 그것은 더우기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환상》으로 되여버리고 극적관계와 갈등은 생활론리를 떠나 그 《환상》속에서 제나름대로 조성되기도 하고 작가의 주관적의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마구 뒤섞어지기도 하였다.

아무런 타당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식의 《환상》은 대단히 유해로운것이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생활은 탐구되고 축적된 생활지식에 기초하여 펼친 환상속에서 생활론리에도 맞고 인간의 성격론리에도 맞게 주어져야 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특성은 다음으로 환상생활을 극적형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문학의 한 형태라는데 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일반영화문학과는 달리 새로운 과학기술의 령역을 개척해나가는 어려운 투쟁을 반영하며 과학탐구를 위한 피타는 노력으로 일관된 미래의 생활을 그려야 하므로 긴장한 생활정황이나 생산문제가 인입되는것은 필수적이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과학기술적내용, 환상적내용이 주어져도 그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지를 개척해나가는 사람을 그려야 하며 그의 생활을 작가의 객관적인 묘사와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극적으로 조성되는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그들의 행동자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이 극의 형식을 띠게 되는것은 모든것을 주인공들의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직접 화폭으로 보여줄것을 요구하는 영화예술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행동, 대화, 사상감정 등이 모두 작가의 객관적인 묘사와 설명을 통하여 주어진다.

과학환상소설가는 작품의 주인공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자유자재로 설명해나감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인식하지 않도록 이끌어나간다.

그러나 극의 형식을 띠고있는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오직 등장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 그자체를 통하여 전개되는

사건, 인물들의 성격과 작품의 사상이 스스로 전달되도록 환상생활을 그린다. 다시말하여 직관적인 묘사가 기본형태를 이룬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와 인물의 행동과 생활화폭을 조형적으로 그려낸 지문만이 있으므로 과학환상영화에서는 환상적내용, 아직 탐구되지 못한 과학기술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것을 극력 피하게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등장인물들이 호상인간관계를 맺고 행동하며 전개되는 사건과 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작품의 사상이 전달되도록 환상생활을 묘사하므로 인간문제를 해명하는데 불필요한 과학환상은 그것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흥미있는것이라고 하여도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이 과학기술적내용과 밀접한 관계속에 있기는 하지만 관객들에게 감흥을 주고 사색하게 하는것은 극적주인공, 극적갈등, 극적정황, 극적줄거리를 필수적으로 하여 환상생활을 감정정서적으로 파악하게 하기때문이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생활에 발붙인 근거있는 과학기술적가설들을 인간생활, 과학기술생활속에 용해시켜 그것을 극작법의 요구에 맞게 형상적으로 일반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환상생활을 극적형식으로 참신하게 보여줌으로써 환상적이며 영화적인 특성을 옳게 살려 품위있는 과학환상영화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특성은 다음으로 생활의 본질을 조형적으로 세부화하여 보여주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소설이 생활을 글로 묘사하는 문학이라면 영화는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정수들을 화면을 통해 형상하는 문학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일반적으로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과학환상동화 등은 환상생활을 직접 글로써 묘사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작가는 생활을 객관적인 립장에서 생동하게 종이우에 옮기며 독자들은 그것을 읽는 과정에 머리속에서 그려보면서 생활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항상 자기가 준비된 한계내에서 또한

조건과 환경, 기분에 따라 각이한 느낌과 표상을 가지고 과학환상소설의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과학환상소설에서는 될수록 묘사의 효과성을 높여 독자들의 머리속에 구체적인 표상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비유에 의한 형상적인 묘사방법과 직접적인 묘사방법을 다같이 적용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과학환상영화는 운동하는 화면을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고 내용을 인식시키는 형상적특성을 가진다.

과학환상영화화면은 인간생활의 한토막을 생동한 움직임속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준 영화형상의 가장 작은 부분이다. 화면이 모여서 장면을 이루고 장면이 모여서 영화가 완성된다. 화면은 영화형상의 가장 작은 부분으로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이러한 영화화면의 특성에 맞게 언어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언어묘사에서는 영화화면에 담을수 없는 형상적인 비유나 작가의 주정토로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것이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묘사되며 진행되는 모든 사건은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형태로 주어진다.

과학환상아동소설 《땅속의 대문을 활짝 열라》와 어느 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한대목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갈미산

만능수레가 산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간다.

땅속

레이자광선으로 땅속을 녹이며 전진하는 만능수레.

수레안

자기위치에서 작업하는 대원들.

편무암층

텔레비존영사막에 편무암층이 흘러간다.

수레안

땅속깊이를 알리는 심도계.

텔레비존영사막에 나타나는 자철맥들.

기뻐서 소리치는 혜선.

《야 쇠돌이야 쇠돌!》

종철 《응. 자철광맥이구나.》

영사막에 흘러가는 자철광층.

…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솨!—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빛줄기가 고주파복사속발사대에서 쏟아져나갔다. 그 빛줄기를 받자마자 굳은 화강암층도 물먹은 흙담처럼 맥없이 부서졌다.

《야!》

지하로케트승용차에 오른 동무들은 모두 흥분에 떠서 벌떡 일어나며 서로서로 껴안으려다가 운전칸창문벽에 머리를 짓쪼았다. 그래도 좋아라 깔깔댔다.

《이젠 그만들 떠들어대구 땅속세계를 찬찬히 관찰해나가자.》

《응, 정말 그래야겠어.》

철성이가 연구소조원들을 둘러보며 말하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야! 저런, 저것 좀 봐. 불빛에 번쩍이는 저것이 자철광층이 아니냐? 얘 얘, 철성이, 속도를 좀 늦춰라. 씽씽 내려가니 어디 똑똑히 볼수가 있니.》

순영이는 수첩을 꺼내들고 무엇인가 적으려다 말고 옆에 앉은 경팔이를 툭툭 치며 창밖을 가리켰다.

철성이는 조절단추를 눌러 속도를 늦췄다. 지하로케트승용차는 헤염치듯 천천히 땅속밑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모든것을 똑똑히 가려볼수 있었다. 소조원들은 텔레비존이 달린 지하투시경으로 땅속을 살폈다.

퇴적암층을 지나 화강암층을 벗어나자 현무암층이 나타났는데 그밑으로 자철광맥이 쭉 뻗어있었다.

…

보는바와 같이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과학환상소설에서와는 달리 화면에 담을수 없는 불필요한 상징적인 묘사와 비유는 기본적으로 피하고 진행중의 생활을 그대로 직접 볼수 있는 직관적인 묘사만을 주고있다.

그러나 묘사에서 과학환상소설에 못지 않게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할수 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특성은 또한 영화적시공간을 리용하여 생활을 깊이있고 풍부하게 일반화한다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란 말그대로 전후관계와 상하좌우가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영화는 생활의 론리에 맞게 비약도 마음대로 시키고 2중로출도 주고 회상수법도 쓰고 그밖에 별의별 재간을 다 피워도 내용을 얼마든지 잘 보여줄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영화는 생활에서 시공간적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며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에로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여 생활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그릴수 있는 고유한 영화언어와 문법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영화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간을 임의로 비약, 함축, 확대, 정지 등 각이한 흐름으로 변형시켜 보여줄수도 있고 대비, 대조의 수법을 적용하여 시공간의 깊이와 형상의 조형적직관성을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

과학환상영화에서는 생활의 론리에 맞게 환상적비약도 마음대로 하고 2중로출도 주며 회상수법도 쓰고 그밖의 여러가지 수법을 리용하여 생활을 자유롭게 그릴수 있으며 다양한 형상 수단과 수법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형상창조에 능동적으로 동원시킬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진다.

과학환상영화예술의 이러한 시공간적특성은 과학환상영화문학이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는데서 제한을 받지 않게 하며

여러가지 표현수단과 수법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과학환상영화문학이 극의 형식으로 생활을 반영하면서도 과학환상희곡의 언어묘사방식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보는바와 같이 과학환상영화는 짧은 제한된 시간안에 시공간적으로 폭넓고 다양한 생활을 풍부히 반영할수 있다. 이것은 생활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여 반영하는 모든 예술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서는것이지만 과학환상영화에서는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영화가 제한된 짧은 시간동안에 시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생활을 풍부히 담을수 있는것은 영화적시공간을 리용하기때문이다. 과학환상영화는 어느때 어떤곳에서 진행되는 사건, 사실 특히 먼 미래에 진행될 일이든지 다 묘사할수 있다. 먼 미래에 펼쳐질 사건과 사실들도 예술적진실성을 가지고 폭넓고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여기에 일반영화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것이다.

이밖에도 과학환상영화문학은 창작목적의 차이로부터 일반영화문학과도 과학환상문학의 여러 형태들과도 다른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과학환상영화문학의 진정한 가치는 과학환상적인 특성과 영화적인 특성을 잘 살려나감으로써만 규정된다.

작가들은 과학환상영화문학의 특성들을 깊이 연구체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영화적으로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제2절 과학지식탐구와 환상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 담는 생활범위와 그 무대를 어디까지

로 보아야 하는가, 즉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주제령역을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깊이 탐구할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영화는 인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본을 두고 만들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영화를 비롯한 아동영화의 대상을 명백히 규정해주심으로써 과학환상아동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꾸리는데서 기준을 정해주고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주시였다.

인민학교 학생들을 아동영화의 교양대상으로 하게 되는것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매 년령기에 따르는 특성이 큰 차이를 가지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며 이 시기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인민학교시기에 철이 들기 시작하며 활동성이 강하고 장난이 심한 년령기적특성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양하는데서 행동성이 강한 생생한 직관으로 체험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인민학교시기에는 또한 동경심과 모방심이 강하고 환상이 많으므로 아이들에 대한 교양에서 좋은 모범과 풍부한 환상, 특히 과학환상을 통하여 주위세계를 리해시킬것을 요구한다.

생활을 생동한 움직임속에서 반영하는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자연과학현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수 있는 생생한 직관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어린이들, 특히 자연과 사물현상의 리치를 정확하고 공고하게 인식시킬것을 요구하는 인민학교 년령기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알맞는 수단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를 인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면 어린이들은 철들기 시작하는 첫순간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수 있고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힘있게 이끌어줄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공고화시켜줄수 있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화나 우화 같은것을 가지고 아동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심으로써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감수성은 빠르나 축적된 지식이 적은 어린이들은 알고싶은것이 많은데 그것을 환상으로만 그려보게 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심리적특성은 과학환상적이며 동화적인 세계를 요구한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아동영화는 과학환상과 동화적환상을 풍부히 그리게 되며 의인화수법을 도입하고 의인화된 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한다.

동화적인것, 환상적인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영화문학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은 이 영화문학의 표현 수단과 수법, 영화창작수단의 리용 등 다른 이여의 모든 특징을 규정한다. 실제적인 산 인간으로서는 표현할수 없는 환상세계를 무리없이 펼쳐주기 위하여 과학환상아동영화는 그림이나 인형, 지형 등 특수한 형상수단을 요구하며 그림이나 인형, 지형을 움직이여 조형적인 형상을 창조하는 의인화수법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며 생명인 과학환상세계를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의인화수법에 의한 생동하고 진실한 동화적성격창조문제가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잡지 《영화문학》에 발표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박사기계》는 우주비행에 대한 현대아동들의 지향을 환상적인 꿈의 형태로 보여주면서 생동하고 진실한 성격을 창조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꾸게 되는 꿈, 환상은 그들의 성격과 감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펼쳐지고있다.

한 등장인물인 영이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면서도 주인공인 순철이처럼 로케트를 타고 씽씽 하늘을 주름잡으며 머나먼 별세계로 려행하고싶어한다. 그의 이 생각과 공부하기 싫어하는것은 모순된다.

작품은 이 모순을 영화적특성에 맞게 독특한 극성을 조성하였으며 생동한 과학환상속에서 사상주제적과제가 해결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주비행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의 지향을 공상적인것으로부터 적극적이며 실천적인것으로, 능동적인것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비롯한 아

동영화문학의 사명과 특성을 명백히 해명한데 기초하시여 아동영화문학창작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주제령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영화는 지덕체를 내용으로 하여 아동심리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영화는 과학지식탐구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지덕체교육에 이바지하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 기초하여 과학환상그림영화, 과학환상인형영화, 과학환상지형영화를 만드는것은 과학환상아동영화창작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방향으로, 기본임무로 된다.

지덕체를 내용으로 과학환상아동영화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영화의 사명과 관련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를 비롯하여 아동영화는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지덕체교육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교육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과학환상아동영화가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과학기술자로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워야 할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참신하고 폭넓은 과학환상을 펼쳐보임으로써 과학지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우기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종자에 기초한 주제사상을 해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원리적으로 체득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또한 현시기 후대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야 할 사정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특히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 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할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고있는 오늘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기능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아동영화가 후대교육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려면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지덕체를 내용으로 하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주제령역을 밝혀주시였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기본주제령역은 무엇보다먼저 지적교육에 이바지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지덕체교육을 하는데 이바지할 영화들을 많이 만들되 지적교육을 주는데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동영화는 인민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본을 두고 만들어야 합니다.》

지적교육에 이바지하는 주제가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기본주제로 되는것은 인민학교시기 어린이들의 지적활동의 특성과 관련된다.

인민학교 학생들의 지적활동은 단순하며 주로 구체적이고 직관적인것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형상적이며 생동하고 구체적인것을 더 잘 기억하며 그런것에 주의를 더 집중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추상적이며 론리적인 사고는 생동한 직관에 의한 지적활동을 여러번 거듭하는 과정에 점차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지식을 비롯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다져줄수 있는 지적인 내용에 기초한 환상세계를 담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어린이들에게 사물현상의 본질과 리치를 습득하게 하고 학교에서 배운것을 반복하여 공고히 하면서 작품에 펼쳐지는 흥미있는 과학환상세계를 정복하려는 꿈과 용기를 가지게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 주어야 할 지식은 주로 인민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줄수 있는 내용에 토대하여 펼친 생동하고 흥미있는 과학환상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 주어야 할 지식의 범위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지식이 기본이 되여 환상을 펼쳐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는 어린이들의 지적수준에 맞게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수 있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인민학교 교과서의 내용보다 더 어려운 지식에 기초한 과학환상을 동화적으로 알기쉽게 풀어줄수 있다. 그리하여 직관성이 강하고 알기 쉬운 과학환상동화적영화형상의 특성을 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며 과학지식탐구에 대한 열망과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 크나큰 포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 주어야 할 지식은 철저하게 당정책적요구에 맞아야 한다. 자연과 사회현상의 제반 원리와 법칙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모든것이 지식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일반지식이라고 하여 이것저것 다 줄수는 없다.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절실한 지식부터 먼저 주어야 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 환상을 펼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과학환상영화를 통하여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생각하여도 우리 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생활에 발붙인 과학환상으로 다져나갈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또한 학생들의 지적발전의 특성에 맞게 일반 기초지식과 기초기술지식의 내용을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과학환상을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일반 아동영화에서보다 지적인 감정으로 어린이들을 교양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지적감정은 인간의 인식활동을 고무추동하는 요인의

하나이며 새로운 인식령역을 넓혀나가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적감정은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여 배운 지식을 다져나가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개척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구체적인 지식을 주는것과 함께 지적감정으로 교양함으로써 인민학교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제나름의 환상을 펼쳐 새로운 발명과 발견을 위한 토대와 전제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꼬마박사》, 《춤추는 풍년벌》,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은 어린 학생들에게 생물학, 물리, 수학 등에 대한 지식을 주는것과 함께 그것을 잘 알아야 이삭이 5~6개씩 달리는 새 강냉이씨앗도 만들수 있고 돌피를 비롯한 잡초도 화학의 힘으로 손쉽게 없앨수 있으며 곱등어도 길들이여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한다는 지적감정으로 교양하고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꼬마박사》의 주인공들인 남이와 옥이는 공부를 잘하여 앞날의 훌륭한 농학박사가 될것을 희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탐구한다.

그들은 강냉이 한그루에 비자루같은 강냉이이삭이 5~6개씩 달리는 새 품종을 연구해내려고 탐구를 거듭한다. 그뿐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강냉이가 쑥쑥 자라게 하는 약과 이삭이 제꺽 여물게 하는 방사성음파에 대해서도 꿈꾸며 생각을 몰아간다.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보람으로 끝끝내 새 강냉이품종을 연구해낸 남이와 옥이는 그것을 중간지대강냉이농사고장인 돌풍골에 실어간다. 그곳의 주인들인 수수, 흰강냉이, 밀, 보리 그리고 소, 돼지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뿌리를 내린 새 강냉이씨앗은 풍작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렇듯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생물학의 기본원리를 과학적환상으로 펼치고 생동한 동화적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게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기본주제령역은 다음으로 과학적환상력배양에 이바지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문학은 학생소년들

에게 과학의 세계를 점령해나갈 욕망을 키워주며 과학연구의 착상을 가지게 한다고 하시면서 청소년시절에 이런 작품을 많이 보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은 환상하기를 즐겨하며 앞으로 무엇인가 큰 발명을 해보겠다는 욕망을 가지는 년령심리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기여다니는것보다는 빨리 달리는것을 더 좋아하며 하늘을 주름잡는 비행기나 로케트에 더 흥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동적인 지식에 기초한 단순한 환상으로부터 점차 그 환상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환상을 언제나 즐기도록 하며 환상할줄 알게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지적교육을 잘하여 어린이들이 기초지식으로 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수 있게 환상을 펼치지 못한다면 의의가 없다.

어린이들이 사물현상의 본질과 리치를 습득하게 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제나름의 과학적환상을 펼쳐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명과 임무를 지닌것이 바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이다.

토양에 애어린 나무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것을 섭취하게 하는 해빛이 없이는 나무가 빨리 자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게 지적교육만 주고 그것을 꽃피우고 열매맺게 할 환상하는 법과 그 환상을 실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해빛을 못받는 나무와 비슷하게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단순한 환상으로부터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시초로 될수 있는 과학적환상으로 폭을 넓히며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욕망과 포부를 안겨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취급해야 할 환상의 범위와 생활무대는 다종다양하지만 주로 인민학교에서 배우는 산수와 자연의 기초지식에 토대한 환상을 기본으로 펼쳐야 한다.

삼각자를 리용하여 나무의 높이를 손쉽게 재는 상사법에 기초한 환상들, 따쥐가 굴을 솜씨있게 파헤쳐들어가는것을 보고 마음대

로 땅속을 려행할수 있는 지하로케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환상을 한껏 펼쳐야 한다.

이밖에도 환상력을 키워줄수 있는 과학세계, 바다를 리용하는 환상세계, 한 나무에 여러가지 과일이 달리게 하는 식물세계,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수확만 할수 있는 다년생 벼종자를 탐구하는 환상세계, 고래만한 돼지도 순식간에 키워낼수 있고 세포핵을 바꿔놓는 방법으로 토끼체내에서 새로운 종인 말보다 더 큰 《토끼말》을 육종해내는 동물환상세계도 펼쳐보일수 있다.

그리고 신기한 우주세계의 수많은 현상들도 알기쉽게 펼쳐보임으로써 어린이들이 단순한 천문학적지식을 가지고 환상의 나래를 한껏 펼치게 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문학은 재미있는 과학이라고 하시면서 학생소년들에게 먼 우주로 려행하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많이 보여주어 천문학적인 환상의 날개를 펼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천문학은 무한한 우주공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아직까지 개척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

과학환상영화문학에서는 서구라파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주로 취급하는 별세계의 전쟁이나 막연한 우주세계에로 이리저리 옮겨가며 정복, 략탈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우주세계에 널려있는 자원부원을 개발하여 우리 인민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우리 식 환상을 펼쳐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그 어떤 환상을 하든지간에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할줄 알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첫 과학환상아동영화로 출현한 그림영화 《꼬마우주탐사대원》(1967년, 영화문학 최홍식, 연출 조윤성)은 과학소조에 망라된 어린이들이 달나라에로 려행하는 과정을 천문학적지식에 맞으면서도 알기쉽게 환상을 펼쳐보여준것으로서 어린이들의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도록 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하늘의 쇠돌》도 우주세계에 수없이 떠

돌아다니는 철운석을 자석로케트로 모조리 끌어다가 용광로의 원료로 리용하는 기발한 환상을 펼쳐보임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와 탐구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이처럼 어린이들의 궁냥을 틔워주고 환상의 나래를 펼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의의있는 창조물을 만들겠다는 희망과 포부를 적극 키워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기본 주제령역은 또한 공산주의도덕교양과 관련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영화를 비롯한 아동영화창작에서 기본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공고히 하며 공산주의도덕품성을 소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도덕은 가장 아름답고 선진적인 도덕이며 미래의 사회에서 지배하게 될 도덕이다. 공산주의도덕은 또한 인간의 자주성을 존중히 하며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원칙을 반영한 인간관계의 규범이다.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도덕이다. 공산주의도덕품성은 사회생활의 모든곳에서와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표현된다. 인간성과 성실성, 겸손성과 소박성, 높은 문화성 등은 다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의 본질적특성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품성들을 지녀야만 가장 아름다운 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될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도덕을 잘 지키고 풍부한 인간성과 높은 문화성을 가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고상한 공산주의도덕품성을 소유하도록 교양하는것이 후대교양사업의 근본문제의 하나인것만큼 여기에 이바지하여야 할 과학환상아동영화는 마땅히 공산주의도덕교양에 관한 문제를 기본주제령역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학교 학생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주제령역을 다양하게 해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개인리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자기 동무들에 대한 사랑과 로동을 즐겨하는 정신, 자기 맡은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 등으로 교양할수 있는 내용들은 과학환상아동영화의 중요한 주제령역이다.

이러한 주제령역의 과학환상아동영화들은 어린이들에게 조직과 집단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형성시켜줌으로써 그들이 장차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직과 동지를 귀중히 여기며 조직규률을 철저히 지킬줄 아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어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며 웃사람을 존경하는 등 어린이들을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으로 교양할수 있는 생활령역도 과학환상아동영화의 중요한 주제령역으로 된다. 어린이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할데 대한 문제, 용감성과 대담성, 인내성과 완강성을 가지고 어릴때부터 무엇인가 탐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품성을 형성시켜주는 문제도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 실현해야 할 중요한 주제령역으로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은 공산주의도덕교양과 관련한 주제의 작품으로서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하여 인민학교때부터 착실히 공부하며 대담하고 통이 큰 과학환상을 펼칠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흥미있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제의 과학환상아동영화들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아동영화의 주제령역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급교양과 관련한 주제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과학환상적문제를 취급하는 아동영화라고 하여 작품에 순수 과학지식과 도덕만을 반영하게 된다면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할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과학지식과 도덕품성을 기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상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주제령역을 어린이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수법으로 실현함으로써 자기의 교양적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자연과 사회, 사물현상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주면서 그에 대한 주체의 관점을 밝혀내고 정책적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워나갈수 있는 기초를 닦아줄수 있다.

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주제령역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주제령역이다.

계급교양주제가 과학환상아동영화의 중요한 주제령역으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풍모형성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그런데 인민학교 학생들은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의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불과하며 정치사상의식이 빨리 발전하기 시작하나 자연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립장이 확고하게 형성되여있지는 않다. 그들에게는 주위의 사물현상들을 고운것과 미운것, 좋은것과 나쁜것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단순한 감정이 지배적이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사상감정을 목적지향성을 가진 확고한 혁명의식으로 전환시켜야 그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립장을 가지게 되고 점차 사회와 혁명에 대한 옳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혁명적세계관, 과학적세계관을 세울수 있다.

어린이들의 감정에 뚜렷한 사상적지향성을 주어 그것을 확고한 혁명의식으로 전환시키려면 어린이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계급교양주제는 과학환상아동영화의 중요한 주제령역으로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소녀수의사를 도운 박사들》은 미생물들의 의인화된 두 부대, 세균과 백혈구 사이의 치렬한 전투를 통하

여 정의와 부정의, 용감성과 비겁성, 슬기와 교활, 규률과 산만, 자각과 강제 등의 대립과 그 당연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선한것에 의한 악한것의 패배와 멸망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영화문학은 처음 돼지만한 흰 토끼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냉이골꼬마과학원에서 갑자기 그 토끼가 병에 걸려 비칠거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담당수의사는 겁에 질려 황겁히 진찰하고나서 피를 뽑아 검사한다. 피속에는 리스테렐라세균이 흰 토끼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이 세균은 토끼의 병들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다.

어느덧 백혈구부대가 리스테렐라세균의 공격을 막아내며 치렬한 전투를 벌린다.

이 전투에서 백혈구부대가 지게 되면 토끼는 죽게 된다.

검은 부대인 세균무리들은 《토끼의 심장을 점령하자!》, 《토끼의 뇌수를 점령하자!》라는 프랑카드와 군기를 들고 사단종대를 지어 전진한다. 그럴수록 토끼는 할딱거리며 맥없이 늘어진다.

소녀수의사를 도와나선 수학박사, 물리박사, 화학박사, 의학박사들이 현미경으로 토끼의 체내를 들여다보며 소녀수의사로 하여금 금방 제조한 데핵산을 주사하게 한다. 토끼체내에서는 《백혈구공장》으로 데핵산이 들어가자 백혈구병사들이 완전무장을 갖추고 쏟아져나와 세균부대의 검은 독가스를 이겨내며 공격한다.

검은 세균부대는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다가 무질서하게 달아난다.

맹렬히 추격하는 백혈구부대… 이윽하여 토끼는 숨을 쉬며 버둥거린다. 살아난 토끼를 안고 기뻐하는 소녀수의사, 때를 같이 하여 견학단이 도착해서 굉장히 큰 흰 토끼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성공을 축하한다.

이 과학환상아동영화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토끼의 저항력, 백혈구의 힘이 약해지면 세균이 달려들듯이 우리가 긴장성을 늦추면 미국놈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는것을 어린이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켜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

계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주제를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중요한 주제령역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확고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원쑤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게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아동영화의 주제령역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작품창작에서 류의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화영화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관련된 직선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혁명전통과 관련된것도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투쟁을 취급한 심각한 작품들은 만화, 인형, 지형 영화로 만들지 말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과학환상만화, 과학환상지형, 과학환상인형 영화들에서 혁명전통물은 물론 조국해방전쟁과 같이 심각한 문제들은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과학환상아동영화자체의 특성과 관련된다. 과학환상 그림, 인형, 지형 영화들의 형상적특성은 조건적이며 가상적이라는데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산 인간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인형이나 그림 등이 사람들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인다. 인형이나 지형이 아무리 섬세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산 인간을 따를수 없으며 복잡한 감정세계와 심리적현상들의 전과정을 산 인간처럼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주제나 조국해방전쟁주제와 같은 심각한 내용을 과거회상형식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비속화될수 있고 그 형상은 예술적감화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과학환상 그림, 인형, 지형 영화제작을 위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들에서는 과거회상장면으로라도 혁명전통주제나 조국해방전쟁주제와 같은 심각한 내용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또한 동화적인것을 묘사대상으로 의인

화된 형상을 창조하므로 환상과 과장으로 일관되여있고 해학과 풍자적양상이 기본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주제나 조국해방전쟁주제와 같은 심각한 내용을 담게 되면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으며 내용과 양상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또한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우화를 가지고 만들기때문에 의인화와 과학환상동화적수법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립하는 문제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생리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을 왜소화, 비속화할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창작에서 류의하여야 할 문제는 또한 과학환상을 비속화하지 말며 생활에 발붙인 과학환상을 펼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물현상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고 우주세계를 비롯한 모든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통속적으로 똑똑히 깨우쳐주는것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가 반영하는 환상은 비현실적인 생활세계로서 앞으로 실현될수 있거나 실현될 가망이 큰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생활을 펼쳐주면서 그속에서 주체적인 인간의 힘의 결정적의의를 강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환상은 초자연적인 신비성을 보여주는데로 나가게 되고 어린이들에게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자연 및 사회 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사상을 넣어줄수 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류포되고있는 과학환상아동영화들을 보면 어느것이나를 막론하고 신비스러운 자연의 힘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인간이 만든 콤퓨터나 로보트, 자동기계들이 《폭동》을 일으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때문에 그 작품들을 읽고난 어린이들은 정신착란증에 걸려 콤퓨터를 까부시고 가지고놀던 자동놀이감인 《게모》등을 파괴해버리는 현상이 드문히 나타나고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내용의 비속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과학환상세계가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힘을 강조하고 그것을 보

여주기 위한데 복종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창작의 총적방향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주제령역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을 과학환상아동영화창작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第3절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창작의 사상미학적요구와 실현방도

어린이들의 년령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과학환상동화나 과학환상우화 같은것을 가지고 과학환상그림영화, 과학환상인형영화, 과학환상지형영화를 많이 만들어 그들에게 지적교양과 환상력배양,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비롯한 아동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사상미학적수준이 높게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창작의 사상미학적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만드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환상영화를 비롯한 아동영화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심리세계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과학기술지식을 주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만드는것은 작품창작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원칙적요구이며 후대교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어린이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기초우에서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지적수준, 심리적기호와 취미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인민학교 어린이들과 중학교 낮은반 학생들의 감정, 그들의 세계를 반영하여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수 있고 작품의 감화력을 높일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종자를 고루고 소재를 선택하며 주제

를 세우고 그것을 푸는 수법 등 작품형상전과정이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되여야 동심을 훌륭히 구현하여 흥미있는 과학환상아동영화로 되게 할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를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만들기 위한 방도는 우선 그들의 특성에 맞게 고운것과 미운것, 옳은것과 그른것, 선한것과 악한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좋은것》과 《나쁜것》으로 가려본다. 어린이들은 계급적원쑤들과 민족적원쑤들을 의례히 《나쁜놈》이라고 하고 근로인민대중과 혁명적인민들을 《좋은 사람》, 《우리편》이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또한 인간생활에 대하여서도 좋은것과 나쁜것, 옳은것과 그른것을 곱다, 밉다로 가려서 평가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소박한 판단은 인간생활을 계급적립장에서 보고 사고하는 계급의식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고운것과 미운것, 옳은것과 그른것, 선한것과 악한것은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단계의 내용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고운것과 미운것, 옳은것과 그른것, 선한것과 악한것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장면을 통하여 그러한 미적감정을 체험하게 하고 보다 높은 정서적상태의 표현들인 다양한 미적현상들을 파악할수 있는 감정정서를 가지게 하며 생활의 진실을 정서적으로 감득하게 한다.

고운것과 미운것,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로동계급적인 립장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흥미있는 과학환상속에서 선한것과 악한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도덕관념이 싹트고 과학의 초보적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인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른것, 정의와 부정의를 갈라볼줄 알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도덕적지향과 과학적지향을 발전시켜줄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를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학작품을 예술영화문학화하는 경향을 없애고 형상체계를 간단하고 선명하게 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영화를 예술영화화하는 경향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예술영화문학화하지 말데 대한 문제는 작품의 인물관계조직과 이야기줄거리 전개, 형상수법의 적용, 대사 등 영화문학형상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단순한 이야기를 간단하고 선명한 이야기줄거리로 전개하며 영화가 한두권이 되게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짧게 써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예술영화문학화하는 경향을 없애고 형상체계를 간단하고 선명하게 하여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만드는것은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창작의 중요한 방도로 된다.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사유활동이 빠르지 못하기때문에 한 작품안에 너무 많은 인물, 복잡한 사건과 사실들이 어려운 과학환상속에 들어가면 혼란에 빠질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작품의 내용을 리해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런 감흥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형상체계를 간단하고 선명하게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물관계를 단순하게 설정하는것이다.

최대의 단순성을 보장해야 할 요구로부터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주인공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인물들은 주인공의 행동선이 전개되여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대목에서만 등장시켜 관계를 맺게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하늘의 쇠돌》에서 의지가 강한 소년인 주인공의 행동선을 통하여 과학탐구에서는 절대로 나약해서는 안되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실천해야 성공할수 있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소년은 처음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떨어져내리는 별찌를 보고 저런것을 많이 모으면 긴장한 철문제를 풀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곁에 있던 그의 동무는 핀잔조로 그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일축해버린다. 주인공은 머리를 흔들며 대담하게 결심하고 한번 해보자고 한다. 의지가 약한 동

무도 반대하다가 끝내 주인공을 따라나서게 된다.

주인공소년은 현대화된 자석로케트를 부른다. 여기서 주인공은 자석로케트와 관계를 맺는다. 로케트는 그들을 싣고 우주공간을 가로세로 헤가르며 철운석들을 자동적으로 끌어당겨 수집한다. 그러다가 굉장히 큰 운석과 부딪쳐 로케트는 고장나게 된다. 의지가 약한 소년은 이제는 쇠돌이고 뭐고 죽게 되였다고 야단법석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곤난을 이겨내며 고장을 퇴치한다. 의지가 약한 소년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자고 하나 주인공은 운석산에 내려 탐사를 계속한다. 의지가 약한 아이는 그마저 잘못되는줄 알고 울며불며 야단이다.

주인공은 끝끝내 탐사에서 성공하고 우주에 떠다니는 모든 철운석을 일정한 정류소에 모아놓게 된다. 그의 대담한 결심과 행동으로 우주용광로가 건설되게 되며 우주정류소에서 필요한 철운석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쇠물을 녹여 각종 기계들을 만들게 된다.

이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주인공과 관계를 맺는 인물을 설정하였으나 꼭 필요한 대목에서만 등장시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곧바르고 선명하게 끌고나간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형상체계를 간단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이야기줄거리를 주인공의 운명을 따라 단순한 줄거리로 엮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 그려지는 과학환상동화적인 이야기는 단순하고 선명하며 변화무쌍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될 때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영화적형상으로 될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세계는 미래의 인간세계와 자연과학세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동화의 이야기는 의인화된 대상이 본래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재미있게 엮어져야 한다.

이야기흐름은 시간적인 순차성을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예술영화에서는 이야기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이야기가 전개되여가는 도중에 회상이 끼여들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는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다가 도중에 복잡한 회상을 끌어들이거나 사건을 전도시키는것은 고려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는 환상이야기를 시간적순차 그대로 끌고나가야 단순한 줄거리가 선명해진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한 인물의 운명선을 따라 시간적순차 그대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으면 순조롭고 명백한 장면을 펼쳐보일수 없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남수의 환상》에서는 주인공 남수의 생활선을 따라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엮어나갔다.

남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돼지를 길러 먹을것이 많은 바다에서 키우겠다는 환상을 한다. 그의 동무인 철수는 그것은 헛꿈이라고 하면서 도리머리를 흔든다.

남수는 최근에 감자에다가 도마도를 합쳐 새로운 큰 품종을 만들어낸것처럼 자신있으니 어서 과학궁전에 가서 그런 부문의 책을 보자고 한다. 철수는 단추만 누르면 모든것이 다 저절로 되는 자동화시대에 책을 봐서 뭘하는가고 하며 반대한다.

끝내 철수를 설복하여 함께 과학궁전에 간 남수는 수많은 자동기계조종단추를 능숙히 다루며 연구한다. 철수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해 자기도 다 아는것처럼 으시대며 아무 단추나 눌렀다가 로보트한테 봉변을 당한다.

남수는 철수의 그런 행동에 웃음으로 대하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나서 굉장히 큰 《고래돼지》를 만들기 위해 우선 바다에 나가 고래살점을 떼오자고 한다.

그들은 로케트비행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래를 찾는다. 남수가 고래를 발견하고 살짝 단추를 누르니 로케트비행기는 어느새 잠수함이 되여 고래를 추격한다.

철수는 이것을 보고 과학의 힘이 대단하다는것과 무엇이나 척척 해제끼는 남수가 돋보여 선망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의 이 생각은 남수가 고래를 추격하여 거의 따라잡게 되자 가지고 온 게로보트에게 지령을 주어 고래의 살점을 떼오게 하는 장면, 게로보트가 고래에게 삼키웠다가 남수의 지령을 받고 배속의

살점을 떼내가지고 뚫고나오는 장면, 그러다가 독수리발톱에 걸려 끌려가다가 남수의 그물권총사격으로 구원되는 장면 등을 보며 더욱 깊어진다.

남수는 게로보트를 찾아내여 떼내온 고래살점을 가지고 과학궁전에 돌아와서 배양기에 넣는다. 그리고 단추를 눌러 철수를 혼내우던 로보트—1호에게 돼지에게서 살점을 떼내여 배양기에 합칠것을 명령한다. 철수는 그렇게 무섭게 생각되던 로보트—1호가 남수의 말을 고분고분 집행하며 솜씨있게 일하는것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해마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고래살점과 돼지살점이 배양기속에서 혼합되여 《고래돼지》가 생기리라고는 당초에 믿지 않는다.

남수는 철수의 이 생각을 뒤집어엎으려는듯 자동기계조종단추를 꾹꾹 눌러 시동시킨다. 어느덧 텔레비죤화면에는 고래살점세포와 돼지살점세포가 엉켜돌아가며 합쳐지는것이 나타난다. 철수는 큰 눈을 껌벅이며 의아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고래돼지》가 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한참동안 계기들을 보며 배양기들을 조종하던 남수는 철수에게 배양기문을 열어보라고 이른다. 철수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안된다는 식으로 배양기앞에 다가가서 문을 열다가 그만 뒤로 나자빠진다. 대가리는 돼지모양이고 몸뚱이는 고래형태인 《괴물》이 뛰여나오며 껑충껑충 뛰여서 큰 물통으로 쑥 들어가는것이였다.

남수는 어리둥절해하는 철수를 보고 깔깔 웃어대며 저것이 《고래돼지》라고 대준다.

철수는 남수의 조종에 따라 다시 물통에서 기여나와 바다로 달려가는 굉장히 큰 《고래돼지》를 보면서 《야, 과학의 힘이 굉장하구나!》라고 감탄해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철수는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탐구하면 남수처럼 어떤 과학의 큰 대문도 척척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한 인물의 운명선을 따라 시간적순차대로 이야기줄거리가 전개되고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남수의 환상》은 시간적순차에 따라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하면서 환상이 시작되는 계기점을 계급적요구의

견지에서 잘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적대를 뚜렷이 세울수 있게 하여 어린이들에게 환상을 어떤 계기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환상이 전개되는 전과정과 환상의 매듭을 짓는 결속단계도 명백히 규정하고 펼쳐나감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환상을 전개하여 사상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확정하는 방향을 습득하도록 가르쳐주고있다.

이렇듯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이야기를 시간적순차대로 끌고나가야 어린 관객들이 환상을 시작하는 계기와 그 과정 및 결속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환상하는 법과 그 환상을 실현하는 방법을 체득할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적대도 명백히 세워나갈수 있게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이야기를 순조롭게 엮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전반부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 후반부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을 적용하는것이다.

전반부에서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심화시켜나가면서 그 관계속에서 환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형상해주어야 후반부에서 그것이 원만히 풀려 하나의 맺힌 이야기로 되며 작품의 주제사상이 강하게 드러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소녀수의사를 도운 박사들》에서는 전반부에서 특별실험을 하여 돼지만큼 큰 흰토끼를 얻어낸것과 그 흰토끼가 갑자기 병에 걸려 버둥거리는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을 길게 주고 후반부에서 여러 박사들의 도움으로 리스텔레라병균을 없애는 데핵산의 제조와 그 주입으로 살아나 중앙소년단견학단 성원들을 기쁘게 하는것으로 짧게 주었다. 전반부에서는 꼬마과학원에서 《냉이골종토끼》를 새로 길러내여 전국에 퍼뜨릴 계획으로 견학단을 맞을 준비를 하는것, 견학단이 떠났다는 소식을 받은 순간 흰토끼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것, 소녀 수의사가 안타까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검은 세균부대가 무장을 갖추고 뭐라고 떠들며 백혈구병사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히는것, 그 독살스러운 리스텔레라세균부

대의 작전과 군사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꼬마물리박사를 청하는것, 놈들의 말을 번역하기 위하여 만능전자계산기를 가지고있는 수학박사를 초빙하는것, 세균들의 비밀을 다 안 조건에서 의학박사를 불러다가 대책을 세우는것, 백혈구병사들로 하여금 세균부대의 독가스를 이겨내게 하기 위한 방독면을 만들려고 화학박사를 부르는것, 그런 준비를 하는동안 흰토끼는 마지막숨을 톺아쉬는데 《냉이꿀행》렬차는 중앙소년단견학단을 태우고 질풍처럼 달려오는것, 화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힘을 모아 만든 데핵산을 토끼에게 주사하는 소녀수의사, 토끼의 체내에서 데핵산을 받자 백혈구병사들을 무장시키는것, 이윽하여 검은 세균무리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반돌격으로 넘어가는 백혈구부대, 때를 같이 하여 숨을 내쉬는 흰토끼, 결국 구원되여 껑충 일어난다. 이 시각 마당으로 들어서는 견학단원들이 굉장히 큰 토끼를 보고 놀라며 꼬마과학원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렇게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주고 후반부에 가서 그것을 짧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순조롭게 엮었기때문에 인물형상이 인상깊게 안겨오고 주제사상적결론이 명백해지게 되였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이야기를 순조롭게, 알기 쉽게 엮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첫머리를 흥미있게 떼고 마감을 똑똑하고 크게 맺어주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맺어야 하는것만큼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창작에서도 첫 시작을 재미있게 하고 마감을 잘 결속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구성형식을 잘 살려쓰는것도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만드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대비의 구성형식은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특성을 살리는 효과적인 형식의 하나이다.

대비의 구성형식은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를 대비속에서 옳게 형상할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구성형식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소녀수의사를 도운 박사들》에서처럼 내용의 대비, 인물성격의 대비 등 대비의 구성형식은 장면형상과

화면형상을 창조하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 기초한 영화에서 형상의 선명성, 생동성을 보장하고 작품의 주제사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밖에도 반복의 형식, 대사가 많은 장면과 행동선이 강한 장면의 배합 또는 대조 등 다양한 구성형식을 과학환상동화적내용표현에 알맞게 살려쓰는것은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흐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만드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학환상동화적이야기를 극적으로 잘 엮어나가는것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의 형상체계를 간단하고 순조롭게 한다고 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평면으로 늘어놓아서는 안되며 이야기줄거리에만 의의를 부여하고 과학환상동화적인 성격창조를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는 생활의 정수를 담은 장면들이 펼쳐지며 과학환상동화적인 내용을 양식화된 인형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때문에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엮어나갈것을 요구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도 극조직은 감정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인물들의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따라 감정을 축적하고 그에 기초하여 폭발을 주어야 한다. 감정은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그 축적은 깊이있게 되여야 하며 폭발은 필연적인 계기에서 주어져야 한다. 이때 감정은 다정다감한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아야 하며 그것을 동심에 맞게 조직해나감으로써 주제사상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해주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에서는 곱등어의 생태적속성을 리용하여 초음파로 《지령》을 줌으로써 곱등어가 왕문어를 비롯한 맹어들의 침습을 막는 바다양어장의 《보초병》이 되게 하는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이 작품은 곱등어를 길들여 언제 덕을 보겠는가고 하면서 선장이 되여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꽝꽝 잡아오겠다던 부정인물이 시작은 보잘것 없는것이라 해도 차근차근 실속있게 해나가면 주인공처럼 큰일을 하게 된다는것을 인식해나가는 감정세계를 잘 조직해나

갔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만드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심리적인것보다 행동성이 강한 사건과 사실을 취급하며 보다 많이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동의 예술인 영화에서 동적인것은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인 경우에는 보다 더 행동적일것을 요구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이 특성을 옳게 살려 창작되여야 한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인민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에 심리적인 묘사보다 행동적인 묘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는 또한 등장인물의 특성으로 하여 인간의 내면세계, 심리의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는 외적인 행동이 강한 생활을 반영하게 해야 하며 과장된 행동이 많아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를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보통 1~2권 정도로서 10~15분 상영할수 있게끔 문학을 짧게 쓰는것도 하나의 형상방도로 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짧게 써야 하는것은 어린이들의 주의집중력이 아직 약하기때문이다. 오래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복잡한 과학환상내용과 긴 이야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명백하면서도 흥미있는 과학환상의 짧은 이야기가 더 의의를 가진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행동성이 강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간단하고 선명한 인간관계와 뚜렷한 줄거리로 엮으며 짧게 쓸 때라야만 고유한 특성을 살릴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의 사상미학적요구는 다음으로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우화를 가지고 과학환상의 세계속에서 의인화의 수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우화를 가지고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창작하는것은 인민학교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과학환상

아동영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우화는 다같이 고운것과 미운것, 옳은것과 그른것, 선한것과 악한것을 내용으로 하며 다 환상이 풍부하고 또한 의인화수법을 기본으로 하여 씌여진 흥미있는 이야기이다. 과학환상동화나 과학환상우화는 환상을 풍부하게 담고 의인화를 기본수법으로 하고있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나이가 어린 인민학교 어린이들의 심리와 미학적인 기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이다.

어린이들은 환상세계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고 생활에 대한 체험도 부족하기때문에 주위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꿈과 같이 신기한것으로 되여있다. 어린이들은 우주정복, 땅속세계탐색, 깊은 바다속의 자원개발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서 흔히 볼수 없거나 탐구되지 못한 분야 등 이러저러한 환상세계를 그려보며 아직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끝없이 공상하게 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환상하며 주위사물현상을 사람처럼 보는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과 사고방식은 동화적인 환상세계와 과학적인 환상세계를 요구하며 의인화된 형상을 요구하게 된다.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우화를 가지고 만든 과학환상아동영화는 동화적인 환상세계가 과학환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영화적으로 펼쳐지므로 조형적인 직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아동영화는 구체적이며 형상적인 사고가 앞서는 어린이들에게 생동한 직관이 되여 강한 침투력을 가지고 그들의 심장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의인화된 로보트와 로케트, 화학원소들과 기계, 기구들을 보면서 작품의 과학환상동화적인 세계에 쉽게 끌려들어가며 의인화된 사물현상들과 자연에서 의인화된 주인공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제기한 생활상문제들에 공감하고 흥분하게 되는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화면에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라렬하여 보여준다면 과학환상세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그것을 리해하기 힘들어하며 또한 깊은 감명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본질적인것에 집중시키고 과학환상세계속에서 동화적인 화폭으로 그려놓으면 어린 관중들은 옳고 그른것을 쉽게 분간해내게 되며 흥미를 가지고 작품의 세계에 잠기게 된다.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우화를 가지고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을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과학환상동화적인 종자를 옳게 잡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과학환상동화적인 형상을 창조하는 과학환상아동영화의 특성은 영화문학으로부터 영화연출, 촬영, 미술, 음악 등 영화를 창조하는 모든 공정들에서 그리고 모든 창조수단을 리용하는데서 다 살려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과학환상적특성과 동화적특성을 살리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는 영화에서 과학환상동화세계를 옳게 해결할수 있는 종자와 그에 맞는 동화적인 성격과 과학환상적인 이야기가 주어진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과학환상동화적인 종자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미학적대답이 쉽고 명백하게, 생활적으로 요약되여있어야 하며 과학환상과 동화적인 환상을 펼칠수 있는 요소, 과학환상속에서 의인화할수 있는 요소를 띠고있는것이여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소녀수의사를 도운 박사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비밀은 집체적힘을 모아야 더 빨리, 더 훌륭히 밝혀낼수 있다는것을 종자로 하고있다. 이 종자에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가 대비되고 집체적힘과 혼자 힘을 보여주는 의인화된 환상의 요소가 요약되여있다.

이러한 과학환상동화적인 종자는 종자를 골라잡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거하면서도 과학환상적인 안목과 동화적인 사색으로 생활을 보며 의인화할수 있는 대상들(리스텔레라세균, 백혈구, 데핵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잡았다.

과학환상동화적인 종자는 그에 알맞는 동화적인 인물을 옳게 설정하고 흥미있게 성격화하며 종자에 알맞는 과학환상적인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나감으로써 과학환상속에서 동화적형상으로 실현된다.

과학환상동화적인물을 옳게 설정하고 흥미있게 성격화하여야 영화화면우에 진실한 과학환상세계가 무리없이 펼쳐질수 있다. 과학환상동화세계는 구체적으로 과학환상세계속에서 동화적인물의 성격형상이다. 작가는 종자의 요구에 비추어 어떤 인물이 필요하겠는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물들을 어떤 기계나 기구, 화학원소 등 사물현상에 체현시켜 형상할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꾀마박사》에서는 발곡식의 왕인 강냉이를 과학환상동화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풍년을 불러올수 있게 하였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춤추는 풍년벌》에서는 벼할아버지, 남새아주머니를 못살게 구는 돌피와 잡초들을 의인화하여 설정함으로써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위력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과학환상 동화, 우화를 가지고 과학환상아동영화를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동화적환상과 과학적환상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여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려주는것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환상은 영화형상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자체의 고유한 특성인것만큼 동화적환상과 과학환상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작품형상의 가치를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과학환상동화에서의 환상은 미래에 펼쳐질 과학세계 또는 과장된 생활이다.

어린이들은 돼지만큼 큰 토끼며 한대에 열개 이상의 이삭이 달리는 왕강냉이를 상상해보는가 하면 우주정복과 땅속도 씽씽 내달리는 잠지함—지하로케트에 대하여서도 그려보군하는것이다. 이러한 환상은 현실에서는 볼수 없지만 근거있는것으로써 현대인들의 지향, 어린이들의 지향에 맞는 환상세계이다. 과학환상동화세계는 바로 어린이들의 이러한 생활적인 지향을 의인화의 수법에 의하여 펼쳐진 환상적인 과학세계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꾀마박사》에서 주인공들인 남이와 옥이가 강냉이 한대에 비자루같은 강냉이이삭이 5～6개씩 달리는 새 강냉이씨앗을 만드는것과 남이가 만든 약을 치니 강냉이대가 눈에 보일정도로 쑥쑥 자라는것,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 《곱등어를 길들

이는 소년》에서 굉장히 큰 《곱등어—돼지》를 배양해내는것 등은 다 어린이들의 생활적지향과 감정을 반영한 과학환상세계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환상은 생활적타당성을 가지고 진실하고 풍부하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 아동들의 기대에 충분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터무니 없는 환상을 꾸며내지 말아야 하며 진실로 예술의 높이에 닿는 과학적환상을 창조해야 한다.

과학적가설을 과학환상작품에 실현할 때 그것이 다 예술적환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동화적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 펼쳐지고 독자들의 정서를 조직하면서 인간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할 때만이 과학적가설, 근거있는 과학환상들은 진실로 예술적인 환상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은 특히 설교와 론증이 금물로 되는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화적환상은 과장과 상징, 공상과 랑만이 나래를 타고 어린이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해왔다. 주인공이 현대적인 과학적공상을 실현하여 신기한 려행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념원과 지향을 예술적으로 반영한것이다.

작품에 반영된 이러한 과학적환상은 그대로 어린 독자나 관중의 지향으로 되며 그들의 정신세계에 정서적으로 작용하는것이다.

모든 예술적환상을 시적이라고 부르는것도 이런 의미를 띠고 있다.

과학환상만화, 인형 및 지형 영화에서의 환상도 례외로 될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 환상은 보다 치밀한 조형성과 극성을 가지나 그 예술적본질과 사명에 있어서는 과학환상동화의 환상과 다를것이 없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의 환상은 어린 독자들의 감정을 조직하여 궁극에 가서는 그들의 념원을 기적적수단을 포함한 비실재적인 형식으로 작품의 줄거리에 실현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작품에 환상이 있는것 같으면서도 없는것 다시말하여 과학적환상이 아닌 환상, 동화적환상만이 채워지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과학환상》, 동화적환상도 아니고 과학적환상도 아닌것은 자유롭고 풍부하게 나래치는것이 아니라 어떤 틀에 묶이여있어 서두만 보면 종말의 처리가 빤히 내다보이는것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환상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환상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생활을 반영하고있으며 또 어린이들자체가 동적인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환상속에 인간들의 생활이 있고 어린이들의 꿈세계가 있다.

환상에는 인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이 현실세계보다 더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러므로 환상을 펼쳐나갈수 있는 정황과 조건은 다양하며 결국 환상을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한다는것자체가 생활론리에 맞지 않는것이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의 동화적환상은 과학환상세계속에서 생활의 론리에 따라 굴곡을 주면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발전시켜야 진실하게 될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환상은 또한 조형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환상동화에서의 환상세계가 곧 그대로 영화적형상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에서 빛전지소자가 들어있는 우표 한장을 몸에 붙이고 사람이 날아다니며 제 할 일을 한다거나 보통 땅크가 수천척지하막장을 씽씽 뚫고 다니며 석탄과 광석을 캐내온다면 그런 환상을 어느 정도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고려를 돌리지 않을수 없다. 산문에서 무리가 없던 환상이 화면형상으로 펼쳐질 때 그 산문에서 보던 진실감이 그대로 안겨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충분한 생활적타당성과 론리를 가지게 환상을 그리는것은 동화적인 아동과학환상영화형상창조의 미학적요구로 되는것이다.

과학환상만화, 인형 및 지형 영화에서는 환상문제뿐아니라 의인화문제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물론 의인화도 넓은 의미에서는 환상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인화를 위한 의인화로, 다시말하여 의인화자체로 그쳐서는 교양적목적을 로출시키거나 현실과 미래를 료해하고 인식하는데 떨어지기가 일쑤이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서 의인화는 보다 적극적인 환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속에 아동들의 념원과 지향이 나래치며 그들의 심장을 흥분시키는 환상으로 발전할 때만이 의인화가 빛을 낼수 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에 기초한 그림영화 《춤추는 풍년벌》에서 의인화된 벼할아버지, 강냉이아저씨, 남새아주머니와 그들의 행동선은 돌피를 비롯한 잡초들을 손쉽게 없애고 만풍년을 안아오는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위력을 돋구는것으로 안받침됨으로써 이 작품의 의인화는 아동들의 념원과 지향이 나래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환상을 구현하는 방도로 되고있다.

우리의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은 우에서 본 몇가지 문제를 작품창작실천에 옳게 구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지적교양을 주는데 중심을 두고 아동영화를 많이 창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기여하고있다.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작가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환상적형식들을 적극 탐구함으로써 과학환상아동영화문학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현대과학기술이 인민경제발전을 어떻게 추동하고있는가를 보여주며 과학기술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성인용 과학환상예술영화를 개척하기 위한 영화문학창작에도 관심을 돌리고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여야 할것이다.

제5장 과학환상생활탐구를 위한 창작가적자세

과학환상문학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끝없는 탐구심과 상상력을 키워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이 문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작가들의 임무는 실로 크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청소년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무들은 문학소조원들인데 앞으로 과학환상소설을 써볼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과학환상소설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가 없으며 또 그런 소설을 쓰려고 하는 작가들도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설이라고 하면 문학소설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을 과학의 세계에로 불러일으키는 과학소설이나 과학환상소설 같은것도 많이 써야 합니다.》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과학환상소설작품들을 훌륭히 써내는가, 써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직접 담당한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의 준비와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과학의 상상봉을 점령해나갈 욕망을 키워주며 과학연구의 착상을 불러일으키는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적극 창작함으로써 그들을 과학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혁명의 앞장에 서서 탐구생활을 선도하며 이

끌어나가는 시대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또한 작품에서 자주적인 인간의 참된 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투쟁하며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인간정신의 기사가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것만으로는 안되며 반드시 자신의 사상미학적준비와 자세를 철저히 갖추어야 할것이다.

제1절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창작기량을 높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창작가로서의 준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창작가로서의 준비와 자세를 갖추는 문제는 작가로서의 사회적존재와 창작의 성과여부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작품의 질은 작품을 쓰는 작가의 준비와 자세에 의하여 규정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준비와 자세는 일반문학작가의 경우와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그것은 과학환상문학이 자기의 고유한 형상적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일반문학작품과 과학환상문학작품의 고유한 맛은 바로 일반문학작가와 구별되는 과학환상문학작가의 고유한 준비와 자질로 하여 생겨나게 된다.

1) 정치사상적준비는 과학환상작품 창작의 근본담보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정치사상적준비와 자세를 갖추는데서 기본

은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의 총체로서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규정하며 그들의 인식과 실천활동을 제약하는것만큼 옳바른 세계관을 가져야만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받아들일수 있으며 실천활동을 정확히 벌려나갈수 있다.

객관세계와 인식, 인식과 실천의 이러한 관계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영화예술론》, 355페지)

혁명적인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작가의 과학적인 세계관, 혁명적세계관이 결정적역할을 논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작품을 쓰는 일은 가장 능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창조적활동이다. 작가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복잡한 생활을 과학환상문학적인 안목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며 그것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놀지 않을수 없게 된다. 같은 과학적가설에 기초한 생활소재라도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사상의식에 따라 작품이 서로 다르게 되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례로 최근 세계천문학계의 주목을 끌며 경쟁적으로 탐구하고있는 《태양반성가설》 즉 태양과 짝을 뭇고있는 수별을 찾아내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의견상이가 존재하고있다.

실존주의를 제창하는 과학환상문학가들은 태양반성인 수별이 태양주위를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돌 때마다 《오오르트별구름》에 의한 운석비가 쏟아져내려 지구상의 생물이 멸족되는데 그 주기는 2천 6백만년이라고 자기의 《작품》들에 쓰고있다.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어느 한 과학환상문학작가는 과학환상장편소설 《불타는 천체》의 초고에서 청년과학자들의 피타는 탐구와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로 《운석비》는 철저히 극복되고 인간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우주는 점차 개조, 변혁, 정복되여나간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실감있게 그려내고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사상적준비정도는 작품의 질을 규정하는

결정적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의 정치사상적견해이다. 미학적견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사상적관점과 립장에 의하여 규정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져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져야 자연과 사회현상들을 당정책적견지에서 분석평가할수 있게 되며 생활이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에 대한 옳은 립장과 독자적인 주견을 세울수 있다.

앞날에 펼쳐질 과학환상속에서 생활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직업은 미래의 인간들의 생활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특성으로부터 창조성을 띠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는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상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각이한 인간이 등장하게 되고 복잡하게 얽혀지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며 사회적성격을 띤 새로운 인간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과학환상문학작가에 의하여 설정되는 인간관계와 그 해결, 작가에 의하여 주장되는 인간문제와 매개 인물형상 등 모든것을 안고있는 과학환상세계는 작가의 정치사상적립장과 견해의 반영으로 되는것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창작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인 경우 현실생활과 그속에 있는 실재한 인간전형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견과 판단에 기초하여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미래의 인간들과 그 생활을 무리없이 그려야 하는 특성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당정책적안목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어느 한 분야의 당정책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당정책들에 대해서도 깊이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당정책적문제들도 언제나 민감하게 받아물고 창작에 림해야 한다. 특히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은 현시기 문학예술부문앞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문예사상리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문학전문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문예사상은 우리 시대의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적지침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의 기초이며 창작 전과정의 지침이고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리론을 옳게 체득하지 못하고서는 당이 요구하는 우리 식의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쓸수 없으며 창작활동에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창작가로서의 사상미학적자세를 옳게 갖추자면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특히 과학환상문학부문에 주신 말씀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창작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또한 과학기술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과학기술적내용을 구현하는 특성으로부터 어떤 과학환상적내용을 취사선택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에는 씨리우스성좌나 북빙양을 탐험하는 과학환상적내용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

학환상을 펼쳐나가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과학기술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식의 과학환상을 한껏 펼쳐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야말로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모든 과학환상적 내용들을 정확히 취사선택하고 참신하게 형상해나갈수 있는 열쇠로 되는것이다.

2) 과학자의 안목과 창작가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자면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과 함께 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가는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높은 예술기량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예술창작으로써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것만큼 예술기량을 훌륭하게 갖추는것은 필수적요구이다.》(《영화예술론》, 357페지)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예술적기량을 높이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기량은 작품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하게 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된다. 작가가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창작적열정에 불타고있다고 해도 형상능력이 없거나 모자란다면 그것을 감동깊게 형상해낼수 없다. 종자에는 사상적알맹이가 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꽃피워내는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도 있는것만큼 과학환상문학작가가 높은 정치적안목과 함께 예술기량도 훌륭히 갖추고있어야 형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기량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결합될 때에만 참다운 창조적힘으로 될수 있다. 문학만 알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르는 사람은 혁명적과학환상문학작가가 될수 없으며 순수 기량만 가지고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이 다같이 보장된 가치있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 훌륭한 과학환상문학작품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함께 자연과 사회, 과학과 기술, 문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예술적재능을 겸비하고있는 작가에 의해서만 창작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하자면 우선 다방면적으로 박식하게 준비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은 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작가가 아는것이 많아야만 그가 쓰는 과학환상문학작품에 인간생활이 여러모로 풍부하게 담겨진다. 따라서 독자들이 그 작품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될뿐아니라 과학지식과 미래의 과학발전추세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또한 아는것이 많아야 창작의 높은 속도도 보장할수 있다. 머리에 든것이 없을 때에는 결코 정열도 생겨날수 없다.

결국 창작가의 넓고 깊은 지식은 창작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여러가지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문학의 한 형태인 과학환상문학은 산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그리는것을 본성적요구로 한다. 인간생활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이 없이는 좋은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써내지 못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자기의 주되는 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활체험을 잘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과학기술생활을 체험하고 생활의 본질을 체득한 사람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창작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모르고서는 창작적충동이 생길수 없고 따라서 과학환상작품도 쓸수 없다. 창작적충동과 흥분은 과학기술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찾아쥐였을 때, 그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울수 있는 흥미있고 경제적가치가 있는 과학적환상을 발견하였을 때 생겨난다.

과학기술생활에 대한 체험이 없이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하겠다는것은 한갖 허영심에 불과한것으로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과학기술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탐구생활을 깊이 체험하면서 연구안뿐아니라 문헌자료, 해당한 문제와 관련한 세계 과학발전추세와 동향까지도 세심히 연구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불타는 열정과 충동으로부터 붓을 들어야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과학탐구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과학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의 형식은 생활을 잘 알며 생활의 본질을 꿰뚫고있는 작가에 의해서만 새롭게 창조된다. 생활에 기초하고 생활에 가깝게 창조된 과학환상형식이라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비위에 맞을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창작적허구와 과학환상능력도 생활을 잘 알고 세계 과학발전추세와 동향도 잘 알 때라야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다.

생활에 발붙이지 못한 허구는 진실하고 가식없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없게 한다. 아무리 박식하고 《재간》있는 작가라 하더라도 생활을 떠나서는 그 어떤 예술적형상도 창조할수 없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허구나 환상은 본질에 있어서 깊고 폭넓은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발양된다.

과학환상문학작품형상창조의 기본수단인 언어도 작가의 폭넓은 생활체험속에서만 얻을수 있다. 형상성, 서정성, 생동성, 과학성을 가진 과학환상문학의 언어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적인 언어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의 언어는 일반문학작품과는 달리 과학술어들이 작가에 의하여 다듬어진것으로써 쓰이게 된다.

표현성이 강한 성구나 속담뿐아니라 과학환상세계를 흥미있고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들에도 사실에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풍부한 생활경험과 교훈들이 집약되여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에서 형상성, 서정성, 생동성을 가진 언어로 환상세계를 눈앞에 그려보듯이 풍만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즐겨쓰는 말과 과학기술용어들을 귀에 익혀야 하며 그것을 작가의 언어로 재가공하여 살려써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환상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가의 기량도 생활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과학자,기술자들의 생활은 과학환상작품을 낳는 모체로 되므로 작가는 반드시 들끓는 과학탐구현장에 튼튼히 발붙이고 탐구생활을 풍부히 체험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또한 자연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일반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들도 경우에 따라 과학자의 생활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취급하고있으므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하지만 과학환상문학작가인 경우에는 그것이 필수적조건으로 되고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과학자나 기술자들 못지 않게 풍부한 자연과학지식을 소유하여야 품위있는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과학지식이 넓지 못하다보니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좋은 과학환상소설들을 써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것만 번역출판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환상소설을 출판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작가들이 현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하며 출판사의 편집일군들도 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환상소설을 비롯한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작가들이 과학기술지식이 넓지 못하고 세계 과학발전추세와 동향도 잘 알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함으로써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쓸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독서의 범위를 넓혀 꾸준히 학습하고 탐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나 세계적으로 공인된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의 구성을 보면 오래동안 과학연구사업을 하던 교수, 박사들이나 전문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자체가 그만큼 과학기술지식에 해박하여야 한다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물론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문학적인 기량이 있는 과학자나 기술자들만 쓸수 있다는것은 아니다. 일반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도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해당한 부문의 세계 과학발전추세와 동향을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다. 창작경험은 일반 문학작가들과 통신원들이 과학자에게서 배우고 과학기술서적을 탐독한 결과 중편과학환상소설 《두개의 화살》이나 단편과학환상소설집들인 《번개잡이 비행선》, 《열을 내는 꽃》 등을 써낸 좋은 실례를 가지고있다. 문제는 작가들이 과학환상문학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과학기술서적을 탐독함으로써 작가적인 상상력을 키워 대담하게 창작하는것이다. 작가는 과학자의 울타리안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대담하게 환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야 한다. 날아야 할 공간은 무한대하다. 땅속으로, 바다속으로, 우주공간으로, 분자생물학분야로, 전자공학분야로 날아야 할 높이와 심도에는 한정이 없다. 작가는 과학자가 이미 명백히 알고있는 문제에서만 종자를 찾을것이 아니라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을 탐구하고 대담한 환상을 펼쳐 자기의 작품에 새로운 과학적가설을 제기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과학환상문학작가는 과학자에게 새로운 연구의 실마리를 쥐여주게 되며 그로부터 배우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배워주는것으로 하여 과학자의 존경을 받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과학으로써 확고부동하게 증명된것이 아니

고 증명을 요하는 문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것이라면 얼마든지 리치에 맞는 제나름의 과학환상을 대담하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상이야말로 과학자가 할수 없는 과학환상문학작가의 특전이라고 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대담하게 주견을 살려 과학환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도 자연과학지식을 다방면적으로 깊이있게 소유하여야 하며 과학자들과 늘 접촉하여 세계과학발전추세와 동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박식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의 범위를 당정책학습과 문학작품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여러 부문은 물론 그 세부화된 전공분야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정독과 다독을 옳게 배합하면서 독서를 생활화, 습성화하여 자연과학의 원리와 법칙들, 자연현상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다차원적분방정식이나 수리공학적인 상미분방정식의 해석과 풀이방법 등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문지식을 그대로 소유할수는 없지만 부문과학의 기본원리와 법칙들에 기초한 과학적환상을 한껏 펼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이밖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치는 다방면적인 박식가로 준비되여 백가지, 천가지를 알고 하나를 가치있게 써내는 창작가가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하자면 또한 감수성과 형상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새것과 아름다운것을 민감하게 감수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과학탐구현장과 연구생활에 침투하여도 참신하고 독특한 것을 포착해낼수 없다.

작가적감수력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당적안목과 미학적관점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당적이고 계급적인 미학관이 바로서야 무엇을 새로운것으로 보고 무엇을 아름다운것, 숭고한것으로 보는가 하는 기본문제가 해결된다.

생활속에서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 무엇에 흥분하고 이끌리며 심장으로 받아들여 과학환상세계속에서 그것을 체현하는가 하는 감수성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작가의 생활체험에 대한 관점과 태도, 미학적리상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작가가 감수성을 키우려면 선차적으로 사상미학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연구사업과 모든 생활을 손님격이나 관조적으로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대해야 한다.

생활을 애착을 가지고 뜨겁고 열렬하게 대하게 될 때 생활긍정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며 탐구생활속에서 새것과 아름다운것, 영웅적이고 숭고한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 옹호자로 나서게 될뿐아니라 작가의 감성적인 침투도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생활에 친숙해지면질수록 작가의 현실긍정의 열정이 높아지게 되며 미래의 생활에 대한 례찬과 애정의 감정이 승화되게 된다. 이에 따라 새것과 아름다운것, 숭고하고 영웅적인것에 대한 과학환상문학작가의 반응, 감수성도 필연적으로 높아지기마련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또한 형상력을 키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형상력을 높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측면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첫째 측면은 생활속에서 관찰과 체험의 대상을 어떻게 형상적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측면이고 다른 한 측면은 이미 표상적으로 파악된것을 언어를 통해 어떻게 형상적으로 그려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한 파악은 수학이나 물리학, 류체공학 등에서의 론리적인 파악과는 그 방식을 달리한다. 물론 과학환상문학작가인 경우에도 분석과 추리가 동반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상미학적인 분석과 추리로서의 구체적인 표상작업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표상적분석을 여러모로 많이 해보는 과정에 작가적인 형상력이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한 표상분석과 그것을 낳게 하는 요

인인 심리적충격에 대한 감성적인 추리 등을 깊이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활속에서 사람들의 개성적특징에 대한 파악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는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하여 외형으로부터 성격적특징에 이르기까지 대조되는 인간들을 깊이 파악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창작가적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한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탐구해야 하며 언제나 창조의 새 세계를 펼쳐나가는 창작적열정과 흥분을 간직하고있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가적자세의 기본내용이 창작가적인 주견과 대담성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주견은 창작가의 안목과 신념의 확고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작가의 대담성은 혁명적의지에 기초를 둔 창작에서의 전개력으로 나타난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주견과 대담성은 그것이 없이는 결코 과학환상문학의 불모지를 개척할수 없는 작가의 창조정신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창작가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상품제작공을 갈라놓는 근본표징으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자신의 정치적안목과 미학적견해에 립각하여 과학연구생활을 분석하고 일반화하며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데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창작적주견과 대담성은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주인다운 태도의 표현이며 작가를 참다운 의미에서 창작가로 존재할수 있게 하는 사상의지적품성으로 된다.

바로 이것이 창작가적자세의 기본을 이룬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창작가적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신념으로 삼아야 하며 창작적능력과 자질을 높여야

한다.

풍부한 창작적자질과 기량은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을 주며 작품창작에서 대담성을 발휘할수 있는 실제적담보를 준다.

창작적능력이 있어야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수 있는 힘을 가지며 창조적인 존재로 될수 있다.

자질이 낮고 창작적능력이 약한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창작적사고에서 제한을 받아 주견을 세우기 힘들뿐아니라 특히 창작에서 대담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창작적기량과 자질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자세를 옳바로 세울수 없으며 작품창작에서 소극성과 모험주의의 두 극단에서 우왕좌왕할수밖에 없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의 독창성과 창작적개성은 생활연구와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의 탐구,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해결, 얽음새조직과 감정조직, 정황과 계기설정, 대화와 생활세부 등 창작의 전과정에 걸쳐 구체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미쳐야 한다.

그래야 창작적개성을 옳게 발휘할수 있고 류사성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으며 창작된 매개 과학환상문학작품이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질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창작적개성을 옳게 발휘하며 류사성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100명의 작가가 쓴 100편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저마다 특색있는 독특한 얼굴을 가지며 한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쓴 100편의 작품이 다 자기의 특색있는 얼굴을 가질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또한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작품을 성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창작적열정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의 창작과정은 불타는 창작적 열정과 기백으로 가득찬 정력적인 투쟁과정으로 된다. 창작적열정이 불타오르고 기백이 넘쳐날 때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침식도 잊고 작품창작에 열중하게 되며 예술적환상이 나래쳐 작품창작을 다그칠수 있게 된다.

창작적열정에 관한 문제는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사상적립장에 관한 문제이며 생활을 대하는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작가가 창작적열정을 가지자면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자각하게 되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었을뿐아니라 혁명적인 문예전사로 키워주는 당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창작적성과로써 보답하려는 창작적열정에 불타오르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의 창작적열정이 불타올라야 창작에서 속도전도 벌릴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깊은 사색과 불타는 열정, 긴장하고 완강한 창조적노력은 작품창작에서 상상할수 없이 높은 속도를 낳게 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비할바없이 높이는 결정적요인이다. 비록 짧은 시일이라고 하여도 과학환상문학작가가 높은 정치적자각과 커다란 흥분과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계속 대담하게 돌진할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것이다. 반대로 정치적자각이 부족하고 창작적열정이 없는 과학환상문학작가는 많은 시일이 걸려도 결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는 종자를 바로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속도전을 벌려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리면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것은 창작의 《자유화》를 부르짖는 부르죠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던 작가들에게 사상적량식을 주고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속도전의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을 때 그들이 몇배나 더 큰 힘

을 내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낸 좋은 경험이 있다.

최근년간에는 과학환상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작가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신진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의 경우에도 짧은 시일안에 여러가지 장중편급의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써내고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88년 9월 6일 중편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창작심의에서 나타난 이러저러한 문제를 보고받으시고 주신 방침과 1988년 10월 5일 과학환상문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대책안을 비준해주신 이후 과학환상문학작가들속에서는 훌륭한 창작성과를 위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의 모든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속도전의 선결조건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고 작품을 파악한 다음에는 대담하게 전격전을 벌려야 하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과학환상문학작품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통하여 낡은 창작기풍과 생활습성을 버리고 언제나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워나감으로써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은 속도전을 절대로 일시적인 돌격전투식으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창작사업으로 되게 하며 그에 버릇되고 재미가 붙어서 속도전을 하지 않고는 못배기게 습관됨으로써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제2절 과학탐구생활속에서 인간수업을 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가의 생활체험을 강화하는것이 과학환상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기본요구를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하여야 인간학이 나오지 허공에 떠서 어떻게 인간학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과학환상문학이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만드는 여기에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 인식적기능과 함께 교양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인간학의 기본요구는 산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이다.

미래의 인간들과 그 생활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론리로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생활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형상적으로 그린다는데 과학환상문학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 특징으로 하여 과학환상문학은 인간학으로 되는것이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미래에 살게 될 자주적인 인간과 그들에 의하여 마련되는 아름답고 혁명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낼데 대한 인간학의 기본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오늘의 인간생활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험한데 기초하여 앞날에 펼쳐질 과학환상세계에 따르는 인간성격을 규정하고 그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이럴 때라야만 허공에 뜬 막연한 환상문학이 아니라 생활에 발붙인 과학적환상문학을 창조해낼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 인간수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작품에 그려질 미래의 인간과 그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밑천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되며 품위있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생활체험을 강화하는것이 사상예술적으

로 훌륭한 작품창작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시대의 요구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지향에 맞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은 작가들이 주체사실주의에 의거함으로써만 창작될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고수하는 문제를 떠나서 실현될수 없다. 그런데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려면 반드시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탐구적인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미래의 인간성격과 그 생활을 형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속에 들어가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제나름의 환상적인 생활과 환상적인 인간을 그려나간다면 불피코 미래의 생활을 허황하게 과장하거나 외곡하여 그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로부터 리탈하게 된다.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개인의 취미본위로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부르죠아적, 수정주의적 창작수법으로서 주체사실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오직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과학기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탐구현장에 들어가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한 기초우에서 작품창작을 진행하여야만 과학환상문학창작에서 사실주의와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창작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현실생활에 발붙인 과학환상을 자유분방하게 펼친 우리 식의 과학환상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창작실천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생활체험을 깊이있게 하여야만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종자를 똑바로 잡을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종자는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과학탐구현장에 깊이 들어가 과학자, 기술자

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하고 연구함으로써만 제때에 똑바로 잡아쥘수 있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의 종자는 작가의 머리속에 미리부터 주어져있는것이 아니라 최신과학기술이 탐구되고 개발되는 실생활속에 있다.

우리 인민경제발전에 의의가 있고 비반복적이며 참신한 종자는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현실에 일상적으로 들어가 과학자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연구함으로써만 제때에 똑바로 잡아쥘수 있다.

생활체험은 과학환상문학작가들로 하여금 종자를 똑바로 잡아쥘수 있게 할뿐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준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과학적가설이나 세계적발명을 한 탐구자의 구체적인 생활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가지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과학환상문학작품을 꾸미기 시작한다면 추상적이며 비과학적인 개념밖에는 더 나올것이 없다.

앞날에 펼쳐질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각이한 인간들의 참모습을 현실속에 있는 전형들에 기초하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형상으로 보여줄대신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형상을 추상적으로 고안해낸다면 이것은 사실주의가 아니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과학환상문학작품이 품위있게 창작되자면 현실에 발붙인 과학환상세계속에서 인간과 그 생활을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인식교양에 이바지되게끔 진실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과학기술탐구현장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체험하는것은 과학환상문학작품형상에 필요한 산 자료와 생활을 제때에 찾아낼수 있게 할뿐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창조와 인간관계의 설정, 사건구성과 이야기줄거리 전개, 극적론리의 추구와 감정조직 등 모든 형상작업을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가기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들끓는 과학기술전초선에 깊이 들어가 첨단기술이 개발되며 그 성과

들이 도입될뿐아니라 새로운 착상과 가설을 세우는 등 여러가지 탐구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연구하는것이 종자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형상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게 하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우리 시대의 요구와 청소년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지향에 맞는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해내기 위하여서는 체험을 생활화, 정상화하며 창작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뿐아니라 여러가지 생활을 전면적으로 체험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기 위하여서는 또한 창작적사색을 깊이하면서 과학기술탐구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여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면서 생활체험을 진지하게 해나갈 때 생활의 본질적내용과 특징을 심장으로 파악하게 되며 의의있는 새로운 종자를 잡아쥐게 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체득하게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깊은 창작적사색에 기초하여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는것은 생활체험자체를 실속있게 진행하게 할뿐아니라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과학환상문학작가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예술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면서 창작활동을 벌려나갈 때 과학환상문학창작사업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날것이며 놀랄만한 창작적성과가 이룩될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과학환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내며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환상문학을 세계과학환상문학의 최첨단에 올려세우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맺 는 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것은 인류의 가장 절실한 념원이며 이 념원을 실현하는것은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과학기술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과학기술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해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과학지식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가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과학기술세계에 대하여 환상적으로 그려보고있다.

과학적환상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적조건에서 과학환상문학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새로운 과학세계, 미지의 과학분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될 미래의 생활에 대하여 환상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흥미있고 행복한 일이며 현대인들의 숭고한 의무의 하나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전면적으로 꽃펴나고있는 사람들의 과학적환상은 과학환상문학창작의 비옥한 터전으로, 훌륭한 모체로 된다.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토대하여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과학환상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내는것은 사람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심어주고 보다 휘황찬

란한 미래를 앞당겨가려는 지향과 열정을 안겨주며 사람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문명하고 발전된 사회적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성스럽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작가들은 이 창작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류의 진보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연구(18)

과학환상문학창작

저 자	준박사 황정상
편 집	계 여 제
교 정	김 성 희
낸 곳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93년 1월 30일
발 행	1993년 2월 10일

ㄱ—26664